

# CBETA電子佛典集成

---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eBook

J29nB239


## 吹萬禪師語錄

明 廣真說

燈來重編（依駒本印）

財團  
法人

佛教電子佛典基金會



# 目次

- [編輯說明](#)
- [章節目次](#)
  - [序](#)
    - [熊汝學序](#)
    - [沈奕瑋序](#)
  - [重刻疏](#)
  - [目錄](#)
  - [上堂一](#)
  - [上堂二](#)
  - [普說](#)
  - [小參](#)
  - [示眾](#)
  - [茶話](#)
  - [法語](#)
  - [入堂](#)
  - [入室](#)
  - [勘辨](#)
  - [問答](#)
    - [僧問](#)
    - [答漢月禪師四問](#)
    - [問漢月禪師四問](#)
    - [擬漢月禪師答陳學憲十七問](#)
  - [頌古一](#)
  - [頌古二](#)
  - [偈一](#)
    - [示監院](#)
    - [示副寺](#)
    - [示典座](#)
    - [示知客](#)
    - [示雜辦](#)
    - [示侍者](#)
    - [悼宗旨接續之艱](#)
    - [採薪](#)
    - [看錄](#)

- [念佛](#)
- [睹楞伽三昧](#)
- [懶說法](#)
- [懶會客](#)
- [懶坐禪](#)
- [陴座擊鼓](#)
- [破論宗](#)
- [破疑](#)
- [閱華嚴經](#)
- [精進](#)
- [破唯識](#)
- [鑄釋伽如來像](#)
- [理行二人](#)
- [寬柔](#)
- [答客問](#)
- [日用偈](#)
  - [引](#)
  - [晨昏早起](#)
  - [止靜坐禪](#)
  - [放參經行](#)
  - [念佛應供](#)
  - [晚課念誦](#)
  - [垂簾吉祥](#)
- [看經](#)
- [問答](#)
- [雙開竹二首](#)
- [示蔚西堂](#)
- [惺幼學](#)
- [美首座西堂秉拂問答](#)
- [偈二](#)
  - [識楞嚴傳命](#)
  - [盂蘭盆偈](#)
  - [五蘊十二因緣偈](#)
  - [惺學人十八偈](#)
  - [示眾偈](#)
  - [禱雨有應](#)
  - [物我偈](#)
  - [坐禪](#)

- [閱寒山詩數偈](#)
- [示學人](#)
- [亡僧感寓](#)
- [病中受藥偈似羽雷居士](#)
- [飛流天鼓偈](#)
- [靜坐聞鳩聲](#)
- [淫雨](#)
- [山中煙雨有感](#)
- [雲山偈](#)
- [簡古人書字偈](#)
- [示蔚西堂四偈](#)
- [示行腳僧](#)
- [實行偈](#)
- [示明寔禪人刺血寫法華經](#)
- [示東旭禪人二首](#)
- [觀桃花十首](#)
- [觀雪](#)
- [觀竹](#)
- [觀蘭](#)
- [觀杏](#)
- [浪花](#)
- [示燈世](#)
- [無我為偈](#)
- [擬金粟老人不離山偈](#)
- [天雨天晴](#)
- [閒偈](#)
- [如用之四偈](#)
- [示學人](#)
- [乍寒乍熱](#)
- [山童採得木子…](#)
- [佛事](#)
- [讚](#)
  - [彌勒](#)
  - [達磨初祖](#)
  - [文殊掃象圖](#)
  - [船子和尚](#)
  - [酒仙遇賢禪師](#)
- [書問](#)

- [復田侍御鍾衡](#)
- [復田別駕素庵](#)
- [復高侍御枝樓](#)
- [復三峰漢月禪師](#)
- [復劉孝廉墨仙](#)
- [復破山禪師](#)
- [復灼然上座](#)
- [復雪影禪人](#)
- [與陳太史雪灘](#)
- [復瞿孝廉不荒](#)
- [復鄂陵能李三孝廉](#)
- [上董老師](#)
- [復隱然法子](#)
- [與蒼石禪人](#)
- [與江陵開子關主](#)
- [復明府尹西有](#)
- [復春元古貌符](#)
- [復尹方伯惺麓](#)
- [詩一](#)
  - [自序](#)
  - [毛詩擬作](#)
  - [閒步口占](#)
  - [病中題](#)
  - [過明峰庵](#)
  - [日影早照](#)
  - [步劉墨仙來韻](#)
  - [示素野侍者傳萬峰書至](#)
  - [示瀚侍者回南浦](#)
  - [雪中有感](#)
  - [病中即事](#)
  - [人日與友談心](#)
  - [過小江步武陵湯負丞韻](#)
  - [月梅](#)
  - [雪梅](#)
  - [風梅](#)
  - [雨梅](#)
  - [夜宿林間二首](#)
  - [午坐松石二首](#)

- [春日早望](#)
- [巴臺四景](#)
  - [宴如巖畔](#)
  - [小溪流水](#)
  - [嶺頭晚眺](#)
  - [竹徑觀漁](#)
- [晚眺虹蜺二首](#)
- [雲來四景](#)
  - [瑞色朝光](#)
  - [團峰得月](#)
  - [西回射白](#)
  - [伏案嘯猊](#)
- [興龍四景](#)
  - [溪口連江](#)
  - [峰頭古柏](#)
  - [夜月蒼池](#)
  - [橫畔跣趺](#)
- [拙度禪人晚獻芳梅](#)
- [午日三首](#)
- [早步四首](#)
- [寄玄密學人](#)
- [與眾學人集溪邊](#)
- [讀花神三妙記](#)
- [讀紅梅記二首](#)
- [中秋無月](#)
- [禪僧月](#)
- [農僧月](#)
- [漁僧月](#)
- [詩僧月](#)
- [秋日宿胡灘蘭若](#)
- [夜發小江駟](#)
- [西霞晚望](#)
- [竹枝詞](#)
- [楊柳詞](#)
- [途中感賦五首](#)
- [四景回文](#)
- [春日對殘雪](#)
- [竹林清坐](#)

- [過菊隱庵](#)
- [送學人](#)
- [贈張隱君居白飲洞四首](#)
- [題蟾影禪人](#)
- [春日對桃花](#)
- [孟春過景德寺二首](#)
- [寄玄密禪人](#)
- [春雪偶作](#)
- [觀臘梅](#)
- [月下早發花林](#)
- [山居四首](#)
- [白魚溪夜坐](#)
- [燈常之海上](#)
- [與得心禪人集洛書石四首](#)
- [擬步太白子夜吳歌](#)
- [歲暮過石坪庵訪大休法師坐興](#)
- [游潭驛洞次唐人李長吉筓筓引韻](#)
- [東門行化衡見訪賦似](#)
- [君子行賦似正則法師](#)
- [將進酒別贈馬郡侯遷陞](#)
- [冬日游白帝城](#)
- [集量虛南宗二禪人庵中](#)
- [沙市舟中晚望羅伽室感懷雪照師](#)
- [過廬山訪中如居士](#)
- [山居](#)
- [春日游陸宣公墓步陳中丞韻](#)
- [答張隱君](#)
- [野望步唐人韻](#)
- [次李魚鱗題洛伽韻](#)
- [春日太寰居士見訪坐中即事](#)
- [山中即事](#)
- [春山野望羽霄居士共集](#)
- [平都示灼然法子](#)
- [過浙師巖訪雪丘禪人](#)
- [過豐陵訪李文學昆玉](#)
- [歲寒觀松柏](#)
- [忠南林別駕見訪敘別](#)
- [忠南馬郡侯見訪](#)

- [贈徐白麟](#)
- [感賦](#)
- [寓夔門感賦](#)
- [冬日訪余隱居](#)
- [詩二](#)
  - [弔巖八景](#)
    - [薄刀峰嶺](#)
    - [大願王閣](#)
    - [弔巖老僧](#)
    - [岫裏天池](#)
    - [峭壁風濤](#)
    - [白臺早瑞](#)
    - [暮野宵燈](#)
    - [鐙煙茶圃](#)
  - [晚眺](#)
  - [賦感](#)
  - [似張隱君過弔巖](#)
  - [似瞿孝廉來韻](#)
  - [將進酒似張隱君入山](#)
  - [秋興](#)
  - [秋賦](#)
  - [山夜](#)
  - [秋夜踏月訪友](#)
  - [坐中感賦](#)
  - [病中讀黃太史書](#)
  - [話別無心師弟](#)
  - [觀李花即事](#)
  - [日用有感](#)
  - [午日山雨](#)
  - [訪潭隱君宿雨墨齋](#)
  - [過楠木坡](#)
  - [制中即事](#)
  - [詠雪](#)
  - [夜入堂同眾飲茗](#)
  - [過花林訪秦總戎](#)
  - [上平都訪古春元](#)
  - [送楊師學應試](#)
  - [代輝侍者冬日懷蔚師叔移居並勸歸](#)



- [代蔚然作冬日移居別業](#)
- [代作曾太守德政](#)
- [代作張別駕德政二首](#)
- [寄懷胡靈谷](#)
- [代作賀張別駕壽](#)
- [喜雨](#)
- [山中久雨](#)
- [過江陵訪黃太學](#)
- [雨泊香口](#)
- [金陵賦感四首](#)
- [報恩塔](#)
- [武帝臺城](#)
- [采石磯](#)
- [黃鶴樓](#)
- [巫山](#)
- [宿玄密禪社](#)
- [夔門訪陳文學](#)
- [喜復渝城](#)
- [游岑公洞](#)
- [病中偶作](#)
- [春日策杖巴臺步杜甫贈王郎司直韻](#)
- [讀蜀中廣記](#)
- [窗隙吟](#)
- [宿萬家庵有感](#)
- [汪見盤見訪](#)
- [春雪古詩](#)
- [代作曾太守德政](#)
- [讀花神三妙記](#)
- [題雷善女西化](#)
- [秋日田侍御見召賦得君馬黃辭之](#)
- [善哉行](#)
- [君子行](#)
- [除夕贈得將進酒似田侍御](#)
- [君馬黃](#)
- [行路難](#)
- [感賦](#)
- [代作陳郡侯德政樂府辭](#)
- [詞](#)

- [感賦四首](#)
- [初至忠南受侍御田公請](#)
- [布施](#)
- [持戒](#)
- [忍辱](#)
- [精進](#)
- [禪定](#)
- [智慧](#)
- [社中感懷](#)
- [訪漁](#)
- [游大隱巖](#)
- [嶺頭早坐](#)
- [四威儀](#)
  - [行](#)
  - [住](#)
  - [坐](#)
  - [臥](#)
- [春日遷巴臺即事二首](#)
- [似碧勒舊](#)
- [壽雪照師](#)
- [勉友](#)
- [楊柳枝](#)
- [臨江仙](#)
- [天仙子](#)
- [復汪文學](#)
- [題輝侍者別號雲谷](#)
- [渡江](#)
- [中秋月](#)
- [臘月無雪](#)
- [芥納軒夜坐長短句](#)
- [歌](#)
  - [法界逍遙歌](#)
  - [衣珠歌](#)
  - [了道歌](#)
  - [源流唱和歌](#)
  - [末法時歌](#)
  - [送別東旭禪人](#)
  - [秋日採茶歌](#)

- [破執歌](#)
- [明月歌](#)
- [中秋無月歌](#)
- [啟居社友歌](#)
- [高尚歌](#)
- [山行歌](#)
- [春雪歌](#)
- [補益歌](#)
- [行樂歌](#)
- [逸歌](#)
  - [功名富貴](#)
  - [酒色財氣](#)
  - [行住坐臥](#)
  - [風花雪月](#)
- [巴江曲](#)
- [平都問仙歌](#)
- [賦](#)
  - [風聲賦](#)
  - [破雲賦](#)
  - [秋梧賦](#)
  - [阿堵賦](#)
- [記](#)
  - [山谷亭記](#)
  - [治平寺佛燈常住記](#)
  - [平都山燈田記](#)
  - [牛首山雲巖寺燈田記](#)
  - [治平寺燈田記](#)
  - [重修飛虹橋記](#)
- [引](#)
  - [誦藥師經引](#)
  - [朝峨眉引](#)
  - [培修石龍寺引](#)
  - [盂蘭會引](#)
  - [帝君寶座引](#)
  - [景德寺燈田引](#)
  - [重修茶庵引](#)
  - [補修巴臺前殿引](#)
  - [箔閣羅金像引](#)

- [修觀音閣引](#)
- [修庵引](#)
- [請藏經引](#)
- [晏公祠燈田引](#)
- [修觀音閣引](#)
- [福慧庵燈田引](#)
- [七支庵引](#)
- [聚峰庵引](#)
- [接引殿引](#)
- [接引佛像引](#)
- [頌傳燈居士因緣引](#)
- [序](#)
  - [楞嚴夢釋序](#)
  - [太極圖說序](#)
  - [原易說序](#)
  - [心經序](#)
  - [心經跋](#)
  - [簡易集題辭](#)
  - [無量金聲序跋](#)
  - [廬隱草序](#)
  - [艾語題辭](#)
  - [敘如藍禪那二草](#)
  - [無量金聲題辭](#)
  - [唐詩響韻聯珠題辭](#)
  - [本行錄序跋](#)
- [文](#)
  - [錫杖寢蝸文](#)
  - [吊灼然辭](#)
  - [贈脩齋會茶文](#)
  - [避亂問](#)
  - [代作賀石柱總戎文](#)
  - [壽徹菴耆舊九十文](#)
  - [代作祭馬太公文](#)
  - [徵心文](#)
- [傳](#)
  - [玉阜山傳](#)
  - [如醉頭陀傳](#)
  - [文僧傳](#)

- [詩僧傳](#)
- [講僧傳](#)
- [禪僧傳](#)
- [西蜀敘州府朱提山朝陽洞月明池和尚傳](#)
- [篇](#)
  - [洗耳篇](#)
  - [警戒篇](#)
- [說一](#)
  - [禪說](#)
  - [淨土說](#)
  - [直師說](#)
  - [示識說](#)
  - [答問說](#)
  - [象季說](#)
  - [病中間說](#)
  - [七遮說](#)
  - [立志說](#)
  - [二健兒說](#)
  - [請講楞嚴說](#)
  - [論禪說](#)
  - [閱海內奇觀說](#)
  - [勦眾說](#)
  - [富貴說](#)
- [說二](#)
  - [勦學說](#)
  - [義說](#)
  - [講寶訓說](#)
  - [閱藏說](#)
  - [叢林說](#)
  - [堂說](#)
  - [論眾說](#)
  - [久病不愈說](#)
  - [示學人心病說](#)
  - [念佛即參禪說](#)
  - [楞嚴首戒說](#)
  - [循本說](#)
  - [示解初說](#)
  - [勸入無諍三昧說](#)

- [安足說](#)
- [示眾說](#)
- [為鬼因緣說](#)
- [療豕說](#)
- [從實說](#)
- [策進說](#)
- [緣起](#)
  - [治平寺燈田緣起](#)
  - [施茶常住緣起](#)
  - [說法華經緣起](#)
  - [重修五顯祠緣起](#)
  - [造佛座華嚴經萬壽牌緣起](#)
  - [淨十菴造彌陀法身緣起](#)
  - [石坎廟重修關聖殿緣起](#)
  - [興龍寺華嚴會緣起](#)
  - [弔巖山接引殿緣起](#)
  - [建菊隱菴緣起](#)
  - [建十方堂飯僧請藏緣起](#)
  - [弔岳山飯僧緣起](#)
  - [巴臺接引殿緣起](#)
  - [行腳緣起](#)
  - [刻錄緣起](#)
  - [重修寶聖寺緣起](#)
  - [重修清淨菴緣起](#)
  - [建佛剎緣起](#)
  - [南城山造佛像緣起](#)
  - [閱藏飯僧緣起](#)
  - [代作續藏水陸緣起](#)
  - [聚雲修造叢林緣起](#)
- [雜著](#)
  - [除夕日戒語](#)
  - [自在語](#)
  - [示學人法言](#)
  - [閒筆](#)
  - [警語](#)
  - [永嘉集是非解](#)
  - [莊子外篇補](#)
  - [諭眾](#)

- [示立僧洞然](#)
- [示隱首座](#)
- [示三巴掌](#)
- [示慧申書記](#)
- [示藏侍者](#)
- [示燈瀚書記](#)
- [示燈灑](#)
- [示燈圖](#)
- [示性潤](#)
- [示慧得居士](#)
- [示無窻禪人](#)
- [示慧紀居士](#)
- [示慧直居士](#)
- [示慧識居士](#)
- [示燈道善人](#)
- [示學人我見未化](#)
- [門牒語](#)
- [關錄有感](#)
- [勩學箴](#)
- [弟子箴](#)
- [佛殿](#)
- [觀音殿](#)
- [善法堂](#)
- [玉帝殿](#)
- [東嶽殿](#)
- [南浦興龍寺](#)
- [夔府藏經閣](#)
- [巴臺寺](#)
- [僧房](#)
- [敘府朝陽洞](#)
- [法堂](#)
- [平都地藏寺](#)
- [山寺](#)
- [景德寺](#)
- [佛堂](#)
- [送平都戴文學](#)
- [送王東川](#)
- [春聯](#)

- [送文學](#)
- [慶佛誕](#)
- [忠南毘盧寺](#)
- [送居士](#)
- [塔銘](#)
- [行狀](#)
- [卷目次](#)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贊助資訊](#)



## 編輯說明

- 本電子書以「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 Q4」為資料來源。
- 漢字呈現以 Unicode 3.0 為基礎，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
-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
-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
- 若有發現任何問題，歡迎來函 [service@cbeta.org](mailto:service@cbeta.org) 回報。
- 版權所有，歡迎自由流通，但禁止營利使用。

## 序

禪宗至今日濫觴極矣。得一槩之見者輒詡詡自矜。冒名祖位抹煞宗旨。埋沒古人以欺當世。予致慨者久之。聚雲吹萬禪師。中興大慧。力究五宗。發於言為灌頂醍醐。著於書為渡迷寶筏。昧者猶謂宗貴一家言而不觀乎吾儒明一經者。孰若博通五經之謂大儒耶。昔有稱楚石為妙喜。後一人如聚雲之作略超群絕倫。即起楚石而問之。似亦願避三舍。誠。

明興以來禪宗僅見之一人爾。惟是韜光晦跡居於巫峽錦江之隈。不因人熱以務銜鬻。故圓寂數年而語錄猶未全刻。更有別錄數十種計近百卷皆發明三代之奧。以旁挾諸子百家。即吾儒皓首窮經尚不能闖其廊廡。豈今之粃脫禪所敢望而伍者哉。予與同盟醉心此道。仰止高山。因謀諸剞劂以行於世。噫。予未得為聚雲徒也。予私淑諸人也。天下人未必皆以耳視能具擇法眼者。諒不以予言為謬矣。崇禎壬午菊月水部尚書郎前樞荊使者江右熊汝學燈照稽首敬識

## 序

嗚呼。聚雲老人逝耶未逝耶。余與諸方見而知之。聞而知之。家風丕震作略斬新。只者些子出入兒孫面門。穿透祖佛鼻孔。一場懨懨。老人分中且置。余輩今日意作麼生。先德云不道無禪只是無師。又云不道無師只是無禪。如此批判亦屬隔靴搔癢。刻舟求劍無有是處。乃老人以慈悲心修真實行。不惜絡索盡情拈出。無論言句無論棒喝無論椎拂玄要主賓照用權實。應針利物一時迸現。而又開豁五宗。毫髮無滲波瀾獨絕。此不獨臨濟。大慧千年一炬即起。從上佛祖而問之。亦子輿氏所謂聖人復起不易吾言者也。老人憫念末法雜毒日深蘊藉。驪珠不輕解額。而精光煥發如景星慶雲。所以鼓吹休明翊贊隆盛者應候而出。極奇特極平常。寶月一輪近在鐵壁禪師毛孔中。引而伸之觸類而長。莫道無師莫道無禪。如是為師如是為禪。信天下無二文殊也。而世之眯目禪和。一槩未明。妄生顛倒。麤疏浮薄。自等市沽。即謂黃面阿翁不妨浪子破家。有日閻羅抵對。未免喪身失命。老人恁麼婆心太切。殺活縱奪拯溺救焚得未曾有。非為分外。願自今以往與麼不與麼委悉不委悉。舉似諸方。諸方具眼自當遏旋流弊薦取真源宗旨。不知祖家種草疑殺天下人。庶與我聚雲老人相見。語錄凡若干卷未刻。種種余與同志激揚次第鈔布。先為忉怛志所皈云。

崇禎壬午小春既望鹿園學人黔南沈奕璋稽首識於平山舟次

## 重刻吹萬禪師全錄疏

論禪宗於今日亦難矣。矧予里彈丸地乎。諸剎衲子無異凡夫。詢以出家本旨喑然也。此風既墮。大廈非一木可支。後生輩無大福德。纔有所見便作乞兒相。以一飽為足。不堪種草。縱有十分饒舌。故作婆心。總是葫蘆樣子。獨吹萬禪師具丈夫概。目視雲漢手捫星辰。非隨群逐隊者流。予皈依久矣。一日莊誦語錄。真若獅子吼聲。令人驚怖。久之猶甲拆之沾潤露也。予歎之曰。吹萬禪師真不朽人也。說玄說要一一從胸臆中流出。有如禹之治水。孔之聞韶。羿之射。玉良之御。孫子之用兵。左丘明太史之文章。無可思議。信哉。吹萬禪師真不朽人也。予於斯道雖未夢見。頗覺技癢。安得捨塵網拂衣策杖歸向桃花源哉。禪師之傳錄匪只一種。尚有未行世者。我等望法門金湯。倜儻從新。以禪師一燈布百千萬億燈也。崇禎癸未端陽日髮弟子高仰之沐手和南疏

## 吹萬禪師語錄目錄

- 序
- 疏
- 卷一
  - 上堂
- 卷二
  - 上堂
- 卷三
  - 普說
  - 小參
- 卷四
  - 示眾
  - 茶說
- 卷五
  - 法語
  - 入堂
  - 入室
  - 勘辨
  - 問答
- 卷六
  - 頌古
- 卷七

- 頌古
- 卷八
  - 偈
- 卷九
  - 偈
- 卷十
  - 佛事
  - 像讚
  - 書問
- 卷十一
  - 詩
- 卷十二
  - 詩
- 卷十三
  - 詞
  - 歌
- 卷十四
  - 賦
  - 記
  - 引
- 卷十五
  - 序
  - 文
- 卷十六
  - 傳
  - 篇
- 卷十七
  - 說
- 卷十八
  - 說
- 卷十九
  - 緣起
- 卷二十
  - 雜著
- (附)行狀
  - 塔銘

吹萬禪師語錄卷之一

上堂

萬曆戊午上元日。霜輪上座檀越四眾等請師開法於湖廣衡州府瀟湘湖東禪院。至座前連喝三喝云。還會麼。也須高著眼。陞座拈香云。此瓣香渾淪世界筦籥生成。吹之則書洛圖河。扇之則雲龍風虎。爇向爐中奉祝皇帝萬歲太子千秋。輔弼伊周賀金牛於錦幔。出入姜傳懼玉馬於彤墀。此瓣香如膏如澤如暘如春。幹運四時憑臨造化。爇向爐中奉為瀟湖郡主。宰官檀越嘉禾穗茂四境三祝於華封薦句神開五蘊獨超於色相。此瓣香轟天碎地倒嶽傾湫。灼破頂門眼睛。熏開眉毛骨髓。爇向爐中供養。大慧下現住四川敘州府朱提山上月下明和尚用酬法乳。伏願旃林哮吼塵塵剎剎踴金毛。石室揮揚鬱鬱蔥蔥飛玉片。拈畢據座。上首白椎。乃云劈面迎風掌。當胸鞞肚拳。具眼衲僧向者裏用得。猶是三五一輪在在光輝。火樹銀花時時燦爛。若也半明半暗。恐未夢見在。呵呵。不是法門無面目。只怕蜈蚣太多足。咦。還有承當者麼。上首再白椎。師下座。

上堂。舉憨山自贊。出世六十年。當軍三千日。住山二十秋。畢竟沒巴鼻。為僧不解禪。涉俗何拘忌。是何等業緣作者般蟲豸。最可喜底一片癡心把佛祖門庭當自己家事。煩惱無邊苦海無際。歷盡風波隨行逐隊。荊棘林裏橫身。干戈場中作戲。到於今不肯回頭。閻老子豈不生氣。想待彌勒下生那時方纔理會。呵呵。春山夜雨子規啼。聲聲叫人且歸去。師云者漢雖然如是。猶未懸巖撒手。在一片真空無去來。豈容內府生計較。出世當軍住山達多。鏡裏一照。說甚悟禪涉俗業緣。有甚佛祖門庭。家道苦海即閻苑之銀深。煩惱是菩提之佳兆。荊棘林本來無礙干戈傷。任他跳躍回頭不回頭。在我腦後空甚麼閻老子生氣取調彌勒下生理會。自欠一重憔悴。只須隨分納些些。免使傍人錯道。呵呵。我者一笑。你看那夜雨子規自不啼。上林歸去春光早。

上堂。一不做二不休。殺人須究親下手。捉賊要識真領頭。平息了萬事丟。一顆明珠衣下收。燄山疊嶂從茲破。愛海波濤信不流。卓拄杖一下。

上堂。問仰鑽瞻忽意旨如何。師述偈云硬似綿團軟似鐵。六月炎天一點雪。露柱燈籠笑點頭。啞人得夢向誰說。

上堂。舉寒山子歌云。東家一老婆。富來三五年。昔日貧於我。今笑我無錢。渠笑我在後。我笑渠在前。相笑尚不止。東邊復西邊。師云大眾若是於此中領會不來。嚼碎五千餘卷猶是他家茶飯。反惹得眼飽肚中饑。只僥推到臘月三十日。螃蟹下鍋未免腳忙手亂。

上堂。二月陽春仲。山花任自開。丈中風埽地。天上月臨臺。露柱黃昏笑。燈籠曉夜哀。若問他家信。庚方看月歪。

解制上堂。西來正法眼。光照五須彌。風吹花草動。雷鳴天下知。昨夜金牛吼。木馬嘶驚起。銀河碧浪湧。震動蓬萊三島馳。被老僧扭著鼻頭拽過人間。天上擲下寂滅光明海中。氣也出不得。大眾知麼。若知即便兩手撈出。若不知閉卻汝眼。塞卻汝耳。箝卻汝口向萬里無寸草處去。隨分娑婆訶。只等秋風吹入戶。寒雁送聲來。

崇禎辛未臘八日。布金檀越田侍御令子別駕素庵居士同四眾等請師結制於忠州聚雲禪院。拈香畢豎拂子云。從上古人只為者箇東留瞞預了許多英雄豪傑。賺陷了許多高人達士。拋撒了許多油鹽醬醋。今日老僧不徇人情。向汝諸人道破。只要汝等於日用二六時中行住坐臥處穿衣喫飯處。運水搬柴處承當。若承當得來。英雄豪傑也瞞預他不得。高人達士也賺陷他不得。油鹽醬醋也拋撒他不得。且問大眾如何是者箇東西。參。

上堂。拈拄杖云向東也是者箇。向西也是者箇。向南也是者箇。向北也是者箇。若離者箇。上無三界諸天之樂。下無五趣三途之苦。四聖六凡全仗著他撐門拄戶。迄到德山長老將來胡打亂敲。卻被臨濟侍者奪來當胸一拄。只得便歸方丈去。今日落在老僧手裏豈亦不著。橫亦不著。不豎不橫又作麼生。卓一卓。

元旦上堂。去年臘月三十是歲之終。炭裏烏龜走。今年正月元旦是歲之始。雪上鷺鷥飛。終處不為滅。始處不為生。作麼生是不生不滅底道理。良久云。金芽柳燦莫輕瞞。自在東風暖復寒。著眼看時還不是。依稀蘿影月闌干。

上堂。今朝正月十五。僧堂集眾打鼓。若問西來大意。花笑鳥啼風舞。大眾須知一番景過一番新。試看春水起赤稍之魚。地雷震禹門之浪。好趁者箇時節大家向前騰躍。始信天上天下唯吾獨尊。

上堂。問未開口已前請道一句。師云玉兔懷胎來樹下。金烏抱子上天衢。問如何是一纖微塵開華藏。師云夜雨滴簷前。鏗鏗論實事。乃云說理說事可中更無兩頭。論是論非箇裏豈存二見。要理即理要事即事。十方世界露全身。是則隨是非則隨非。一纖微塵開華藏。到者裏凡聖無容安立。那其間佛法不用商量。秋江處處好風流。妙在長空明月上。卓拄杖一下。

上堂。欲參自己生前事。急急回頭點舊山。雪壓翠微形不老。煙籠薄暮體非頑。怪來若訝雲中石。覺後難分水上斑。花笑鳥啼隨任運。何妨踏破祖師關。

上堂。三日山與滑石灘。論義一箇[口\*蒙][口\*蒙][口\*蒙]。一箇[口\*蒙][口\*蒙][口\*蒙]。震動三界天主四部地神。擔起三藏十二部。一切修多羅為

渠作箇註解。解亦不出。被老僧拂子一喝。急忙道。箇硬如綿絮。軟如釘。靜似楊花。動似岑。十箇指頭兩隻手。看來不是等閑人。

上堂。聚雲有三種法。名曰三關。若也透得。方許親見聚雲。第一種要腳掌掉後。若一向在前。直饒走到彌勒下生。也沒休歇底日子。第二種要鼻孔朝天。若一向朝地。只喚作尋香逐臭。第三種要腦後具眼。若一向照前。則阿爺阿娘衣食凍餒。枯瘦如柴。為兒底毫無顧盼。聽吾偈。黃昏鐘響日頭紅。曉來依舊月當中。討火童子吹波浪。征西戎馬面朝東。

上堂。喚作如如。早是錯也。喚作文字。不亦乖乎。雖然號作陽春。令卻借東風暖上林。紅白滿園關不住。牧童狂指是花村。

上堂。華嚴會上五十三員善知識。在汝等諸人十二時中放光動地。只為太近。所以不自覺知。良久云。日中一供飯。晨朝一餐粥。大眾集齋堂。老僧持鉢出。問和尚未登座時。五十三員善知識又在何處。師豎起拂子云。會麼。進云。此後如何。師云。無風樹葉動。必定有鴉栖。

田素庵居士薦母請上堂。去年此日四月八。今年此日四月八。處處九龍香水飛。山山五色天花撒。只有聚雲更不同。摩耶受法於悉達。今日淨信檀越。追薦亡母利幽。一句又作麼生。以拄杖向空撥云。拄杖挑開無縫塔。多寶全身作聖胎。

上堂。問中興大慧事如何。師云。劈破不為兩。撲碎始成團。進云。光前顯後底。一句分付阿誰。師云。虛空皮打皺。海水骨頭堅。乃云。新秋煙迷柳。夏餘風入松。梨花蛺蝶飛。田蛙唱曉鐘。

上堂。以拂子於空中畫一○相云。祇者箇。釋迦得之。喚作涅槃妙心。老氏得之。喚作清淨無為。孔子得之。喚作虛靈不昧。且道今日落在老僧處。喚作甚麼。良久云。言言擒風捉月。句句擊水敲空。

上堂。問釋迦如來初出母胎。即云。天上天下唯吾獨尊。雲門是甚麼人。要一棒打殺。師云。後生可畏。僧禮拜。乃云。若在者裏會得。達磨不必西來。玄奘何勞東去。天下老和尚亦不消拈鎚豎拂。行棒行喝。冬去春來。穿衣喫飯。好不快活。

上堂。四節日陞堂。百丈老人龜鑑。半月半月說優波尊者。準繩為甚麼。石門聰十五日已前用錐。十五日已後用鉤。老僧今日坐在三五光中。管教龜鑑準繩一齊放下。前後鉤錐俱用不著。只聽箇幽鳥語喃喃。辭雲入亂峰。我行荒草裏。汝正入山村。

上堂。大道只在目前。要且目前難睹。欲識大道真體。不離聲色言語。如何是聲色。黃鶯啼柳樹。白鷺立沙灘。如何是言語。佛印遭墨刑。面面都是字。

浴佛上堂。今日釋迦誕辰。諸人皆以殿前太子用香湯澆灌。大作一場漏逗。老僧單鼓兩片皮。打些葛藤。撥開眾生界中諸佛知見。不

為分外。為甚麼如此朝三暮四。朝四暮三。又令猴怒又令猴歡。伏惟尚饗。

孟蘭日上堂。秋風清秋水綠。煙鎖幽林霜露拂雪。陣蘆花萬里綿。金雕沙渚千丘粟。於斯得見境中人。體素素兮文郁郁。大眾知麼。歡喜日喜於此。孟蘭盆營於此。僧伽耶供於此。百萬億座世界花。阿誰不在花光裏。一回舉著一回新。剎那脫卻皆由爾。作麼生是皆由爾。參。

接得漢月禪師書上堂。無事討事非故作故。過得江來賓鴻迷路。解下素白吳風扇鼓。如何是吳風扇鼓。維那舉束云。此是玄墓山漢月禪師來底書子。高聲讀云。大慧禪師說盡人間禪病。四百年內望之如渴人求井。不料一枝埋沒向三峽錦江之上。師喝。又讀云前得來書語錄已見作略過人。第末得從容談三月於水流石上為恨不淺。師又喝。復讀云茲聞已返峽中略伸四問。萬乞答我。更欲禪師起已墜之禪於今日。令後輩重見天日於座下。斷不令某遺恨耳。至禱至禱。師復喝。乃云大眾會麼。此正是我有時一喝不作一喝用。只者三喝即當展具三拜。禮達漢月禪師。第一喝。禮不為禪師放光射於巴子國。只為禪師有大悲心。扼腕大慧老人門庭冷落。第二喝禮不為禪師書通人事。獎譽過情只為禪師識得忠州三目山聚雲寺有一眼大慧泉從新迸出。第三喝禮不為禪師千里同風德音遠顧。只為禪師啟我將徑山普覺塔子百啞碎倒題年月唱一首劈破韻底曲子。洗開天下衲僧耳中正眼。免使膏肓豎子假以心性椰榆本命元辰。大眾山野為甚麼和泥合水作者般去就。憶昔幼年曾在芸局窗邊。偶得大慧老人語錄。讀之心醉。誰知破家散業後撈入朝陽和尚洞裏。啞著一粒老鼠藥。灼然惡發咬穿鼻孔。輓在水牯牛隊中作箇他家兒孫。血脈自是不昧。復喝一喝云不因一事不長一智。玄墓山前古鏡懸。聚雲堂上珠簾碎。交羅錯雜滿三千。百億人天腳點地。從此一回音信通。犯揮斤無不是。以拂子擊禪床三下。

寫師真請上堂。舉玉泉皓自贊云。粥清後坐床窄先臥。耳聾愛高聲。眼昏宜字大。者般說話雖是本分家風。向上一著猶未在。今日緇素輩以老僧三百六十骨節八萬四千毛竅交付丹青一筆畫成。卻請老僧自贊。出世三十年。頭戴一隻角。逢人看不見。空向我摸索。於今漏逗者封皮。海底榴花紅似雪。只須著眼腦後觀。青山萬里一條鐵。且道是向上一著。是本分家風。良久云。八百餘家成巧手。大家依樣畫葫蘆。

鑄佛上堂。以拂子於空中畫○相云。者一尊。三昧樂正受意生身。以拂子點一點云。者一尊。覺法自性性意生身。以拂子畫十字云。者一尊。種類遍現無行作意生身。三佛形容總不真。眼中瞳子面前人。若能信得家中寶。啼鳥山花一樣春。擲下拂子。



高侍御建盂蘭會請上堂。豎拂子云。新秋煙霧鎖溪頭。皎皎蟾光十二樓。坐到五更天未曉。黃昏鐘鼓入林幽。咦。不許夜行剛把火。只須當道與人看。

元旦上堂。年年歲歲正月一。歲歲年年一月正。花開花謝還依樹。塵生塵滅總由心。綠水動時飛浪雪。寒風逼殺結霜冰。可笑幾番如此過。不知誰是住山人。大眾有識得住山人者麼。僧出。師下座。閱藏圓滿上堂。座元問和尚大開爐鞴。應接方來。設使遮天蓋地來時如何。師云筍。進云沉蹤隱跡來時如何。師云舌頭飛鐵馬。腳指湧絲綸。進云總不恁麼來時如何。師云一任七顛八倒。進云恁麼則蝦蟆蚯蚓也解得。禪師云著著著。元掩耳入眾。乃云昔日達磨不來東土。二祖不入少林。所見所聞祇有黃面老子修多羅教。殊不知此教如標月指。若復見月。了知所標畢竟非月。後來魯祖長老凡見僧來便面壁。恰到有些氣息。所以萬松道。靈山如畫月。曹溪如指月。爭似魯祖在水晶宮裏廣寒殿上披襟相見。以拂子畫○相云。還見月輪麼。

尹參府受戒請上堂。維那白椎。師云若論第一義維那一椎打得諦當。但不知第一義已前還通得消息也未。首座出纔禮拜。師云如何是第一義已前消息。座便喝。師云未在更道。座擲下坐具云疋馬單鎗要與和尚相見。師云海底泥牛腳插天。座云某甲進前三步。師云退後三步作麼生。座復喝。師連喝三喝。座作禮西堂出。師云如何是第一義已前消息。堂云某甲不問請和尚不答。師云你正不問我正不答。進云還請直捷道一句。師云葡萄架上結冬瓜。堂云道破虛空無箇事。恐驚牛斗臥江寒。師云老僧不是恁麼人。堂歸眾。乃云僧問趙州萬法歸一且道與第一義底一是同是別。州云我在青州作領布衫重七斤。且道與第一義已前消息是同是別。若道同。朗州山澧州水四海五湖王化裏。若道別。豆子山打瓦鼓陽乎山下白雨。也不同也不別。滕王高閣臨江渚。佩玉鳴鑾罷歌舞。今日尹參府皈依佛法也只為者第一義。受持五戒也只為者第一義。因戒生定因定發慧因慧參得自性。念佛底主人公也只為者第一義。且道如何是第一義。咦。

上堂。冬至日一線天。地雷復柳含煙。遍地紅輪真箇是葉上霜珠圓更圓。佛身充滿於法界普現一切群生前。鷲峰峰下重相見。鼻孔原來總一般。急吐卻野狐涎。驪駒馬珊瑚鞭。一騎紅塵妃子笑。等閑不許外人看。為甚麼不許外人看。路逢劍客須呈劍。不是詩人莫獻詩。問如何是佛。師云拄杖撐著月。如何是祖。師云橫肩兩樣看。如何是超佛越祖。師云提起三十棒。僧一喝。師拍掌三下。

病中上堂。維摩病在毘耶城。老僧病在聚雲寺。兩箇無孔鐵鎚。一前一後相似。今日若有人問話。但只搖手。如云不會。向道老僧感

冒傷風失了聲氣。

舉隱首座秉拂上堂。佛無面目說是說非。祖是白拈靴裏弄指。達磨西來不立文字直指人心見性成佛。到有一千七百則葛藤。黃面瞿曇三藏十二部一切修多羅又道四十九年未曾說出一字。老僧三十年撞入他家隊裏。惹了一身腥臭。如今只得尋箇替代。各自抽身。大眾有未了公案。待第一座共汝等商量。

解制上堂。座下三五百人。各具擇法眼。各有冲天志。恁麼則老僧有望。座下三五百人各具擇法眼。各有冲天志。恁麼則老僧無望結也。大千世界一禪床。解也。隨緣赴感靡不周。靡不周一禪床。一禪床靡不周。結也結不得。解也解不得。九十日來無箇事。依然皮下要有血。

元旦上堂。舉長沙岑遊山歸。首座問遊山事作麼生。岑云始從芳草去又逐落花回。座云大似春意。岑云也勝秋露滴芙蓉。若有人問聚雲遊山事作麼生。但道倒騎鐵馬飛金雨。呀吒獅子吼雲騰。若問長沙和尚語中帶有春意。因甚和尚全無。但道去年正月也有今日。前年正月也有今日。明年正月也有今日。後年正月也有今日。晝夜十二時九十六成經。三百六十日二十四成綸。和氣暖風調宇宙。大地何方不是春。

上堂。問圓悟和尚未審有何過被慧祖罵飲煗銅吞熱鐵。師云此是他尋常茶飯。進云還許學人管待也無。師云美食不中飽人喫。問飲光見拈花破顏微笑世尊與他證明。世尊睹星悟道是誰證明。師云鐵蒺藜四方八面。進云與麼則無證明也。師云爛冬瓜七縱八橫。進云若是豈無先佛耶。師云話頭也不知。進云和尚一向歸理路去也。師云舌頭不出口。問叫即應問即答。者箇活鱗鱗底東西未審瞌睡壓著時又在甚麼處。師云鬼滲卵。進云一口氣不來又向甚麼處去。師云畢竟向甚麼處去。問如何是聚雲境。師云蒼松連翠柏。如何是境中人。師云明歷歷底雙跣趺。進云人境不立時如何。師云站過一邊。乃云參禪人悟後須透宗旨。既透宗旨方明大法。既明大法。始可鍛煉得學人偷心。所以臨濟老人道。我有時先照後用。有時先用後照。有時照用同時。有時照用不同時。先照後用有人在。先用後照有法在。照用同時。驅耕夫之牛。奪饑人之食。敲骨打髓痛下針錐。照用不同時。有問有答立賓立主。和泥合水應機接物。如何今人悟後便休不透宗旨不明大法。如此之輩若悟得頭。祇是箇有足無眼人。若悟得尾。祇是箇有眼無足人。怎能做得眼中垂手。足下放光底大丈夫。故臨濟老人又云。大凡演唱宗乘一語中。須具三玄門。一玄門須具三要。有權有實有照有用。汝等諸人作麼生會。後來僧問道吾真禪師云如何是第一玄。真云世尊光射阿難肩。如何是第二玄。真云孤輪眾象攢。如何是第三玄。真云泣向枯桑淚漣漣。

如何是第一要。真云最好精粗照。如何是第二要。真云閃電乾坤光  
晃耀。如何是第三要。真云路夾蒼松老。若向臨濟長篇古文上認  
著。錯。若向道吾落韻詩上認著。錯。有箇覺範老人云一句具三玄  
門。一玄門有三要路。細看即是陷虎機。忽轟一聲塗毒鼓。偷心死  
盡眼麻迷。石女夢中毛卓豎。若向者裏認著。錯。大眾若會臨宗  
旨。先須會得者三錯。

嗣法孫燈映重梓

吹萬禪師語錄卷之一終

上堂

崇禎丁丑二月望日。尹參府遂江居士請師於巴臺禪院結制。山門。十方薄伽梵一路涅槃門。既是一路涅槃門。也不須門外打之遶。

佛殿。金佛不度爐。木佛不度火。泥佛不度水。如何即得。立定云。佛陀耶。展具云。達磨耶。合十云。僧伽耶。禮拜起。復云。響。

方丈。古人喚作方丈地。老僧喚作方丈室。將來烹佛煉祖。道是衲僧巴鼻。喝一喝。

上堂。拈香畢維那白槌。師隨喝一喝云。玄要料揀賓主照用。一並漏逗了也。若也不會聽取一偈。野寺孤明夜月斜。高臺飛閣遠人家。綠水金輝浮桂影。青山玉曉墮霜華。問心佛與眾生是三無差別。如何是心。師云門前幾竿竹。進云如何是佛。師云嶺上數株松。進云還有眾生也無。師云心佛與眾生是三無差別。僧禮拜。師下座。

上堂。出眾者三十棒。不出眾者三十棒。出眾不出眾者三十棒。一僧出問話不契。乃云直下三玄已露。就中三要齊施。落花流水空去。殿前古柏當機。

上堂。春已暮。落花紛紛下紅雨。南北行人歸不歸。千林萬林鳴杜宇。我無家兮何所歸。十方世界奚相依。老僧有箇真消息。昨夜三更月到池。古人恁麼道未免逐境隨流。老僧則不然。春已暮。從來三月多春雨。東西南北不須歸。滴血徒勞傷杜宇。老僧無家卻有歸。歸來到處任相依。會得此中真消息。一輪明月在瑤池。

上堂。世尊見文殊在門外召云。文殊何不進門來。殊云我不見一法在門外。何故教我進門。曹洞宗旨盡從者裏去。又見二人舁豬。世尊問云者箇是甚麼。人云佛具一切智豬子也不識。世尊云也須問過。臨濟宗旨須是恁麼來。此不是一櫛一見底硬節擔板禪。此不是伸手豎拳底當門抵戶禪。此是我黃面老子最上一乘禪。直至西天四七東土二三。代代相傳不昧。若在者裏出得頭轉得身。如枯木開花泥人拍掌。便是唧噥舌頭三千里。六月梅花雪裏開。也不為分外。問如何是百尺竿頭事。師云木馬雙頭三隻角。進云如何是更進一步事。師云烏龜尾上火輪車。進云還有向上事也無。師下座。

解制上堂。古人四月結制。老僧四月解制不為倉廩無糧。只為逢暑當避。長連床上濟濟多士。香積廚邊煙烽火熾箇箇想著巖畔共結清涼大會。作麼生是清淨一句。夜明簾外轉身難。荊棘林中下腳易。崇禎戊寅七月朔日。師受請住夔州府萬縣寶峰山雲來禪院。結制。上堂。拈香畢。喝一喝云。會麼。會得不可喚作喝。卓拄杖云會麼。會得不可喚作拄杖。豎拂子云會麼。會得不可喚作拂子。畢竟如何。座元出云雲來風曉月。九嶺樹吟龍。師云疏林橫古路。壘石傍丘山。進云恁麼則大地無寸土某甲獨為尊。師云你在甚處得者消息來。元便喝。師云再喝一喝看。元作禮。師云也是披露見文。營盆上堂。颯颯淒風繞樹寒。夜深林裏靄雲煙。錢飛粉蝶千家紙。露溼綺羅萬淚衫。獨有長空輝月面。斗牛銀漢玉闌干。上堂。問在答處答在問處。瞞預一生。不以問求不以答得。儻侗三世。不問而問不答而答。正恁麼問正恁麼答。壯士勞勞失卻珠。怒息摩挲猶在額。

入隊上堂。昨日在忠城裏。野馬飛揚黃塵撲面。看來盡是薄伽梵八萬四千隨好光明。今日在寶峰山。僧儀濟濟鐘鼓喧鳴。又恰是摩訶般若中倒翻觔斗底影子。所以道盡大地是沙門一隻眼。一切眾生是摩訶般若光。既然如是出隊由入隊時。古今一念不參差。箇中若了無來去。秋月寒蟬到處吹。

解制上堂。父母未生以前卻是甚麼消息。空中石頭拱手。樹上烏龜作揖。螭螟尾長三丈。須彌頂闊八尺。都盧細磨為漿。令烏有先生擎來不勾拄杖子一口喫。

崇禎戊寅冬朔日。師受請住夔州府萬縣興龍禪寺。三門。昨日雲來今日興龍。其來無跡其興無縱。出院入院非有非空。既無蹤跡亦非空有。者條門限又作麼生。良久云。慈心既滿蛇頭伏。得到龍宮自有珠。

佛殿。巍巍堂堂磊磊落落。不是塑泥刻木。便是瀉銅鑄鐵。既是者箇門庭。也要斬新作略。作麼生是斬新底作略。不向佛禮。不向法禮。不向僧禮。常禮如是。

方丈。方圍一丈。縱橫十尺。八萬四千金毛盡是衲僧巴鼻。玄要煌煌。照用歷歷。驅耕夫之牛。奪饑人之食。管取撒手歸來。自有通天消息。喝一喝。

上堂。拈香云。此瓣香不與旃檀同類。不共沉速同科。生於般若光中。長在常寂國內。爇向爐中。上祝當今皇帝萬歲萬萬歲。乾剛坤柔。文經武緯。在在談孝義之化。安磐石以樂春臺。處處興道德之風。誦康衢而歌擊壤。又拈香云。此瓣香與天地合其德。日月合其明。先兮弗違。後兮奉時。爇向爐中奉為郡邑宰官縉紳檀越福緣善慶歌南風於舜田禎集祥迎頌棠樹於周道。又拈香云。此瓣香煙籠三

界氣裏真如。爍破瞿曇面門。透開達磨鼻孔。爇向爐中供養朱提山。上月下明老和尚。用酬法乳。獅子嘖呻象王迴顧。呀吒吼動青黃赤白現全身。轉折周旋南北東西呈海印。乃豎拂子云。此是釋迦如來末後拈底金鉢羅花。以拂子畫○相云此是達磨西來二祖神光得髓一句。喝一喝云。此是臨濟大師宗門正眼。今日人天眾前當陽舉出還見麼。打破秦時鏡。現出海潮音。梵播恒沙界。香滿功德林。更有末上一句不妨拈出。周溪魚躍三生石。巴峽猿啼十二峰。

上堂。木樨山與汝相見了也。窄小子與汝相見了也。興龍寺與汝相見了也。是則是。只是不肯承當。若也承當得來。三門頭合掌。佛殿後經行。東廊作揖西廊拱手。何處不與相見。見即見要且不見老僧。老僧即是闍黎。闍黎即是老僧。老僧與闍黎迷卻天下人亦能悟卻天下人。無鬚鎖子兩頭搖。珊瑚枝枝撐著月。

僧問和尚道興龍寺與學人相見。未審龍在甚麼處。師云若問其中意。便扣胡張三。進云金翅鳥王在此。師便喝。僧擬進語。師連喝云一問一答卻成漏逗。不自揣摩徒勞心垢。

解制上堂。一三如三。二三如六。三三如九。天以九得清。地以九得寧。人以九得靈。王侯以九鎮寶位而天下平。且道在衲僧分上又作麼生。結制解制用作九句。開爐閉爐攝生護生。惟有向上無拘忌。四時常在定盤星。

上堂。舉簡李王邀法眼玩牡丹花。命眼賦詩。眼曰擁毳對芳叢。由來趣不同。髮從今日白。花是去年紅。艷冶隨朝露。馨香逐晚風。何必待零落。然後始知空。頌罷李王即悟。師云老僧亦拈數句。偶從芬艷裏。即境睹明花。盛色雖堪賞。衰容似可嗟。禁攀枝上葉。應惜樹頭芽。若也無遭踏。頻君醉月華。

上堂。舉五祖演和尚因默然良久之機人多錯會。遂拈語示之曰。前面珍珠瑪瑙。後面瑪瑙珍珠。左邊觀音勢至。右邊文殊普賢。中安一樹旛子。被風吹著道箇葫蘆葫蘆。師云聚雲見伊破碎太甚。不免矢上加尖。一一頌出。頌曰前面珍珠瑪瑙。卻是籬穿壁倒。提起鮮血長流。搭上眉間恰好。後面瑪瑙珍珠。一箇嘴骨盧都。堂上遍身紅爛。兒郎不得稱呼。左邊觀音勢至。不必彰名顯字。鐵牛一夢三更。石女方纔蓋被。右邊文殊普賢。老馬不願披鞍。滴盡沙場血汗。通身透骨清寒。中安一樹旛子。卻也是我是你。兩頭透地拄天。入風搖撼不起。被風吹著聲音。寥廓鼻孔舌出。阿誰摸索道箇葫蘆。大心凡人衲被蒙頭。雷霆轆轤。

上堂。舉丙丁童子因緣。師云。丙丁童子去討火。為甚麼前一轉不會。後一轉卻大徹去。頻呼小玉原無事。祇要檀郎認得聲。

上堂。興龍要勘學人有得一橛禪者。須知眼全足全。頭正尾正。親切句。轉身句。異類句。末後句。透得宗旨始有超佛越祖之談。且

道喚甚麼作眼全足全頭正尾正。作麼生是親切轉身異類末後宗旨。又如何透。如何是超佛越祖之談。汝等於此一二透得。許汝親見興龍。

副寺薦亡師請上堂。子規啼徹暮春時。清明已過衫絺綌。不須潛縮針和線。堂堂必表而出之。老僧客歲結制。興龍今年歸來。聚雲連連綿綿病痛不知害著何人。唯有楊岐知端的。道是金剛並栗棘。今日拈來度亡僧。箇箇當陽赤骨歷。

上堂。馬大師道不是心不是佛。不是物。好似一粒老鼠藥。致令得末代兒孫或咬著或聞著或熏著。害得憨不憨癡不癡。胡說亂道。今日老僧不辭分明道出。也是心也是佛也是物。看他又作麼生撈摸去。

上堂。僧問趙州萬法歸一依舊從頭起。一歸何處及盡去也。州云我在青州作領布衫重七斤。疾風暴雨不驚寡婦之門。老僧恁麼批判。設有箇旁不甘的。出來掀倒禪床喝散大眾。卻許他具一隻眼。

上堂。舉長沙岑令僧問惠安和尚見南泉後如何。安默然。又問未見南泉時如何。安云不可更別有也。僧回舉似長沙。沙云百尺竿頭坐底人。雖然得入未為真。百尺竿頭須進步。十方世界露全身。僧問祇如百尺竿頭如何進步。沙云朗州山澧州水。僧云不會。沙云四海五湖王化裏。師云維摩默然文殊會不二法門雲巖默然洞山收取和尚真子為甚麼惠安默然。究竟只是箇不可更別有也。所以長沙傾心道出。總要透開學人活路。一任七通八達。且道如何是活路。磨盤秋結子。碓嘴夜開花。

上堂舉僧問長沙祇如百尺竿頭如何進步。沙云朗州山澧州水。僧云不會。沙云四海五湖王化裏。師云若有問寶峰百尺竿頭如何進步。但向他道此去忠南二百里。如云不會。但道水路一半陸路一半。乃復頌云立已立人事已周。霜華煙雨正綢繆。鷺鷥只恐漁人棹。飛入蒹葭不漫遊。長沙老匪常流。風火蘆灣帶月浮。一拍自然千里外。雪陣銀沙四海秋。

上堂。僧問趙州萬法歸一一歸何處。州云我在青州作領布衫重七斤。僧問長沙百尺竿頭如何進步。沙云朗州山澧州水。二老皆是南泉嫡子。出語接人果然難兄難弟。若到聚雲門下正好朝打三千暮打八百。

上堂。舉中峰示眾云。浙東山浙西水。拄杖頭邊。草鞋跟底。大事未明。如喪考妣。衲僧直下莫思量。思量便隔三千里。會麼。昔僧問趙州萬法歸一一歸何處。生死無常銀山鐵壁。盡在此問處。我在青州作領布衫重七斤。神出鬼沒瞎棒盲枷。盡在此答處。會得問處則銀山鐵壁面面通穿。生死無常塵塵透脫。會得答處則神出鬼沒當體無痕。瞎棒盲枷全機殺活。若也不會便見問在答處。答在問處。

問答交馳無你入處。既無入處。且只向入不得處猛加精神。抖擻眉毛立定腳跟。參來參去參到能所兩忘。不覺踢倒燈籠掀翻露柱。目前萬象自森羅。現在活計全豐裕。正眼看來業識茫茫無本可據。師云昨日夜叉心今朝菩薩面。菩薩與夜叉不隔一條線。

淨信請就梅苑上堂。嚴風陣起。冽氣橫飛。九河結萬里之冰。五嶽門六花之雪。繁柯脫落。葉敲碎玉於枯條。積蔓蕭疏枝。點綴珠於乾蒂。凍鱗歇江村之漁父。淨山絕野唱之樵人。無何。孤質更溫清肌獨熱。厥挺秀於林中。便弄姿於卉裏。紅白半吐輕軟將芬。可令高尚隱君栖衡傑士。徬徨於蟾輝影內。剪髮緇衣粧箇衲子家風。道一句梅稍月不為分外。頌云徹骨霜寒冰雪飛。孤根猶自逞光輝。不因七日重來急。怎得清香點翠微。

上堂。舉僧問多福禪師。如何是多福一叢竹對曰。一莖兩莖斜。僧云不會。對曰三莖四莖直。僧禮拜。師云若有人問如何是聚雲一叢竹。但曰元初種兩莖。於今百有餘。倘云不會。但曰中間筆立。直四維曲灣灣。彼若不禮拜也是鐵打心肝。頌曰外直中虛任合時宜。涼風飄動隨東隨西。假饒雪壓稍枝上。一顆紅輪復舊時。

上堂。舉宗道者移居投子。以袈裟裹草鞋出院。僧問如何是道者家風。答云袈裟裹草鞋。又問是何意旨。答云赤腳下銅城。師云袈裟裹草鞋。非是強安排。身邊無侍者。不曾分付來。赤腳下銅城。一步一回新。泥裏踏著刺。不是等閑人。

上堂。舉僧問洞山。時時勤拂拭莫使惹塵埃。為甚麼不得衣鉢。山云直饒本來無一物。亦未合得衣鉢。且道是甚麼人合得者裏下得一轉語。時有僧下九十六轉不契。後云直饒將來他亦不受。洞山深肯之。雪竇拈云。他亦不受是眼。將來必應是瞎。天童拈云直須將來。若不將來怎知不受。直須不受。若不不受怎免將來。將來底必應是眼。不受底真箇是瞎。還會麼。窮盡體無依。通身合大道。師云天童恁麼批判亦未離得窠臼。山僧則不然。窮盡體無依。通身是衣鉢。

上堂。舉無為泰豎拂子云會了喚作禪。不會果然。難難難。目前隔箇須彌山。易易。信口道來無不是。豎拂子云達磨來也。師云會了喚作禪。原來飯是米做。不會果然難。可惜當面錯過。難難。見之不取目前隔箇須彌山。思之千里。易易。舌頭不出口。信口道來無不是。汝還聽得麼。頌曰雪中出一枝為報曉春司月照花英現雲橫村路迷粉墻終是隔香魄有誰知。何似根株下。飄飄墮玉時。

上堂。舉西堂百丈南泉侍馬祖玩月次。堂曰正好看經。丈曰大好供養。南泉拂袖便行。祖曰經歸藏。禪歸海。唯有普願獨超物外。師云藏頭白不白。海頭黑不黑。爭似牧牛人。做箇白拈賊。



上堂。舉法昌遇云。春山青春水綠。一覺南柯夢初足。攜筇縱步出松門。是處紅英香馥郁。因思昔日靈雲老。三十年來無處討。如今競愛摘楊花。紅香滿地無人埽。師云法昌怎麼說話大似春意。聚雲則不然。秋風淒秋雨細。山前山後無不是。下榻攜筇窗外看。竹徑松亭皆可意。因思簷前那一滴。鏗聲曾助衲僧力。眼底應須具有人。煙波浪裏恒端的。

上堂。舉乾峰上堂因緣。師云乾峰掉棒打虛空。管教血污三界。雲門揮劍劃江心。一任塵飛四海。只饒轟天震地。爭奈魚鳥不知。還有看破此陣勢也無。太平元是將軍定。不許將軍見太平。

上堂。臨濟老漢當日在黃檗棒下討得一百二十斤礦子。卻向大愚肋下鎔成三錠兼金擔。在臨濟堂前敲敲打打。造成幾件籠絡天下衲僧的器具。後被大慧老人奪得將來。撒在諸人眼孔裏。眉毛一眨血流滿地。箇箇知得本命元辰落處。卻始得鸞鳩扶搖九萬里。大鵬搶住榆枋上。跳梁猩猩出網罟。垂天犛牛能執鼠。譬如天地之無不持載無不覆幬。譬如四時之錯行。如日月之代明。萬物並育而不相害。道並行而不相悖。小德川流大德敦化。此天地之所以為大也。啐。為甚麼迸出孔老子祭文出來。聽與分明頌出。口似虛空吞一粒豆。腹如蛛絲作萬戶侯。涅槃堂裏問前程。劍樹鋒頭打觔斗。不是神通不是玄。指掌元來一隻手。

上堂。舉仰山欽徵高峰曰。汝正睡著時無夢無想誰是汝底主人公。湛然禪師頌云。四大無我心如風。箇中誰是主人公。廓然撲落元無物。始覺從前錯用功。天童禪師頌云。白汗出身念無起。箇中無二主人公。廓然撲落非他物。十方世界現全容。師云湛然落于斷見。天童落于常見。老僧不免頌出。一任諸方檢點。一夢渾忘六處灰。誰是主人無二來。乾坤了盡蘄無盡。腳底珊瑚帶月開。

上堂。從上古人有五種禪。老僧者裏祇用二種。頓明白性與佛同。儔然有無始染習。須假漸修對治。令順性起用。如人喫飯不一口便飽。此是一。見性不留佛。悟道不存師。目睹瞿曇猶如黃葉。一大藏教是老僧坐具。祖師玄旨是破草鞋。寧可赤腳不穿最好。此是一。所以白居易侍郎問惟寬和尚曰。禪師何以說法。寬曰無上菩提者。備於身為律。說於口為法。行於心為禪。應用者三。其致一也。譬如江淮河漢。任處立名。名雖不一。水性無二。律即是法。法不離禪。云何於中妄起分別。易曰。既無分別何以修心。寬曰心本無損傷。云何要修理。無論垢與淨。一切無念起。易曰垢既不可念。淨無念可乎。寬曰如人眼睛上一物不可住。金屑雖珍寶。在眼亦為病。易曰無修無著又何異凡夫。寬曰凡夫無明。二乘執著。除此二病是曰真修。真修者亦非勤亦非忘。勤則近執著。忘則落無明。是為心要。果能得到者箇田地。始見處處盡成冷灰。漸修對治

底亦是冷灰。穿破草鞋底亦是冷灰。非勤非忘底亦是冷灰。要在冷灰裏爆出一粒豆。纔喚作衲僧鼻孔。且道如何是冷灰中爆底豆。下池飛雁落。驚起一天秋。

上堂。一翳在眼亂墜空華。一物在心橫生煩惱。論凡論聖盡作礙眼之塵。說佛說生總是蒙心之被。然眼本自淨。何曾有翳觀華。卻不知翳即是眼。心本自清未嘗觸物生惱。殊莫識物即是心。若能即物即心。眼翳遍圓通之路。如或即翳即眼。心物開普照之門。凡夫身出聖人心。聖人體即凡夫用。了無別矣。諸佛相出眾生範。眾生幻現諸佛真。復何異哉。故法眼禪師頌云。華嚴六相義。同中還有異。異若異於同。全非諸佛意。諸佛意總別。何曾有同異。男子身中入定時。女子身中不留意。不留意絕名字。萬象明明無理事。

嗣法孫燈映重梓

普說

普說參禪一法。貴要真參實悟。切不可將雜毒蘊在胸中。何謂雜毒。無明煩惱五陰六入十二處十八界。此是欲界有情雜毒。喜樂捨無心定無想定此是色界有情雜毒。空處定識處定無所有處定非非想處定滅盡定此是無色界有情雜毒。見惑八十八使思惑八十一品此是聲聞羅漢雜毒。三增進法十信十住十行十迴向四加行此是權小菩薩雜毒。歡喜地乃至遠行不動法雲能以一身變現一切色身得身自在能以一心現一切處說法得心自在此是十地菩薩雜毒。如來逆流如是。菩薩順行而至覺際入交過金剛喻定。便能應現無礙此是等妙二覺雜毒。以圓方覺覺無不圓以覺規圓圓無不覺無一時不圓無一處不覺此是圓覺菩薩雜毒。一為無量無量為一小中現大大中現小一毛端現寶王刹。坐微塵裏轉大法輪。此是三世諸佛雜毒。拈椎豎拂行棒行喝瞬目揚眉毘毘舞笏拈古頌古評古別古此是諸大祖師雜毒。大眾我問汝等昔在母胎中六根未開知覺未動。此是未生已前。看此中還具許多般也無。及至因地一聲。睜眼即見見無分別。張耳即聞聞無分別。鼻裏有氣嗅無分別。口銜血塊味無分別。手捏拳頭觸無分別。見母不識母。見父不識父。意無分別。此是初生一著。看此中還有許多般也無。長至三五七歲十三四歲。三細並顯六粗齊成。如蠶作繭自纏其身。如蛾赴燈自燒其體。反以不常為常。不樂為樂。非我為我。非淨為淨。竟成四倒。執為我見。復有厭苦欣樂者趣為涅槃。擔著四正勤五根五力七菩提八聖道十八不共法三十七助道品。又背真常為無常真樂為不樂。真我為無我。真淨為不淨。湊成八倒執為法見。所以佛言一切眾生具有如來智慧德相。祇因妄想執著而不見得。及達磨航海而來不立文字。直指人心見性成佛。乃至淨智妙圓體自空寂八箇字如一燈然百千燈明明無盡。何謂體自空寂。向未生已前六根未開知覺未動處薦取。何謂淨智妙圓。向初生時見聞覺知全無分別處薦取。今日新戒入山惹得老僧挑出許多葛藤。卻也當得入山拄杖子再與一箇方兒。兩耳擔柴。兩眼挑水。腳板喫飯。眉毛踢起有人問你作甚麼。漫說道冷灰裏曾爆豆子。

普說。大慧禪師說盡人間禪病。此是三峰和尚語。然禪本無病。因學人錯立知見妄自推排。古人目之為病。如打地和尚凡見僧來問話。便打地。後有人私竊其杖。令僧向前問話。地惟張口。何嘗有病。百丈禪師謂眾曰汝等與我開義田。我為汝等說佛法。及至開田

畢。大眾向前求說佛法。百丈展手。何嘗有病。高亭隔江見德山。山招手。高亭直趨而過。何嘗有病。祇者三則公案雖出尋常。卻也深險。若謂張口展手是佛法。遍大地人俱在張口展手。為甚麼不是。若謂張口展手不是佛法。如何令諸方學人悟去。者裏參來參去。將謂張口處是佛性展手處是妙心。纔有箇認性認心底念頭。便落識神。一切禪病生矣。長沙和尚曰學道之人不識真。祇為從前認識神。無量劫來生死本。癡人喚作本來人。便是者箇說話。

普說。師據座。首座代參頭請問法要。師云江遊船子釣。樹唱柳堤鶯。春融三日雨。晚照一溪雲。此是法要不是法要。座云白雲騎鶴鳥啣風。師云從來達岸者不必問津梁。座歸眾。乃云坐參一法先以打斷葛藤頓斷血筋為最義。日用二六時中若有纖毫不如意事關於耳目。則身心不得潔淨。工夫不得親切。又與未坐參者一般。倘能提起話頭如銀山鐵壁。處處木馬遊春。在在石人觀戲。似將一箇硬石頭壘在胸中。行也如是坐也如是。動也如是。靜也如是。美也如是。惡也如是。他日洗面摸著鼻孔。行路踢著指頭。喫飯觸著鉢盂。伸手穿著袈裟。硬石頭曝地一下七花八裂。也怪老僧不得。

普說。路行跨水復逢羊。獨自淒淒暗渡江。日下可憐雙象馬。二株嫩桂久昌昌。此是西天二十七祖識達磨入東土底語。前三句事已見過。後一句應見於今。只是不可錯會。即如達磨五傳至六祖。祖雖接得四十餘人。只有懷讓青原兩派流行。喚作二株嫩桂久昌昌得麼。懷讓得馬祖。馬祖得百丈天王。百丈下有臨濟為仰。天王下有雲門法眼。青原得石頭。石頭下有洞山。洞山得曹山雲居。喚作二株嫩桂久昌昌得麼。逮至宋元時。止有臨濟洞山兩宗。臨濟下有圓悟。圓悟得大慧紹隆。洞山下有丹霞。丹霞得長蘆天童紹隆至於龍池。大慧至於朝陽長蘆。天童至於湛然博山。喚作二株嫩桂久昌昌得麼。諸大老應識而出。各有機用。如我大慧說一切宗門病痛盡在普說中。鍛煉學人偷心盡在入室勘語中。法性寬波瀾闊盡在上堂秉拂小參中。至於名公書札居士法語。皆是就機接物應病與藥。千變萬化無所不至。當時得法者不獨出世禪師。且有名公居士七人。比丘尼二人。故存語錄三十卷入藏。你看他是甚麼作略。老僧於此門庭操履二十載。開堂六次總為撐他門戶。比因前後兩堂首座書記監院維那期主居士特啟老僧陞於此座。願生生世世同續此脈以報佛恩以報師恩。且道此中有甚麼奇特。良久云。崑崙奴虬髯客。神出鬼沒人莫測。有時化作浪淘沙。轉身又是西江月。疑殺天下老禪和。笑倒鬧市古彌勒。毘盧頂上出頭來。海底紅輪一天雪。

普說。世尊在靈山會上拈花示眾。唯有迦葉破顏微笑。及至多子塔前傳衣付偈。豈謂後代兒孫全體大用不載於是。但今之得有一櫬。見有一隅。卻也行棒行喝拈椎豎拂答話下語名曰見地。殊不知早已

瑕玷古人了也。若謂行棒行喝拈椎豎拂答話下語皆是宗旨。何故獨立五派。既是五派齊行。何故單尊臨濟。蓋臨濟宗旨悟在棒下用在玄要。所以法源長遠。然此玄要豈是臨濟獨創。自古佛佛祖祖箇箇皆具一句三玄一玄三要。肯自得耳。不但佛法宗旨具此玄要。即世諦語言百工技藝皆亦有之。所謂百姓日用而不知。故君子之道鮮矣。有謂臨濟宗旨但以直捷痛快一著。不用多事。若多事則為旁枝。如是說者當而不當。然而未然。旁亦臨濟之旁枝。直亦臨濟之直捷。旁枝直捷取乎棄乎同乎別乎。寧用一半臨濟乎全用臨濟乎。譬如一箇饅首。已是磨麥為麵和水合成。只取饅首寧去麥義。取其麥義捨其水麵。殊不知一取饅首三義具足。棒下知機玄要歷然。不以智知不以識識。故祖師直用一箇參字即是諸藥引子。者裏不容不會。必曰立此宗者何謂如以一用饅首之喻。箇箇盡知過去尊宿奚止千百餘員。獨不肯析其微細究其底蘊。故臨濟之宗超邁耳。今唯以直捷之處樹之。則類為諸宿何有臨濟。故我大慧老人中興臨濟之宗。不唯破碎此宗。抑乃重加註腳。特為學人不會故耳。如水銀撲地何曾破碎。如源泉放海何曾註腳。若謂破碎。臨濟自破。若謂註腳。臨濟自註。非我大慧破註也。試看臨濟棒下得悟之後。乃云山僧今日見處與佛祖不別。若第一句中薦得堪與佛祖為師。若第二句中薦得堪與人天為師。若第三句中薦得自救不了。僧便問如何是第一句。濟曰三要印開朱點窄。未容擬議主賓分。曰如何是第二句。濟曰妙解豈容無著問。漚和爭負載流機。曰如何是第三句。濟曰但看棚頭弄傀儡。抽牽全藉裏頭人。復曰大凡演唱宗乘。一語中須具三玄門。一玄門須具三要。有權有實有照有用。汝等諸人作麼生會。此第一番破碎。又云有時一喝如金剛王寶劍。有時一喝如踞地獅子。有時一喝如探竿影草。有時一喝不作一喝用。此是臨濟大師第二番破碎。小參曰。有時奪人不奪境。有時奪境不奪人。有時人境兩俱奪。有時人境俱不奪。克符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曰煦日發生鋪地錦。嬰兒垂髮白如絲。符曰如何是奪境不奪人。師曰王令已行天下遍。將軍塞外絕煙塵。符曰如何是人境兩俱奪。師曰并汾絕信獨處一方。符曰如何是人境俱不奪。師曰王登寶殿野老謳歌。符於言下大悟。此第一番註腳。又示眾云。我有時先照後用。有時先用後照。有時照用同時。有時照用不同時。先照後用有人在。先用後照有法在。照用同時驅耕夫之牛奪饑人之食。敲骨取髓痛下針錐。照用不同時。有問有答立主立賓和泥合水應機接物。若是過量人向未舉時撩起便行猶較些子。此第二番註腳。又賓看主。主看賓。主看主。賓看賓。四機亦不離玄要權實之轉變。若單用直捷痛快一著。不行玄要宗旨。譬如天下第一等秀才。文雖光芒萬丈。只是不肯做官。以謂此是功名於我無益。殊不知做官理事全是文章。

出入門戶何曾離得。若直體究玄要句法依樣描模。不會本命元辰下落。譬如宋儒只能做得四書註子。不能說得本文章句。若是會得。本也本得。註也註得。玄也玄得。要也要得。直捷也直捷得。多事也多事得。正也正得。旁也旁得。他元不是死煞底物件。老僧不妨於臨濟破碎中更加破碎註腳外更加註腳如何是第一句權衡一把秤如何是第二句一句梅花詩如何是第三句十字街前走馬燈如何是金剛王寶劍為斬不平如何是踞地獅子坐斷舌根如何是探竿影草你也須是箇人如何是一喝不作一喝用晝夜十二時如何是奪人不奪境只見拄杖子不見老僧如何是奪境不奪人老僧放下拄杖子如何是人境兩俱奪夜半老僧不行棒如何是人境俱不奪老僧慣打人如何是先照後用我也為你著忙如何是先用後照你也直須自著忙始得如何是照用同時一擊雷聲天下響如何是照用不同時落花有意隨流水流水無心送落花如何是賓看主飛鳥投鏡子如何是主看賓江洲宿白鷺如何是主看主琉璃碗盛夜明珠如何是賓看賓明月蘆花一片白大眾若有箇旁不肯底出來云老和尚寐語作麼我也只得低頭歸方丈。

### 小參

小參做工夫猶如喪卻生身父母行也思坐也思又如負卻許多錢債行也愁坐也愁又如一人與萬人戰不容眨眼又如墮入千尺井中單單只求出井所以道一念萬年去寒灰枯木去一條白練去此正為學人下箇做工夫底註腳昔有觀桃花而悟者有聞擊竹而悟者有觸翻溺器而悟者總是念念逼拶忽然到滑石頭上曝地斷碎地折便爾七通八達去也時節到來妙理自彰。

小參僧問趙州狗子還有佛性也無州云無者無字如惡龍出洞疾風暴雨轟雷掣電無論山石叢林一水拖盡到者裏始會得萬法歸一一歸何處本來面目現現成成若是純任狂慧一向與無明撕結他時惡龍有分既然如何不早在聚雲寺裏變箇惡龍從自己四大色身中發起疾風暴雨轟雷掣電將無始以來習氣窩無明窟人我山煩惱曠現前理障事障佛見法見一齊拖盡成一箇空空洞洞底物事好喫老僧一頓拄杖子。

小參祖師門庭魔來殺魔佛來殺佛若起佛見法見文殊墮入鐵圍山何以故只為諸人昧卻平常心地著於奇特妄想纔聽說箇三身四智五眼六通菩提涅槃真如佛性一箇箇聚頭商量胡思亂度以為上上奇特事正如世人差愛異言異服一般若是說箇饑來喫飯困來打睡冷來穿衣熱來揮扇便爾錯過去也試看古人問如何是西來大意庭前柏樹子何嘗奇特如何是本身廬舍那與我過淨瓶來何嘗奇特如何是善知識燈籠露柱貓兒狗子何嘗奇特奇特且置直今喚甚麼作平常心地良久云每日起來七件事柴米油鹽醬醋茶。

小參舉雲門云乾坤之內宇宙之間中有一寶秘在形山將燈籠來佛殿裏把三門向燈籠上老僧者裏則不然涅槃之鄉常寂之國中有些子密在龔鉢將崑崙來大地裏把八海向崑崙上恁麼道與雲門是一是二。

小參學人做工夫參話頭先從者一副臭皮袋上痛筍一過你看髮毛爪齒皮膚筋骨是地性涕唾精津血液涎沫是水性暖氣是火性動轉是風性四大分張只今做工夫參話頭的又在何處安身立命若在者裏參窮之極忽然見得如世小兒藏蒙相似即云在者裏師復作貓一聲。

小參師云看箭以拂子東指云者一箭射透十方世界一切眾生性靈只令山頭翻巨浪海底熱烽煙枯木口喃喃觸體淚漣漣以拂子西指云者一箭射斷十方世界一切眾生命根只令撒手墮懸巖吐舌如匾擔打碎頻伽瓶扯斷紅絲線以拂子上指云者一箭射開十方世界一切眾生慧眼只令頂門光亞豎驀直走金蛇百千手臂百千執萬億毫端萬億花此是涅槃經上三點老僧用作三箭卻也當箭即[、 / (、 \* )]當[、 / (、 \* )]即箭不曾是釋迦眉毛在下衲僧鼻孔掉轉僧問射斷命根後如何師云斬釘截鐵進云如何是鼻孔掉轉師云斑竹筒。

住金陵觀音庵小參從上古人單要明心見性所以世尊上座文殊白椎世尊便下座逮至達磨安心二祖懺罪懷讓打牛行棒行喝豎拂畫相皆未嘗違背又天竺波羅提對異見王語其略曰王若見性必在作用其作用者當有其八在腹曰胎生下名人在眼曰見在耳曰聞在鼻辨香在舌談論在手執捉在足運奔遍現俱該法界收來在一微塵知者喚作佛性不知喚作精魂末代學者不識飯是米做衣是綿成混於宗師門下學得幾句轉語記得幾則公案未得謂得未證謂證出了山門狂走四方向無智人前胡打亂喝或遇哺啜[飢- 几+藍]糝一頓伸腳高臥鼾鳴達旦嗚呼是道果若是易得耶果若是行履耶果若是證悟耶昔神光未見達磨頭痛半日先變骨為五峰雪腰斷臂方許可字馬祖得心於懷讓後執勞一十五年末後開堂猶令侍者問得三十年不少鹽醬之語始為法子長慶坐破七箇蒲團趙州八十行腳似者等勤苦艱辛較今之參禪者則從上老宿與之提草鞋亦無用處所以五祖衣鉢不付神秀上座而付有髮碓頭我固不當如是饒舌恐漸漸支離習染成風卻又辜負現前出手眼之人。

小參末法時代去聖遠矣所出法門苗裔多務馳逐蕩喪己靈縱有參禪慕道者亦各任性擔板墮入狂慧執著之見每見棒喝堂中有順朱填墨者矣棒喝室裏有敲關擊節者耶臨濟云大凡演唱宗乘一語中須具三玄門一玄門須具三要有權有實有照有用汝等諸人作麼生會復以四喝四賓主四料揀重重顯示況復曹洞之三滲漏五君臣五王子彼雖出自青原最初同一心宗既會得臨濟宗旨必會得為仰雲門法眼三宗三宗既會則曹洞之宗當會矣天目中峰有五家之評謂為仰嚴謹曹洞細密臨濟痛快雲門高古法眼簡明然五者果可缺一乎用痛快以絕狐窠使學人遊於細密而嚴謹居處自然高古發藥自然簡明何不可之有哉今也不然且言飲酒食

肉無非宗旨持戒習定俱成繫縛長髮彩衣高歌談笑謂為出格標榜吾是以痛哭也流涕也長太息者也諸仁者寧可不作佛不作祖斷不可不具三無漏學以趨百尺之竿頭以究五宗之玄旨也。

小參大凡學人請益問處真實方見答處的當若問答相違則聾瞽不相入矣不見雲門大師出語高古不墮常流後至曹洞門庭循規蹈矩細細討論正見他法海神龍能大能小能昇能隱纔顯出老作家手段到乾峰峰示眾云法身有三種病二種光須是一一透得更須知有向上一竅門出眾云祇如庵內人為甚不知庵外事峰呵呵大笑門云猶是某甲疑處峰云你是甚麼心行門云也要和尚相委峰云直須恁麼始得穩坐地門云喏喏到曹山山示眾云諸方盡把格則何不與他道卻令他不疑去門出眾云密密處為甚麼不知有山云祇為密密所以不知有門云此人如何親近山云莫向密密處親近門云不向密密處親近時如何山云始解親近門云喏喏到疏山山上堂云病僧咸通年前會得法身邊事咸通年後會得法身向上事門出眾云如何是法身邊事山云枯椿門云如何是法身向上事山云非枯椿門云還許學人說道理也無山云許門云和尚道枯椿豈不是法身邊事山云是門云道非枯椿豈不是法身向上事山云是門云祇如法身還該一切也無山云法身周遍豈得不該門指淨瓶云祇如淨瓶還該法身也無山云闍黎莫向淨瓶邊覓門禮拜直者三段因緣一一透得可為萬世法程見地行履無不具足若有箇旁不肯底道和尚喫了常住飯為甚打別人葛藤但向道病多諳藥性得效敢傳方。

小參不道無禪只是無師師勝資強古有明鑑昔者大慧祖師初參奉聖初問云承和尚有言金蓮從地湧寶蓋自天垂為是神通妙用為是法爾如然初云金蓮從地湧寶蓋自天垂慧云鸞鳳不栖荆棘樹燕雛猶戀舊時巢初云多年不見你有許多說話慧云只如適纔僧問昔日世尊今日和尚又作麼生初喝一喝慧云者一喝未有主在初取拄杖稍遲慧云掣電之機徒勞佇思拂袖歸眾據他者些作略已是慣排陣勢臨陣不怯底手段後參湛堂準準云你今日為甚麼鼻孔無半邊慧云寶峰門下準云杜撰禪和一日侍準入鄉村準指王十官人問曰此官人貴姓慧云姓梁準以手抹額曰怎奈姓梁底少箇襍頭慧云襍頭雖無鼻孔彷彿準云杜撰禪和乃歸僧堂看經準問云看甚麼經慧云金剛經準云是法平等無有高下為甚麼雲居山高寶峰山低慧云是法平等無有高下準云你到做得座主使下祇者三筭從前臨陣慣敵底鎗刀器械都不見了又參圓悟悟令下東山水上行底語連下四十九轉不契一日圓悟在天寧上堂舉僧問雲門如何是諸佛出身處門云東山水上行若是天寧則不然設有僧問如何是諸佛出身處但向他道薰風自南來殿閣生微涼慧於座下始有悟入自謂暢快平生悟見而謂曰也不意你到者箇田地可惜死了不曾活得不疑言句是為大病不見道懸巖撒手自肯承當絕後再甦欺君不得又令參有句無句底公案苦參不入問悟曰和尚昔曾請益師翁來師翁有語不妨拈出悟曰老僧曾問先師



有句無句如藤倚樹時如何先師云描也描不成畫也畫不就又問樹倒藤枯句歸何處先師云相隨來也慧於此方得徹悟遂舉洵訛公案答無滯礙大眾你看此老若不遇湛堂圓悟兩員真宗匠早已墮入野狐隊裏要且是他虛心受鍊實領鉗錘纔得如是透脫所以語有真語有實語有相似語有合頭語量有現量有比量見有了了見有相貌見果能透得者些關節始可喚作真正師真正禪莫只學箇名字禪和子口口吐出野狐涎將來有甚麼用所以古人道參須實參悟須實悟閻羅大王不怕多語。

小參舉長沙岑命僧問惠安因緣師云長沙老漢未守本分且要管人屋上霜惠安長老退己讓人卻也受屈不少古人道心如工技兒意如和技者五識觀技眾看來大好一場曲調一箇運籌帷幄一箇折衝千里一箇死守聊城惹得箭頭帶紙倘不是五丁力士自西來一向危乎高哉則扇金鐵牛作麼生到得浣花溪裏去。

小參舉萬法歸一因緣師云者不啣溜漢動轍說萬稱一較百數千且要見丁子有尾若不是趙老在大日山中推出一箇無孔錘來依舊教人郎當不少。

小參舉臨濟云有一無位真人在汝等面門出入未證據者看看師云聚雲者裏又不然三世諸佛歷代祖師一切天人阿修羅等俱在無位真人面門出入已證據者不消看得未證據者不消看得恁麼道有過無過。

彌陀會圓滿請小參佛界世界皆在一心十善十惡不離方寸迷雲覆之淨地乃成渣滓日輪照之濁土盡是琉璃又安知日可冷迷可悟復乎無住之本也老僧恁麼道不過效雲仙之扇耳切不可認卻紅羅味卻面目復頌曰從是西方宇宙洪荒日月盈昃辰宿列張十萬億佛土回互不回互回而更相涉不爾依位住有佛世界隨緣自在手把豬頭口誦淨戒名曰極樂綿絮為腳先喫冷淘後喫餲飴其土有佛在彼空谷生芻一束其人如玉號阿彌陀上宮秦娥春草碧色秋水綠波今現在說法付了言無法各各須自悟悟了無無法。

小參舉靈雲睹桃花因緣師云打破鬼門關日輪正當午一箭中紅心大地無寸土玄沙聞得不免倒退三千里靈雲見得依舊暢快平生何故酒逢知己杯杯樂話不逢時句句愁。

小參舉乾峰舉一不得舉二因緣師云乾峰老漢雖解山頭鼓浪海底揚灰怎奈跛腳雲門原是慣吞秦時[車\*度]轆鑽底人出來道箇南山起雲北山下雨管教乾峰只得趁風倒雨壇一場敗闕。

嗣法孫燈慧重梓

吹萬禪師語錄卷之三終

示眾

示眾當日釋迦初出母胎即云天上天下唯吾獨尊只者句子你看他是持戒習講學來底是打坐修定參公案學來底正是未生前帶來底習氣雖後離王宮住雪山轉法輪又是開眼作夢何故祇因四生六道一向在被單窩裏生去死來貴去賤來貧去富來苦去樂來頭出頭沒無有了期他也堪忍不過設了如許方便插入被單裏搖醒幾箇眾生罷休不然苦苦耽著能仁擔子作甚麼後來許多沒筋骨底不知如許方便原是止啼黃葉教人借路還家套子有人毘尼庵去者穿著一領鐵布衫頸項也不肯掉有人講經堂去者啗酒糟飽餛釘塞傷肚子縱有扁鵲良醫也救他不得有人壁觀婆羅門腳跡邊去者無論乾屎橛麻三斤爛冬瓜破沙盆挑上一擔處處指東畫西胡喝亂喝道我是佛祖兒孫仔細檢點將來也只是些依樣畫葫底寫匠那曾摸著釋迦如來最初一句底樣子可憐生千百年後祇遇箇老雲門欲將一棒打殺此正見報恩原是知恩人咦鑊頭在手非多事運用還因路不平。

示眾盜跖直解殺人放火抄州掠縣究其本事無過一強下客偷裘出獄假雞竊關奪去物事主人猶自不知此是下客最奇妙處今之禪者若得盜跖一法祇可施設門庭若得下客一法閉門造車出門合轍全提家風切勿草草。

示眾近來參禪者未得真參實悟所以不能一念知非當下解脫都是昏沉散亂攪作一團皆由生死二字不切縱入稠林廣眾隨類而參到底學成五花禪高帽子禪當門抵戶禪卻與積錫錠者買賣一般及至生死到來業識茫茫無本可據何為五花響若見古人好偈頌好機緣好語句祇管記些食生物而不化被人問著驢頭不鬥馬嘴亂統幾句何為高帽子響或得一橛或見一隅便爾高談闊論眼底空人身子不過三尺強要出人頭地若論實際理地全沒交涉何為當門抵戶響學得一棒一喝打得箇圓相直候語到岐路上疑信不分迷悟不覺時將來一抵抵住也得箇撐持家道底法子好則好只是閻羅大王不要你者些造作善惡兩部不上你者些語句牛頭夜叉不懼你者些棍棒但願大眾參箇無依倚底禪透出者些絡索通身不犯直到臘月三十日自在逍遙去來無礙好不快活好不穩當。

示眾萬頃波中一片石立定腳跟赤骨歷縱橫無礙百千般都緣應化非真實大凡善知識語默動靜他在塵波欲浪裏轉大法輪腳跟下自有落處學人不曉遇喜認作喜遇悲認作悲遇嗔認作嗔遇愛認作愛譬如一水天人羅鬼各見有異問取性空真處何曾得箇水火琉璃鎗刀來古人道登山登

絕頂望眾山而自遠矣然大小丘垤卻走他眼光不過若一向在山下計較卜度則是跛者欲與漁者鬥事且未行而口過怨聲已招矣慎之慎之。

示眾一翳在眼亂墜空花一物在心橫森煩惱論凡論聖盡作礙眼之塵說佛說生總是蒙心之被然眼本自淨何曾有翳觀華卻不知翳即是眼心本自清未嘗觸物生惱殊莫識物即是心若能即物即心眼翳遍圓通之路如或即翳即眼心物開普照之門凡夫身出聖人心聖人體即凡夫用了無別矣諸佛相出眾生範眾生幻現諸佛真復何異哉打破者箇關頭庶幾略較些子。

示眾昨夜臨濟老和尚與我討箇偈子貴圖銷卻多生口業只得信口報云六十痛棒打得不少不是大愚又怎麼了彼亦報我云好箇兒孫只是多嘴不是敲空便是擊水忽聽得方丈門關捩子一響大家走散啐原來是些寐語。

示眾參禪人先要具一雙擇法眼豎一雙那吒手煉一箇皮可漏身子擲撲不壞向虛空裏翻得筋斗花破毘盧遮那八字冠始會本有之佛不向外求會得本有之佛便會得行深般若波羅蜜多時會得行深般若便會得應無所住心會得無所住心便會得以大圓覺為我伽藍會得圓覺伽藍便會得大佛頂會得大佛頂便會得自覺聖智心會得自覺聖智便會得開示悟入佛知見會得佛知見便會得起法性如是會得起法性如是便將那來為先鋒去為殿後底百啞碎撈得箇達磨老古錐吞下肚裏看他後代兒孫敗闕如何是他兒孫敗闕巖頭云大統綱宗中事須識句若不識句難得箇話會劫火燒海底風鼓山相擊此是六祖涅槃句如車不行打牛還是打車還是此是懷讓傳心句自從胡亂後三十年不少鹽醬此是馬祖穿衲僧鼻孔句智不到處切忌道著道著即頭角生此是南泉異類句朗州山澧州水四海五湖王化裏此是長沙百尺竿頭更進一步句以思無思之妙返思靈燄之無窮思盡還元性相常住理事不二真如如佛此是瀉山謹嚴句仰山臥僧問身還說法也無仰云我說不得別人說得僧曰說底人在何處仰推枕子出此是仰山劍刃上底句三要印開朱點窄未容擬議主賓分此是臨濟第一句妙解豈容無著問漚和爭負截流機此是臨濟第二句但看棚頭弄傀儡抽牽全借裏頭人此是臨濟第三句雪峰與我同條生不與我同條死此是巖頭末後句以與麼時等破一切是非此是巖頭正句喫飯時作麼生背時作麼生放下鑊頭時作麼生不得色不共此是洞山五位句森羅並萬象地獄及天堂物物皆真見頭頭用不傷此是鼎州頌雲門函蓋乾坤句堆山積嶽來一一盡塵埃更擬論玄妙冰消瓦解摧此是鼎州頌雲門截斷眾流句辯口利舌問高低總無虧還如應病藥診候在臨時此是鼎州頌雲門隨波逐浪句僧問法眼如何是曹源一滴水眼云是曹源一滴水此是法眼簡明句白雲覆青山青山頂不露此是太陽平常無生句寶殿無人侍立不栽梧桐免鳳來此是太陽妙玄無私句手指空時天地轉回途石馬出紗籠此是太陽體明無盡句終無回顧意豈肯落平常此是太陽獅子嘖呻

句周旋還返全歸父繁興大用體無虧此是太陽獅子返擲句迴絕往來機古今無異路此是太陽獅子踞地句逢著者些句子恰如看見一坡茅草相似不消一星火順風吹去霎時灰燼始信當初祇道茅長短燒了方知地不平縱有甚麼乾屎橛麻三斤爛冬瓜破沙盆新婦騎驢阿家牽三腳驢子弄蹄行也只是鬧市街中拋石著首者便知痛更有甚麼金剛圈栗棘蓬教人吞教人跳大似些弄獼猴的閑家具遣神煞的鐵榼[木\*(天/非)]大慧老人云是知古人垂慈必有法無法不垂慈若於此事承當委悉後大法不明金剛圈作麼生跳栗棘蓬作麼生吞古人云心地隨時說菩提亦祇寧事理俱無礙當生即不生會得此語不須要明大法大法自明矣大眾汝等勿謂者些閒言長語是老僧打傳口令學來底須知爛泥裏有刺莫一向抱箇不哭底孩兒恁麼撕捱去後園裏有事在且諸老句子句句則則看是活人刀殺人劍是醍醐是毒藥也須緩緩向冷地裏透一透且莫性燥便把火燒山去也又看那鬧市街拋底是甚麼石頭金剛圈作麼生打栗棘蓬作麼生把若打不得把不得且莫笑大慧老人憐兒不覺醜底語不見巖頭和尚他參箇薄惡底禪扶起德山罵倒雪峰逢場作戲如入無人之境卻也小心道大統綱宗中事須識句若不識句難得箇話會召眾云還有識句者麼向下文長付在來日。

示眾爛羊頭關內侯貂不足狗尾續此譏世諦濫受官爵之語今之禪宗有等旋蒸熱賣者但要學得一棒叫得一喝語句下打得箇之繞便爾付拂子寫源流也不管宗旨明與不明頭尾正與不正可憐生且不從上亦有將就做底祖師耶亦有半斗絲之和尚耶古人道見與師齊減師半德見過於師方堪傳受此語將來何用前百丈錯答一轉語墮野狐五百生比丘道眼不明虛消息施償為後園木耳黑臉老子不徇人情未得謂得未證謂證於己何益但願諸仁者勿貪眼前名聞結下未來酸苦效無法嗣之睦州不出頭之清素管教佛祖命脈光大無涯切不可爛羊續狗取笑諸方累人累己。示眾古人道末後一句始到牽關把斷要津不通凡聖祇者一句子若也會得是甚麼弄獼猴底家具遣鬼神底茶飯出門遇彌勒入門遇釋迦如或未然三生六十劫十萬八千年也只是夢中說夢。

示眾五蘊山頭有一片放光石從眼門放光照見山河大地從耳門放光采聽一切音響從鼻門放光能聞一切香臭從齒門放光談說一切語言只是被無明執著二種籠絡雖在光天化日之下猶處黑暗不自覺知若有箇智慧底人善將此石鑄作一尊古佛不但觀音勢至文殊普賢齊來唱和即過去莊嚴現在仁賢未來星宿三世諸佛同聲讚揚汝等若於行時無無明無執著便鑄一尊行佛於住時無無明無執著便鑄一尊住佛於坐時無無明無執著便鑄一尊坐佛於臥時無無明無執著便鑄一尊臥佛若是無明未破執著未除依舊是箇四大幻身緣起識性則與六道四生為侶黃土為塊那時不可謂老僧佛法無靈驗也。

示眾從來不慣顛狂一向那安清淨眼睛眨碎石頭鼻孔觸瞎板凳腳頭腳底笑顏開踢起眉毛急急如律令會得那句是賓那句是主方許親見聚雲。

示眾舉臨濟云有一無位真人在汝等面門出入未證據者看看聚雲不然三世諸佛歷代祖師一切天人阿修羅等俱在無位真人面門出入未證據者不消看得恁麼道有過無過僧問如何是諸佛法身師云自從晨朝喫了粥直至於今肚又饑。

示眾世尊無說良馬追風維摩默然文殊贊歎空生晏坐帝釋散花普眼念澄願王現相乃若箇箇如是老僧不必揚聲大眾何勞側耳總為入有利鈍見有遲速只得當面熱瞞拋沙撒土道是甚麼心行。

示眾宗門語句有活句死句活句上薦得便可攪河為酪握土成金死句上薦得一任坐殺佛祖瞎卻慧眼又有活句門庭得死句死句門庭得活句者臨濟云我有時一喝如金剛王寶劍有時一喝如踞地獅子有時一喝如探竿影草有時一喝不作一喝用洛浦會得一喝一日辭臨濟濟以拄杖畫一畫云過得者裏便去浦一喝便出及至喝到夾山法堂裏落在夾山龕瓮中淹殺此是活句門庭得死句底樣子打地和尚見人問話便打地奪去杖子但張口而已後有僧問門人曰先師打地意旨如何門人於灶下抽片柴入鍋內此是死句門庭得活句底樣子所以歷代祖師往往改換旂鎗別傳號令總是鍛煉學人偷心令渠通行活路方可會得百尺竿頭更進向上事昔南泉致書於茱萸曰理隨事變寬闊非外事得理融寂寥非內僧問茱萸曰如何是寬闊非外茱曰問一答百也無妨進云如何是寂寥非內茱云睹對聲色不是好手僧又問長沙沙瞪目示之進後語沙閉目示之僧又問趙州州以口作喫飯勢進後語州作拭口勢僧後舉似南泉泉云此三人不謬為吾弟子如南泉語正是百尺竿頭事如弟子語正是百尺竿頭向上事老僧恁麼批判也是將錯就錯劃空既無刀斧跡擊水何看棍棒痕。

示眾門庭施設固不可無人理深談必須確細老僧昔在金陵觀音庵拈提一上豈是慣弄舌鎗筆劍而成好辯哉予不得已也只為彼時泛泛之流不悟本地風光無論眼足之全與不全頭尾之正與不正妄豎赤幟邪見益熾恰似些布販子禪縱然討得幾分利息不知他在十字街頭誇了許多斤兩搶了許多行市方纔賣得出門我故不忍聊為拯救不見古人道會得自己不會目前此人有眼無足會得目前不悟自己此人有足無眼又道有頭無尾時如何吐出黃金作甚麼用有尾無頭時如何猶有依倚在是必眼足兩全頭尾俱正始可向高高山頂立深深海底行也直饒如是但可與人天為師若云放下鐵枷一著敢保未在予所謂箇箇認為窠臼者要在會得則舉足下足無非道場未得則行棒行喝還類戲論如曰一棒打殺與狗子喫致令天下太平又曰拈椎豎拂泥洗泥瞬目揚眉籠中雞且不狗子果喫乎椎拂果泥乎眉目果籠中雞乎趙州云我有時將一莖草作丈六金身用有時將丈六金身作一莖草用建立在我掃蕩亦在我須是具得者般手眼始可

說得者般語話豈肯逆風揚沙自取撲面見人執熱而不以濯哉釋迦達磨自不我欺也大眾思之昨見破山以龜木過譽老僧蓋一眼之龜值浮木孔此喻值佛甚難今既浮而孔矣何幸如之遂有頌三百餘會四十九獨有法華談其後片雪紅爐囑付間山水從來只依舊誰是法碎玉疏林金風颯誰是華破雲漏影蟾光匝何如海岸古靈龜直入浮槎實瀟灑到者裏銀漢飛碧波火燄垂青靄果然夏蟲難語冰果然井蛙難語海。

示眾舉僧問趙州萬法歸一一歸何處州云我在青州作領布衫重七斤師云若問聚雲萬法歸一一歸何處老僧只向他道常憶江南三月裏鷓鴣啼處百花香。

示眾舉圓通秀云達磨九年冷坐剛被神光看破於今玉石不分祇得麻纏紙裹者一箇那一箇又一箇若是明眼人不須重說破大慧云面壁九年話墮可惜當時放過於今默照之徒鬼窟長年打坐者一箇那一箇又一箇雖然苦口叮嚀卻似樹頭風過師云二老恁麼語話未免笑殺旁觀聚雲則不然碧眼老人格破東來第一上座自是本色天真多少癡人慢過者一箇那一箇又一箇強作羅緞經紀卻把尺頭認錯。

示眾學問誠弟子之業講解實師長之任若學而不問猶見食而未餐若講而不解猶施方而無藥然餐者所以得味味知而甘苦從心藥者所以治病病瘳而違順自覺儒云人莫不飲食也鮮能知味也釋云我的一念相應草向鑊湯爐炭裏醫苦惱眾生正此之謂要知食與藥非徒在語言文字也即日用中一言一行一理一事莫不具聖賢模範佛祖階梯第人人忽於尋常盡皆當面錯過且如學者以恭敬謙讓規矩勤勞為先是必恭敬以尊長謙讓以懷友規矩以循禮勤勞以任事若然者則自暴自棄之端無繇而發曾子以親在而叱吒之聲未嘗及之於犬馬其恭敬之謂乎至於教導之師亦必以端莊嚴慎慈愛善誘為先蓋端莊嚴慎眾無慢侮之人慈愛善誘僧存仰慕之心叢林政此二端則學問有條講解有序弟子入精進之門師長廓慈誨之德上下相依尊卑相守模範在斯階梯亦在斯矣又何患凡夫之不易聖賢也歟哉亦何患眾生之不證佛祖也歟哉請細思之。

示眾古云大道只在目前要且目前難睹欲識大道真體不離身色言語余謂此語如西域牛乳可作醍醐可作毒藥何以故若具有金剛骨底漢子恁麼會去出世住山隱跡垂手便能不起滅定而現諸威儀不捨道法而現凡夫相即癡即亂即犯而具足三無漏學巍巍堂堂磊磊落落行履有方居止有鑑真人天之眼目佛祖之再來若乃身跏趺而兩足不住合雙眸而眇眇不歇說與師齊心包暘眚口誦慈悲腹藏戈戟或以誌公鴿子布袋米汁玉泉皮褲獅子彩服道是吾宗之一範則四老成坑陷後來之祖師也若以臨濟喝德山棒天龍指石鞏箭而為門戶之免帖則四老成巫祝攤神之案子也於彼本命元辰何曾得箇落處所以道則人人本具德則人人不全全德猶可全才亦難德有餘者世可佳才有餘者世不佳才德兩兼大道存矣。

示眾明德親民止於至善為仲尼者不得此則不名仲尼自覺覺他覺行圓滿為如來者不得此則不名如來此兩端從微至著不無因果從因至果又豈無微著也耶古云知道易力行難然而難與易一法也知與行亦一法也今之學者以難為易以易為難知面不行行而不知是則學仲尼者不惟不及而且不明學如來者不惟不見而且不信矣其奈知與行難與易何夫何以謂之知與行難與易也思慮擾吾心情欲牽吾性知也不盡情欲以養其性絕思慮以澄其心是所謂終日行而不知也對境即生心遇事則想舉行也不就境以忘心觸事而掉舉是所謂終日知而不行也物來則分別理過則留礙易也不即物以明道隨理而無礙是所謂以易為難也能所花其志情識琢其體難也不消能所以清志泯情識以安體是所謂以難為易也嗚呼人生百年恍若剎那忍將一段虛明而喪於情與物境與事之間真可謂當面錯過矣悲夫。

## 茶話

元夕茶話娑婆此夕號元夕火樹銀花皆不實畫○相云爭如者箇不曾遷恒照春林三山竹僧問如何是諸佛大圓鏡師云打不成鑄不就問昔生公說法頑石點頭如今說法人多因甚頑石不點頭師云祇為過東往西觀南眩北進云如何得點頭去師云陝西棗子四川蘿蔔。

茶話求生本自無生謂滅何曾暫滅眼見不如耳見口說爭似鼻說若也會得梵語阿彌陀此云無量壽如或未然歡娛嫌夜短寂寞恨更長。

茶話小盡二十九大盡三十日盡情都說破恐汝信不及僧出師云汝號甚麼答云覺圓師云汝號覺圓必定圓覺圓覺覺圓鏡花水月以箸指香云喚者箇作不圓得麼若是不圓為甚麼爇一株時室羅筏城四十里內一時得聞以箸指燭云喚者箇作不覺得麼若是不覺為甚麼暗中物事借渠方纔照見是知世出世法無一事不圓無一時不覺到者裏猶是半提僧問如何是全提師云夾路桃花風雨後馬蹄何處避殘紅。

茶話有一員大善知識三頭六臂常在一切凡聖境界中轉大法輪洞山遇著與他結冤神鼎遇著與他恰好聚雲與他批判一上貪嗔癡太無知賴我今朝識得伊行便打坐便捶分付心王仔細推無量劫來不解脫問你三人知不知此是洞山結冤處貪嗔癡實無知十二時中任縱伊行即往坐便隨分付心王擬何為無量劫來原解脫何須更問知不知此是神鼎恰好處且道聚雲如何批判一箇如牧牛人執鞭一箇如騎牛人吹笛執鞭底到來函谷愁中月歸去蟠溪夢裏山吹笛底顛狂柳絮隨風舞輕薄桃花逐水流只如放鞭擲笛又作麼生衲被蒙頭萬事休此時山僧都不會。

茶話古人道識得一萬事畢我則道識得無明萬事畢蓋無明者教家謂之覺明種子所以緣行緣識緣愛緣取緣生緣死而成十二因緣鉤鎖三世眾生如明鏡一向開張千醜百怪無不影現若能打破此鏡佛上不立何況因

緣大眾還識得此鏡麼一僧云不會師云會取不會底進云如何得打破去師良久云破也破也只得鐘子落地盞子一天星。

茶話有問有答尋常事無聞無見謾商量頭頭盡是西來意何事從中較短長是即是只恐逆風撲面難掉頭不但拂著別人亦且昧卻自己到者裏直須脫下垢膩汗衫向沒巴鼻處打箇筋斗沒撈摸處扭轉舌頭恰似一箇死人一般等他漫漫活將起來有時放道清淨光即是清淨法身佛有時放道無分別光即是圓滿報身佛有時放道無差別光即是三類化身佛及到三身坐斷獨露本源便是十地滿心等妙二覺來汝隊中討塊閑地筍腳也沒分快事快事。

茶話舉仰山問中邑如何是佛性義中邑云我與你說箇譬喻如室有六窗內安一獼猴外有人喚曰猩猩獼猴即應若六窗俱喚俱應山云只如獼猴睡著時如何中邑即下禪床把住云猩猩我與你相見據者段公案仰山如是問中邑如是答老僧今日做箇旁不肯底為渠說破試問獼猴正睡著時又作麼生良久云銀碗覆在雪山上四聖六凡一帕包。

茶話古人道普周沙界渾成飯鼻孔累垂信飽餐聚雲者裏則不然普周沙界渾成法鼻孔昂藏任抑揚何以故只為三世諸佛諸大祖師俱在鐵牛鼻孔裏安身立命卻不可作鼻孔會問鐵牛鼻孔即今在甚麼處師云燭花有瓊樓香煙生玉殿進云不會師云你只管看。

除夕茶話師指壁間曆拈示眾云有箇無情物事卻能說法不免頌出頌曰宗源一片白妙在白中黑七十二侯總包含二十四氣經掌握吉凶禍福早先知進退存亡觀自得雖然面壁沒人情卻也不礙人朝閱春去春來那得知全憑無口為君說老僧何故借渠言大用都來同一著一僧出於空中畫一圓相云是者箇麼師曰春牛頭上規車子三百六十一周天茶話昨日十三是過去明日十五是未來今日十四是現在過去不可得未來不可得現在不可得既不可得只今大眾雲集僧堂對燭光對香煙喫茶說話周旋宛轉是過去耶未來耶現在耶一僧出云請和尚道師云你看是甚麼東西僧云團不攏撲不碎師云喚作甚麼僧舉燭云是者箇師云離卻者箇盪僧云一句不較多師云張三門外叫李四門內聽一箇舌頭長三尺一箇腳掌長二寸又作麼生僧云莫是平地起風波麼師喝一喝僧云請和尚再喝師以茶鐘覆卻歸方丈。

茶話舉三聖到德山會下參踢天泰首座座云行腳高士須得本道公驗作麼生是本道公驗聖云道甚麼座再問聖打一坐具云者漆桶從來觸忤多少賢良師云老僧看者首座大似將蚯蚓作鉤餌向大洋海中把釣忽遇箇呵氣成雷噴波成雨底出來只得拋綸罷釣去也若是老僧則不然若云道甚麼只向他道者一張作闍黎遮身符再把一張為你批判作本道抵案若打一坐具當劈脊連打趁出云不用你者無印信底白紙為甚麼卻如是祇因臨濟會下多有參箇擊石火閃電光舉了便會了底消息便爾到處拿捏諸方恐嚇人家男女若是打頭收下一箇令後來底不敢造次。



四世法孫普陀性統重梓(四之二十)

吹萬禪師語錄卷之四終

法語

示慧岳禪人大道絕同任向西東石火莫及電光罔通此臨濟老人語若論此事人人本具箇箇不無為甚麼有凡有聖有智有愚有得有不得似不可謂之同若能凡聖情盡智愚見銷得失關破任運無礙又不可謂之異到斯境界同則不同異則不異自西自東自南自北何不可者豈可以石火及之電光通之耶多見今之參禪人但以擊石火閃電光舉了便會以為落處引人業識茫茫無有了期慧岳禪人始侍憨公繼參博老復以榆里之懷參見聚雲請示行腳信手書之第一不得道老僧住在者裏。

示博野禪人索字汝欲學字始而一點一畫一剔一挑全用心意識繼而手忘筆筆忘紙星馳電卷勢如塞上之將軍魚躍鳶飛妙若空中之噫氣何曾與心意識商量來不可謂學字參禪卻有兩端說話。

示香燈侍者汝請心要不離香燈何故是香即心是心即香熏成無漏心跡亦忘是心挑燈是燈挑心心燈亦如大地黃金既云心跡亦忘為甚麼又道大地黃金良久云脫落語言文字外須知別有好商量。

示本源大德地水火風頑然無知聚而為身總是一塊血肉因知而有運動然知因心起是則心為身根四大盡屬枝葉矣方其病時看是地病耶風病耶水病耶火病耶若是地病地性堅實如何得病若是風病風性隱藏如何得病若是水病水性清涼如何得病若是火病火性空騰如何得病若是知病知本虛妄如何得病若是心病心無形相如何得病直須恁麼一覷覷破則地水火風本來無病知覺運動本來無病無相心根本來無病諸病既無地水火風亦無地水火風既無知覺運動亦無知覺運動既無無相心根亦無無相心根既無無無亦無無既無矣直者覷破諸般病源根境知覺底一些子亦無會得者一些子了更有箇出脫底方兒雲門扇子[跳-兆+孛]跳上三十三天觸著帝釋鼻孔東海鯉魚打一棒兩似盆傾茲因本源大德有採薪之憂走啟請益老僧施方卻之只得將自己服過靈驗底萬應丸聊與一枚用精進水送下霎時平復急來聚雲酬我藥價。

示劉居士參禪須要實實領取一箇話頭僧問趙州狗子還有佛性也無州云無茶來飯來行來坐來煩惱境界來只將者箇無字與之煉磨來煉磨去煉磨到不得已處虛空忽然粉碎大地自爾平沉方知道三世諸佛也只是無諸大祖師也只是無天下老和尚也只是無僧也只是無俗也只是無你也只是無我也只是無春遊芳草地夏賞綠荷池秋飲黃花酒冬吟白雪詩無中卻有閒四序晝夜頻呼十二時。

付囑隱首座慧祖一脈承接最難其機微其用普其言顯其法闊烈燄輝揚  
覷著焦頭爛額吹毛劍利觸之斷命消魂眼裏抽筋說甚相如奪壁腦後出  
楔猶愈下客偷裘老僧幼時讀他語錄就被穿卻鼻孔誰知接他末代法嗣  
只得勉效螳螂為求輔弼幸有營山慧機隱然別號鐵壁者自參聚雲力究  
多載後值老僧結制皆分座首眾焉至於見地行履玄要深奧老僧勘驗有  
在特付拂子一枝以永續後裔云。

示學人古人謂修行人要以生死二字挂在鼻尖頭上余曰不然生者跡也  
而生生者未嘗始死者亦跡也而死者未嘗終我何畏之哉但今人日用  
中於意必固我之情未化人我眾生壽命之相不銷每觸境隨流背覺合塵  
者有焉所以工夫不得力應事不圓融也吾願諸學人值一念方萌之際即  
以是審此是慳貪是毀犯是嗔恚是懈怠是散亂是愚癡是邪見是煩惱審  
之又審則知數種乃性中病也既有病當速治以藥藥何在在能審者倘病  
在慳貪則治在布施也病在毀犯則治在持戒也病在嗔恚則治在忍辱也  
病在懈怠則治在精進也病在散亂則治在禪定也病在愚癡則治在智慧  
也病在邪見則治在正思也病在煩惱則治在正覺也故知病從我生亦從  
我滅又安知通身是病通身是藥與若能如是著力做將去儒即謂之慎獨  
謂之誠意謂之求心道即謂之採藥謂之情來謂之玄關一而三三而一也  
更有百尺竿頭一步只等耳能見時方纔鼻說何也日暮鄉關何處是煙波  
江上使人愁。

示學人世尊謝轉輪而苦行雪山持錫鉢而周流舍衛是窮乎是通乎仲尼  
飯蔬飲水曲肱而樂遭阨於陳而絃歌不息是窮乎是通乎莊子以波臣而  
不受賜顏回學夫子之道而不仕夷齊餓首陽而自殞曾參頽冠露肘三日  
不火而歌商頌之詩許由棄瓢子陵把釣楚狂辭治而負釜他邦此數子者  
亦是窮乎是通乎即上古尊宿有以百綴千補之鉢囊鞋袋為重而以冬溫  
夏涼之短褐布綴為輕而棄之者有言住持非我志不如放意於千巖萬壑  
之間日飽芻粟以遂餘生者有二十年掩關而不出山者有常攜一筇穿草  
履被人呵之而不變者有編葉為衣坐於石上如佛圖澄之狀者有自燒其  
庵而遁跡深入者此皆違乎世而通乎道也何晚輩出家之流濫冒闍黎之  
德徒假練若之尊又不探其古人行腳亦不究其自己性命如醉客之迷珠  
若達多之認影甘心碌碌三三兩兩掉手踵足於世路之中流而不返失其  
真妙覺明闡揚一生虛妄驀然三寸氣銷只一寒灰冷土嗚呼是者不惟有  
愧於三教之大老而亦無面目于地下也余勉諸學人勿貪一毛之小得而  
牽動億劫難挽之識神勿隱一念之留愛而栽三世不解之革囊只須鐵輪  
旋頂而不退不可中道困窮而改節默默無為願超界外方名出世丈夫縱  
於世一無所得而無心自有獨得耳又安得不稱為從佛化生之子耶至祝  
至祝。

示方善人淨名大士以諸有所作舉足下足為道場余曰可然猶未可也夫  
三百戶之嵩陟必發足於根設不自卑豈插翼而搏羊角者也三月聚糧之

程適必繇於莽蒼設不自邇亦豈蓬蓬然而之南之北者例也固知繞繩床者歌梵唄也豎莖草者趺伽婆也箇非神領意會孰能灑脫竿頭一步也歟此聲教一法得有益於族姓者為在階梯也如斯方善人之所舉獨無所作與足下者乎弟若為道場認則窮子見父而弗識也若非道場認則古佛過去而弗知也不然且假愛日以熱裊旃檀藉嚴霜而飛揚甘露倘火口得吐青蓮金光概垂白象其於侵藤滴蜜之患亦赫赫頓除矣錫慶何以盡諸言哉故同室居士輩以是而不可不之贈亦以是而不可不之勸也。

示周居士或曰居士者有志於維摩無果於釋迦有行於毘耶無感於舍衛得不邊其為我而殄其兼愛乎咄若故不可以語道也維摩者淨名也而名也者實之賓也淨也者寂之體也果其志於維摩是則住持圓覺之體用也何不可之與有第古今之異猶猿狙之異乎周公也舉動無冬涉川畏四鄰者恐自甘於柴柵纏繳中尚毘耶且霄壤之隔而況舍衛又能以無翼飛者乎此必得鑄人之師至則五石之瓠可用而浮於江湖矣何舍衛之不能感者耶余謂居士其得鑄人之師否居士曰得矣既得之余以是而印夫維摩亦以是而印夫釋迦使或人杜口自去。

示東旭禪人古有男子呼羊作馬無能子哂以為狂男子曰昔之勗言者若以輕清為地重濁為天公必不敢更易奈何我之天倪任運放曠而若是審斯言也余亦間嘗為南北之論曰世遷界移徒定經緯於蛙角名虛相幻難鑄策籍於海漚況復一心之法庸詎以南北之見而封之乎第覈其南北之說也不病其宗而病其言繹其言也不病其言而病執其言者也蓋神秀大師黃梅之上座也惠能大師黃梅之行者也衣鉢南行特法無親疏悟有遲速耳豈黃梅有若是南若是北之異地耶如丁寬學易於田何學既成而歸田則曰吾易已東矣龜山學道於程顥學既成而歸程則曰吾道已南矣抑亦易有東西而道有南北乎矧能之嗣四十有三秀之嗣十有九人共播黃梅之法然派之促延法之斷續不在門戶而在時緣安謂其服藥不驗而罪歸夫神農軒岐也妙喜云元初只是一箇達磨甚處有許多門庭旨哉言歟有譏言者曰當其受法時秀偈莫如能頌此謂秀有拂拭之語而能有本來無物之說不見臥輪道臥能有伎倆能斷百思想對境心不起菩提日日長六祖道惠能無伎倆不斷百思想對境心數起菩提作麼長天童拈云葵花向日柳絮隨風故知法有頓漸機有先後葵花柳絮詎各偏其定動哉洛京荷澤曾有問於六祖曰先頓而後漸先漸而後頓不悟頓漸人心裏常迷悶祖答曰聽法頓中漸悟法漸中頓修行頓中漸證果漸中頓頓漸是常因悟中不迷悶所謂聽法頓中漸六祖聽經時也悟法漸中頓六祖受衣時也修行頓中漸秀師呈偈時也證果漸中頓秀師說法時也師有示眾偈曰一切佛法自心本有將心外求捨父逃走據驗斯言乃可信頓漸是常因悟中不迷悶也東旭禪人自沮漳入蜀禮莪眉過南濱見老僧於聚雲禪院坐間常請益南北之源老僧據實答其如上之說始知禪人乃度門誨公大師之後也誨公曾參蒼谷老人老人則北宗之神駒也故度門一脈鼎新皆賴於誨

公而三慧庵又則度門一枝焉禪人即三慧主人也雖然道不遠人必假蹄而得兔宗不離性當師蟻以求泉禪人本北宗法器復參南印於西蜀者裏會得逮見其慕秀不必北而識能不必南也明矣呼羊作馬指馬為羊無能子自累其怪聽予偈金不箔金水不洗水者裏翻身一錐子問道南北是何宗卻向自家合口取咄遍地霜花鳳閣邊一輪明月丹墀裏。

## 入堂

入堂參話頭一節乃古人為後學開底方便法門祇因心意識三種雜毒難除與他一箇硬石頭磊在胸中方始除去一切絡索若把著不變何異無病服藥藥反成病久久倒作箇死煞東西或有工夫稍起者但見參時有不參時則無靜時有動時則無醒時有睡著則無說時有不說則無縱少有見處總在黑山下度將來何曾十分透脫若是箇力量漢鐵起脊梁放下身命千咀萬嚼把者硬石頭百啞碎依舊是箇現現成成底便爾開眼眼上有話頭側耳耳上有話頭縮鼻鼻上有話頭動口口上有話頭伸手手上有話頭舉足足上有話頭自從得入黃金殿四壁光明遍十方。

入堂舉長沙云我若一向舉揚宗教法堂前草生一丈聚雲不然我若一向不舉揚宗教法堂前草生一丈舉也不得不舉也不得作麼生得法堂前草不生去良久云田中蛙鼓叫嶺上野猿啼。

入堂大凡參究者箇一切皆有悟處有行持禁戒向衣鉢邊得悟者有看讀經文在語言中得悟者有入眾作務觸物遇緣得悟者看得破時處處菩提路門門古佛家不勞重進步海角與天涯。

入堂南泉住庵時文殊普賢相打各與二十棒趁出去昨夜阿難與迦葉鬥打不休被老僧向前一擱卻入手掌裏去也今日對眾舉出喚都管押赴三門外各打二十拄杖免得紊亂祖師門庭。

入堂老僧自剃除來在行腳不曾托鉢應供賺陷人家男女人人天小果去住叢林不曾蓄一粒米種一莖菜結箇人緣打污閻老子記湯水錢簿子單單只豎兩道眉空著兩隻手無論行腳住叢林羅獵諸方衲子為伊抽釘拔楔而已若遇箇與佛祖結冤讎的來即為渠搗通漆桶打破糞鉢管教臍脂帽鶻骨衫當下解脫渠也只得做箇聖諦亦不為底便休。

入堂僧問趙州萬法歸一一歸何處話師云但不知以何為萬甚麼是一莫是以萬象森羅喚作萬法耶經論語言喚作萬法耶心是一耶性是一耶若恁麼會大似隔靴抓癢又不知喚甚麼作何處若以威音那畔涅槃後有為是則達磨一宗埽地久矣趙州云我在青州作領布衫重七斤此語甚是奇特直是錯會者多有謂隨處拈來用得親者有謂不在語言直以舉處為是者有謂此是不說心性語乃是無義味語教人默會者若恁麼會不唯昧卻自己鼻孔亦乃埋沒趙州既不恁麼如何即得師云我在青州作領布衫重七斤直須恁麼始得。

## 入室

問僧麻三斤乾矢橛此是甚麼人語僧云癩狗泥豬語師便打。  
問僧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首山念唱導大慧祖依樣畫葫聚雲  
又作麼生僧云鐵菱角笑殺水烏龜師便打。  
僧入師以拄杖畫○相云此是一字於左邊畫○相云此是二字於右邊畫  
○相云此是三字昨日說與謝三郎今朝說與新闍黎僧云洗面摸著鼻孔  
響師云你鼻孔在甚麼處。  
問僧八角磨盤空裏走是甚麼意旨僧云無手行拳師便打。  
問僧橫擔拄杖緊鞞草鞋是甚麼人行履僧進前兩步師作聽勢。  
問僧無字作麼生參僧彈指師打云莫道無語好僧云還許學人問話也無  
師打云莫道有語好僧云學人不會師復打。  
問書記會寫不怕筆頭椿記云不打者鼓笛師打云不打者鼓笛記云無手  
人又作麼生師打云不打者鼓笛記云草裏漢師打云不打者鼓笛。  
僧入師云我不問你僧云為何不問師便打僧大叫師連棒打出僧入師云  
適纔有箇野狐被老僧打出去了僧云某是新產獅子兒師云我知道你僧  
云和尚也須骨出師云汝不是獅子兒。

## 勘辨

有僧自曹溪來參師云我有箇人往曹溪僧云是甚麼人師云喫粥去。  
有行腳僧慕朝海師云海雖闊大卻是川水流去底僧云未審川水在甚麼  
處流來師喚侍者云盤中菜著些醋好。  
侍者為師設飯床太遠師自撤近前者云君子離臺三尺師云衲僧響者無  
語師代云近也喫遠也喫又云和尚年尊將就些好。  
師住金陵觀音庵朝宗來參師云甚處來宗云天童師云天童近日何如宗  
云大家在者裏師云不要說脫空話宗云師何不住天童去師喝宗云落在  
甚麼處師便打。  
劉墨仙居士持聖恩問道錄見訪與師坐間論及楊岐九峰之語師云正恁  
麼時楊岐在前九峰在前士良久問和尚又作麼生師便喝士云者一喝是  
前是後師翹一足士禮拜。  
一僧來參師問甚處來僧云金粟來師云如何是金粟得力句僧云白雲覆  
青山青山不露頂師云此是意識家語如何是得力句僧云虛空粉碎大地  
平沉師云此是義學家語如何是得力句僧無語師云汝不曾從金粟來。  
中秋師遣侍者送餅二員至僧堂上畫一眼一足傳話云不得刺著眼不得  
折卻足作麼生下口。  
晚課次師問一僧云自己是僧又皈依箇甚麼僧云不妨自皈師云語不離  
窠臼安能出蓋纏僧云從來不出門師云笨驢推磨。

勘初機語西來大意直指單傳且道傳箇甚麼。  
心佛與眾生是三無差別為甚麼凡夫不會。  
水牯牛未降猢猻子未死衣鉢放在甚麼處。  
勘諸方學人語可中有一物牙如金爪口似血盆一晝夜吞卻八萬四千恒沙諸佛未審過在甚麼處。  
座下無席帽案邊無胥吏階下無荊條竹根為甚麼祖師語言喚作公案。  
形直影端表裏須正為甚麼佛祖袈裟東高西低左披右袒。  
六根俱有功德為甚麼祖師多唱鼻孔。  
父母生汝身師長訓汝法為甚麼捨父逃走背師行腳。

## 問答

僧問薰風自南來殿閣生微涼意旨如何師吹一口。  
僧問世尊道天上天下唯吾獨尊為甚麼雲門要打殺師云路見不平旁人剷削。  
僧問從上佛佛祖祖相傳傳箇甚麼師云老鼠不教兒打洞生來自識仰天窩。  
一僧作禮云請和尚上雪山去師云我纔在雪山來僧云某甲在雪山不曾得見師喚侍者一聲。  
僧問如何是當機一句師打云速道速道僧擬對師打出。  
僧問既是死了不曾埋底又如何答得話師云唐以劉瓚為秦王傳。  
僧問一句當軒八萬門如何是永絕生死句師云毘盧頂上行。  
僧問如何是諸佛法身師云自從晨朝喫了粥只至於今肚又饑問如何是頂天立地底師云臺前石香爐。

## 答漢月禪師四問

正睡著時與死了燒了心之與性牙齒打不著須向者裏希取大用始得如何是此處底大用。  
答云寧向太陽粧羅刹不來黑暗扮觀音。  
沿流不止絕卻真照照不到處如何是吹毛用了急須磨且道磨箇甚麼。  
答云折腳鐺裏淡黃齏。  
用處既已脫卻心性切莫在離心性處躲根除此二邊如何相見。  
答云纔過驢胎又鑽馬腹。  
近世野狐都說心性禪不知姓張姓李請禪師代答一轉語貴圖天下衲僧脫卻腥臭。  
答云奪者老賊頭拄杖拗折莫言不道。

## 問漢月禪師四問

作相問用水一碗貯米七粒架茅草十字在上請道是甚麼義。



為仰九十六種圓相收在六義問者箇收在那一義。

古人道八角磨盤空裏走不知是空走磨磨走空。

老鼠吞大象蝦蟆口咬著吞不入拖不出蒼頭老兒跳一步請下一轉語。

## 擬漢月禪師答陳學憲十七問(并頌)

渴鹿問。

答口裏有水。

動步已較三十里歷盡天涯何處水誰識火燄即寒冰不肯埋頭甘浸死  
摩尼問。

答問取埋者即得。

拾金原是窖金人頭頭觸著恰相親無奈狹人成巧偽揮鋤不顧立門庭  
一斬問。

答吹毛底漣。

斬箇甚麼斷甚麼百萬絲條貫寶羅堪羨富嫌千口少果然貧恨一身多  
一等問。

答到口便知。

三寸喉中一也無誰能於此立親疏門對青山權作案逢人依舊馬蹄孤  
黑夜問。

答只消一縛。

鉸鑿釵釧許多時須信兼金性不移括囊無咎誰為咎客邸河山到處栖  
家親問。

答直須撤下靈牌。

改頭換面出梨園歌舞場中各一邊曲罷捲簾無別事咳唾依然父子間  
的的問。

答你問我我問你。

馳走沙堤艱息跡燈裏橫身滅影難不信但呼山谷響問答無分只自看  
堪輿問。

答三箇品字石。

天罡地煞滿闌千萬里山河咫尺間撥盡樞機全不露一腔星斗逼人寒  
家宅問。

答貪心不足。



局定方隅身自小何曾無礙出籠羅翻身一腳崑崙碎剎海塵塵不較多  
電光問。

答只須倒騎驢。

疋馬單鎗固縱橫五關猶有不平人從寬何似塞翁老來去由他莫認真  
大慧問。

答尖鋒頭上坐。

素絲未染誰添色青出於藍已廢弛言語不驚楊布犬者回非是換衣時  
胡來問。

答手掌原是佛圖澄的。

胡漢紛拏緣鏡作佛生對待祇因光擊碎青銅圓相在鳶飛魚躍自成行  
未開問。

答不打不成人不罵不相識。

善惡難逃業鏡臺當頭一照信奇哉九二自然全體見不將風雨惑人猜  
日昇問。

答伸手便拈著。

腳頭腳底事如何用捨從來犯折磨豈意桃花風雨後落紅滿地響春多  
今修問。

答會取不修行者便得。

赤子雙眉欣戚無看盡河山眼自疏不解掉身雄一步徒然南面快稱孤  
高峰問。

答只因大徹所以命根不斷。

火燄為燈陷撲蛾淨塊迷人孰奈何不然倒傾海底盡一顆紅輪上大羅  
一句問。

答是那一句。

暴秦強楚亂紛紜毒殺黎民海不清博浪一椎驚破膽漢天從此耀雙輪  
吹萬禪師語錄卷之五(終)

頌古(著拈)

世尊上座文殊白椎。

浩劫渾淪足未通河圖中湧立天宗若非庖氏知消息八索九丘孰與窮。  
凍嶺梅花鬥雪開暗將香氣逼人懷浩然一見難藏興吟得春風特地來。

文殊起佛見法見墮入二重鐵圍城東老母不欲見佛亦於地獄避之。

長安尊貴人難住功勛猶自出輕車巫峽猿啼數行淚衡陽飛雁幾封書何似歸來花樹下把酒高歌意自舒。

漁人戴月灘頭戲樵子插花巖畔行平常心地人不識一回艱險一回新。  
墮墮連我也在地獄裏不墮不墮恁麼又怎拔得起一粒鼠糞污鍋羹況復八粒叫誰洗雲門棒下轉身來牧唱樵歌皆繇爾。

峽嶠持語。

峽嶠摩羅初出家乞食更遭不著便持語回旋曲折中一兒墮失千斤擔。

看八地文打失布袋。

夢裏渾身直渡河猛然覺起通排擯都盧花碎一篇文始識湛堂師眼正。

牧庵機緣。

兩眼如磨被水所推磨爛心子來說是非。

回石頭機緣。

鑿石石鑿兩火並發悟箇甚麼硃磕硃磕。

馬祖傳書道欽。

殷勤致拜麻三斤通名誰喚破沙盆長裙新婦拖泥水三腳驢子弄蹄行。

南遇二老唱和。

夜月高樓霜戶開百花素女廣寒來玉人笑倚闌干上執手牽衣過御階。

趙州勘婆子。

妖鏡從來不徇情當陽照破野狐精而今大地無差路多少長安感舊人。

雲門須彌山。

等閒平地起骨堆欲脫塵囂反自埋賴有霹靂無情手把得山河擊碎來。

竹篋子。

秤錘移在衡稍上星兩錙銖已盡時忽然撈落跳捋來腳跟撞著腦門鎚。

啞人口裏呷黃連苦透心肝不可言惡手還他劈面掌椎胸踢腳哭蒼天。

乾屎橛。

長尺八寸兩楞一徑灰裏土埋人人有分。

如何是佛乾屎橛多少癡人亂摸索三歲孩兒弄花鼓到處逢渠活鱖鱖。

德山托鉢。

一箇拏龍捉虎一箇收精攝怪無端四眼雪峰看作橫行螃蟹。

末後句。

倒騎紅鼻子踏破面黃頭三更蝦蟆叫月宮海底流。

法身。

麥地牛生草沙河馬捉魚紅爐冰種火梅花夜讀書。

竿頭進步。

腳板戴紗帽牙齒寫行書虎頭獨角龜蓮花上老夫。

異類中行。

擺手倚門立埋頭拍掌笑翹足眼翻天側身開口叫。

懸崖撒手。

打破皇桶**箍**擊碎琉璃盞絆斷舊葛藤腦後踈箇眼。

青州公案(十首)。

昨夜椒花獻歲窮輪來日紀有無中誰知陌上黃鶯在唱起堤楊一帶風。  
長至日來一線天山中寒盡不知年經行又到層巖上雪裏梅花帶笑看。  
阿誰化我一文錢布袋肩頭十字顛指出明州城外路白雲片片數峰寒。  
萬頃茫茫一葉舟東西何處是風流豈如把釣沙灘上明月盧花色轉秋。  
夜深村外宿人家驚起游行路轉差曉唱一聲東白後千紅萬紫閃龍蛇。  
可憐一塊中原地多少迷人作戰場六邦自有同心術卻使蘇秦弄舌鎗。  
到處長安是我家堤楊樹樹有栖霞木公卻渾三春令故遣鶉聲送落花。  
宗門老賊慣施為問著先排一局棋不解當頭雄箇包都來累殺馬車兒。  
追影捉人休擬意隨標得月豈沉思言前不解翻筋斗執相求玄總是癡。  
海印樓臺月下花春風和氣滿煙霞遊人到處尋蹤跡卻在東村王老家。

天上天下唯吾獨尊。

夢裏茫茫一覺癡都來昧卻上床時齊人故作金雞叫唱起秦關出萬騎。

金剛道後異熟空大圓無垢同時發。

莫訝桑田煙水漪暉飄味谷又嵎夷時人不解豐干子依舊天西老白眉。

舉一不得舉二。

南北仙人各一山狹路相逢似不干瓢中俯仰無人見暗裏同心臭若蘭。

一光東照彌勒起問文殊為說。

圖佩寰瀛山海齊長安壁上竟成蹊季卿且問家何在一葉飄飄渭水西。  
獨倫恰肖魯公癡彈珮泃然三不知斯時逐鹿誰優劣莊伯徒勞揮劍切君  
不見玉斗擊碎一腔血。

爆竹。

兩頭無路不通風筍盡層層造化工一聲霹破天花撒問取機關夜火紅。

火花(四首)。

柳柴為炭鐵為沙珍重砧錘仔細加燄火不消薪鬥湊自然銀樹燦金花。  
一聲燄燄出泥臺遍地鮮明花樹開莫畏臭煙皆掩鼻青淤曾伴白蓮來。

火樹猶如風裏電春臺相似鏡中花事與心交情不鬥隨時消遣若神槎。  
莫道苾芻局淨香何妨延蔓遍流芳境情無礙誰為事雪火投機滋味長。  
示四字。

庚

木雞撩倒百花仙徑寸盤中熱露涓軹鼓龍舟白鶴浪金鞍騮馬珊瑚鞭。

中

萬仞峰頭壁立寒招搖鶴舞玉闌干無絃夜弄師襄調六月楊花雪裏看。

昌

金毛踞地燦殊沙火燄青蓮水上花十萬億程飛琥珀無邊芝草鬥煙霞。

〇〇〇  
一

玉塌稜稜四角懸紅羅帳裏月初圓鐵牛啞碎相思夢魚在煙波鳥在天。  
汾陽十智同真。

八萬四千陀羅手手手各執不相知憐蚘未必齊百足神用天然莫可思君  
不見戲棚蝶臉烏紗帽強作悲歡與合離曲罷帳中無箇事你是何人我是  
誰。

遠錄公九帶。

莫道黃金無變易印觚環帶數千般有時插在婦人頭有時信行天地間簞  
簞隊中和八修端冕腰間鮮赤烏上方肘後任施為冶煉依然赤骨歷。

德山。

東西過後只道無一喝重來是丈夫不審祖師有何惡把茅蓋頭許罵渠可  
是潭中一臥龍滅燭開光不用功劍樹爪牙血盆口知他孤迥上高峰一條  
脊骨硬如鐵一根拄杖拗不折卻被巖頭捏怪來末後三年沒搭撒。

巖頭。

為甚承當號叢公密啟其意未為通何如廊下拍巴掌臥在鼇山罵雪峰蓋  
天蓋地自胸襟打斷當年亂腳跟一封書到謝不盡又道同條賺殺人是則  
是欠伶俐剛被婆子丟箇兒默默無言難出氣。

睦州。

現成公案三十棒挑得水來全沒帳盞子落地楪子七裂去收來有何益冤  
遭黃檗苦鉗錘痛殺雲門腳一隻看來都是掠虛漢辛辛辣辣門裏轉有人  
問著是甚麼只道秦時[車\*度]轆鑽。

雲門。

好箇兒郎生下地靈樹口邊已成記折腳痛處是宗源味卻別向雪峰去漏  
箇消息帶鐵枷擱住稍書亂如麻原來不是門外客打鼓還須弄琵琶跛跛  
挈挈好摟兜餬餅扇子與饅頭只能薦得第二句人天為師出口氣。

女子出定。

窈窕三人一鏡中黃眉皓髮眼睛紅被人撲破還歸影南北東西到處同。

丙丁童子討火因緣。

截斷黃河水逆流機心無處是歸休從前錯認雙頭馬到老纔看獨角牛。

五宗。

洞山兼帶唱絕奇觸著河山影畫眉通臨濟妙用縱橫腦後視貫法眼六臂  
那吒乘軒冕徹雲門白頭老婦捧銀盆透瀉山海底靈龍拍巴掌不是門庭

愛穿鑿巧兒慣向空裏索拈來一舉一回新蝶臉蒼頭如是說說說說  
看。



室有六窗內安一獼猴外有人喚云猩猩獼猴即應如是六窗俱喚  
俱應。

阿誰叫弱喪窮兒失父早阿誰聽塞卻真常只破鏡踏遍毘盧海一漚毛孔  
誰云參不盡君不見古彌勒老釋迦出入逢迎月滿華。

默然良久。

暫時不語非無言默默豈徒咬著舌若將恁麼會其宗笑殺鬧市古彌勒不  
見石鞏示西堂拽得鼻頭痛不徹出入供佛於息中無端捏怪雲峰悅兩開  
本妙及無生洪覺深顯嗅聞訣胡盧吹響樹一株四維上下咸成雪可是枯  
木裏龍吟可是花開春外劫屎窖挑出沒思量莫道此語是予說。

洞山過水見影。

水清徹虛明無彼此魚鱉蝦蟹渾屋居草木飛栖沉影子不知未過此水時  
渠容又向何方止莫是處陰息其蹤莫是無我不生爾從茲漏逗沒遮攔金  
殿重重懸符璽一指一馬會將來大地溶溶誰是水。

鼯鼠。

只者語聲粥飯氣又道同起又同睡驀然枕头塌前鳴何似高峰參悟處呵  
呵呵奈若何鳥飛還羽路鱗宿味魚窩直此物兮非他物休將鼯鼠亂猜  
摩。

世奇首座機緣。

兩響同一耳往來無罣礙穿頂破帽子顛倒一齊戴。

龐蘊居士問馬祖曰不與萬法為侶者是甚麼人(曲高和寡)祖云  
待汝一口吸盡西江水即向汝道(見煙必定是火見角必定是牛)士于  
言下頓領玄旨(果然賺入他網)。

拈云老人大說者箇語話盡大地都是水口在甚麼處盡大地都是  
口水在甚麼處。

未央宮裏同胡越赤幟竿頭驗正邪一降真龍君莫走者迴不是器中霞。

刺史陸亓大夫問南泉古人瓶中養一鵝(作甚麼去就)鵝漸長大  
(也是腫不益肥)出瓶不得(從來不在瓶內)如今不得毀瓶(無雲生嶺)

上)不得損鵝(有月在波心)和尚作麼生出得(求醫罔效)泉召大夫(直入虎穴)陸應諾(纔得虎子)泉曰出也(賺殺人)。

拈云一切卵生俱在瓶裏大小南泉那能一箇箇出得盡縱使出得也是假道伐虢。

即墨尚用千牛聊城只書一箭漏逢刻而有聲珠在盤而自轉牽藤引蔓兮若檻車之囚人紅爐點雪兮似神鳥之脫罟。

刺史白居易居士問烏窠禪師曰如何是佛法大義(平地起土堆)窠曰諸惡莫作(從來未曾殺人放火)眾善奉行(又要為蛇添足)易曰恁麼話三歲孩童也道得(太輕口生)窠曰三歲孩童雖道得(上大人丘乙己)八十老翁行不得(未若生一日而得覺了之)易領教(只得振衣彈冠)。

拈云者老漢久戀枯枝不肯懸巖撒手祇如尸棄佛道起諸善法皆是幻造諸惡業亦是幻身如聚沫心如風幻出無根無實性你作麼生行履去喜得官不容針私通車馬。

雪靜珠林扣一枝權拈黃葉賺啼兒石頑未解和心泣雲傍方將蜀道思死鷄懷時緣直諫敝衣留處引忠知應憐三月鶉聲苦為喚歸來莫放遲。

相國裴休居士見高僧真儀(見怪不怪其怪自壞)問黃檗曰真儀可觀(切忌認著)高僧何在(在者裏)檗朗聲曰裴休(真是探囊取物手段)公應諾(只得和盤托出)檗曰在甚麼處(對面分明藏不得大鵬金翅滿天飛)公當下知音(不因漁父引怎得見波濤)如獲髻珠(縱然奇特終是尋常)。

拈云者黃檗老子也是箇不知好惡的漢纔問高僧何在就落古人窠臼顯姓標名當時若是李老師在即把住云叫的是高僧耶應的是高僧耶渠也只得耳聽如聾口說如啞。

鹿焉為馬鳥豈是鸞苛法徒木之制蕭牆起禍之端不動干戈兮舌戰點醒枯骨兮還丹梅開縱有清香度終賴冰霜壯歲寒。

刺史李翱居士問藥山曰如何是道(醉客迷珠抱薪求火)山以手指上下(切忌裝風賣傻指東話西)曰會麼(早知燈是火飯熟已多時)曰不會(者不啣溜漢被人當面熱瞞)山曰雲在青天水在瓶(總是補中益氣湯加減)翱欣愜作禮(不入文殊門便落觀音戶)。

拈云俱胝和尚得天龍一指禪一生受用不盡那箇是豎起指頭的公案祇如藥山指上指下又作麼生會良久云蜻蜓點水蝸牛弄角。

燕人弱喪問家山指點南車路可攀假墓卻從襟袖溼親舁誰見淚痕斑葉飄樹底添新翠花放枝頭展舊顏不俟神槎重渡海張騫那得斗牛還。

秀才張拙居士參石霜(不免騎牛覓牛去也)霜問秀才何姓(釣竿頭上知輕重不是金鱗莫上鉤)曰姓張名拙(不要人誇好顏色獨留清氣滿乾坤)霜曰覓巧了不可得拙自何來(只令蒼龍脫骨金蟬退殼)公忽有省(不作忠良安入太廟)。

拈云石霜和尚也是慣用點鬼簿的漢纔逢人就問何姓若是箇有志氣的男兒值彼動口時即與一掌云者箇便是姓只叫伊巧拙難分。謁見臨門操短篲優游撒網得單梭縱橫不染長絲口壁引風雷上大羅。長慶謂太傅王延彬居士曰(清淨木然云何忽生山河大地)雪峰豎拂子示僧(各人自掃門前雪莫管他家屋上霜)其僧便出去(也是良馬見鞭影而行)若據此僧(大似撥草尋蛇搜山逐虎)合喚轉痛與一頓(切莫誤人人罪)公曰是甚麼心行(路見不平旁人剷削)慶曰泊合放過(恁麼老婆心太切)。

拈云當初既知雪峰放過此僧何不代渠一召云某甲彼回頭即云是甚麼也得快馬加鞭望前所進卻來論人過失有甚麼交涉處。操琴驚馬視鼓瑟動魚遊項白舞劍夷吾射鉤若還彈珮三不醒枉使雄兵夜血流長慶老喜綢繆只恐阿師空去也素影寒霜未識秋。

洞賓呂巖真人再參黃龍求指歸處(老鼠鑽牛角便見倒斷)半升鐺內煮乾坤即不問(下里謠歌那堪正調)如何是一粒粟中藏世界(要討自家茶飯不必拾人飯何)呂于言下頓契(始知飯是米作)遂作偈曰(朝為田舍郎暮登天子堂)棄卻瓢囊擗碎琴(念彼觀音力刀尋段段壞)如今不戀汞中金(一切有為法如夢幻泡影)自從一見黃龍後(誰知鼻孔原來在面上)始覺從前錯用心(湯水錢且置有人與你算草鞋錢在)。

拈云者洞賓道者也是一喚便回頭的漢倘不是黃龍刀刀見血未免報盡還來散入諸趣。

迦樓如意娑竭摩尼啄也轟雷燒赤尾啐兮破浪鼓蒼池昔日秦刀筆今朝漢傅師大節有符增鼎鼐青史名傳天下知。

常侍王敬初居士問僧一切眾生還有佛性也無(人人頂天立地箇箇鼻直眼橫)曰有(舉似我看)公指壁畫狗子(切莫弄假成真)曰者箇還有也無(積代簪纓暫時落薄)僧無對(不對最親切)公自代曰看咬著汝(打草驚蛇)。

拈云王常侍雖解白衣說法怎奈不遇作家費卻許多鹽醬當初若遇李老師在即與一喝云者箇是甚麼東西許你問有問無。

佛性猶如工伎兒幻成花鳥度春枝流橋住水賓非主空手提鋤我是誰妙喜翻圖明致格寒山扼腕助傷悲巴人解轉喉中舌卻使殘兵慕且思。

丞相王隨居士謁首山(無故抱鏡狂走)得言外之旨(是甚麼乾屎橛)自爾履踐(切莫動著動著三十棒)深明大法(依舊落在葛藤窠)臨終書偈曰(自寫分關遺囑)畫堂燈已滅(猶有火在)彈指向誰說(啞子做好夢)去住本尋常(神通並妙用運水及搬柴)春風掃殘雪(但得雪銷去自然春水來)。

拈云人到臘月三十日只懼債主上門未免埋頭縮腳者漢鼻孔端正負債已明所以臨難猶歌陽春白雪仔細看來果然詞熟腔正。

雲門糊餅趙州茶言外超宗別一家掉頭故落西山魄撒手權拈東土花君不見瀛洲神仙十八子出自桑樞蓬篚裏。

都尉李遵勗居士臨終時膈胃躁熱(只恐覺觀猶在)有尼道堅謂曰(來說是非者便是是非人)眾生見劫盡(茶來喫茶)大火所燒時(飯來喫飯)都尉切宜照管主人公(十方虛空包裹不著用照作麼)公曰大師與我煎一服藥來(禍福無門唯人自招)堅無語(果然說得行不得)公曰者師姑藥也不會煎得(未曾打破藥罐)。

拈云者師姑只解扶起不解推倒惹得近死之散人急水拋毬狂風鼓棹。

大夢從來覺繁柯總是枯浪靜珠還在金停沙自無玄機縱不粘絲線袈角難逃一轉輪。

英公夏疏居士問藍浦百骸潰散時(佛法不是鮮魚那怕煩卻)那箇是長老自家底(不曾爛的是)藍曰前月二十離蘄陽(是第二月非是月影)公休去(口裏不言肚中暗許)。

拈云四大如泡幻隨生滅也是四大如金剛不生滅也是恁麼貪生怕死的漢就有許多分別喜得藍浦和尚漏出一句康衢謠卻也不識不知順帝之則。

瓶破雀飛意如何縱雖隨他識未波君不見桑間女子度九曲密矣思之妙不多。

文公楊億居士問雲巖諒監寺兩箇大蟲相咬時如何(何不以錫杖勸解)諒曰一合相(卻是兩箇在)公過廣慧曰我祇管看未審恁麼道還得麼(得便得只得一半)慧曰者裏即不然(切莫弄巧成拙)公曰請和尚別一轉語(也是箇骯髒的漢)慧以手作拽鼻勢(是則是太造作生)曰者畜生更[跳-兆+孛]跳在(未曾動著一步)公于言下脫然無疑(卻被拽進了也)。

拈云大小雲巖廣慧好與三十棒一時趁出何以故一箇擲沙抵水一箇賣弄精魂不知楊文公在甚麼處脫然無疑去良久云伐柯伐柯。污樽土鼓無繁玉振金聲破格眾人畜之兮中行國士遇之兮智伯不識南泉異類行那能列上仙陀客。

節使李端愿居士問達觀曰心如何了(本無知覺用了作麼)觀曰善惡都莫思量(只恐內守幽閒猶是法華分別影事)公曰不思量後心歸何所(我不見一法在門外何故叫我進門)觀曰且請太尉歸宅(水流原在海月落不離天)。

拈云心不是有心不是無了亦不可歸亦不得只饒了無所了歸無所歸正好請太尉出宅。

心因境以了境會心而澄甘露唐將覆祥桑殷復興脫纏須就縛透網豈離罾驀直言無別翛然路可登。



太傅高世則居士初參芙蓉求指心要(自己寶藏不理會拋家失業走甚麼)蓉令去其所重(去了千層甲來著七斤衫)扣已而參(原來阿爺自家父)。

拈云山不是山水不是水此是浪子忘家窮兒捨父只至踏破鐵草鞋山還是山水還是水于今扣已而參的話要人自肯在。

醉客迷珠浪蕩遊瞋頭若魅復還羞心腸鐵石辭無媚欲得兵符臥內求。

修撰曾會居士引中庸大學參以楞嚴符宗門語句質明覺(莫把鉅石擬作黃金)覺曰者箇尚不與教乘合(死貓兒頭終是川廣藥材)況中庸大學耶(大似毫末塞虛空一滴投巨壑)學士要從捷徑理會此事(不離當處常湛然覓即知君不可見)乃彈指一下(也是娑竭出水)曰但恁麼薦取(只要金翅善)公于言下領旨(果然衣下有珠)。

拈云中鹽味色裏膠青者裏會得上大人不異如是我聞信受奉行豈亦外可知禮也是則是只恐二十四家書體雖會得永字八法又不識。

魚枕未冠終是骨昆吾雖釧豈離金途忘歸路先師馬絃不求聲也得琴更直捷莫沉吟殷勤為出兜羅手五色全收耀古今。

吹萬禪師語錄卷之六終

頌古

侍郎楊傑居士問芙蓉曰與師相別幾年(莫在離合上作活計)蓉曰七年(直言無隱)公曰學道來參禪來(又在眼中添屑)蓉曰不打者鼓笛(脫去簾纖全無滯搭)公曰恁麼則空遊山水百無所能也(到來函谷愁中月歸去礮溪夢裏山)蓉曰別來未久善能高鑿(對面相逢誰是來)公大笑(始信斯人不合伴)。

拈云日行千里不出門猶是布袋裏老鴉只饒扯碎封皮全身露出也只得一半那一半待楊蓉二公商量極處纔向渠道良久云勸君更盡一杯酒西出陽關無故人。

筍碎劫石打破芥城始信離微到處亨人去園猶茂春來花未更遍千世界沙門眼映映何勞笑且評。

智海禪師示簽判劉經臣居士曰古人道平常心是道(猶有坑坎在)你十二時中放光動地(莫是運水搬柴麼)不自覺知(怎奈覺知何)向外馳求(本無內外)轉疏轉遠(焉有疏親)。

拈云者老漢慣用古人糠粃搖播今人骨絡好與踏倒怎奈欲取魚兔必須筌蹄。

橫心從口總尋常草色松聲興最長幸蜀誰知來鳳白隄遼那識更衣黃郛鄴效走終忘步路徑多岐定失羊可似善財參遍處南行只在此門牆。

清獻公趙抃居士晏坐忽大雷震驚即契悟(想是平日有甚麼虧心處)作偈曰默坐公堂虛隱几(者漢喪其偶矣)心源不動湛如水(正是幽清常擾動元)一聲霹靂頂門開(甚處得消息來)喚起從前自家底(還丹一粒分明在流落人間是幾年嘆)。

拈云世界恁麼廓眾生恁麼多既是雷震中天云何獨使清獻悟去還會麼迅雷風烈必變。

香車未輾禁雙寒一線初添水沒瀾酒飲青梅匙故落英雄更把息風搏。

丞相富弼居士參見顯禪師師即曰相公已入來(從來不曾外轉)富弼猶在外(只教渠致仕歸家養親)公聞汗流夾背即大悟(果然薑通神明寒邪盡散)。

拈云是則是遠觀山有色近聽水無聲。

獨言寢語病為由外甥黃絹累楊修不是開胸能折箭卻教孔木轉江流君不見老石頭無畏說紅爐一點侵人雪。

衛州王大夫參元豐于言下知歸(得恁麼老婆禪)豐一日謂曰子乃今之陸互也(青天白日無故架與人)公便掩耳(莫是掩耳偷鈴麼)。

拈云元豐老子只知用腐鼠引鷓鴣豈料鵝鶻黃鶴竹實梧桐更雅金衣溶水恒新。

莫須有將無同言前興喪未為通拜將終流患絕糧豈是窮勿謂失明嗟父子楚王司馬不曾攻。

太史黃山谷居士依晦堂乞指徑捷處(鼻孔只在眼下)堂曰祇如仲尼道二三子以我為隱乎(喚山童過茶來)吾無隱乎爾(再來接鐘去)太史居常如何理論(用理作麼)公擬對(又在鬼窟裏作活計)堂曰不是不是(不是是箇甚麼)公迷悶不已(服藥成病)一日侍堂山行次時巖桂盛放(天理現也)堂曰聞木花香麼(果然穿透鼻孔)公曰聞(古佛過去遠矣)堂曰吾無隱乎爾(他的咱卻原來就是我的你)公釋然即拜之曰和尚得恁麼老婆心切(棺材裏伸出腳來)堂笑曰祇要公到家耳(也是將錯就錯)。

拈云據者一回絡索好與晦堂三十棒為渠只將自己茶飯慳吝不捨反捨他人唾餘鉤釣復令人明不見明暗不見暗不是樹神放光動地大轉法輪險些兒一場漏逗。

防風燹箭任公子鉤得之兮盈車墮地失之兮解網空舟有意桃園隔無心胥國遊賦茅令猿喜傳家代子憂夢裏分明蝴蝶舞覺來依舊是莊周。

觀文王韶居士延晦堂問道(匍不問問道者)默有所契(夜間摸著枕头)因述投機頌曰晝曾忘食夜忘眠(以思無益不如學也)奪得驪珠欲上天(得便罷上天作麼)卻向自身都放下(猶耽著在)四稜塌地恰團圓(且信一半)。

拈云明明白草頭明明祖師意契個甚麼只者正法眼藏不是你題落韻作釣話拈古詩做罵陣的姑念霜華增月朗蘭秀壯山幽且放過一著。

豎草插竿處前瞻後忽時得來樵子鹿失去塞翁驪漢使關山遠家書鴻雁知臨場題目近信手絕情思。

晦堂問秘書吳恂居士曰平生學解記憶多聞即不問(壓沙取油終無所得)你父母未生已前道將一句來(○者個正好道)公擬議(正在已生後作活計)堂以拂子擊之(即此用即此用)即領深旨(鼻頭今日不痛也)。

拈云見聞覺知無障礙聲香味觸常三昧為甚麼即不問只恐依舊尋他舌頭路等閒味卻空裏步且問父母未生已前一句作麼生道自代云黑豆。

煮石燒茅未足奇還丹原不有心知吾宗始渾呈圓相杜德機生顯坐馳君不見豎拳輞毬并舞笏大用現前何拘束。

內翰蘇軾居士聞玉泉皓禪師機鋒不可觸(莫是干將莫邪麼)公擬抑之(使心用心反累己身)即微服求見(好與范同黨)泉問尊官高姓(釣竿頭上知輕重)公曰姓秤(不是金鱗莫上鉤)乃秤天下長老之秤

(禍福無門唯人自招)泉喝曰且道者一喝重多少(者回折斷秤桿了也)公無對(只得含羞忍恥)。

拈云者學士本分家風不會問卻要平地鍬坑陷殺人性命那識皓老不徇人情當頭一喝只教伊權衡放下輕重難分但不知定盤星子落在誰手。

八陣藏兵易五關斬將難欲展丁香結寧甘徹骨寒龍泉氣燄兮冲霄之本犀角燃燈兮引怪之端。

參政蘇轍居士得領搐鼻因緣有省(苟為不熟不如稗穉)作偈呈曰中年聞道覺前非(是的在甚麼處)邂逅相逢老順師(也是冤家路窄)搐鼻經參真面目(還會鼻頭痛處也無)掉頭不受別鉗鎚(莫作無忌憚的小人)枯藤破衲公何事(賊不打貧家兒)白酒青鹽我是誰(火裏蓮花)慚愧東軒殘月上(正是八月十五)一杯甘露滑如飴(到底不及砒霜)。

拈云有意栽花不如無心插柳誰知他人鼻孔卻挂在自己眉毛上。從來水住不知海一向林居未識山聞歌骸骨化割肉蝟塵副自是拾回衣下寶管教容易透三關掉頭去得吟春雪撒手歸來笑破顏。

寺丞戴道純居士扣靈源一日有省(知道飯是米做的)乃呈偈曰杳冥源底全機處(用機作麼)一片心花露印紋(猶未懸巖撒手在)知是幾生曾供養(一息之間)時時微笑動香雲(也是空華嗚噉)。

拈云太末蟲處處肯緣只不緣于火聚工伎兒塵塵遍依只不依于般若今戴寺丞緣火聚依般若矣但不知骨肉都灰海漚盡涸也未。

耳恬竹綠聲傳法眼碧花紅境奪機須信者中原不昧老商列子自依依。

悅禪師問張商英居士曰祇如巖頭言末後句是有耶是無耶(要問居士在家不)公曰有(果然錯過難逢)悅大笑便歸方丈閉卻門(經有經師論有論師怎怪得老僧)公一夜睡不穩(昧卻枕子在)至五更下床觸翻溺器乃大徹(也是因禍致福)。

拈云明人不做暗事何故殺東鄰之牛薦西鄰之祀好與三十棒姑念水底金鱗也賴竿頭絲釣。

浪蕩拾針猿猴探月妙用縱橫曾卓越閉門也露箭鋒之機不睡也履渡河之筏患難臨頭素位行壺公自有逍遙闕。

僧以南泉斬貓話問文定胡安國居士(無錢使抬故紙)公以偈答曰手握乾坤殺活機(者裏豈容你說死說活)縱橫施設在臨時(早已沒交涉)玉堂兔馬非龍象(卻是一屋死老鼠)大用堂堂總不知(可惜當面錯過)。

拈云南泉昔日斬貓未曾說如許絡索今日箇箇放出一隻來東叫西叫聒亂兩家三戶耳根好與一時斬卻只怕喉中無血。

貞吉憂虞豈易知著龜權假問津時藏文居蔡靈難捨老婦懷簪舊怎移鵝鶩自能輕腐鼠驩騶誰肯拗楊枝紅羅掩面雖堪采莫味仙人逐影馳。

左丞范冲居士謁旻禪師曰某行將老矣(猶未若生一日在)墮在金紫行中(原來未曾讀詩書)去此事稍遠(在者裏)旻呼內翰(如貓捕鼠)公應諾(似兔逢鷹)旻曰何遠之有(誰知鼻孔原來在面上)。

拈云者一堆髑髏雖被旻長老一粒點回不知他暗運密移的又聽甚麼人使喚在。

六十無容別見河休將腐鼠動情波果然一喚離十尺未肯思之奈若何。

圓通問樞密吳居士曰曾聞得透關的事麼(只莫販賣私鹽)公曰八次經過常存此念(猶有夾帶在)然未甚脫灑在(賊人瞻虛)通度扇與之曰請使扇(明人不做暗事)公即揮扇(心無詭曲)通曰有甚不脫灑處(正是百姓日用而不知嘆)。

拈云關不是有關不是無透得也好不透得也好為甚的只等秋風吹入戶寒雁送聲來。

箇裏關頭別鬼門酒泉不顧為親恩脫之兮日光鳥映縛之兮月影魚吞梅檀雖假西胡獻卻使京城自返魂。

諫議彭汝霖居士手寫觀音經施圓通(要為人眼中添屑)通拈起曰者箇是觀音經(此是繁柯)那箇是諫議經(梅檀何在)公曰此是某親寫(似是而非)通曰寫的是字那箇是經(入室便見)公曰卻了不得也(正好思量)。

拈云若謂是經卻只見文字若不是經卻寫得文字是不是請道看自代云空裏流霜不覺飛汀上白沙看不見。

送夢欲全體剝腸患已生壁真還藺奪骨朽動韓評撒手難忘見泅波恨未誠只須焚樹死史後自清名。

中丞盧航居士與旻禪師擁爐次公問諸家因緣不勞拈出(沽酒市隨不食)直截一句請師指示(雲門餠餅)旻厲聲曰看火(正是直捷句)公急撥衣忽大悟(原來火中有水)謝曰灼然佛法無多子(包大裹地在)旻喝曰放下著(蟪蛄雖脫殼)公應諾諾(未免抱寒枝)。

拈云從緣入者緣覺從聲入者聲聞且道看火撥衣是緣覺是聲聞良久云水底紅輪天上金烏。

鉢夢竹林隱門開石徑通笑聲能破月熱火解談空兔老胎懷雖似鶴攫水鯤魚萬籟中。

司都貺居士問圓通曰是法非思量分別之所能解(○是甚麼)當如何湊泊(不用思量)通曰全身入火聚(請尊三昧火闍維金色身)。

拈云多言多慮轉不相應絕言絕慮無處不通是法豈思量分別之所能解還會麼一箇斑鳩九隻鳥。

萸莢草屈軼枝首山五老妙難思分明潛歷數幽隱出龜著鼓琴不理寰中事象帝從來無所知。

楊岐會禪師來謁北部孫居士公曰某為王事所牽(誰縛汝)何由出離(處處塵勞處處解脫)岐指曰委悉得麼(素位而行)公曰望師指

點(一似蓮花不著水)岐曰此是北部弘願深廣利濟群生(應以宰官身得度者即現宰官身而為說法)。

拈云東都門挂冠富春山把釣皆是翫百花觀黃葉的漢若是打失鼻孔咬著舌頭的出來一任隨流得性依運即常。

甘露黃連性惡鑊湯爐炭清涼舒之兮不立一塵收之兮橫遍十方淨名納侍魔女佛印燒豬飲觴萍實渡江雖霸業也得尼丘判吉祥。

提刑郭祥正居士聞小兒誦上大人丘乙己至可知禮也忽然有省(知道錯是鐵鑄)以書報白雲(愁人莫向愁人說)雲以偈答曰藏身不用縮頭(曳尾靈龜)斂跡何須收腳(橫行螃蟹)金烏半夜遼天(只在面門裏)玉兔趕他不著(切莫動著動著三十棒)。

拈云人人多被尋常瞞過殊不知有義趣中非義趣不風流處卻風流原來功輔牛淳也只是上大人索兒。

自古童謠壯帝畿林花偏待曉風依逆耳忠言貴苦口良藥稀秦人莫得媪傳語陳寶那能特廟歸。

樞密徐東湖居士指圓悟頂相曰者老漢腳跟猶未點地在(莫在虛空麼)悟頓面曰甕裏何曾走卻鶩(也是布袋裏老鴉)公曰且喜老漢腳跟點地(者迴平等接人)悟曰莫謗他好(贊亦不可)公休去(正合如是)。

拈云行亦禪坐亦禪為甚麼腳跟不點地亦非行亦非坐為甚麼腳跟點地者東湖老漢莫是隨人腳跟轉麼。

竹杖為橋入廣寒駟車又得子儀看縱使伶官奏樂清葉靖何曾別帝京君不見明鏡當臺映胡漢水月空花文裏煥。

郡王趙令衿居士疏其略曰家貧遭劫(賊在甚麼處)誰知盡底不存(也須罄盡始得)空屋無人(向甚麼處去也)幾度賊來亦打(為有者箇在)圓悟見之囑令加護(又在痛處著錐)。

拈云賊在旁邊立無賊不定罪既是家貧屋空賊還劫箇甚麼還會麼鶩鶩不入蘆花裏多被漁人把棹驚。

藏身須泯跡泯跡莫藏身發塚珠留禍攝緘盜巨臻徹骨為憐張得老解袍容易贈還親。

侍郎李彌遠居士因過天津橋馬躍有省(原來馬背)(上有佛法)圓悟見而喚曰居士且喜大事了畢(父母歸山黃金入庫)公厲聲曰和尚眼花作甚麼(求榮反辱)悟便喝(將謂鬚鬚赤)公亦喝(更有赤鬚鬚)。

拈云紅塵飛的怎如天津橋躍的王老師多教人向異類中行今日果然是則是為甚麼賊證見前逢人不認。

踏雪尋梅事已奇罕聞驢背快成詩興來到處歌春曲毀譽無容上我眉師若喝士必隨自古當人曾不讓三拳一掌疾如馳。

成都范縣君禮圓悟請求開示(離鄉別祖討箇音問)悟令參不是心(麻)不是佛(麥)不是物(豆)是箇甚麼(爛冬瓜)。

拈云是則握土成金不是則消冰成水非三而終一非一而終三非一非三是箇甚麼。

見中精空裏月相感相依蛩與蟹燈上三門何所因六處明窗猩猩窟君不見大刀頭飛破鏡黑語由來思夫詠。

給事馮楫居士著僧衣履踞高座囑諸官吏拈拄杖按膝脫然而化(要看弄鬼眼睛的來)漕使請曰安撫去住如此自由(本分事業不假外求)何不留一頌以表罕聞(莫教移後人恥笑)公張目索筆書曰初三十一(誰請你較日數時)中九下七(莫是拖欠錢糧勒糧追取)老人言盡(猶有一句在)龜哥眼赤(趁好跳此一步)。

拈云者一迴多鬼人說得卻行不得馮居士言行俱備變得箇赤眼烏龜去也。

彩眉相好應龍飛龍得先天天豈違脫骨更留鱗甲在咸池有樂聽人稀。尚書莫將居士謁南堂靜禪師咨決心要(向人口中討冷暖)堂使其向好處提撕(莫是暗室虧心處麼)適如廁俄聞穢氣(好處來也)急以手掩鼻遂有省(大羶行生)即呈以偈曰從來姿韻愛風流(總是七顛八倒)幾笑時人向外求(家無小使不成君子)萬別千差無覓處(遍地是黃金)得來元在鼻尖頭(好箇觸羶之蟻)。

拈云從來祖師家婆心最切纔留一線不絆人腳跟便穿人鼻孔但不知莫將居士于即此用離此用處鞭策也未。

化城雖權止臺山更細觀尋香知所在觸臭喜重歡蜚螂轉彈臨極處射出光芒北斗寒。

龍圖王蕭居士聞開靜板聲有省(泥裏踏著刺)問南堂曰某有箇見處(果是纔開眼的)纔被人問卻開口不得(啞人得夢)未審過在甚處(問取舌根去)堂曰過在有箇見處(知事者煩惱多)堂卻問朝旆幾時到任(善用鉤釣)公曰去年八月四日(舉措分明)堂曰自按察幾時離衙(試看有口不)公曰前月二十(不曾坐不語禪)堂曰為甚麼道開口不得(為有腳不能說)公乃契悟(善哉善哉)。

拈云人人有箇那伽大定晝夜七通八達怎奈終日行而不自覺者漢從耳入得從口道不得不是堂老善巧方便幾乎昧珠守貧。

長安涅槃一路楊柳薄梵十方違時兮刻鵠類鷺任運兮叱石成羊壁上蒼龍風雨就還須點眼出天閭。

侍郎張九成居士謁惟尚尚舉馬祖陞堂百丈卷席話詰之(借題于古用意于今)敘話未終公推倒棹子(鼠毒發矣)尚大呼張學祿殺人(莫誤人人罪)公躍起問傍僧曰汝又作麼生(牽連無辜)僧罔措(苦瓜連根苦)公毆之(甜瓜徹蒂甜)顧尚曰祖禰不了殃及兒孫(蒼天蒼天)尚大笑(養子不及父家門一世衰)。

拈云派流涇渭卉發薰猶奈何腑臟相同竅分通寒所以惟尚老人寧憐有力之奴不愛亡家之子。

一雨從心普三根在量榮隱微規裏得幽戾集中成菌嚙悲難忍蛙鳴苦自輕好看文喜老竹篔太粗生。

參政李邴居士謁大慧慧示眾舉趙州庭柏垂語曰庭前柏樹子(看風折削汝)今日重新舉(再來不直半文錢)打破趙州關(四人成灰)特地尋言語(舌根不化)敢問大眾既是打破趙州關為甚麼特地尋言語(水清石見魚爛刺出)良久曰當初只道茅長短(朝三暮四)燒了方知地不平(朝四暮三)公領悟(也著套入殼中)。

拈云庭前柏樹子一句是古人隱語不是薦句何必後人洗了又洗嚼了又嚼還會此時薦句麼自代云澗底松枝。

黃金印如斗上方劍似蛇從來聞外將軍令壇帳威雄任子牙一句子妙恒沙影鞭隨折柳逐電在神駒可憐已死南山豹卻把皮毛煥彩華。

寶學劉彥修居士參大慧慧曰僧問趙州狗子還有佛性也無(大有佛性)趙州道無(為有業識在)但恁麼看(臨行密密縫針線)。

拈云有也是佛性無也是佛性但不知誰是狗子。

萬物宗源化母來機梭一織海天開頭頭盡是規中境信手從君自剪裁。

徑山謂提刑吳偉明居士曰不須呈伎倆(多言數窮不如守中)直須啐地折(打失鼻孔)曝地斷(咬著舌頭)方敵得生死(饑來喫飯困來眠)。

拈云外道執雀世尊跨門且道是伎倆不是伎倆若是伎倆如何敵得生死若不是伎倆生死如何敵得。

日月斬新易乾坤特地難骨肉都無兮六根任運葉殼全輕兮八風隨搏臨場鐵鼓非鄉射一箭當陽海色丹。

門司黃彥節妙德居士于大慧一喝下疑情頓脫(莫瞎著居士)慧以衣付之(也是錯接錯用)公一日曰妙德到者裏百色無能(莫作賊人窩主)但記得曾作蠟梅絕句(賊私出也)曰擬嚼枝頭蠟(著甚麼滋味)驚香卻肖蘭(失在鼻孔裏)前村深雪裏(太遠生)莫作嶺梅看(卻是者箇)。

拈云馬祖喝一能聰人一能聾人臨濟喝一能明人一能瞎人但不知慧祖此喝為甚麼卻教居士頓脫疑情去還會麼蠟梅香處是知音認作梅香還不是。

三乘五教何足數一喝當頭出範圍生角聞雷蒼燄裊變文披露蔚光飛釣殘月冷方揮棹痛極神傳始付衣白鳳好看楊吐後誰聆山雉闌離輝。

秦國夫人計法真力究狗子還有佛性也無(見人即謾)無(撮嘴一覺腫)忽爾洞然無滯(狗口裏象牙出也)作偈呈大慧曰逐日看經文(莫障睛好)如逢舊識人(牛在腳跡裏)莫言頻有礙(兵尋印轉)一舉一回新(將逐符行)。



拈云者狗子還有佛性也無直一轉語如老鼠藥喫的也是死聞的也是死未審交涉在甚麼處良久云白兔繞墳功歸孝子。  
不爇灑金香便擊塗毒鼓祖禰門庭弗尚賢殺活令人甘與苦君不見化身離垢合秋月清歌棹入蘆花歇。

參政錢端禮居士臨終顧簡堂曰某坐去好(生來坐不臥)臥去好(死去臥不坐)堂曰相公去便了(大抵還他肌骨好)理會甚坐與臥耶(不塗胭脂自風流)公笑曰法兄當為祖道自愛(知恩人多報恩人少)遂斂目而逝(也是腰包行腳)。

拈云古人臨渴時固然掘井見泉未免心田逼迫者漢風浪臨頭猶自把釣垂鉤還會麼羌笛一聲楊柳岸收取絲綸待月斜。  
慣涉長風浪船頭放木鵝伯陽惟轉火子反解攢歌葉落花開歸去好來時無口奈渠何。

內翰曾開居士問佛海如何是善知識(解牛庖丁)海曰燈籠露柱貓兒狗子(西方散聖)。

拈云既曰善知識為甚麼卻是燈籠露柱貓兒狗子還會麼牛頭伏羲龍樹尊者。

業造畜生無受報為山水牯仰山師從來性外何曾物信手拈時道是誰誰是長天連秋水雪陣蘆花千萬里。

刺史葛郊居士謁無庵求指南(老人星現處)庵令究即心即佛(也是止啼黃葉)後至佛海乃舉無庵所示之語(抱鏡問卜)海曰即心即佛眉拖地(未免拖泥帶水)非心非佛雙眼橫(非相猶在)蝴蝶夢中家萬里(蘧蘧然周也)子規枝上月三更(家鄉夕照邊)。

拈云即心即佛是阿誰非心非佛是甚麼恁麼道得管取是非言斷凡聖路絕。

越常進雉迷來路指出璇璣妙有家頓悟梅還核乖違日瞪華化人見夢非朝市隱几何曾御六車。

待制潘良貴居士以南泉斬貓兒話問佛燈曰(已死貓兒作甚麼用)某看此甚久終未透徹(除去思算始得)告和尚慈悲(饑兒要乳)燈曰你只管理會別人家貓兒(因觀眼前浪)不知走卻自家狗子(失卻手中橈)公于言下如醉醒(狗子在也)。

拈云南泉貓兒居士狗子斬的不當死走的不當活只今如醉醒來的是死是活。

姑射糠粃堯舜精神覺之兮聖人炳虎逐之兮夸父枯身難言豈為慳饒舌掌出摩尼一轉新。

侍郎李浩居士請益應庵庵曰侍郎死後向甚麼處去(黑風來也)公駭然汗下(也須喪身失命)庵喝出(雪上加霜)公退參不旬日竟躋堂奧(不是清寒徹骨怎得梅花撲鼻)。

拈云有時三頭六臂有時逢掖章甫有時三昧隱身有時出竿把釣者  
般去就總是教人言下知機當仁覲面且道參不旬日的得箇甚麼便  
道竟躋堂奧良久云住住住。

鞶帶或錫何曾喜覆公折鼎未為凶男兒別有英豪志三鼓崑崙已奪儂。  
吹萬禪師語錄卷之七終

偈

示監院

情境紛紛路不繁春亭花鳥木人看指揮提掇誰為用鏡裏無痕一照間

示副寺

物心無二體非遙握土成金行最高日用應緣真我在四時雪藕伴水桃

示典座

心如事事亦如如百味從中妙不粗但識鹽梅堪熟鼎誰知和氣是香廚

示知客

彬彬文質顯僧伽語默逢迎月下花觀面既呈賓主意何妨慧眼別龍蛇

示雜辦

妙用神通豈異殊只在尋常會也無把重提輕光燦爛森羅象裏自稱孤

示侍者

函丈方隅世界寬折旋俯仰導人間從來衣鉢無他借金色頭陀代代傳  
方丈從來遠末流執巾須用至人儔全提皂角消根境敕點飛龍正尾頭  
唱和不妨驢糞劣優遊豈礙月輪秋箇中已有仙陀事別向邯鄲意不休

悼宗旨接續之艱(三首)

法傳金屎路來長何事孳孳杲祖忙漏出真詮三十卷那能于此會家常  
卓錫南濱十數秋和泥合水策同儔法源如線誰堪續獨對梅花暗點頭  
箕裘事業應天機不比尋常況法微就父迷珠窮四海誰知腦後有光輝

## 採薪

一步一步登山去採得薪來身又疲堂前板響定香到只坐中天飯熟時  
南來北往徒成幻運水搬柴恰似真上林不借東風擺萬紫千紅何處尋

## 看錄

傳燈錄載傳燈頌總是先人口上禪讀罷了然無箇事秋風秋雨洗闌干

## 念佛

佛以慈悲願示我醞醐味不離身外求直此身中是癢痛如空花主人真  
實住實處是西方真處是覺義一念自承當何嘗有來去迦陵頻伽聲蓮  
花功德聚黃金樓閣中彌陀親指示默然呼吸間明明是公據  
師慨四生中得人身者最難人身中具世間智者更難世間智中發出世  
間智亦復為難出世間智而具上上智者難愈難矣故拈偈以勉諸學  
人。

世界恁麼廓不出四生類卵生有鳳鸞誰曾披法服合感稱溼者鯤鰲已  
極矣只能負金山激水而羽去化以離而應上則為最樂中入米麥蟲下  
而地獄界唯有胎眾生獅麟駱駝虎象馬牛羊特貉豹豺狼豕貓鼠狐犬  
兔熊猩猿狙獼獅子女人國九夷南八蠻六戎比五狄間生華夏中盲聾  
及瘖啞跛跛痲者歌妓摩登伽奴婢傭人隸農賈工技等取士復能幾  
士有世間智將相復少分忠良為輔弼千分中一分于是四種中尋伺出  
世人婆羅門居士優婆塞有數又取比丘僧出世精進者萬分存一毫而  
接佛命脈何乃諸兄弟不自揣輕重念念恒放逸而甘成暴棄所以袈裟  
下線縫事不明猶倒峰上石一墜不見底我勸諸賢聖精進須勤策還我  
本來人手舞足蹈樂不被八倒纏早遂逍遙志回首運慈悲提拔諸苦類  
號曰天人師光明續燈燄

## 睹楞伽三昧

我觀楞伽山夜叉王所住出于大海中神通方可到大人有神通兼有我  
道通飛入夜叉群大慧從此出智能鑿金礦智能開道路智能變風雷智  
能斂雲霧所以百八問而成百八答我觀經中義恰如窰堵波八識為初  
級五法疊為二三性是三層二我即堆四自覺聖智心堪作頂上髻我以  
如意手輕輕拈頂來抖擻破磚瓦光耀恒沙佛說通和泥人宗通造塔者  
外道如螻蟻往來縫中過不然不相容誰號天人師欲得無名相入吾掌

中觀解弄豈存人因指得明月月月不存法千江來映色恁麼而住持行  
行只者是

### 懶說法

一切現成鳥共花剛纔齋罷又尋茶法輪自轉無容說莫把言詮認作家

### 懶會客

客情隊隊知音少覲面呈機是阿誰三門踏著室中地不必相逢我自知

### 懶坐禪

洗面定把手來澆穿衣何曾不繫腰日用因緣無箇事坐斷繩床只自勞

### 陞座擊鼓

鷲嶺山頭囑付來拈花輪到祖燈開三十三員猶不識今日當陽仔細裁

### 破論宗

因觀觀所緣緣論可令學人究竟無有涯際若云佛法必是如此得不成  
水裏按葫蘆耶但只作郵驛上觀花耳故書偈破之。

世有鼇山燈觀者極稱羨或見人物動或見花禽舞蹈之及舉之仰之及  
俯之皆由消息因蠟髮為機捩所以總關動通山俱變現智者入其內取  
卻山中燈縱有百端妙貼然不敢運間取造燈人緣是兩隻手掌上索前  
相何常有蹤跡只箇工技兒采集從此出心喻如來性人喻阿賴耶手如  
末那識燈喻觀察意山猶四大身蠟髮諸妄想人物禽花類五識亦如是  
智火燼成灰人人各自在何于幻心中更析諸幻法幻幻尚不了不幻畢  
竟離若欲究此宗須問除燈者

### 破疑

堪笑名字禪忘本恒逐末不解究自心每向源流說若論源流事非有亦  
非空聊提幾箇看孰與古人同第一釋迦文始參鬱頭藍非非想處定何  
曾透祖關後移雪山住睹星方得悟序作第七仙而得上上智雖承迦葉  
佛未得親面目相去億萬年誰為傳信拂惠明趕六祖面目從此惺雖在  
五祖下卻得大庾嶺石頭有藥山得悟于馬祖來接青原宗相將為良輔

丹霞天然子亦出馬祖家又來石頭下其道不為差雲門參睦州觀體見蹤由卻入雪峰去不知為何求興化見大覺折倒賓主句指破黃檗拈香接臨濟南院參興化不見有機緣不知何以得便接臨濟禪洞宗投子青未曾見太陽全憑浮山遠為渠接宗綱未詳法嗣者實性雲頂類雲幽法海因樓子公期輩先淨郁山主仁王與鐵索神照及證悟本嵩如布衲投子通禪師天寧明奇絕一十有六人箇箇皆磊落各建祖門庭扶危而匡末借問諸大老何嘗拘一櫛況復三皇氏展轉而五帝又轉而三王周公孔子嗣各隔世與年未委親相示但悟傳心法一中為極致北齊慧文師會得中觀論遙禮大龍樹而為初祖印又得應化人智顛入其蘊號曰天台禪迄今成宗鏡嗟嗟釋末流偷心不自歇隨邪而生解識海不能竭未聞無師智，及與自然智，教典尚云云，何況立宗？趣宗趣有，妙機最上之提持，見性不留佛，悟道不存師，未有無授受，擅來弘祖令。間或不同師，何必嫉其並？或有同其父生不同其母，或有同其母育不同其父，但得血脈真通，為人子類，下流被其惑，智者自不昧，囑爾參禪人，莫入此群隊。

### 閱華嚴經

三七思惟何曾說，不離覺樹道場開，腳底透得平生事，六欲諸天空往來，行一步，步步踏著娘生褲，放一光，光光射出性花香，萬億周旋剎海森，看來只在眉毛上，老毘盧、小釋迦，變現猶如指上丫，坐時頂上佛成冠，起行手裏甲拈花，可憐文殊及善財，本智翛然性起哉，千里出門在當下，五十三員背後裁，誰是鶩子不得見，誰是釋迦不能聞，屈曲人間夢中夢，瞎眼看成丈六身，咄咄咄，莫道破，傀儡敲唱數千般，主人提線依然坐。

### 精進

鏡清住院時，伽藍不能見。宏覺天廚供，自謂得至道，及見瀉山後，送食無可覓。鹽官會下僧，鬼卒來拘捉，乃曰：容七日，同去不敢辭。繼而七日已，鬼使依然至，寺裏索前僧，何嘗有蹤跡。第觀此三人，非功如何得，所以我輩者，當勤莫放逸，亦如老宿儀，是則名僧伽。

### 破唯識

太虛原無識，造化諸世界。是中能權者，非識而阿誰？天地從識滅，然亦從識有，無識故無生，無生則無形。混沌一真如，復誰

而造化？前此已了知，故號曰常住。眾生未達本，背覺逐流蕩，浩浩六趣中，皆由一識因。識猶諸幻師，幻出諸般象，若不了幻者，四大通成腐。獨識非元妙，即爾精明物，內損圓覺性，外染諸塵用。睹物即生知，知己又生慮，慮後復還想，想極變為情。當知目連孝，人各皆具足，法如是供養，平等無疑惑。

### 鑄釋迦如來像

我觀如來淨妙身，非是金銀及銅鐵。一切萬物無所有，只者五金何處來？智者幻成眼耳鼻，手足毛孔皆光洞。擊鼓敲鐘演梵音，阿誰禮拜阿誰受？此日金容雖自然，曾見紅爐經百煉。一心混融一切心，心心蓮上各瞻視。箇箇如來有是心，者回不作凡聖見。

### 理行二人

理人惟捨妄，凝住在壁觀，無自亦無他，凡聖等一然，行人含有四：初行乃報冤，次則名隨緣，三即無所求，四名稱法者，其義當析說。修道若遇苦，自念是定業，一一惟忍受，慎勿起冤憎，但能如是持，得與理相應。行者若有緣，苦樂須眾同。但逢榮譽事，實我過去因，今則緣盡時，依舊復還無，不自喜于心，得失亦何有？處處常貪著，名為有所求。智者悟真理，安心入無為。了然絕四相，萬有悉皆空。三界如火宅，我戀亦何嫩。有求盡屬苦，無干樂尚餘。稱法性淨理，目之無取捨。無染亦無著，無彼亦無此。如是于身命，及與法財等，盡成檀波羅，三空悉遍滿。眾生若稱化，不可住于相，無相實相存，同歸寂滅樂。

### 寬柔

賢者折情，聖人滅情，惡罵捶打，常曰不輕。觀彼樹下，尿溺臨頭，乃如是定，匪計一酬。況復世尊，被魔所加，毒氣臨面，變青蓮花。又復遭人，打之罵之，反生慈悲，為愍愚癡。唯我及眾，當如是觀，不然可惜，徒累百千。

### 答客問(附來問)

客曰：吾聞之：有情之豹也，臥南山而七日，不食則革有蔚焉，無情之鋏也，蘊石匣而多歲，不開則斗有氣焉。何今之樂道參禪

者，或拘拘于山林，或汶汶于市廛？我所謂蔚豹氣缺之不若也，奚望得為天人之師乎？敢請益以示。

世有巨深淵，潛龍伏在裏，航海人不知，保道者如是。世有大茂林，能蔽獨角獸，樵牧不能知，懷德者如是。世有大螺蚌，吸久含寸珠，海人莫知測，葆真者如是。世有荊山石，蓄之藏溫琚，行人不知，養志者如是。世有溶溪鶴，壽千六百年，孕有鸞鳳胎，百鳥不能知。世有厲婦人，貴兒在腹中，鬼神暗護衛，庸愚不能了。樂道參禪者，嘿嘿亦如是，他時風雨至，直破天荒去。應與聖人出，還能吐玉符，會取入囊中，連照十五乘。鑿開琢成璽，受命千萬世，翱翔滄海外，醴泉得自怡。鳴珂帝都上，絕粒履天衢，諸譬尚如此，何況天真性。磅礴出宇宙，運化皆由我。

### 日用偈(并引)

趙州云：老僧行腳，除粥飯二時，是雜用心處，此外更無用心處。若不如是，大遠在聚，雲則不然。無為妙性，理事從生，體用雙行，本無障礙，說甚雜與不雜所？以道任運，即常而知，則合本妙，違時失候，而覺則合妄塵。但不違時不失候，即種種光明，更欠箇甚麼？

### 晨昏早起

一聲殿角透圓通，覺起靈明不借中，隨眾至誠三寶地，此心唯許古人同。

### 止靜坐禪

鐵脊胡床萬事休，歸來內外境無留，圓明一顆心珠現，了了空身不用修。  
學人莫坐默癡禪，寂照何曾諱正偏，北斗藏身飛綫裊，不將雙眼落林泉。

### 放參經行

從容一步一蓮花，左右逢原是我家，轉折周旋無錯亂，主人腳底有光華。  
一步一步踏實地，薰風過閣轉清涼，不識者中天籟響，十指徒將作道場。



## 念佛應供

心心念佛佛念心，心佛原來是主人，粥飯二時隨我現，聲前聲後自知音。

## 晚課念誦

日垂西嶺是斜陽，韶光過去水魚傷，獨有念誦人長在，到處巍巍顯法王。

## 垂簾吉祥

衲被和衣且當衾，曲拳為枕月為燈，一斡了盡乾坤外，誰道泥團是色身。

## 看經

文字千般煥眼光，覺來雜糅不成行，還他黑白煙和紙，依舊瞳人灼故鄉。

## 問答

海翁無事上磯頭，把釣波深月一鉤，結舌不題風味響，蒼巖無耳漫思修。

## 雙開竹二首(并引)

外直中虛，節貫四時，是竹之操履也。故伶倫取之，而子猷愛之，往往頌德稱美，不可枚舉。然不過以孤根隻材者而言也，獨未見有雙竹一本之異常也。余事佛，嘗讀佛土記曰：天竺國，蓋天竺乃南瞻部洲之中也，轉輪聖王應化此土，七寶輪來掌持四天下，則三世諸佛，歷代神異無不生斯地，而成斯道也。余觀國之名曰天竺，竺字之形曰竹二，是以二竹共其一本之說也。今忠南聚雲有是竹矣，生于牛欄之前，出于污瀆之上，共策進諸人履其高尚之事也。明矣！西域有是字，而震旦有是竹。得無借物傳心，東西盡成佛土，以人應竹，南北悉爾同宗。二竹雙開，亦顯顯矣，伶倫、子猷恨其不見。何。

曾見雙開樹，未見雙開竹。根本從來節節空，為甚依空分兩束，一向東一向西，翛然氣概與天齊，莫是聚雲雄兩翼，廓蔭樹下有龍岐。

試問此君有意無，挺然為我立宗圖，昔者禪教不相悖，宗說齊彰盛老盧，一自棒喝傳機後，誰向舌尖弄之乎，雖然各自任擔板，辜負黃頭碧眼初，惟我慧祖頭戴角，知他圓悟還丹藥，點鐵成金遍地光，碧梧秋滿家家月，四喝四揀解翻騰，三要三玄恒拈著，誰知衰替四百年，聚雲室裏重敲拍，巫山清播桑林舞，錦水雅曠咸池樂，因思此義誰表然，假爾冲霄為通說。

### 示蔚西堂

宗源定當絕狐疑，殺活無方上上機，一踏萬般隨賣弄，三拳些子便騰飛，紅絲斷後竿頭折，眼鏡撲時海曙輝，恁麼脫身來穩坐，拈花猶似覺前非。

誰把鈞陶幻我來，紅塵堆裏直幽哉，撥火固從波裏得，點金還自鐵中開，電光石火增泥水，大用全機剪裁，箇是象先無位者，錯認徒勞損法財。

### 惺幼學

將謂年尚茂，七十有幾人？十九不登位，迫迫且逾城。豈是圖安枕，不是樂空心，唯怕生與死，勞逸究誰憑。玉帛誰不愛，名聲誰不欣，只恐血肉盡，前途無我親。所以古尊宿，教人親是心。是心不驕富，是心可樂貧，是心離患難，是心伏刀林。空鉢不得餓，金鎗不得侵，蛇頭不敢舉，龍口不能吞。說法度生死，灑雨活群情，匡圍與陳蔡，何嘗無是心。希聖希賢者，壯年可自珍。勿以身為累，勿以利為鄰，勿以智為勢，勿以愚為輕。始從有心人，終向無心澄。透得無心路，非心非不心。如上叮嚀語，學者可遵行，莫待頭髮白，茫茫苦自嗔。

### 美首座西堂秉拂問答

胸腕不調多卍字，客歲遷延似蘧篨，幸得激浪還澄淨，波底何曾失卻珠，此珠映人輝五色，定慧尸羅隨概括，不因索我且垂慈，分光又為鐵壁法，一段風流固清雅，大用無妨廓空假，座上鏗鏘雜金牛，座下琳琅帶玉馬，西堂於此共成禱，判盡人間之乎者。  
吹萬禪師語錄卷之八(終)

## 偈

### 識楞嚴傳命

或問命者何，出入暖與識，三者次第來，唯識乃始作，識動想緣生，出入息成就，暖氣由息彌，此則四大具。所以十二因，鈎鎖成三世，劫流若恒沙，沙盡劫猶在。何乃諸眾生，長迷不自悟？非獨吾教然，三家原一爾：在儒曰知命，在道言復命，釋故曰傳命，親切莫加此。惟冀諸學人，知命當求復，復己命不傳，還我無聲臭。菩提圓覺心，涅槃相如是。

### 盂蘭盆偈

佛說歡喜日，鈎錐齊放下，所以令營盆，百味從此出。一輪當三五，如隱身三昧，體用咸收攝，是名佛歡喜。妄情不肯伏，恒起內三業，恃氣成虛憍，是名目連母。伏情返乎性，性依白淨識，蘊使皆不生，是名飯僧眾。當知目連孝，人各皆具足，法如是供養，平等無疑惑。

### 五蘊十二因緣偈

青山頂上一樹花，觀者只望紅英來，誰知花從葉上開，復誰離葉論其幹，幹雖樹身固自然，非根無能得潤發，所以五蘊及因緣，本末還他一株樹，生兮無明緣行去，滅兮色受想而來，觀者只在樹邊研，莫識青山原自在。

### 惺學人十八偈

多羅了義法，其旨在言外，一向尚蠹魚，于法何干涉。若采文句身，即句而演理，理悟歸本源，心法無所有。入此佛圓通，光滿塵沙趣，如一月中天，川流皆自得。心性是何物，教人擬南北，會得頻來機，宴無不是者。草上有瓊樓，雙眼不能見，披月帶星行，懷寶乞他市。以此妙蓮花，曉說窮兒喻，肯歸就父時，步步常自在。堅溼暖動物，本來無覺知，何故雜識陰，而起諸妄想。

妄想一生矣，潤業不能了，幸得無位人，幻我真三昧。一人性海中，灼爾紅輪現，卓越出蒼穹，上下何殊別。浩浩碧流波，輪轉何曾已，誰在不已中，攪成三昧水。苦海石蜜甜，火燄寒冰冷，說與觸途人，不可謂無作。一自華嚴藏，脫出香海印，花落閒鳥啼，風清明月墜。有時林禽飛，有時林禽宿，飛宿不同時，問取枝在否。客身離枝久，本來昧卻無，白出而青入，莫怪家犬吠。我來開一徑，再不得亡羊，岐路令人迷，佛法障人眼。荷葉灑清香，松花食可飽，不入功德林，生相倩誰棄。所以無行作，覺法自性性，出自獅子絃，一彈驚百獸。恁麼而行腳，隨波適智用，把舵生滅中，何常有生滅。

有情無情咸一器，誰是綱維有無者，百花春到黃鸝飛，萬卉陽回白魚戲，飛躍不同上下殊，問取青山並綠水，一器空隨一器空，一一器中空何別。

六箇門頭一樹花，根蒂無知任分別，互用串成潤業生，淪入五趣教誰替，多羅義了尚豹文，播迦空處如虎變，鬱鬱蔥蔥難自知，舉似人前只者是。

落花流水亂春風，路上行人抱明月，花如明月景一如，多足蜈蚣不並得，火燄說法佛佇思，鼓聲傳語天帝聽，日用尋常不可量，一性之中無物捨。

取捨在境不在心，兩足安能離大塊，水到成渠明月投，隙開有空清風至，清風明月不曾來，渠水隙空亦不去，見聞覺知本無生，善用頭頭觀自在。

音聲不在語言中，形色何曾四大裏，百萬塵勞隨好生，掉臂原來度無極，扁舟夜火秋煙冷，空潭霜樹蘆花白，淺水歸來傍月眠，誰是漁人休歇處。

忘心除境靜，何曾識浪遷流非是動，陶輪在手我空行，維摩世界難分別，問取木人石女聽，駕起泥牛鐵蛇走，活鱗機關孰比倫，珠在盤中隨便轉。

問余日用用何事，饗飧行住及坐臥，太空本是無事人，鳥啼花笑又流水。

頑石偏能識至人，不是生公不相識，應憐蛙聲苦且輕，未明者箇苦無量。

冬日寒風秋日霜，雪上烏雞誰使然，智者不隨變態遷，終日變化而無用。

性中有覺海中漚，山河大地從此起，果然得箇好兒孫，頭頭觸著金銀庫。

薄梵仙陀何處尋，只在老僧拄杖下，東打西敲總不知，又是阿誰來聽響。

凡夫早已敷華座，聖賢猶自苦婆心，所謂知事煩惱多，不知事者瞞預過。

### 示眾偈

一心一切心，一法一切法，因法故說心，無法心何有。是心亦非有，是心亦非無，非有非無中，法法從此起。是法亦非真，是法亦非妄，非真非妄中，心心從此住。是心不是心，是法不是法，五陰十二入，十八積聚義。有無俱幻對，真妄同影合，打破有無關，真妄隨緣露。妄現密菩提，妄現真如佛，八萬四千門，塵塵琉璃地。真現生死根，真現煩惱本，百億須彌山，事事皆無礙。煩惱煉真如，菩提銷生死，以相填道路，敲冰來煮水。鑽甚金剛圈，吞甚栗棘蓬，恁麼會得來，一碗閒茶飯。凡聖猶如戲幕人，事事物物直如此，扯斷繩索趯倒臺，一一從頭假透底。

### 禱雨有應

天不雨珠，為我心珠，天不雨玉，為我心玉。男兒若有淨肝腸，可是聖賢諸佛具。時節到來漏一些，十方法界彌真氣。化作風雷惺四生，化作甘霖潤九地。不然徒為賤丈夫，絕倒人間何所似。

### 物我偈

一籠竹一卷山，榕樹小石臺寬，不向你道，又說吾慳，分明直是者些兒，南北東西任往還。

### 坐禪

喜坐禪，來坐禪，兩輪燈影照四壁，月初圓，開口成外道，揚眉落二三，要知吾家真消息，日上三竿猶更眠。

### 閱寒山詩數偈

我愛寒山子，拈語不粘唇，因風吹野火，喚惺眾生心。又愛拾得子，言麤而理真，言麤令人怕，理真令人欽。豐干太饒舌，寒山太做作。拾得雖風狂，去後無蹤跡。好箇呂臺州，眼中添三屑。打鼓弄琵琶，還須吹萬訣。寒巖三貧士，卻也愛風流。在在捏空花，處處泛虛舟。一朝被人破，只得向石遊。問取均提兒，金毛

豈是牛？廚下洗器者，解泛火中波。不吹離騷韻，便唱紫芝歌。  
衲衣披破雲，木履登愛河。相看只一笑，吾莫如之何。丈中獨無事，  
寒山傍雪飛。謂我閒些箇，勞他相似危。出錫煙霞捲，歸來泉石輝。  
不是愛如此，身心已離微。老人怕我笑，我怕老人哭。哭非陵行婆，  
笑是彌勒佛。一箇肚皮大，兩眼光如燭。手裏把豬頭，舌上青蓮出。  
窮子不就父，含飴枉弄孫。箇裏須知機，可中自有人。何以樂吾趣，  
笑指松柏新。吩咐善財兒，無勞過百城。紅塵飛野馬，朽御莫可把。  
擬欲烹小鮮，誰是陶漁者。不然化人居，虛心不肯下。歸之塞上翁，  
得失無生也。野里有人家，輕煙深樹杪。溪鳧岸上飛，停停落箇小。  
園翁不厭貧，山叟豈辭老。我去喜相逢，笑殺芝蘭草。郭外羊腸路，  
灣灣曲轉斜。薄暮馬蹄輕，行人不耐些。綠火山頭出，驚心入鬼家。  
回向月輪孤，滿地灑銀沙。

### 示學人

樓子道人逐巷求，誰知彌勒醉高秋，一聲唱惺西來意，你若無心我也休。

### 亡僧感寓

漚生漚滅原在海，設無生滅漚何從？我身浮遊天地間，且有大覺在其中。  
誰信空生大覺裏，四海又向空中起。何如覺破此幻身，幻與非幻同生死。  
誰同生？落花啼鳥嘯陽春。誰同死？翠柏蒼松溼秋雨。日用尋常是甚麼，  
昧卻依舊從頭數。

### 病中受藥偈似羽霄居士

泡幻雖不實，卻在泡幻中，隨流固不礙，痛癢豈無蹤。既是痛即我，  
癢處孰非儂？古者四事供，藥石可為功。牛乳曾潤佛，詎敢執其空？  
所以居士巧，能調四大通。藥還非藥本，病全非病容。為報知音者，  
雪火一爐紅。

### 飛流天鼓偈

初夏既念日，我佛長男生。余以受請故，率眾臨菊隱。菊隱雖曰庵，  
其崖號和尚。不知自何代，相傳及于此。庵中有主人，歷然融然者，  
天親與無著，皆出陳氏族。久來親函丈，所以重復延。

入院纔三朝，經行于溪岸。其日已崦嵫，流光橫飛度。政于絕頂間，化而為兩輪。光則內虛明，外而旋火焰。眾見斯瑞已，各贊為希有。畏愛猶未卒，忽聲如天鼓。一椎再不擊，于地皆震動。繼而揭周易，離為火，變以六二爻。曰黃離元吉，辭謂擔大業。文明于後世，上治及下澤，普利無不到。我觀法器根，唯有誠與信。天垂象以示，策進無愈此。天鼓尚說法，心性尚文明。得到中虛已，事事真無礙。我以如是說，領荷天中教。勿謂余饒舌，自有證盟者。

### 靜坐聞鳩聲

靜坐獨無事，誰參五味禪。一聲鳩喚語，呱呱是真傳。即此物，非他物，鼯鼠曾指逍遙窟。

### 淫雨

天公不見過，總為肚皮大。誰有分別心，雨暘各其所。既是大慈悲，法堂當剖決。多處不須靈，少處如意落。

### 山中煙雨有感

入山住得四十日，十日寒兮一日暴。不覺深夜煙雨中，慧光靈靈忘損益。閒來無事讀莊周，多羨山人老白頭。金闕銀宮不足貴，義臺路寢卻成憂。兩臂已知輕天下，況復吾身先之秋。清冷稠木及廬水，卞隨務光北人矣。早知珠林別有春，怏怏徒勞速其死。

### 雲山偈

天上雲似山，地下山似雲。不識雲山旨，勞勞虛實分。積氣以成塊，蒸塊復成雲。無何而上下，不分而有分。我已見佛性，性地非空形。水火及見識，七大全而真。以此方知幻，知幻知佛身。圓通非有隔，無生無不生。

### 簡古人書字偈

余獨偏愛書，又復偏愛字。非是性偏愛，古人亦如是。晦堂無餘金，卻有閒書史。擔囊兩竹籠，妙喜稱之至。所以讀古書，則與古人居。所以頌古詩，則與古人期。孔氏之家訓，學者亦可師。

唯有坐禪箴，又不當如此。見山不是山，見水不是水。但得透過來，依舊是山水。幻人寫幻字，幻人作幻書。遺與幻人讀，讀之成幻佛。幻佛既屬真，法王大地身。五千四十八，則則是傳心。眉毛原來直，鼻孔亦非橫。風流自不得，何關萬象形。

### 示蔚西堂四偈

秋風淒，冬風吹，木葉飄飄亂如雨。為是葉來風上飛，為是風從葉邊起。有時葉落風歇腳，山色寥寥誰是你。  
愛日清，山色寒，野老何曾斷火煙。閣底煨爐烹芋粒，鑪中煎水入龍團。從他李泌汪若水，到此旋知世界寬。  
樹葉黃，霜風燒，唯留楓色似春桃。不知根性自然紅，不知時令逞其嬌。夜來細問玄冥使，遍照光中不動搖。  
何似松，何似柏，柳綠桃紅不是久，顏色冰聲萬木凍。雲黃天下雪，澗底溪邊骨力強，嘗伴芝蘭相俊潔，禪和子，聽余說。

### 示行腳僧

薰風香，蒲劍綠，白雲煙裏夢初足，下榻扶筇問遠人，欲之白下橋頭否？詢道行腳事如何，月影蘆灣浪花續。

### 實行偈

學道不離心，離心不見道，認得真心處，豁然通三要。無非即是戒，無亂即是定，無癡慧日生，何必尋經論。是心亦非一，是心亦非三，心尚不可得，阿誰心外參？參與不參等，心與非心一，端的在其中，畢竟無巴鼻。呵呵逐影人，馳馳徒勞力，誰知草鞋裏，是渠真面目。

### 示明寰禪人刺血寫法華經

四大相聚，造色圍空，空中幽隱，上徹下通，積熱成氣，積陰成血，順則鮮紅，逆則潔白，所以禪人，效普賢願，書血成字，微塵中現，微塵有經，不離一色，多寶全身，怎麼乃得。

### 示東旭禪人二首



追尋者箇義如何，觸處逢渠祇恁麼。尊貴尚嫌千口少，貧窮猶恨一身多。鏡花燦影非唯識，水月幽清豈末那。沙界有情雙眼底，等閒泛動湧金波。

一尺龜毛十寸深，無端月下自成陰，隨緣到處皆稱拄，方便由人話作心，熱鐵不離泉裏凍，寒冰直在火中尋，能將沒手拋天地，戶戶門前觀世音。

### 觀桃花十首

籬邊香細暖風來，小樹銀紅花自開，消息已到靈雲手，擱動須彌把賦裁。

靈英點就芙蓉色，不犯枝頭也大奇，覲面相呈來意好，香風穿過綠楊絲。

因緣乍結胭脂嫩，謹守香唇不敢開，為報單傳關振子，輕身才後落梅來。

嬌顏露出非干色，葉上輕紅豈是煙，開卸尋常人不訝，都來昧卻粉牆邊。

動口無言笑滿腮，幾回香自樹邊來，一枝折向窗前過，惹得遊蜂上講臺。

野情恰好東林玩，夾竹紅花帶笑開，問取宗門一句子，春前不昧臘梅來。

花神窈窕弄陽春，朵朵含煙樹上新，輕薄不隨流水去，落殘猶傍老山親。

春到林園暖日遲，門前花萼忽橫枝，拈來道破東風意，萬紫千紅一笑時。

經行未到東山徑，滿目繁英已照人，老衲不妨花葉墮，翩翩蝴蝶賞芳辰。

花鳥和人一樣紅，祇緣人在此花中，翻身不怕風流礙，雲月溪山到處同。

### 觀雪

冽風陣陣鼓寒霜，玉甲無端落歲狂，多少行人看是雪，不知春水賴渠藏。

輕綿乍落黃雲下，山色層層帳白羅，野衲閒時雖似雪，何如親向雪中過。

### 觀竹

竹葉青，竹葉綠，青青綠綠觀不足。風舞動，敲我耳，梵音海潮和煙起。揆其根本節節空，卻也隨緣知箇裏，老僧竹，竹老僧，何須更問情無情。一顆圓明只者是，任運瀟灑四時新。

### 觀蘭

蘭花香，蘭花清，清清氣息香滿亭。我過階前若不識，無端鼻孔又通神。怪來莫訝老湛堂，巖桂曾傳太史黃。喚作吾無隱乎爾，撒手回頭歸故鄉。

### 觀杏

杏花紅杏花白，春風粧就好顏色，不因時節喜相逢，歲歲風流何處洩，老僧冷眼直一看，昨日纔濃今日淡，還我根底一枝來，明年又鬥春風亂。

### 浪花

傍石隨江任意裁，幾回風浪代春催，一枝帶雪纔驚放，滿架牆薇鬥月開。

### 示燈世

指窮薪火不相遺，金粟和光雅順時，遍照此身心是慧，佛華甘露世中飴。

### 無我為偈

依他門戶總成癡，脫盡簾纖我自為，只須頭尾都埋縮，一任顛狂似不知。

問我生涯無箇事，隨緣放曠匪膨脝，作用眼聾鼻又啞，笑殺寒松隊隊蒼。

野老家常只自覺，粥飯饒餐米不殘，臥得雪林寒似火，噴鼻梅花香滿川。

有舌無口難說話，燈籠露柱各自知，還他一味相應草，流水行雲在處奇。

三十年來覓此難，誰人弄得巧成憨，于今變作金剛手，搖動虛空徹骨寒。

## 擬金粟老人不離山偈

從今一日不離山，指掌崑崙任我攀，玉線抽牽空匣裏，鴛鴦飛舞野雲間，坐中日月燈前影，眼底人天鏡上斑，縱臥渾無兜率夢，鼾聲震得老僧閒。

## 天雨天晴

細雨瀟瀟山色秋，深林閒殺老陀頭。上堂無事頻敲唱，半偈天花滿四洲。乾殼輕輕舊夢裏，彩雲閃閃畫圖中。試將扇影方樵鹿，到處人天海日紅。

## 閒偈

陶潛冒雨增豪趣，茂叔簽文更述奇，知他原是隱君子，招引同儕把韻推。

## 如用之四偈

當年漏逗幾多時，此日門開只自知，問取者般何所有，不拈拄杖便揚眉。  
昔時解醉寂寥酒，那識頭頭自縛纏，不是一覺如紛碎，幾乎昧卻掣顛仙。  
野馬紅塵事有無，都來著眼不成羈，遍地黃金開佛面，癡人猶礙笑浮圖。  
拈椎豎拂尋常事，心境繇人會我機，錐下莫能知痛癢，白雲依舊滿柴扉。

## 示學人

春來花雨亂飛忙，幾度人情殆可傷，幸得枝頭無箇事，逢人敲打漫商量。  
三三兩兩沒來繇，到底還他事未休，我若無情雄一棒，淡煙籠竹便生愁。  
昨夜樓前看放花，今宵燈火在誰家。未明者箇徒瀟灑，昧卻黃金覓浪沙。

## 乍寒乍熱

昨日晴如火，今朝雨如冰，火時日氣太熱煞，冰時雨氣太寒生。  
深山獨無事，寒熱也著侵，侵時老僧不回避，隨他寒熱露全真。  
全真露卻如何？正恁麼時不恁麼，蓋色騎聲天地外，風行草偃奈渠何。

山童採得木子，味若胡椒，每烹蔬調湯，深足予意，遂成四偈

人道肥甘濟市朝，壤餘何處不成驕，豈如草舍雲峰上，木子烹芹味最饒。  
當年行腳楚荆來，入坐荷香滿袖開，野蔬鼎調誰作味，山椒一粒勝鹽梅。  
坐臥雲霞況逸多，逢原左右採樵歌，一枝摘向行廚裏，碧影清光六味和。  
萬錢一食箸猶難，誰向肥濃把味寬，菊隱山頭清素雅，菜羹無恙是身安。

吹萬禪師語錄卷之九(終)

## 佛事

慧祖忌日拈香：問著牯牛幾箇，今日親見相公，說道東山水行，四十九轉不通，為甚參成黃楊木，相隨來也始跳出，血濺梵天妙如何，八地文開真面目，此是大慧老祖家醜，無奈殃及兒孫，不免徹底吐來，權作供養，且道老祖還來鑑臨也無？煙裊玉爐飛白鶴，風舞袈裟動紫衣。

達磨初祖忌日拈香：海水白浪滔天，蘆林雪花滿地，一航纔來，一葦即去，不是斷臂好兒孫，面壁九年沒意思。昔雲門和尚見巴陵道，得三轉語，乃曰：老僧忌日，不必作齋道，此即是。今日某甲直描得老和尚少林一隊慈悲鼻孔，不是隨人腳跟轉，不是依樣畫葫蘆，但能透得關捩子，到處人前稱丈夫。

臨濟老祖忌日拈香：瞿曇老賊，撇下些賊私，遺累熊耳山壁觀。婆羅門九年鈍置，後來落在臨濟手中，化作箇白拈賊，說甚麼三玄三要，四喝四賓主四料揀，籠絡諸方。豈料慧祖下有箇不肖兒孫，搜將出來，卻也立賓立主，有權有實。且道如何是權實底？一句展具！云：大眾隨老僧作禮。

朝陽老和尚圓寂拈香：入洞坐如泥，出洞飛如雪，硬似楊花軟似金，平平和氣常磊落，于今打破舊沙盆，傀儡線上蟾光爍，到者裏正好哭著，正好笑著，哭著底雙煙飛舞膩吒天，笑著底馬蹄踏遍西江月。

## 讚

### 彌勒

咦，你是甚麼東西，來作者般去就？尚天全無雲彩，尚人又無拘繫，尚地沒些種草，卻有一端象氣在，甚麼處雙眼輪珠，蒲塌上一鉢一袋一袈裟。

### 達磨初祖

一葉五花，乘風破浪，二龍不識，何須執相。

## 文殊掃象圖

者象非象，七大造相，鐵帚一掃，消滌絕響。借問當陽照用誰，馬郎婦授沙江上。

## 船子和尚

別無活計，只是一橈。點頭三下，身眼俱消。江心浪裏分明急，金鉤線上不相饒。蛇頭鬥著龍尾，孤根發起松條。捨己從人鐵酸餡，月沉海底夜霜高。

## 酒仙遇賢禪師

明珠入母懷，改身又換首。沉湎不溼衣，忒世稱希有。每唱白雪與陽春，慣拈紅桃並綠柳。費盡多少鐵心腸，原來只為一杯酒。噫！酒。酒。前街後巷何曾有。走盡天涯沒些兒，誰知飲入自家口。不生淨土願娑婆，醉翁之意不在酒。

## 書問

### 復田侍御鍾衡(附來書)

老和尚一旦舍我而去，令人五內俱裂。專此奉請轉駕，留此一夏，俾弟子稍得進益，以後行止不敢強也。言之淚流，萬望慈悲以救愚昧，至懇至懇。

託質宰官傾心出世，誠大丈夫事。第功名富貴猶若空華，不可在空華中打失自己腳跟。山野每常逼公提撕，恐只作口頭語也。既有至願，不妨再晤。

### 復田別駕素庵

古德云：未有長行而不住，未有長住而不行。縱揮塵談心，固是垂手機關，然遺藥他方，亦未是懶惰偷閒也。三接追札，更見為法之誠，慕道之切。所可憚者，錦衣未披，銅章未握，詎肯效西堂懶公耶？幸臨濟之後，有願過李楊之門者，堯舜與人同耳。居士大有餘裕哉，者一回覲面相呈，全機獨露，不可謂山野斬新鐵面也。香梅噴鼻，得會無隱之詞。

## 復高侍御枝樓

荒山坦率，諒不為方外咎第。最初參尋，雖借語言入，又不可執泥語言也。五燈會元，明公哲士得悟者頗多。李太白云：今人不見古時月，今月曾經照古人。直須恁麼始得。

## 復三峰漢月禪師(附來書)

大慧禪師說盡人間禪病，四百年內望之如渴人求井，不料一枝埋沒。向三峽錦江之上，前得來書，語錄已見作略過。人第未得從容談三月于水流石上，為恨不淺。茲聞已返峽中，略伸四問，萬乞答我，更欲禪師深入大慧禪，起已墜之禪，于今日今後輩重見天日于座下，斷不令某遺恨耳，至禱至禱。

忽爾東南倏焉，西北恁麼蹉跎，只是斗柄猶在河漢上，遙瞻禮錄。果如籩豆問瑚璉，答處不在口，惟望不辭壽者相，繼開來學，永作人天眼目也。劉居士深荷鉗錘，巴國不無子韶，但未知石頭馬駒項下鐵枷還肯齊放下也未？所可痛者，奪朱亂苗，維莠維紫，孰肯向香，至王太子前一瞥，坐斷舌根，他後無舌人解語，胡張三黑李四，能洩我哉。謹呈答句，罪過罪過。另舉四問，希一展舌以普其慈。

## 復劉孝廉墨仙(附來書)

貞之旌心于宗門，不啻耿公之拜井，南八之請兵。十數年來求一參究諦當之人，了不可得，況真得祖家牙爪者哉。不意南遊一見，聖恩再見。聚雲雖門庭機用，各有差殊，而入法精微，波瀾闊大，大約共一鼻孔。楊岐黃龍分振濟宗，豈近日假平實真粗莽之禪可比哉！第末法時代，魔事熾然，以聖恩之溫研，淵奧諸方，狂禪猶有註解破碎之疑沒量，大人安得不合併印證，虛細商求，定厥宗緒，作人天眼目也耶？幸那半月之暇，到玄墓扣擊一番，作家相見，自然可觀，且為後來模範，于法門不為小補矣。

又

彌天古德，快會長干，正擬為十夕之談，細聆妙義，不意暑熱益熾，越行復忙，匆匆別去，此懷良歉。幸拜接慈光，兼熟法錄，已快平生，從此音問，時通叨沐臭味，亦是奇緣也。即日伏惟吾師道履嘉勝請藏事，計已就緒矣。曩傳尊翰至玄墓山中，家師發讀之後，極為歎羨，水乳蘭茝，馨味自投，但恨未得親接緒言，令座下法屬不睹作家相見，終是叢林一段缺事。以貞計之，禪宗

廢久，人天增悲，今幸得二三尊宿，後先出世，後學業有眼目矣。但法門事大宗旨，淆訛瞎漢狂禪，紊亂不少，終夜熟念，如履冰稜，倘得明眼宗徒會聚一處，細商確證，光復古規，此後饒益自然不小矣。三峰師嚮慕殊甚，渴欲一見以年力少衰未能出山，特囑貞致意吾師，倘肯那半月之暇，一詣玄墓，自是上上人行履，惟師裁鑑幸甚。餘不備。

居士醉了不顛，顛了不醒，醒了不問，做酒人，作麼生下手造麴麴，只爾再三再四，拔茅茹以其彙。殊不知山野未出聚雲時，未到金陵時，及未把筆移書玄墓時，三峰老漢已在腦後一捏，漏逗不少矣。又何必賊過安弓哉。假如邀我過石頭城曳尾，楊子江把柁，借問三峰老漢，還肯合本圖利也未不然，單俟代馬依北風，飛鳥揚故巢時，請過聚雲。聊奉一句，吾不如老圃，看居士又作麼生。

### 復破山禪師(附來書)

抱病山中，只與泥佛土佛撕結，竟不聞格外有人惺我疲困哉。讀一貫別傳及諸著作，始知我大唐國內有人也，且喜且幸。雖是溪山關隔，時有雲月通風，不妨同一鼻孔氣，莫令隔不隔而有爾我也。承看顧竺天之病，深感不悉，尚容而謝。

末法時代，境界易遷，一切耳目，皆以鄭聲錦縷為快，若云出脫一步，則面墻而立爾。山野把釣臨江，亦有年矣，能變化吐風雷者，曾有幾鱗哉？接來札，始見嗟悼同心，不咸先哲之憂。其奈山野舉步實艱，終以未晤為恨也。然彼此一家，不妨門下人往復相襲，是荷。

### 復灼然上座(附來書)

久違函席，不待召命，惟願趨承左右。第緣修造九或為羈，不免意親而跡疏矣。相侍六易春秋，壁龍苦眼懇點之無疑飛躍也，不日嵩祝之餘，方圖立雪。

或魚出網，雷澤交加，修造豈能礙之？借問點眼後方立雪，立雪後方點眼？者裏下得一轉語，何難徹天飛去。

### 復雪影禪人(附來書)

和尚乘輕舟抵白下，轉法輪于聚雲，大施金鑿，凡同志者，頌語錄，欽睹顏色，羨神馭凜凜，真果位中人耳。濟宗一脈，有賴中興，生靈一大幸也，不勝佩服。別時因賤恙不曾拜送江頭，覩黃



花笑面想片帆西歸，神人共護，水到成渠，不補馬師之重任，豈亦喪卻兒孫耶？惟和尚秉金剛劍，殺活自由。墨仙社兄遨遊武林，值陳道尊為參首，并諸縉紳瓣香稟疏，迎漢師于宗鏡堂，豎摩醯首羅作略，萬指圍繞，作家箭鋒相拄，墨仙抱贓自首，恨不能速迓和尚。順流而至三吳，掀翻劫外陽春，不負同一鼻孔。茲因漢師致書，齎語錄屈和尚，墨仙焚香遙望，故裁短語修候，伏惟禪那迪吉，不勝瞻佇之至。

拈花微笑，已成禍胎，迄後付偈傳衣，白椎豎拂，百般賣弄，都是禍子禍孫，乃至捫空竊響者，頌古評唱，青山綠水，嗟怨不少矣。如今明明在上，赫赫在下，又烏知滿地袈裟盡化為沙場，人物幾成得宗風耶？禪人還肯巴國為老婦著簪否？倘歸故里，不勞泣而尋之，希過聚雲，悄地與腳跟下一捏，豈獨換舊重新，快可稱歷代祖師消禍丸子。

### 與陳太史雪灘(附復書)

草木易時，人境傳舍，不覺石頭城又在巴國夢中矣，曩荷護持使梵葉吉祥乎？下里奚獨紳庶感庇即字。水桐山亦生色于居士也，政欲借鴻馳報，詎意秦寇發難，往來旗幟正在荊夔間，縉輩出關甚生畏途之苦，而江干境界，別是一番公案。茲值忠南法友碧空者，亦造瑯[王\*函]，聊具八行，少伸致謝。

渴燄如焚，塵勞不息，坐使清涼，淪于火窟，猶自嘻嘻愛戀，不捨無始孽緣深重，如此良可悲歎。嚮歲親炙威音，夢魂欽服，極思返棹故園，奉請法席同還鄉郡，豈意魔氣未消，荏苒至此，每用為恨。時承惠問，如晤道顏，兼賜語錄，益開蒙蔭，自愧鈍劣，未能言下承當，如此笨漢，雖佛出世奈之何哉？秋間定西去，長跪領誨有日矣。願師珍重自葆，臨風倚棹，率略不莊，惟有依依。

### 復瞿孝廉不荒(附來書)

不侍獅子座近五月矣，未耳棒喝故，鞭策不前，無線腳跟竟因蓬轉，師其何以教之？旋來擬走忠南，望聚雲高處，投婆心頭陀，開我柴柵。適碧天皈依，切切欲攀飛錫，暫憩弔巖休夏三九，仰止私悰，欣喜獲，遂冀乘雲至止。山靈本勝，師來更增無限蒼翠矣。蠢鳥野鹿，願領法音，萬惟光降，臨穎忐忑。

弔巖勝境，曩曾遊之，欲擬八景之作，獨未遇泉石主人也。居士既蠟屐邀我，直不是同唱卷阿曲子。雲在青天水在瓶，當下要居士會

也，叱面一著，幸勿驚怖。

### 復鄧陵熊李三孝廉(附來書)

李太乙 法教日違，塵勞日積，且與小魔，角勝殊多，唇齒恐不堪對和尚言也。灼然謝世，興廢正惟此時。先日以和尚許可，方敢曲成。目今委之荒涼乎？前與熊豐老酌議，似有成緒，專候飛錫俯臨，以全勝舉。大菩薩念頭原無擇地，布金解帶何世無人？惟和尚哀憫而接引之。曷勝顛望餘而不悉。

熊豐元 老師別傳外想，復多心傳矣。弟子皈依雖切，領取未能，歸來又是一重公案，何日了此業緣，睹清淨法門耶？聞今冬有來平都之約，慈航遠濟，知不置我苦海中矣。引望風便肅此代候。

熊克升 日聆玄緒，塵襟頓豁，苦無一刻之暇，遂缺修復。茲者十方堂已有成議，此灼然師未了洪願，而德符兄期為無諍者揮塵談心，專賴吾師。合十焚香，早臨是候。

地藏道場原為十方設，豈得尠十方主人耶？第蠡管之見，唯是暖其衣，飽其食，外無剝啄，內無追呼，足而已，不知叢林常住是何物也，檀信脂膏以何消也，僧眾日用將甚作主宰也。古德云：未明者箇空，住世，有人與你算湯水錢，未明者箇空，行腳，有人與你算草鞋錢，果無懼乎？今灼然既去，山野曾以是剎為念，奈何宗鏡鮮酬唱之，客玄度鑿齒皆望之左右，大事因緣果能赤肩擔荷否？錫移匪定，至之日即晤之日也。

### 上董老師(係在家儒門業師，附復書)

函丈別來十數秋，竟作風塵客，幸衣下摩尼不昧，而剎海在毛端古今還當念也。老師只作高尚其事人，且亦垂憐方外否？朝陽老和尚，山野續燈師也，去歲暮過枳溪，而春移浯水，今又返錫古戎，則絳帳席前始得晉夫尺素，而別傳鄙作便投削政也。臨穎曷勝翹仰。

憶老禪宗飛錫時，曾道江右人袖裏輪珠，不慧默識其意，輪持大準提數年，今齋戒念佛法諱道文又數年矣，旦夕神會，初不問于方之內外也。嘗聞奇遇歷歷，佳刻種種，此皆希有之事，慕慕又聞欲歸，為道懸望，偶爾無心。老師以書翰至，不覺喜動顏色。第齒當柒秩，雙目欠明，乃命震口宣揚，恍若面敘，始知不果歸之由也。然翹首跂足，終不容己，未審異日果有緣否？及側聽別

傳，即是三聖人現身說法，縱游夏安能贊一辭哉。敬服承誨，謹珍藏為傳世璧。茲因便筒，假手空書。以謝臨楮，無任神往。

### 復隱然法子

從上古人得和尚法，不違和尚記。如般若多羅之記達磨，五祖之記惠能，皆是此所謂真師真弟子。故千載之下，令人渴仰也。前走人來問話，正見爾將成之志果，堪受室中師法否，若其依我之言，鐵石不易，則慧祖一脈在爾躬矣。茲當埋頭伏爪，潛淵菊隱，縱有檀信宗聚，但只隨宜誘之，況復大瀉獨食七年栗橡，始得為人，南泉牧牛遲重三十年，方施機用，較其今者為何如哉？只恁麼做去，管教後日看破天下野狐精，如其不然，休學老鴉笑豬。

### 與蒼石禪人

野人出人行隊，具有三看：一看有口硬腳軟者，通身被人打過，猶云舌頭尚在，又至煞頭地位，依然畏首畏尾去也。二看有腳硬口軟者，縱步步踏實，但向萬人場中，不能橫說豎說，塵說剎說，單用眼角傳情，紅葉題詩，正如黑夜買賣，令人失足者多。三看有腳硬口硬者，穿著一領鐵布衫，橫著一根榔栗棍，處處搶行奪市，立在萬人頭上，仔細檢點將來，也只得一半，不見古人道，或擎拳，或豎指，行棒行喝成乖旨，忽然棒下喝將來，與吾遠之又遠矣。且問是甚麼心行？射鵰漫學熊瞿手，不犯窠巢也大奇。

### 與江陵開子關主

關不自關，主不自主。若以關關主，是擊鼓而求唐子也，若以主主關，是家親之為妖祟也。然而關不自關，主不自主者，則妙翅橫身，金毛撲網，盡大地總是箇主人，遍虛空無非方丈，可令無手人一拳打破來與聚雲相見，始不負山野臨軒未惜兩莖眉也。

### 復明府尹西有(附來書)

忝同里閭，未展法容，瞻仰之私，真如饑渴。茲來將謂得沾醍醐一滴，而雲錫他往，當面錯過，悵悵無已甚矣。不肖之無緣也。(某)根性劣弱，疑慮多端，百年光景已去其半，而箇中消息茫無影響，以情事計之，亦是懸巖撒手之時矣。若家君直心勁骨，平生一往不顧，似能受道，但向來意不在此，不甚信嚮。近忽寄字

不肖云，過忠必謁萬師，後又寄云得萬師歸里，是吾輩大幸事，則皈向之意較不肖彌切，惟是相去千餘里，未能親承和尚棒喝，將奈之何，匆匆聊通數語，伏惟鑑照不宣。

浪子關山三十年，竟作風塵客，幸拄杖頭邊下，下落主中主也。山野出世入世，癖于孤梗，而擔荷大事一著，又是舊生習染，稚在芸窗，已被徑山語言穿透鼻孔。烏知參見朝陽，乃徑山下鐵牛之裔，是以孳孳行腳覓種子，隱隱爐鞴鑿未開，恒其念也。故里中明公，鄉城大老，竟未登龍門耳。前承遺翰，彩毫中異香殊味，似有李楊之風。詎意錫外相左，荒廬坦率，況復尊大人先顧平都，為別峰之混，悵然非一端矣。時聞朝陽示寂之音，以一代宗脈，必欲上洞收安舍利，但資斧寂寥，尚遲三月也。臨穎翹慕。

### 復春元古貌符(附來書)

去春得聆慈誨，至今耳有餘音。我師彈指到處，石頭盡點。弟子輩又物中之頗有情者，能不俗骨都化耶？歸來厭想塵紛，恨不常隨侍者，後而功名身家四字，終是打脫不盡。自念諸緣盡後方尋出頭，恐終無出頭日也。閑謬以人情作佛事，自比泥中蓮花，吾師其肯許否？想慈悲普度，何忍一物失迷，乃忠艷相去不過百里，現在有佛而不獲一親，諒亦非師接引之本願也，久與李舍親私議，欲得和尚一住，託令徒孫虔誠奉迓。聖人不擇地而施教，莫謂此方眾生畢竟無緣。臨楮曷勝翹望。

兩接華翰，何啻雲錦十行，而知我喻我又不在張楊之下矣。且古之傳燈居士，如商英大年者，託國鈞而作佛事，藉鐵鉞以輝曇華，出入吾門，竟成祖道。居士自聚雲會晤之後，山野謂諸學人曰：古公再來人，不有靈岫之囑，安能氣品若是耶？此當附駑倒屣上平都不待招之而速矣。無何四大失調，幾卸殼漏，竟作蘧篋之質，前擬廿三四強為溯舟第，恐結制之際，又為山野調攝未便故，不果其行也。尚顯瞻候不既。

### 復尹方伯惺麓(附來書)

久企道風，無緣言晤。乙亥春歸，棹過州急問聚雲，忽石尤相厄，夜泊南岸江路。淹迷長年為政，遂不克登名宿之壇，扣一兩則機緣。然禪師敘人也，月明老人續燈師也。月老人化去，聞師返朝陽，經紀後事。秋風漸爽，非其時耶，倘暫處杖鉢，一問故里道業，此中或有堪鞭策者，偶得便羽。道此區區，惠然是望。

承來遙翰，以道義知我。想鷺嶺雞園，必有囑于明公也。第山野風塵多載，于方外身憊形篠，未得覲清高之座，良可歎恨。倘幻體稍起，無論山陰雪興武陵，花春溯舟汶水，得荷綸音不少也。

吹萬禪師語錄卷之十(終)

## 自序

卜子夏曰：詩者，志之所之也，在心為志，發言為詩，情動于中而形于言，言之不足，故嗟歎之，嗟歎之不足，故詠歌之，詠歌之不足，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也。山野逃諸法苑久矣，策杖風塵，栖遲巖藪，果獨無言乎？言且出而不覺成句，句成而不覺帶有詠焉，或長或短，或歌或歎，吾莫知其所以然。無奈侍者集而梓之，罪過罪過。

吹萬野人說

吹萬禪師語錄卷之十一

嗣法孫燈來重編

詩

### 毛詩擬作(有序)

雲之南，其望匪思，嗟嗟我榆，誰浣牽中衣。雲之南，寄聲維長，我儂異邦，厥志履清涼。雲之南，疏竹蔭清，古木瑤琴，現彼物中真。雲之南，竺兮有蕙，我慈脫去，苞彼德中花。  
右毛詩四章，章四句。此詩乃追母氏而作也。家慈自山野出俗後，厥志法門，六時危坐，心佛相憶者九。年初小病，七日前先計：某日我當西去。是日斂衣踞坐于庭，左右將信將疑。時至，果脫然念佛而逝。親友聞已，自外以念佛敲魚入庭，家慈聞佛聲再覺，與眾同音念誦一餉，告別長往。山野聆之，作是詩以自慶。

### 閒步口占

野寺分幽徑，江心潑浪沙，遊人樵子路，撒網是漁家。

### 病中題

古人曾有戒，勿使此心馳，何幸四大裏，逆處是便宜。

### 過明峰庵

白雲為知己，到處共無心，影搖風散玉，飛照月流金。

### 日影早照

數片黃金落，徘徊綠樹中，無端寒鳥過，又舞竹枝風。

### 步劉墨仙來韻

出世尋知己，可中未易明。假墳偏作弔，白首卻成驚。既會長干語，當期祖室盟。任從臯舌亂，孤鳳遠清聲。

### 示素野侍者傳萬峰書至

新秋猶酷熱，賓雁自誰來。相繼百餘里，重迎尺一懷。飄身如葉轉，傳語若棋裁。只此方渠志，吹毛亦望哉。

### 示瀚侍者回南浦

執巾還未久，別去欲何之。雖省堂中老，難違座上師。白雲他日遇，青眼此時宜。報與及門者，行藏亦可思。

### 雪中有感

夜雪清淒處，繁興慧日時。傷嗟第五百，諍鬥尚餘期。誰作浮沉驚，難為禍福驪。不如隨分足，敲唱任相宜。

### 病中即事

撫扼緣何恙，起居唯自方。心根無箇事，枝葉有誰傷。作用仍依舊，提持亦照常。任隨風浪激，把釣在漁航。

### 人日與友談心

具君人日望，湫綠錦江中。野寺松煙撲，新花草色籠。冷爐空點雪，機鈍枉開弓。何似春遊者，飄然若醉翁。

### 過小江步武陵湯負丞韻

川落石林響優遊卻放舫為垂輕線釣不避野風濤  
濮水憐居蔡春山醜薦毛肆驕惟我輩到處話清高

### 月梅

鳳尾林間挺一枝脫盡塵煙入品奇  
驚眼乍逢香滿袖黃昏邀月上東籬

### 雪梅

山靜黃雲墮細飛丁香纔解又添衣  
白鸞豈是梳輕羽為附冰魂仰翠微

### 風梅

風舞稍頭夜色離清英揉亂兩三枝  
可憐玉魄分群後輕軟猶隨上下馳

### 雨梅

梅稍香滿雨珠來溼染娥眉粉黛開  
不是小蠻輕墮淚卻緣性水入靈臺

### 夜宿林間二首

樹挂燈籠輝野砌階橫草蓆隔蒼苔  
老僧一臥垂陰下幾點疏星漏影來  
野寺疏鐘曉夜鳴枕邊無夢不成驚  
因看樹上垂陰綠葉底層層砌水晶

### 午坐松石二首

日午風和新扇來松關深鎖聚雲臺  
解衣獨坐清涼上數陣宮商綠影排  
野寺嶺頭風扇和清音偏向樹稍多  
輕搖淺碧琴先操重舞深青唄後歌

### 春日早望

關城煙霧鎖朝霞冉冉松筠落曼沙  
林下經行穿小徑數聲啼柳雀催花

### 宴如巖畔(題巴臺四景)

翠碧蒼巖側徑通磷煙如畫座如空  
到來誰識山翁趣竹語松聲一笑中

### 小溪流水



一線清流透谷開抽牽煙霧疊層來小竹搖風敲梵響疑是笙歌鷺嶺回

### 嶺頭晚眺

夕陽帶霧鎖山西漏影橫拖五色齊天上仙娥宮不閉金針繡落錦邊絲

### 竹徑觀漁

山畔竹園翡翠啼側身穿徑早煙低沙頭已渡衰瀛葉細雨斜風釣上栖

### 晚眺虹蜺二首

石磷危坐日西霞細染輕霏影墮紗一道虹蜺飛項後恍如光相照青花  
山色飛紅水色黃蔥蔥野馬亂針秧舉頭既識天腰線故顯 高皇詩半  
章

### 瑞色朝光(題雲來四景)

白練輕鋪曉色開金風瀟颯鬥聲來陽煙靦面陳殊相項後身光擁翠巖

### 團峰得月

絕頂平巒一徑通樹稍遙探廣寒宮晚來風掃浮雲散影落孤明萬象空

### 西回射白

石壁懸巖晚照西凝霞遠動日輪低徘徊話到人間事林下幽幽幾箇齊

### 伏案嘯貌

案山高臥儼如獅大士雲來法雨時震吼不妨芳草綠數峰煙柳自然奇

### 溪口連江(題興龍四景)

溪口連江石案橫飛煙如絮點山輕漏陽影裏金波濬繞動蒼松帶玉鳴

### 峰頭古柏

柏子庭前句已奇移來峰頂更成禡蒼顏藟鬱雄方外蔭覆人天不可思

### 夜月蒼池

翠柏堤邊一徑斜青青煙鎖嶺頭沙碧虛夜朗金蟾剪影落池中遍地花

### 橫畔跣趺

粥罷經行曙色輝蒲團草坐立身危徘徊不話寰中事風送閑雲夾鷺飛

### 拙度禪人晚獻芳梅

崎嶇風雨晚徘徊進步何曾有畏哉夜靜鐘聲禪客遠殷勤猶獻一枝開  
每向嘉平雪映時茶煙輕染落梅枝于今南浦東山外玉片飄香味更奇

### 午日三首

年年五月鬧端陽角黍江頭歌鼓忙三閩離騷先日夢何緣到處為君狂  
蒲水一杯我自裁禪規曾見古遺來稠林莫謂家常淡順世清貧有裕哉  
病夫逐口尚為山有分觀他取自閒白水煎蒲同類飲何須艾虎到人間

### 早步四首

早出林陰野色輝疏星幾點燄如飛娥眉月上東方白宛轉松間益翠微  
病骨無方換隱憂松林得月樹稍頭更增山色光如畫落落晴空淺翠浮  
靜觀野寺山如畫閒點丹青畫似山箇裏總無分別處月隨流水在人間  
霧染溪山曉色新輕飄流翠亦相親呼童小塌松陰下儉約如秋興似春

### 寄玄密學人

一葉夔門溯水來慙慙已別尚餘懷于今莫識三公署還有曇花石上栽

### 與眾學人集溪邊

清清薄霧夕陽飛色染山溪樹影微小石堤邊流水送羽聲留我醉忘歸  
柳堤竹塢傍溪斜秋色含陰影墮沙遊戲小童欣浪漫編葭為艇泛西霞  
深林何處止鷓鴣興適溪頭夢自消野況不妨施小道聚沙雅等法中標  
新秋曉色露兼葭飯攢橫吹月落華我引沙童流水過清音恒染舊袈裟

### 讀花神三妙記

蝌蚪雲煙是舊家或時遮眼沐韶華縱然玉落盆中別空鑑無容頃刻花

### 讀紅梅記二首

仙館花容翠玉粧何緣摧落野峰藏只因悟醉群英綠安郡猶然作話揚  
雲屋山中興有餘清窗聊讀幾行書文章艷麗雖挑眼眉底忘機卻自如

### 中秋無月

曾聽王公一曲吹浮雲驚破影還垂高聲且試藥由笑百里茫茫問阿誰

### 禪僧月

山靜銀蟾色滿秋霜華縹緲玉光浮麻衣草坐禪裏更聽松濤傍竹謳

### 農僧月

短笛橫牛月色低疏林野外碧光齊考槃既識為山業薄飯家常可共栖

### 漁僧月

薄暮西山日影斜隨漚蕩楫宿蘆花秋聲夜落江風滿收取絲綸臥月華

### 詩僧月

有興移栖竹徑來秋風蕩拂野雲開金流萬點蟾光漏壁落千條兔影回

### 秋日宿胡灘蘭若

遙聞象鼻弄巖間我慕登臨笑月閒塌上主人飛錫外清光猶自映疏山

### 夜發小江駟

小江夜半發行舟野石成灘濬碧流是處迦陵恒伴我清音遙落帶風謳

### 西霞晚望

晚映秋江日影紅飛霞偏落帝城東清音過峽搖疏杪又看孤舟泛海翁

### 竹枝詞

巴渝皓月滿江流一葉舟橫煙水秋此去眉山程多少嘉陽萬里過西樓

### 楊柳詞

鷓鴣啼處落花飛行人路土轉霏微青青楊柳堤邊過惹動春風舞袖衣

### 途中感賦五首

南北仙人不出山雲深那識箇中間應知大隱如鴻鵠肯效醢雞落甕間  
解藍著皂最為良藝苑何如法苑長勿謂亡家羞喪犬罕逢青眼叩醫王  
問我生涯祇一瓢世情隨與道情銷曲肱飲水皆三昧莫訝淵明懶折腰  
月落波中金浪浮華亭有興快乘舟應憐象馬何曾識故向嵩山髓自流  
柱下紫浮嗟角戰漆園傲邁樂魚濠于今佩玉鳴鑾者不羨煙霞肆志高

### 四景回文

花燦枝啼鳥入林柳煙隨澗舞芳深沙流弄碧遊魚小霞麗松亭喜笑吟  
長日夏風舞綠荷滿湖栖鷺蕩清波楊垂繞動飛煙細香染輕雲挂薜蘿  
秋江夜白月霜寒宿雁驚來榔水湍遊艇泛漁歌晚釣幽林傍菊採霞餐  
飛雪輕飄上苑梅素光清舞竹窗開衣寒暖火添爐炭揮塵停甌把賦裁

### 春日對殘雪

玉片梅花落銀沙柳絮飄禪關情不盡昨日與今朝

### 竹林清坐

萬籟含秋色瀟瀟送暑時碧影竹光射清吟蝸語吹

### 過菊隱庵

放鶴迎來客鳴鴉代曉鐘一般執事者肯踏俗人蹤

### 送學人

欲返白巖寺雲山總一如勿生離念別社裏尚藏書

### 贈張隱君居白飲洞四首

為破莊生夢卻來景室居塵糠隨去就不關野情餘  
其二

芝山非避世皎皎自心遐況乃金壺篆能陶歲月華  
其三

松菊還留主雙珠訓已傳冥鴻深入處其羽尚儀縣  
其四

三槐栽宅下此洞罩松蘿莫怪人難覲丹巖千丈過

### 題蟾影禪人

千江片月滿中流一色霜華遍地秋白鷺未垂雙舍利蘆花飛入帶林幽

### 春日對桃花

不為東風展笑顏機含此日露天斑靈雲豈是花驚眼只喜枝頭帶月圓

### 孟春過景德寺二首

渚州淑氣掩江霞到院仙音唱燭華我過休園桃未放春前不作斷腸花  
青青竹塢滿江飛雪雨沙汀興不歸春色買舟船子岸從來笑倒掣顛稀

### 寄玄密禪人

灑灑江頭興未祛還知釣下有靈魚多年不趁風雷變悔折南山綠竹疏

### 春雪偶作

竹舞窗前地籟生飄飄操亂幾層輕春山不見天花樹一夜殊沙到處明

### 觀臘梅

春風笑爾鬥芳顏幾點枝頭玳瑁斑移來柏子庭前放漏出清香帶月圓

### 月下早發花林

江風亂舞沙汀白空月流霜帶露飛一葉輕搖波浪緩優游泛得曉煙歸

### 山居四首

柳堤煙送小山雲散步階前曙色昕野老家常閒似水隨風飄起自然文  
夜靜亭邊月影來數聲風舞竹門開經行怕動巢松鶴但借霜華把賦裁  
荷錢出水夏初長樹密松稍蔭晚涼我過林陰身未影西霞猶傍野風狂  
泉石林間俗客稀燒鑪無火漫尋薇白雲一臥西山晚更聽猿聲嘯落暉

### 白魚溪夜坐

石聲流水動樹響過風栖蹉跎情不盡山月一輪低應憐門外客何時到  
虎溪

### 燈常之海上

心本常素心智實無緣智因有水共山惹起飄飄志只莫住岸移還須卻  
雲駛巫峽滿天春不盡江湖意驀地洛伽來波濤一相似借問善財兒南  
行作何事

### 與得心禪人集洛書石四首

數日未出林非是怕人知獨無箇裏客相對奚以為我慣拔人楔人欲扣  
我詩好筭而鼓瑟伊有自恩之

其二

我在臨江住君從汶水來泊舟求知亡余豈不快哉桃花紅已白栗葉墮  
還開說是西來意恐君動疑猜

其三

我說緇衣中多是竄遊者不飽餽釘食便騎欵段馬問渠室中事猶在廊  
簷下白髮不知慚臨墮倩誰把

其四

水是長流水山本自在山許多弱喪夫夢來山水間問著家鄉路迢迢在  
玉關何如洛書石談笑有餘閒

### 擬步太白子夜吳歌

皓月清風細寥聞砧杵聲是處皆秋色相看獨此情司成今在否卻馬罷  
西征

### 歲暮過石坪庵訪大休法師坐興

何事與君堪敬節何境與君共題詩唯有白雪亂山巔梅花依舊吐寒枝  
莫來林下空脫落邀得盧仝為君酌休將此興詰趙州含金楊柳機未作

### 遊潭驀洞次唐人李長吉筌篴引韻

岷肢上池夾天秋落磊浮霜白雪流香車輾起羨門愁洞口霞聲弄筌篴  
娑竭潛身金翅叫風伯怒號雄虎嘯清影薜蘿映碧光五色氣騰來女皇  
飛錫卓峰回鶴處沙墜地普花雨桃林雞犬與世違峭壁猱猿脫空舞白  
牛不出庵羅樹支遁愛山乘赤兔

### 東門行化衡見訪賦似

為士不安貧拔劍之何地男兒不肯負英豪天外出頭倩誰事葭露撲落  
之杯來蓼風颯展飛錫至寂寥控我無插錐垂簾林下欲何為乘興莫逢  
支遁馬浩歌孰有咸池吹君不見道泰時清弓挂樹漁人唱起沙洲鷺

### 君子行賦似正則法師

君不見百昌青黃識歲時滄田三變那得知又不見塵沙墨滴劫未空蜃  
樓阿閣徒自窮七步都來成歌舞況復山林並江渚幽芝曉燦且溫風翠  
柏蒼松暫時雨日旋月往景悠悠觸蠻何事苦蝸牛蘆花鷺鷥不肯去一  
日孩兒笑白頭

### 將進酒別贈馬郡侯遷陞

蘇晉繡佛喜逃禪卻憐米汁祀掣顛聚雲慚愧非慧遠公至攢眉徒清返  
只今遺帶升大羅更復留書澤轉多剃髮稚隨依寇借染衣無礙為廉歌  
佇見拒皂錫三命重光重輪天子慶狼煙息處賀金牛朝罷含杯堪樂聖  
錦帆吟錦纜詩條風梧月代我吹

### 冬日遊白帝城

博浪一擊為誰雄漢宮初起黃石公卻延平帝廝王蟒躍馬東城亦鞅掌  
蔥鬱南陽星復輝昭烈益州月重朗都來豪傑鹿燄中唯存山水留人仰  
山水何緣唱絕奇瀕浪如花石如獅猿啼赤甲征風陣雪亂黃雲舞竹枝

君不見漁艇煙叟泛流霜晚映寒霏門草堂不是破瓶消野馬那能處處  
菩提下

### 集量虛南宗二禪人庵中

郊地開初地山又易木又梁高茅露骨蘆久壁生芽鼎煮大梅蔬爐烹趙  
老茶卻來今共語涕淚可如他

### 沙市舟中晚望羅伽室感懷雪照師

一望江陵地迢遙紫竹深野芳暉落色堤敞暮垂陰黃葉傳師路白雲邀  
我心懸情無可寄停舫對風吟

### 過爐山訪中如居士

數載尋知己今朝適至人賈韓雖有興支許豈無因月皓爐山秀風薰丈  
室新得君遊不二誰患客中身

### 山居

野外一卷山無人閒自在白雲任往還綠草隨行隊影落林禽飛聲清澗  
水匯我來居此中遊戲成三昧

### 春日遊陸宣公墓步陳中丞韻

為懷宣墓古春日渡浯川樹老栖霞翠藤高傍砌懸勒碑來弔鶴埋玉繞  
清煙野外誰堪供攀梅代蔬筵

### 答張隱君

檢違知己意一日即如年溪過還存笑蓮修早破緣樹雲分地暮山月共  
簷前有興離丹穴談心復燦然

### 野望步唐人韻

薄暮西山近雲煙傍谷依松蒼秋染色蒂紫夕傳暉野唱誅薪過橫吹飯  
犢歸傲情無可寄好啖首陽薇



### 次李魚鱗題洛伽韻

梵相光含紫竹林煙波落盡海潮深磴嵩素影雲鋪練殿閣清飄磬轉音  
幻色頻瞻離垢地塵囂猶長覺花心等閒透得圓通竅抱月泥牛信不沉

### 春日太寰居士見訪坐中即事

何緣天祿喜逃禪索我瞿曇顧命篇夢筆雄才弓挂樹陶輪隱括柳垂鞭  
檻前溼噴花飛兩座上清羅鉢吐煙莫是淨名遭象瑞蹉跎此地解三千

### 山中即事

山中薄暮晚西霞坐臥松巖此是家流水有聲湍嶂石溫風無恙掃塵沙  
香羅密室茶烹燄影過疏林月落華可笑螳螂空怒臂等閒難討白牛車

### 春山野望羽霄居士共集

淑景春回氣不寒登登山色儘逃禪攀高有寄何須傲樂野無情豈是頑  
花徑曉斑人影密石林清頌水聲湍淨名既了參軍醉絕頂凌霄仔細看

### 平都示灼然法子

煙波摘葦字江來峰曉平都紫氣徘金線堤飛垂柳動林花巖燦野桃開  
紅爐片滴窺長髯黃葉音傳識大梅不為牛山雄一派那能重此陟崔嵬

### 過浙師巖訪雪丘禪人

平都一葦截流行陟上巖峰屐齒輕白積枝頭桐萼放青堆巖畔石林橫  
松蘿翠舞風相亂樓閣聲彈鳥共鳴為覓幽人懷古意卻來此地轉無生

### 過酆陵訪李文學昆玉

平都煙曉映春林棹發晴波問布金花夢芸窗雞唱語詩題雪壁柳彈音  
爐邊分芋黃麻遠鼎內拈檀碧眼深自是鵬程輕萬里扶搖何必說浮沉  
臨江破浪一乘槎為覓雞窗陟晚霞白社笑迎蘿薜秀青藜光灼斗牛斜  
裁成局賦彌春色奪得瓊枝帶月華曇彥佇看津劍化非衣曾伴老袈裟

### 歲寒觀松柏

歲入嘉平冬暮時徜徉野外動清思風飄不墮庭前葉雪撲難凋澗底枝  
拽履歌商嚴素守烹藜鼓調益栖遲沖聲徹骨誰同冷縮腳楊岐志可師

### 忠南林別駕見訪敘別

一臥雲霞夢已銷都騎何興及鷓鴣祥公入社香煙裊投子敲關姓字標  
薛溼巴山情未盡衣懷祇樹記難凋仙舟柁鼓春江秀巷陌仍餘甌斧謠

### 忠南馬郡侯見訪

夢曉蘿庵德宿馳岌公來幸聚雲枝山環冰玉清光洞水鯨鯢素影垂入  
閣談心留薦句遺書勒記啟棠思那能方外遭青眼恍若鹽車一顧時

總持禪人舊為衡門友今亦短髮著緇過忠南見訪賦此以贈。

昔曾墮榻同徐孺那識今朝此地遊彩筆誰爭磚上影曇華豈門月中秋  
舟來汶水追黃石錫過巴臺仰白牛方外情疏無可寄薰風常帶紫芝謳

### 贈徐白麟

芸窗何事下渝州謝卻毛錐法苑遊寶匣不開光未隱髭頭雖剃髻還修  
朝陽果遂鶴斑舞擊水仍搏海氣浮此去薜蘿松尚在含風為我代嚶謳

### 感賦

北面睎南一記來踟躕岐路動悲哀豬蹄錦帳驕增盛蝸角金壇夢怎開  
鉢底茶煙惟我賦松間石塌有誰裁相逢但說離塵好究竟何曾把事灰

讀快書篇則見才鬼中多若埋尺玉于大塊其光自是不絕恨未尋伺

歌詠主人公故蹉跎長夜而有莫盡之怨因拈一律以歎。

塚內含珠欲未乾滿腔熱血幾時寒彩毫漫逐悲風斷雅韻空隨夜月殘  
光灼綺筵螢借火食羅香細露為餐金河自味雙煙鶴化作啼鴉歸去難

### 寓夔門感賦

柳條葉落墜如絲煙送瞿塘傍我期入室不妨蘇子問拈花猶唱杜公詞  
庭前卻味迷青眼月夜偏憐照白眉剖析域中誰是大免教澤外野狐思  
塵尾何緣豎北隅煙如絳帳不成孤寒聲度颼瞿塘樹晚景隨波灩澦  
別去三珠羞翠鳥拈來一葉指寰圖庵羅禁我推敲句把得清瓶瀉五湖  
東白仙雲峽口懸光連錦水映寒天招搖青雀知何日折斷黃金是幾年  
函丈淡飄香近火講堂清漏露飛椽倦來漫讀朱熹頌薦句于今最可傳

雪淨珠林一帖經多年寂寞鬱如螢坐間瑞靄潛蜃氣席上花飛寓帝青  
白眼尚流傷木淚野航偏負笑秦亭碎琴豈絕江山趣半曲笙歌玉墮零

### 冬日訪余隱居

聞說遐心與世違遙攀白帝意如飛登山訪士尋丹穴罷席扶筇慕采薇  
鶴放偏知來客語風寒卻避覆珠衣東林有興堪推行肯把圖書按月輝  
吹萬禪師語錄卷之十一終

詩

弔巖八景

薄刀峰嶺

傲入峰危氣不驕石磷斜側眼澄搖乘羊憶昔追由老駕鶴懷今慕子喬  
徙倚舒徐尊足穩驅馳容易野心嚙飄然已覺煙霞上擊角何曾探寂寥

大願王閣

一閣翛然仰翠微更增山色滿柴扉清音度遠朝鐘應梵相光遙熾日輝  
剎海毛端含泛泛層峰目瞬盡依依拽竿豈為參牛跡欲進韶公捲席機

弔巖老僧

峭壁藤穿古砌閒千條一臥野雲斑衣侵樹影宵中月目納曉光夢裏山  
杖擊還曾參白足磚磨豈是照紅顏忙忙過隙情多少誰把希夷逗石頑

岫裏天池

霧斂蒼山影沒瀾清池灼映斗牛寒雙鋒既入延津變六息仍飛噫氣搏  
莎徑曉看人砌碧金蟆光徹水成丹翔鸞豈必驂西母自在仙蹤仰露盤

峭壁風濤

激浪浮天熠擾來塵埃起處颺聲開夷歌似陣風傳籟野哭如家樹送哀  
嘯虎陶成南郭穴飛鳶幻出武侯臺舞雩既洩鏗音趣未許彈冠把賦裁

白毫早瑞

桑氣雲清鳥足低朝霞輕染畫山齊光騰寶蓋珊瑚砌影落瑤臺鸚鵡栖  
夢鉢追青懷妙德敲門射白感招提通明幾度飛花雨認著狂頭祇自迷

## 暮野宵燈

黃昏山色亂栖鴉氣斂蒼秋淨晚霞天壤辰河光玉屑地文星斗煥金沙  
傳燈謾說三千瑞入閣仍拈百萬花長笑鶴鳴無子和箇中好爵賞誰家

## 鐫煙茶圃

秋清雪陣蘆花低興陟巉峰樂品題入圃拈茶歌短調燒鐫掬水折疏藜  
煙籠紫霧卮霞燦香染朱雲日影栖罔徹關頭誰是味揚眉飛鷁已天西

## 晚眺

日過西山色轉霞幽林淅噪夕陽鴉柳煙紫並光飛線溪靄紅增影墮紗  
萬壑齊吹風穴晚千峰一納海晴斜踰城莫曉蘿庵夢辜負公華老作家

## 賦感(二首)

素陌淒淒草色黃秋聲葉落影垂霜千層煙水和天碧一帶雲山並月蒼  
竹實餐餘梧當閣溶溪飲老菊為裳可憐孺穴誰知已角足從他臆短長  
山色蕭條影夕陽雲深煙鎖氣蒼蒼疏林葉落偏驚悴野荻森花預惡芳  
塌引藤編清夜穩羹調藜熟素餐香呼羊作馬何須定卻被無能笑我狂

## 似張隱君過弔巖

五柳何曾惜懶腰家傳清白喜漁樵聲澄梧木音雖隱燄裊魚腸氣未消  
梵閣心談塵熠遠祇園月挂素光遙山棲若得東林老竹葉勤醅濯飲瓢

## 似瞿孝廉來韻(四首)

欲啟熊山後無如此地奇月明空外境心定有餘師掃石薰風舞烹茶淨  
鉢吹何緣香社裏更得友羲之

其二

太古如山靜幽人不敢奇依門懷立雪斷臂證尋師法演天花散心傳地  
籟吹蹉跎三笑裏了義有程之

其三

為樂天心處尋山一探奇白牛堪指路黃石可為師野菜和雲煮溫風帶  
霧吹只茲三笑裏擊磬欲何之

其四

地秀峰還秀人奇境亦奇修蓮懷茂叔愛駿喜支師履落情偏暢鑑然息  
更吹從來肆志者物我亦如之

### 將進酒似張隱君入山

金山長老待子瞻竊去燒豬徒酣酣東林遠公識陶令攢眉蓮社思樂聖  
于今子韻入山林欲買花露何處尋缸盈酒肆不用衲錢少柱頭又無金  
風流何必翹鬢中別有乾坤醉裏通陽山好借酒歡李白斗興把詩工君  
不見此日林下色新苦茗煎得且當醇

### 秋興(四首)

老葉飄孤樹條風不帶香唯聞天外響說是奏笙簧  
其二

野徑栖衰草清音帶晚霜雲岑幽臥裏是處有羲皇  
其三

落葉鬥秋風霜林和溼舞且坐勿開門蕉聲夜滴雨  
其四

山翠松煙古雲蒼月影凄數聲幽谷裏落木響清溪

### 秋賦(四首擬陟彼崔嵬之作)

蕩彼蒼淒峭石豎豎雙鳧匪我儔兮我策龍且躋  
陟彼高岡素羽霓裳冥冥孰眇池潢隨風何所傷  
遵彼溪灣梧醴飄潺我獨卓彼神山冰肌聊自閒  
眇彼城漕如轉如陶浸假易我梁尻我僕駕若軫

### 山夜(六言)

空山鎮靜如秋鐵木忘機夢遊坐臥疏林月下小溪活活常流

### 秋夜踏月訪友

林巒爽朗月華新興適徜徉訪故人夜靜霜寒扉未掩蒲龕燈火自相親

### 坐中感賦

傷嗟者事幾時休接得凡夫釋我愁聖智雖優非氣宇大心全體是真流  
磯頭每折南山翠函丈多凝白雪浮可痛日前聞薄落無人道破海天秋

### 病中讀黃太史書

久病無廖身已倦翰書權把卻災魔何須性蒂摧渠遠且得心花助我多  
鐵骨任隨兵作陣冰腸誰怕焰翻波從來幻住原無滯萬頃風濤破浪過

### 話別無心師弟

一自朝陽付囑時雁行雙影漸參差歡逢灩澦來心切興適浯江歸路遲  
燈燦玉蟲花更落指彈箏引喙還吹相離莫尚羅衫淚秋剪梧桐月不移

### 觀李花即事

四日春濃樹上花滿枝如雪墮兼葭輕風梳蕊開香片細雨飛煙罩素紗  
荒影舒徐林翠敞門音遷轉雀聲賒竹窗簾外堪行樂問我西來此是家

### 日用有感

世界猶如水上漚我身漚裏卻綢繆隨風起止蕭條葉逐浪浮沉不繫舟  
眼耳何妨能嗅味河山無礙作朋儔應思塞海雙翁事馬不追尋鷗不求

### 午日山雨

年來老大無詩思坐臥深山寡興頭纔說雨風光景好恐嗔柴灶火煙收  
野雲騰躍容如媚行客漓淋色似愁欣厭不隨人滿意難拈蒲劍把詩修

### 訪潭隱君宿雨墨齋

薰風已度月華新桃李園中尚自春弓挂早知壇帳夢鉤垂更識海山親  
珠生老蚌期傳世柳種環溪喜逸民錫過幾番曾餽玉罕如雨墨一宵申

### 過楠木坡

廣西山水川西少我過石南山更奇楠木嶺頭雄岫出碧霞蒼鬱海珊枝  
小輿坐上乘風御野石林邊夾道吹絕頂舒徐窮目處佳興猶如顧愷之

## 制中即事

幾度神州若有為紅塵車馬尚參差珠光未曉驚疑甚玉液投分決擇遲  
珂珮鳴時人得意濮濠歡處我全知從來隱顯須相待莫把巢由當廝兒

## 詠雪

六花片片滿柴扉萬里屏鋪玉帳圍巽女纔吹驚羽落黃雲乍舞惹鱗飛  
尋梅路上和詩燦斷臂林間帶血輝深閣不妨烘炭火長髭清夜有投機  
往歲小除後堂頭亦有煖爐之設今以無鄰則不能也聊拈數語以代  
君子之酌。

冬日流連歲已周追隨兩序欲何求城中煙火聲雖熱谷裏芝蘭味更幽  
窗明映雪烹沙餽榻暖輕身臥紙裘深寺從來無曆數六和歡處勝春遊

## 夜入堂同眾飲茗

昨宵受請入禪房明德彬彬滿四方元日次中寒氣盡兩更半後暖風長  
傳湯聽曲容生笑剪燭談心語帶香總是超然塵物外無拘繩鑑共和光

## 過花林訪秦總戎

春江曉燦滿林花溯水輕舟崦影斜旗鼓遠聲星斗映簪纓淵靄玉金霞  
定知節度重恩蜀信有南康再御家野衲早逢青眼顧依依猶啟入仙槎

## 上平都訪古春元

一葦春江破浪來金堤兩岸影徘徊子韶擊節曾真現妙喜彈聲豈味開  
咳唾早成青瑣燄折旋已露赤肩才法門何幸重光顯信是靈峰有意哉

## 送楊師學應試

多年未作粉榆夢一臥雲霞似不知可是文翁來絳帳幸垂投于唱新詩  
青睛盼處纔沾濡綠柳彈時又轉馳總為龍標催士切依依唯聽紫金泥

## 代輝侍者冬日懷蔚師叔移居並勸歸

深林何事更棲枝牽引啼兒傍岵思暖榻不逢猶子訓寒梅誰共我師題  
煙霞寓止雖其背衣鉢宗源可上眉莫醉東坡泥絮況吹毛還許傑人持



### 代蔚然作冬日移居別業

錫過鳴沙慕采薇林深寺古我先依荒田死免權收色挂壁靈梭且遁輝  
漢上星辰他日望池中風雨別時機青華若也堪垂現徹骨冰寒雅自歸

### 代作曾太守德政

輕靄如蔥影入岷翹眸久覩洛陽春晶燈既徹明天燭絳帳猶瞻夜雪闐  
陌上歌聲懷逐扇窗前頌語羨書紳澤餘未盡仁風遠字水屏山滿玉璘

### 代作張別駕德政二首

夢曉芸窗素影馳鶴來龜伴不參差已知黃老三生處更見韋皋再鎮時  
巴水鯨澄清政沒屏山棘殞化風鬪紫垣何幸遭青眼警我聞聲卻解頤  
臨江此日羨馮君康叔遺風化澤殷法外潢池從解劍政餘紗帳授揮斤  
興歌魚釜關城悅談說雞林席丈燼幸有輦來還阻道黔黎借得喜春听

### 寄懷胡靈谷

楚水吳山亦漫游敝衣知我羨何求談心未及偕三月分手於今是五秋  
話到石城欽管幼夢回天界憶壺丘不因過海飛鴻便首尾雲龍莫可酬

### 代作賀張別駕壽

玉音天洞舞霓裳星座輪光影蒂棠瑞草挺時歡祝頌慶雲爛處獻年觴  
遙思絳帳都山遠夢憶傳詩苧水長借得一枚兜率味仙風恒伴小春香

### 喜雨

山事誰堪樂歲華細風如雨澤如花青林潤色鋪光燄綠圃芳嬌點翠霞  
嫩稼依湍狂線舞顛雲傍竹醉稍斜呼童布塌闌干上對聽簷聲喜更賒

### 山中久雨

藍輿煙靄入深山菊隱庵頭覓破頑一雨芙蓉十日醉數聲梧葉滿林間  
策龍已悵泥中句愛駿猶嫌噁字關桑曙可勞臨井牧免教黔首饑魚斑

### 過江陵訪黃太學

柳堤煙曉泊輕艘為識韓荆詢梓鄉脫穎況餘白馬緒拽竿猶慕紫垣香  
才雄一石低曹謝賦過三都出董楊何幸楚亭瞻面目依依梅雨潤波長

### 雨泊香口

野客行蹤不繫舟風帆隨雨泊東流煙敲碧舞沙堤樹水濺青搖葦荻洲  
夜火有漁逃我況短舫無蔽任仙游曙光若肯揮薰扇香口辭雲傍月浮

### 金陵賦感四首

一葦青河破浪花白橋風雨帶西霞浮沉我媿雞傳鳳境界人看索是蛇  
鷺嶺空廊簫管亂水潦多鶴籥鍾差應思會老中興日甘露重開散月華  
月下經行鳳閣頭評論遙悵水天秋簡書漫說劉姚輩燈識懸推馬讓流  
金紫夢回梁未熟桃紅頓去竹為儔龍湖每道人多羨誰把玄冠一挂休  
何事都門策杖來金叟玉牒為誰開波淪灑血蜂壇盛玄奘傳書象輦徘  
大施有場非泯論小鼯無夢豈同才秋風起思堪行樂好向臨江復講臺  
赤幟巡方覓舊期木蘭無樹久支離紫垣竄句多翹足梵閣遊心盡解頤  
夜引竹光寒免轉午臨窗色隙駒馳當軒不覺揮清颺可是羲皇高臥時

### 報恩塔

碧落巍峨象魏垂夕陽風舞角鈴吹雲層盪泊星河動瓦級飛流水月移  
光灼玉蟲吞海氣影標天國映龍墀我來覲面如分座多少亡羊著相思

### 武帝臺城

草字蕭蕭已綠苔當年豪氣為誰灰風生塵尾成殊況鏡玻螭頭決異裁  
一局既滿孤竹去三杯徒向許繇來達觀自是輕朝代何必膠絲聽古槐

### 采石磯

天開有意成斯境故向江干弄碧波斷雲晚宿還依樹野客遙歸興欲歌  
英烈氣留磯上燄雄才聲挂石邊蘿我來不覺金魚醉收取絲綸唱卷阿

### 黃鶴樓

翩翩雲鶴已仙之多少風流續品題崔灝既成鸚鵡句青蓮移作鳳凰詩  
河山會境人相異物事傳心我自奇話到旅亭長揖處難將兩眼識彤墀

## 巫山

十二峰嵐淺翠流陶將細靄夾輕舟孤帆曉挂東山日野岸遙飛北渡鷗  
楚客漫留神女夢唐人擬代臥龍愁卓哉往事存如許唯掩長風一悵休

## 宿玄密禪社

固陵煙雨一帆飛薄暮停舟入翠微音播祇林鐘已度語傳監寺我方歸  
檻前桃李培春樹案上經書掩日扉精進不妨函丈遠莫將人事點心非

## 夔門訪陳文學

幾年海上執銀鈎欲得金鰲卻便休一指頻懷俱胝類三拳誰似大愚流  
仙舟空泛月明冷玉塵獨揮霜色幽咫尺天涯籠燄隔華亭依舊作漁謳

## 喜復渝城

戎馬盧龍踏未休渝城烽火動人愁轅門旗鼓中原壯井牧狼煙上將收  
巴水重新明月燦塗山不復穢塵留太平此日歌 天子何異當年擊壤秋

## 遊岑公洞

未到岑公洞先讀岑公碑字字稱金液行行贊石芝未識岑公知不知卻  
令賈島暗攢眉寧使人將五根推誰肯犬吠落人嗤君不見踏踏歌聲何所為

## 病中偶作

駢拇連成無用指附贅懸成無用肉何以初夏薰風吹六十日子成何律  
莫是同一肉和指年病月疾從此起乍寒乍熱是如何或氣或痰是甚麼  
都來遭此附贅肉笑殺珠林好大哥眾人莞爾呼為笑老僧惡發稱絕倒  
汾陽罵得慈明悟黃檗打得臨濟了不關土地不相識飯籃落地知音少  
君不見老聚雲無箇事風流只在人間世

## 春日策杖巴臺步杜甫贈王郎司直韻(短歌行)

不得抖擻不若匏瓠一繫哉木葉乾殼乘之豈謂風而偕策杖柳堤碧煙  
舞過橋澗底白雲開鳴玉庵前淺翠來影入松關林鳥度聲轉江千湍水  
怒古道夾柏扇飛紅桃花凋落人不顧唯有夜月歡相慕

### 讀蜀中廣記

聞說曹公蜀記繁曾將案上對心看不透牛皮兮不按黑豆不損眼睛兮  
不蠹紙穿但能睫底輝世界千古英雄一笑間

### 窗隙吟

舉目看前窗前窗綠影竹轉眼看左窗左窗樹影綠相敲相舞葉搖風為  
羽為商聽不足聽不足一輪月下瑤池窟

### 宿萬家庵有感

搏風不羨榆枋志嘖嘖榆枋卻有評誰識山河無關棧到處幽幽似白雲  
憶昔素王居陳蔡芝蘭芬芳何所礙皎乎日月煙雨中寬兮天地人情外  
予經此際亦蹉跎且無子路說窮態

### 汪見盤見訪

八埏結峙爭突兀水濬湫盤輝湘月繇來泊湊境中人靈靈玉樹光且艷  
曩古青驄觀長吉丁丁偕坐春風一我著麻衣非比倫高軒何得親石室  
莎徑花煙香轉折柳堤葉燦路凸列話到希夷物我疏權拈熟芋為君決  
擊木魚鼓噫鶚他年紫染須淖約

### 春雪古詩

春雪如花春江映落梅帶影仙子淨江風陣舞柳稍斜半是藥王半是病  
雪花自飛江自映梅嶺仙子冰壺淨任運優遊展信風味卻目前成藥病

### 代作曾太守德政

冰影流光夾峰灼玉溪錦水相錯焯竹窗輝起使星懸四國熙熙歡鎖鑰  
我曹借庇匪多年朝野清評已話傳泮宮鵬宇增鸞集津梁客子倍驄鞭  
繇來父母勤務施彈鋏鳴兮窺土義函席曾荷二三呼願坐春風益豪肆

### 讀花神三妙記(樂府)

綠霜塗柳翠朱露染桃紅月娥素羽寒兔逼妒殺英才花雨中君不見玉簫羅漢撲彤墀白鳳香囊苦離離又不見徒死苾芻細腰舞挑目招心住江渚可憐如劍復如蛇螫我靈根戕我家只須惡慧勤三作不肖景雲長聯賦

### 題雷善女西化

碧虛彝漢煥湫盤運地文十二輪來摧萬象山含管璞樹含焄唯我人多傑不入鳴珂便丹穴或作無言或淑貞昂昂千里英氣烈氣烈從來變山靈金牛玉馬及祥麟浩浩楚江絳雲密鬱鬱湖洲朱草馨卓越竺天雷氏女八紘九地皆傳語

### 秋日田侍御見召賦得君馬黃辭之(古樂府)

君馬黃恒引駕假乘之難酬價秋日馳之苦路斜須惜當年產[穴/渥]窪況來抖擻不宜馳追風逐電何用之寧負竹樓神鳳操未許輕折楊柳枝

### 善哉行(樂府)

誰將天地號紅爐百昌因之以榮枯英豪東卻臭皮袋透得幾人是丈夫蚊蝮殼脫寒枝棄蜂蝶神化壤盆無明明雲路弗施為撲火吐絲何太愚楊雄投閣徒已矣介子焚身空悲耳不識西華老神仙天子呼之猶未起幸來早覺華胥夢始知妙湛緣影弄可憐采石投江魚可惜玉京傳白鳳舉眼比印籠冷煙那能得入桃源洞雖曰把酒且當歌怎奈人生能幾何王子七日查世路波斯兩次睹恒河碧眼黃頭原卓越余已追之可長活指上貽來四句真大都一字皆隱括徙倚山頭解虎錫熬煎爐內降龍鉢非為自私入雲深窮則獨善兼則達廣成曾示我無搖四體鬚髮任蕭條中含一物先天地年年不逐四時凋四時凋兮余不老箇裏蒲團秋月皎者回踏遍海潮音隱隱露出珊瑚寶

### 君子行(樂府)

荊南之水祖岷峨宛轉波揚壘疊多黃河之水白長天哮濤流水不勝玄從來枉直人間事過者為之口譏譏卜居楚子不須問碧虛湫盤獨是然瓠巴鼓瑟遊魚戲伯牙操琴仰馬視樵父不等爛柯回世態怎知雙眼淚

燭火不息訪鷓鴣日出而作意飄飄唐虞垂衣天下治偏使我心何怵怵  
方今太是氣淤塞較之雄伯尤污黷投醪江飲不再來分飯剖餐誰追復  
腐鼠癡鳶滿市場石沉槁立羞干祿豈如冒雨覓黃花豈如乘興看修竹  
黃花修竹固悠悠白牯鬣奴可解求了知擊角愈增醜罷讀離騷短髮遊  
潮吟島嶽三洲應澗影星河一月秋幾回白雲深處坐幾度百花叢裏過  
請循其本卻歸濛栩栩蝴蝶些兒箇羊裘莫說把絲綸采薇休道耽饑餓  
豪傑古今長夜中街頭布袋輕笑破

### 除夕贈得將進酒似田侍御(樂府)

去年除夕荊南謔今年除夕臨江樂雪花撲亂梅花飛清香點就壺中酪  
何須麴蘖煩儀狄竹葉寒光明的皜化母展動三陽開春風即送人日來  
閑中且聽八仙歌長安李白信奇哉

### 君馬黃(感賦)

陟岡之馬玄且黃白璧月題鸞鏘鏘介睨[翹-羽+喬]齧鞭策絕肝氣騰  
躍苦王良可憐北冀生馬多肆無天廄怎奈何鹽車有恨徒惆悵下乘液  
髮忍蹉跎我欲相忘索真馬皮毛外擢踏天下千里昂昂大塊中七聖還  
來參牧者

### 行路難

林之壑兮山之石手之策兮足之履戰兢一步一垂涎此去天臺還幾尺  
白雲雖近御風遲曳尾徒勞把釣癡只今固向煙塵裏豈將黃葉賺啼兒  
世道草萊秋禁度轉眼嘉平霜雪吐驅馳若未徹骨寒梅花孰肯枝頭露  
行路難行路難路難不作燕人慕

### 感賦

崑山之玉原無色幽谷之芝不漏香嗟哉世態鮮青眼觸目黃金未見光  
洛溟那識靈龍臥蒼梧誰知彩鳳藏呵呵雲徑歸來也門巷是兮人境狂

### 代作陳郡侯德政樂府辭(日重光行)

附耳珮玦何其象點染流蘇未作光民無舉目山無色到處鯨鯢波浪狂  
蒼蒼何幸憐孔邇重光重輪特地起蔥鬱文華絳帳開歌頌歡聲芾棠止  
三接三錫頻來頒爭守無妨遮閭里君不見蒞政唯需一杯水

吹萬禪師語錄卷之十二(終)

詞

感賦四首(金衣公子)

建極起龍光玉馬金牛色杳茫論三旌孰肯換屠羊聖功餘事藐姑秕糠  
洗耳溪頭水不嘗欲真鄉白茅特室膝造至人旁  
百辟鎮巍峨相成大盜守者多陳寶祠空對萍實果葵丘華胥踐土南柯  
蝸角錙譙恨怎麼快如何商山辟穀留侯豈礙我  
錦帳壁塗椒蠟火炎炎只自燒剝李核竟成一老饕食費萬錢易牙充調  
豎子膏肓誰為曉衡門好泌水洋洋不逐四時凋  
金石苦頭陀憎檻欣籠怎奈何脫塵囂須向塵囂過黃花翠竹蒼苔綠波  
任運優遊唱卷阿詢三摩松稍蟾影明月在銀河

初至忠南受侍御田公請(前調)

玉珞及金貂華胥中醉了英豪卻怎似雲外戲青霄得月忘標懶賦離騷  
策杖風塵樂飲瓢感君招喜隨赤壁帶衲與相交

布施(六波羅蜜 前調)

八識正幽幽風停海靜浪濤休通明殿孤光映十洲森羅萬象色影咸收  
檀度原非著相求欲到頭心珠燦爛逆水駕慈舟

持戒

河漢鎖空霄月落寒潭斗柄高往來的水面細風飄雪謝冰銷清流獨繞  
尸羅塵垢絕纖毫把斯標金章玉篆青華臺上遶

忍辱

斧劈太虛空螢燄難燒海映紅歌利王卻是古家風寸刀斷幻四相無蹤  
個裏知音大覺同臭皮籠煙波散盡霹靂滿天轟

精進



一步一蓮花門門古佛信無差琉璃地現出老袈裟法席冤家從茲脫灑  
太平誰道將軍大劫如沙不離一息超越過天涯

### 禪定

鐵脊古頭陀嚼碎寒空遍大羅玄元始化作須彌座雲舞風歌龍潛虎臥  
泥洹不假修持多任蹉跎玄黃消散光陰孰礙我

### 智慧

慧日獨高懸一寸靈心碧落天十法界到此絕塵煙事理同圓心法雙玄  
摩尼五色因緣現論當然朝朝行道夜夜抱佛眠

### 社中感懷(漁家做)

氣燄圭簪增人醜貂冠鳥幟徒驚吼那得許氏與巢叟繁柯朽偏向山林  
修九九 過眼浮雲莫可守煙霞隴斷焉知否何如淡月清風厚邀五柳  
同來石室賞玄酒

### 訪漁(前調)

聞說漁家煙水好朝霞點染江頭草下榻窗前日初小人跡杳竹葉敲風  
驚啼鳥 呼童縱步沙堤曉三三兩兩垂絲釣野[舟\*丁]順流波浪少  
機忘了一聲晚棹明月早

### 遊大隱巖(前調)

碧落峰頭來樹杪古榕石上春光曉大隱有巖莎徑小人不到特地蹣跚  
非悄悄 簡彼當年宋自皎何緣偕此稱八老于今一看英雄杏藤蘿繞  
煙風吹動沙堤草

### 嶺頭早坐(前調)

霧曉江潮疏影漏晴空碧落煙霞逗一坐嶺頭春風奏花草秀優遊蹤跡  
還依舊 白墮桐稍香粉厚點染松竹光華透山童野鳥環座右心無謬  
浮沉蕩漾誰相搆

### 行(四威儀 行香子)

散步優遊穿徑騎牛尋逝水魚戲莊周更奧窅處萬籟歌謳聽谷聲雅鳥  
聲趣竹聲幽

### 住

木石茅庵自在幽閑論羶逐與我無干朝參麋鹿暮侶猿猴但嚼黃精啗  
苦菜掬清瀾

### 坐

竹椅蒲團燕息幽然追二氣固入泥洹良久渾化無地無天到鴻濛內威  
音外太虛前

### 臥

石塌蘆編和衣共眠一鼾了無盡長天雙林樹下月朗星懸任泥牛吼木  
馬唱金虎言

### 春日遷巴臺即事二首(臨江仙)

野老山溪無所住依稀花影參差身如木葉御風時淡紅飄澗水淺綠動  
沙堤 古徑斜開雙柏翠清窗夜月相宜數聲鐘響傍三西一江煙霧曉  
滿坐至人師  
寂寂山中無箇事思量把釣磯頭漁歌夜火傍春流高臺明月照驚起睡  
魚遊 野寺竹園栖鳥噪何妨物我同儔忘機芳草自幽幽一聲清磬響  
花雨落林丘

### 似碧勤舊(千秋歲)

雲深碧塢瑞色芬芳布松影動溪煙度梵宮輝翡翠靈石光蟾素須此會  
白巖禪院知音處 憶昔金陵路風浪難回互誰與我相排措赤心齊得  
喪皓首同生故今避亂嚶嚶猶轉遷喬賦

### 壽雪照師(菊花新)

策杖挑眉經海島背負乾坤壺不老長空浪蕩好說甚南極光皎 蒼松  
翠柏誰可比一元燦燦無終始竊桃縱有幾難討圓陀光拄

勉友(點絳脣)

迢迢十萬水和山舉步難趨休覓傍蹊好問導人師 路近規中直切在  
東西莫遲遲絕慮忘機頃刻上天梯

楊柳枝

浩浩黃河曲水淫幾時清白雲杳杳路難尋何處行 諸人肯索驪龍珍  
易可澄莫把煙塵點素心自然臨

臨江仙

法法多門真可畏覺來心物俱非了然不過竅中推溫溫如胎鶴綿綿若  
息龜 有日雲開霄漢外天清月白光輝九載遨遊自此歸踏破乾坤後  
響曉一聲雷

天仙子

穆穆文王存敬止緝熙何嘗異禪軌大哉三聖教律儀無彼此同一體空  
空如也盡之矣 奈何人事多分濟不向生前粧箇死一旦無常萬事休  
提不起昧天理種子徒為暗魂爾

復汪文學(天仙子)

采石江頭魚侶了笙歌樓上鶴還島世路蜉蝣芳草萋塵囂繞知音少箇  
裏顛狂何處討 雲雁銜空窺天曉翼倦峰嵐旋樹早瞿塘學海識豪人  
珠玉飽金瑛皎須覓泥洹期不老

題輝侍者別號雲谷(武陵春)

飄然一片青山去月下影橫斜煙煙吐出紫流霞綠水夜籠紗 本自無  
心何所住碧落散天花鳥啼猿嘯野人家雲谷裏乘槎

渡江(上西樓)

寒山樹瘦松稀雪更飛但看嶺間樵子兩三依 輕舟上渡江渚興何違  
有日茅蘆清況是予歸

## 中秋月(浣溪沙)

皎月清燈鬥晚霞疏林雲外遠人家煎茗掬水待西斜 斗柄面南移不去蹉跎山色玉流沙瀛洲好趁棹仙槎

## 臘月無雪(望江南)

嘉平月非雪豈成詩灞橋背上徒空想少室腰間立不齊笑殺尋梅的紅爐煖瑞木花放遲著斃王恭無涉處烹茶陶穀匪相宜兩箇只踟躕

## 芥納軒夜坐長短句(二首)

這兩日有些兒冷氣柴也沒燒炭也不備獨坐寒窗是甚麼好意思不著便且著便捲簾起看梅花燦一枝枝上有寒雀相爭搶攘得落玉成片縱道甚麼西來意薩婆若也只是一時堪羨細論物我不到誰相賺垂簾依舊爐不煖

一竿一笠一簑衣急水浪頭把釣絲鉤下錦鱗容易得蘆花深處月明歸兩岸蘆花一葉舟涼風深夜月如鉤絲綸千尺慵拋放歸到家山即便休

歌

## 法界逍遙歌

法界茫茫洪水赤四大能裝青雀舶予師獨來主柁根隨流倒駕如飛鳥設使飄入老斲魔銅鼎鐵汁盡消磨蓮花灑露成阿耨吒舌聞香唱摩訶設使飄入羅刹國黑煙毒氣輝寶色白毫輪轉滯魄甦箇箇眉間皆自得設使飄入飛走行菊羽金毛隊隊黃一撲便出三跳網數聲啼醒涅槃鄉設使飄入阿修羅嗔恚隨我念安那吸盡海濤霞滿地森森豎起珊瑚柯設使人蜾蟲裏如幻幢旛處處起寶華座上隱身光柏子庭前甘露水設使飄入碧雲層吉祥宮殿恰相應不離菩提揚九會天人化作世間燈設使飄入四諦中跛鰲盲龜悉庇幪七生淘成七覺分十使換作十圓通設使飄入十二緣踢醒頭陀寂滅禪觀察幻為他受用入俗回真耀大千設使飄入薩埵林斂盡法門百箇心一障二愚及生相鬱鬱黃花一樹金設使飄入毘盧頂刹塵香海歸予艇窮源是佛雅成空達本還真容自肯成空自肯卻如何妙性從來是甚麼落花啼鳥任君瞞白雪陽春在我歌有時掉轉混沌來法界猶如酪一杯君不見信手和杯吞入腹百億須彌光熒熒

## 衣珠歌

摩尼珠人不識價直何止千萬億赤水知巧枉徒勞原來卻在衣中拾罔象曾入崑崙裏空王殿裏方如此金光閃灼幾千般火龍騰飛數萬里周朝湧出釋迦文掌上天王五色紛不自腥臊鱗甲女還由西域古皇君驚子三請不肯說曼殊一照鷲雲旌誰知一顆夜明珠莊嚴七佛共殷勤展轉貽來號釋迦第一迦葉視為花輕笑曾把須彌破透出孤明散月華集成西天二十八摘蘆東土闡牛車惠能三擊傳消息百丈一扭痛莫測三拳一掌不清寧直至吾師安社稷汶水夜光寒兔舞火山燒燦赤雞吐北面朝陽問我師一點紅爐徹今古了達唯有者些兒提起神妙無窮數不離見聞與覺知認著依然還是瞽不離行住及坐臥認著依前還是過抖擻十八絕纖毫白雪陽春齊唱和鐵牛鼻孔解撩天恰然透出天地先真原是妄妄本空塵塵剝剝體皆同本來無正亦無邪圓陀陀底照恆沙者裏非生亦非佛大地塵囂隨電拂唯心淨土匪東西隨流無住物我齊止非止兮觀非觀珊瑚林裏精光燄森羅萬象鏡中花菩提涅槃心裏寓兩手撥開對治門一腳踏翻生死岸臭皮袋裏忽喇喇輾出一輪光燦爛破衲單瓢染頭陀和光混俗隱波羅但把明珠懷裏弄太平豈唱凱鏡歌

## 了道歌

吾年已半百大道何所得鐵釘[車\*度]轆鑽每日當麻麥坐禪禪非坐說法法非說寂寂心無善蕩蕩心無惡眼見長河水自性八功德耳聽林禽聲真如談妙法鼻嗅芝蘭香定慧焚檀屑舌嘗苦淡味醞醞灌心脈身觸冷暖相現出黃金色意緣生滅法毘盧華藏廓可笑觸途人欣厭強分別味卻如來藏認著一點血復有人法空縱教染淨絕萎花不雨寶只能遊大熟何如融萬象鏡鏡光交徹一月映千江千江一月攝喚我作牛馬釋迦與彌勒蛇蝎豹狼虎琵琶鏡瓶鉢貪嗔癡慢疑十方淨土國滄海變桑田自在非生滅山河及大地一滴閒唾沫何須歷劫修不用剎那潔晝夜十二時時傳傳妙訣行住及坐臥威儀真消息大日毘盧尊在人頂上歇不肯自摩挲笑倒者黃葉

## 源流唱和歌(囑蔚西堂)

老瞿曇第七仙山河大地非人間指上青蓮傳薪火飲光笑破黑漫漫黑漫漫人不識剎竿倒卻慶喜立商那和修自空來全體已是金剛骨奪得祖印度鞠多身性十七相唱足相唱足更有人出家非為身與心無我我所真面目提多迦者一番靈後往中印訪僧伽記遇六劫彌遮迦彌遮迦婆須密又是劫前承願力復得難提來論義義即不論真端的伏馱密多

年五十口未曾言足未出一得難提傳法親傳度脅尊為祖十富那夜奢  
合掌前非往非住亦往然竟得馬鳴來迎禮鋸義木義兩成團師資既已  
相授受魔變女子來法門復變小蟲若蟪蛄性海無邊難泊湊直禮馬鳴  
號迦毘訪得龍樹為渠師座上現身滿月輪迦那提婆怡相應以鉢置水  
求嗣法羅喉羅多投以針金義井義論出入僧伽難提以悅服持鏡童子  
一日機已能志齊百歲足繼法名為伽耶舍答無者誰尋真窟無在舍中  
是真人鳩摩羅多十九尊善惡之報未能決闍夜多子乞其因釋疑即作  
大沙門能度盤頭謝苦辛那提國王第二子摩那那尊又接矣信香既透  
鶴勒那二十三祖相承啟有用非功無作真佛事從來恁麼行師子比丘  
襲是法被難罽賓了宿因幸有法子婆舍斯開拳還珠已先知接得王子  
不如密瓔珞童子又成褫般若多羅為甚名先劫兩曾演是經今為二十  
七祖也菩提達磨乃傳心傳心東土復安心慧可懺罪一其門宜名僧璨  
為三祖誰縛誰脫振法音道信得此逢小兒骨相神奇天人師問渠何姓  
曰佛性賜名弘忍接曹溪三擊已露三更事衣鉢懸線望南去喚作一物  
即不中此是懷讓投機處南嶽打牛並打車道一由此獲神駒踏殺天下  
符西識八十三員百丈奇一喝傳來聾三日見過於師黃檗襲一掌不讓  
赤鬚鬚大雄山下明歷歷臨濟老人三頓棒三拳何曾有兩樣付與興化  
謾思惟一炷真香拈爐上南院慧顛亦何苦法印無鄰真痛楚喜得風穴  
沼子來棒下無師堪繼祖室中無人淚下泣法華念念何曾息放下堂前  
拂袖行紹得濟宗真端的象王動步絕狐蹤汾陽聆得身命空幸得同參  
逼發起西河師子吼如風石霜楚圓六士一不畏地寒勤朝夕惡語俗言  
罵二年解道臨濟常情出楊岐方會監院職身心不閒常請益狹路相逢  
事如何祗者般事便委悉輸毆讎者白雲端一笑由來已解傳問取摩尼  
還一叱法演呈偈非等閒提刑會得小艷詩只要檀郎認得聲出門見雞  
欄上舞克勤從此識佳音便爾諸方號巴子大慧曾得湛堂舉相隨來也  
漆桶穿八地丈開方爾爾懶公挂冠入西禪竹篋三下得真傳不問有言  
不問無一喝灼然契木庵淨慈悟明得法令便修聯燈輝祖印直下一流  
七八傳時異世變各安靜或入山林或市廛韜光隱跡道昭然苦口筏渡  
一言顯小庵二仰及無念荆山幸自入西秦鐵牛陝府續慧命得遇朝陽  
視作軍一箭當陽血漓淋可是秦時[車\*度]轆鑽古戎南邁又傳心真  
空二字作釣竿打亂諸方五味禪吹萬野人忍不過奪來嚼碎又成團直  
者四句非四句丫 叉路上隨人去當遇慧祖忌日時爐前可作供養具

## 末法時歌

纔夢白疊分又道黃金折擊碎琉璃星萬點五百甲子向誰說黑氣毒殺  
花雨亂騶馬珊瑚驚款段這回筍斷舌根頭一曲漁歌月霄漢

## 送別東旭禪人

拾得攜手去街頭山子稀疇解敲風月能調馬不飛我寄巴江岸青黃草木曾幾看討箇顛酒踏歌人誰是妓院風流漢到來沮漳一線猊清騷慣弄竹枝詞匪繼岷峨宗這裏曲盡梧桐孰知已剛纔交臂杜宇啼莫道羅衫溼如泚

## 秋日採茶歌

金芽人說穀雨前我入林園已秋煙縱貽瓦鉢百片真煎來到底不如新自古玉碎鳳凰叫兼聞鳶飛老虎嘯相煦相感亦有時津劍豈蔽張華耀莫把清茗空裁賦設使葉蒼如嫩作一葉去半可為常雀舌謂離非故樹且將小石品字安何用高鑪三腳具天花一滾滿煙霞日輝並照映朱砂唐盧仝宋東坡十碗齊斟奈我何

## 破執歌

無端捏怪碧眼鬚直指安心一也無為甚楞伽四卷經親傳印證佛語心後代不用元字腳是佛一空休犯著知他出入幾多般大都應病而施藥老僧親得那伽印毘盧頂上雄八陣休生傷杜景驚開出沒卷舒誰排擯有時相希聲吹曉蜃樓亮有時性剎塵香海針鋒定有時說林禽瀑布相交作有時宗佛殿魔宮到處通不是老僧愛兒戲花鳥木人匪相視提起依然沒些些味卻狂頭徒自蔽

## 明月歌

素影流霜窗外開清光疑是廣寒來年來老大無詩思慢卻嬋娟笑短才君不見王老師拂袖行誰向明中仔細分又不見開口問隨口諾一吞一吐七八箇于今不是不風流心如銀海意如舟白鷺堤邊花柳茂碧波汀上玉金浮此時此際君何在空說蟾宮十二樓

## 中秋無月歌

問月何如直問心賞心還是玩月人果然月在青天上演若迷頭枉自嗔是故吾儕中秋月亂雲飛雨難掩著有時閃灼寶華臺有時玩弄支那國六處樓頭徹冷光明射透閣黎腳腳頭舉措事如何今夕三門為甚麼但把明月懷裏現輪輪何止耀千波

## 啟居社友歌

杜甫無詩不說話李白無酒不肯詩聯珠頌古非關事公暇何妨步退之  
小機天花不肯落大智納嬪歌舞作梅花已燦雪花飛莫執心空及第歸

## 高尚歌

稚時未果三年學已聞顏風及憲風決志超然山水去那鄙破帽在遼東  
玉爐金鼎曾作笑騮馬珊鞭誰肯蹈于今天外出頭來華亭小艇聲還浩  
雖曰大隱不須山狼火驚煙何處閒君不見亮座主裴晉公翠微深影綠  
蕩漾遠流紅滄溟震吼蛟龍穴鬣鬣飛揚花雨峰

## 山行歌

悔恨當年不快遊勝水名山未全收纔動踏著須彌頂始知一芥卻風流  
古道車馬紅塵處觸蠻國中恁麼去善財一步杳恒沙普賢剎孔無細路  
看來通身是山水遊人晝夜何曾已但使天門開合時路盡切莫從頭起

## 春雪歌

碧漢銀沙舞寒風溶溶雲霽雪水紅君不見舊城東煙霞中一山花木醉  
穹窿

## 補益歌

眼及身意六門頭回風混合一機抽灰心槁形方一頓匝地紅輪金火流  
君不見徹骨一番寒冽冽梅花香滿枝頭雪

## 行樂歌

野僧慣遊山與水癡人不識言奇傀薄暮松亭春復秋軟波蘆葉終還始  
清夜一聲喚子規幾處落花飛不起君不見鷺嶺廊空紫氣霞熊山雪積  
白光華那看若箇攢眉客不將五斗折腰斜

## 功名富貴(逸歌四首)

嗟敵國之謀臣兮狡兔死而狗亡歎甘泉之吐鳳兮投其閣而可傷惜椒  
房之錦帳兮空落王倫之手悲臭名之桓溫兮膏火燒而自忙



## 酒色財氣

縱牛飲之三千兮南巢放而不回戲諸侯之不顧兮犬戎一鼓而擒哉煮  
珠玉之湯羹兮終付一杯之黃土嘗懸膽而臥薪兮唯有鷓鴣之去來

## 行住坐臥

導千家之一鉢兮指白雲路而相和住綠蘿之巖畔兮採芹煨芋以蹉跎  
上胡床而高眼兮天下之舌頭坐斷衣不脫而拳枕兮乘風入性海之波

## 風花雪月

用南泉之一吹兮折倒門前之寒松賞靈雲之桃花兮纔日擊而真機自  
逢踏碎玄沙之獅子兮色界之天人立弄藏海之明月兮任其說法而  
談宗

## 巴江曲

江霜巴浪碧堤寒楓葉紅雀艇牙檣輝晚日錦帆皮鼓震巖風舟人干櫓  
急唱催挽溯流霞鬥月回波底蛟龍光不昧玉甲金鱗吞慷慨引引輕絲  
上天池九萬無勞雄脩態

## 平都問仙歌

藐姑神人若冰雪兀兀騰騰資歡謔到來是處春色新豈越摩他與予別  
不識方平和長生火正飛流水正盈玉鼎九還赤鳥墜金爐七返白鍊輕  
從來慵詭多好事仙翁將無借此成君不見唐呂岳梧桐撼碎囊棄卻踏  
倒彌盧壯大凡又不見光昧老六十甲子曾吐盡寶華臺上月輪好月輪  
冶出老宿機殊沙洒落地上飛區區險岸長歌舞莫怪鶻聲血如雨

賦

風聲賦

恣夏之月余以抖擻行腳自忠南來乃受請于祇園主人焉策履三日陟若山之巔巍處是舊遊矚瑞處也梵宮如故鈴韻依然松條增翠石榻塗錢且問驅烏沙彌曰某卓錫于何地還如曩昔面薩埵耶于是鐵脊胡床斂日希夷若恍若惚如醉如癡俄爾朱明之隅濤音汐音激音潑音欵欵然號號然浮空而來是張騫是宗慤彼且無載葉之水孰為泛槎彼且無繫纜之檣孰為破浪隔垣聞聲莫知其形一人之聽潔人之心隨展其扉爰揭其襟嘻噫哉風也遂覲面當之而歌曰虎未嘯兮道章何自而御御兮揮未走兮舜若奚從而蓬蓬兮果玄德之薰溫兮解慍可常抑禦寇之騎馭兮旬五其方吁嗟大塊之噫氣也塵埃先動飛鳶其喧金翅乃舉羊角其搏卉為竊馥樹為徹顛唯蹈唯指莫可迴旋觀彼綦遊之辨謫謫其吟調調其情蛟蛇之問大用其精南北其神今余之詢若咸怒之者其誰之生若肯醉寂寥于天一暫捲長舌于冥冥風伯聞之眾竅禁止更轉他山而巨發。

破雲賦

春窗樹影緣岸煙籠余偕二三子于小蓬萊野砌之下商子出春游賦輝子論之余曰苾芻清也奚用春遊為試觀春山之氣也彩以浮雲白以浮練青以浮嵐光以浮燄燄為之水渴鹿奔兮嵐為之霞孤鷺栖兮練為之鋪虹蜺附兮惟彩為雲富與貴兮子胡不倣蔬水之翁以破其蘊得不為樂中之士耶商子曰先生其來也雲破久矣請先生唱之續貂是從予遂莞爾而歌之曰瞻彼八紘之天仗兮吾見其野馬而煌煌方且陟陸而之九重之霄兮霾零蒼蒼復鬢鬚而之翠微之巔兮又見其漏影而煦芳更委蛇穿硤而飄飄飄飄兮鬱鬱其暘此特無心出岫之雲也則不用破矣若夫醉楚襄于十二巫峰兮非宋玉之輕才現東方于粵地之慶兮實韓愈之幸哉入棘圍而與之敞晴兮文斯幽乖降帝席而映飛龍之瑞兮隨樂隨哀之數雲者朝如功德暮如黑暗轉欣而轉戚也予又觀之香海之上排萬陣而謳歌靈鷲之陰灑膏油而澤荷函谷之關駕白畚而蹉跎茅廬之墟一栖遲而為窩予但欲破莫可誰何所可破者蓋有覆之迷蒙貫燈影之圓重遮蟾兔之深厚罩十地之紗籠予只以長沙之進步兮朗州澧州南泉之異類兮把針埋頭便可剪片段而補衲亦可潛神龍于邃幽並夫象帝之先者駛四時而優遊。

## 秋梧賦

毛毯之喉居諸流火予泛舴艋出庵羅園涉秋水于浯江望南濱而之菊隱之峰月挂蘭漿風隨巴字非若山陰之半興華亭之空載也既將泊艇捨沙岸而緣竹冲之溪用達其所蒼綠錯雜紅紫參差是昕曦之朝霞也于是置降龍卓解虎與之躊躇與之四顧瞻彼梧桐而羨之曰淑氣光華質若眾人之蓄凄風憔悴才同國士之憂吞三庚而掩伏落一葉以明秋忘鴈鷺之昔署渾絃莞之將儔堯夫之皓月恒抱惠子之堅石竟休孰視上林困欵乃尤彼何所因而知其然也當舉趾孳尾之際林木繁蔭花卉芬榮受欽錫之三接樂經首之九成鳥嚶嚶而適友風颯颯而盪情將謂久處于春臺更不旋踵于希聲孰肯滿而知盈寵而知驚安知有傷心易柳之號輕薄諱桃之名予又因是以喻諸偽也遺真逐賈徒闡蚋睫唐聞認影迷頭竟作豨蹄殷厚睹異人而就附見奇貨以爭居海氣湧蜃樓登臨曼衍蚍蜉客鵝籠吐華屋出入歡遊蕉鹿夫罄費千金于支離靡歸四子于汾水藐姑恒在淖約何存值爾高秋淡我黃塵乃揚乃抑愈舉愈新復揭其辭而歌曰秋風兮蜀梧既凋葉落兮細雨維飄斗浸銀河兮玉樹痕消月映巉巖兮金枝影搖壯枯樹兮肌瘦寫筌篴兮格標胡不潛伏于坤震之陽躡天根而亦孔之昭。

## 阿堵賦

笑李核之空出兮並胡椒以何芳歎錦帳之由句兮紫絲同而有傷變駱駝而啟白兮宜見火枷以悽愴何如叱飛錢而自返兮披裘可與齊揚直揮鋤而不顧兮溝壑以之相當寧分法苑以供桑門兮豈不煒煒而煌煌吁嗟此物兮可關彼我之行藏。

## 記

### 山谷亭記

瓊華仙者自敘為國初進士張伯雍也官居鼇禁玉堂中值燕王恃道衍和尚之靈南面帝業雍遂舉家離散矣後三年迺遷姑蘇見母為苾芻尼爾乃剃除近事自修長生法忠孝聞天沒後神為受鍊氏號曰瓊華老仙也余里陳子青衿在泮雅好紫姑箕筆虔禱數年感是仙遊戲于篆籀之圖然欽愛奚獨蠶叢地即三吳楚越之王侯士夫莫不與與依依焉天啟四年陳子歸蜀以生父乃古戎樊氏之族即中憲吏部一家也與忠南田侍御先生有年譜之愛留邀蘇莊而迺厥仙仙降則品題如瀉侍御先生長公田明經與余三人恒三和之華仙評詩時每帶山谷集中語以似余眾莫之測次日長至見訪遺筆卷首則曰山谷前身詢其意謂余前身乃黃山谷也復以吹苑

號之謂取山谷悟道于木稚花之義贈其三絕大露山野之醜矣坐中有歎其異者余曰非也若獨不見夫天臺之二子乎明州之布袋乎唐之風穴宋之東坡乎天臺即文殊普賢也明州即彌勒慈氏也風穴即仰山東坡即戒師也出有入無應來化去莫不以這箇東西為藥為病即縛即脫總教堪忍中族姓子識得煩惱性中有無邊華藏世界也一山谷居士于我何輕重哉第又不容不說焉何耶山谷得法于黃龍南之後晦堂心禪師也濟上之宗時亦盛之至于我朝續如懸線且徑山慧祖則無大顯之裔矣山野幸接慧祖未斬之脈實欲鼎沸濟宗也又安知山谷之願不如仰山之願乎宋則山谷隱矣明則吹萬顯矣厥隱厥顯何通何塞厥俗厥真何增何減余但願濟宗之長謂我為山谷可謂我為吹萬亦可故山谷蘭若不可不刱而吹萬亦不可不居夫何以異為。

### 治平寺佛燈常住記

荷衣松食樹草然臂此顧挺特之標題終非平常之遺範是必鷲嶺有廊光像有燈僧伽耶有食則招提自獲壯麗矣所以。

高皇帝驅逐定鼎之後首刱靈谷寺繼而諸事具備製云始足朕心亦此之謂也治平古剎廊廡雖完殿燈香積二種粢盛猶成缺典既得檀信捐而倡義之住持勤而相續之庶幾有其體耳于時見而成功者廣文丘公暨令尹公賢橋梓橋梓常為本剎金湯緇眾多賴並記之為後職事者鑑便乃知其初刱之難也田畝數目價值記次于左。

### 乎都山燈田記

無厭足王于佛華世界現獄訟執政相只令善財童子得無礙解脫門稱大善知識即此難勝地菩薩以無畏力轉大法輪于波吒無間中攝諸有情總教人體會三天使法急早回頭轉腦致爾諸方士庶不待捨生而快然歸禮于當下是何異佛華五十三員哉乃茲供金粟者南濱皈依之族姓子也各揣其謁觀匪常孰若以恒心存之又揆其存心恐欠孰若以燈明寄之然雖寄之以物實則根于心也捐有分金若干兩充其粢盛續其明月無乃願借斯光以證夫解脫者也勒石為志以會諸同類。

### 牛首山雲巖寺燈田記

山有崇有伏有列有兼若有崇而無伏是有主而無弼也若有列而無兼是有民而無物也閱斯牛首山面岡則崇而窩則伏巒則列而岫則兼其主弼民物無不備矣成化間有牧子亡牛來人林藪望大樹下薪煙熠熠跡而探之則見老僧如法常老子狀青篛綠簔乃以草木一易為歲時者牧子還而

告諸家人家人會諸陵翁里友同登斯山各願為布金主遂勑結其梵刹焉蓋雲巖招提自茲始也而開山者即樹下老僧也老僧諱明喜號松山而衣鉢貽今九代矣崇禎二年有衲子金先乃明喜第五世孫也自驅烏沙彌時晉具尸羅戒德鄉思七處有徵而妙覺悉融于大頂八還有見而圓通更發乎知根諸維摩王捐其所資共作二諦之緣起振鐸山鄰中淨信長者各法無起施美厥寶蓮華王座主座者大休師也當其時曇花復拈于指上滿林秋月齊輝嚴路重闢于言中遍地香風並響為善男為善女莫不典解珞燃臂之想故監寺有會後所餘之朱提也副寺有會後所餘之白粲也此亦衲子之至誠而必動云爾有智者曰檀信之脂膏法門錢糧是已既不足則取諸四方有餘則置諸常住且相好若是其古也宜以閻浮檀箔之焉夜光若是其欠也宜倣棗盛田賦之焉于是鳩諸善士再捐以金其功則三十二相重新夜光之燄無盡矣袁司馬曰人傑還能使地靈其明喜金先之謂乎喜則開斯山也先則續斯燈也然則山有崇伏峙有列兼正與人而合諸也當勒其石以記後來作記者先之參學師也即聚雲吹萬子也。

### 治平寺燈田記

或曰記者紀其事也既紀其事則諱其心而飾其辭孰若以心記心即心記事曷不亦大揚榘乎昔宋太保樂全張公知滁州時至僧舍而見其楞嚴經四卷如獲舊物筆畫宛然知是先世所書此見真諦之學有妙矣亦惡用記哉余曰不然是說但可與葵花向日者道若遇柳絮隨風者來殆將面牆而映舌矣不見周武王啟師尚父而發丹書于是堂奧楹棟劍杖几屏無不銘其句而刻其語使處處驚心在在擊目豈徒設為耶夫所謂記云者挈往事以招來也旌其善以勸不善也又惡知千古之下不有旦暮之遇哉故治平棗盛之燈繇是而興也伊蒲之助繇是而舉也勒石之記繇是而作也始勑義者舊知郡事烏撒司馬公也補其義者仙陟郡侯李公也振鐸者正一僧也并記之為常寂光之會。

### 重修飛虹橋記

持地薩埵以自力平其窪突夷其艱險厥濟並於乘服後得毘舍老子記入寶華王座是亦圓通之聖人也其功德豈可思議哉茲者善男子等睹斯橋之艱險又不翅窪突矣揣自力之衰微又不若薩埵矣乃乞先郡侯馬公緣其引遍募縉紳士庶長者居士各捐化蝶飛蚪物聚砌成梁廓而坦之鳩柱為限堅而永之雖未敢縱繼持地之功能然則平心受記當自有日矣福德詎無所歸耶是為記。

### 引

## 誦藥師經引

藥師經卷誠救世良方即飲上池見革囊中物者來亦莫如是效何以故彼能治四蛇而不能銷雙鼠彼能理三焦而不能絕二豎若我瞿曇老子為大醫王能令有情輩可中別有清涼箇裏更無熱惱其銷雙鼠絕二豎運諸掌也故斯經一出在善信男女不可不敬禮而亦不可不諷誦也他日鼓缶而歌何嗟之有哉所以禪人某乞引以是勸。

## 朝峨眉引

經云飯百千三世諸佛不如飯一無心道人蓋人至無心則道場現座可以豎草作金身達床翻寶藏矣然則峨眉古岫不以蘭若支提為奇絕而以芒鞋為俊傑者抑亦聖其無心也耶今有僧某欲禮斯山而接諸道人之足第過門問訊艱其頸下瓔珞敢乞諸檀越給以些須共成六味之獻庶幾法華三聖一一可得而見矣瑤臺幔閣福德何足以盡諸。

## 培修石龍寺引

莊嚴佛土一法但闡老子有云即非莊嚴是名莊嚴若然者則族姓輩詎能捨標指而得真月者耶詎能越蘭若而識豎草者耶第三月聚糧之程非果腹遊莽蒼者能趣之必不違腳跟下一步方千里亦如是也今之石龍禪刹大範雖成而完備尚缺欲培建一樓以壯偉觀似不可不振鐸于舍衛諸長者想檀波羅蜜要以莊嚴為莊嚴弗肯捨標指而越蘭若亦弗肯泯聚糧而蹈千里者也倘斯方之善士概作無相之施則此一樓閣復現為慈氏樓閣于茅棘坑坎又何外乎佛土也余敢以是勸。

## 盂蘭會引

余自逃禪後翻諸貝葉見有盂蘭盆經者釋曰倒懸乃羅漢大目犍連之母以七遮罪而入那落無間中其倒懸之苦亦極矣及白黃面老子則以七月佛喜日饌營百味之盆延集三衣之眾演伽陀而饒益焉嗚呼彼土古老宿身侍猊臺而心澄無漏蓋亦四聖中流矣且彼超越親恩尚亦營盆而飯眾豈今之善男子者不思長慶之舉以代刺目刳身哉故斯會之所作深有報于本也倘諸檀越視忠城為王舍觀圓頂為寶頭共結虔心以建斯會想但闡阿竭概自現夫堪忍而垂手若犍連白也然非芻狗有已未之陳論。

## 帝君寶座引

菩薩之易文星而扶持世教者特住意石渠來也況復闍黎尚掬水拈花以侍座而紫垣隋隋者獨不返菩薩住意耶幸茲漠田外有斯菩薩只貌臺華蓋若頽冠焉惟諸振羽修鱗之士相與培補觀瞻便得依依可也。

### 景德寺燈田引

景德乃忠城古刹其來建有代矣前後多頽圯而院內釋子募補修焉第殿下明燈豈以雲門一轉語喻得過耶是則導諸檀越其成瓔珞之獻歡悟之舉也可如論厥永必若案盛之田為最義。

### 重修茶庵引

昔人設漿而感雙壁坑錢況復散不平清風生者是又出設漿竿頭矣樂善鄉道傍茶庵晝則為趙州關暮則為止旅亭真俗兩諦往往大有厥益焉先是華宇善長勗就今則年久圯損且布金既鮮七家非共舉之儔捨宅還興四眾得同緣之化惟諸檀越法無相施胥成厥美庶支提重新茗煙鼎沸其功德不啻雙壁坑錢矣請以三空為望。

### 補修巴臺前殿引

郡外有巴臺寺寒兔臨之古號為巴臺夜月蓋忠南八景此其一也舊有住持行者募勸蘭若一楹于江面內列胡床于左右便往來衲子挂錫焉但初築時乃依巉峙之額而殿址若磴磴然恐年來歲久不無頽圯之患茲欲培其實以補其虛不然則他日有九仞一簣之歎也所以行者之徒追昔建之始謀運斤效于輪子計遠成之古跡持刃代于庖丁惟冀檀越長者概捐朱提白粲共為無住相之施以壯勝境其功德何啻一笠七文也是募。

### 箔閣羅金像引

難勝地菩薩應森羅王位常以三天使諭人此乞兒頑夫亦知悚然敬畏也若夫自性難勝自性森羅是又不可同日而語矣平都舊有殿而鼎新者儼若象魏阿闍之嚴舊有像而更造者欲效玉霄彌羅之座所以行人斯舉乃齊百善為閣浮檀之箔以步金色頭陀于當世也若然者則菩薩在斯森羅在斯豈彼檀波羅抗焉而不歸乎自性之登哉難勝爭以是為勸。

### 修觀音閣引

昔人樹社以枌榆培里以桑梓無乃為續世雲仍輩得以追夫恩澤而孝義垂錦于社里中也故今之井牧間多建堂榭于村陵之境似亦稍稍尚古矣一日會湯氏居士過聚雲手持楮冊謂余曰漢田郭外家族之巷里也先世祖初勸觀音大上閣于水口以歇土龍勢逮乎歲久頽夷而莫修缺洩于斯矣茲欲鳩眾族縱繼先人之志願丐一言為我引余曰精衛苦而海不填者細不能大也使義門協舉什伯之器以灌一孟良亦易矣第無論嗣業之丁出閨之子各捐阿堵物以助厥美庶幾枌榆桑梓復重光于大士之閣而孝義豈淺淺哉即以是為勸。

### 修庵引

孰謂抖擻者以祇林為纏繳之法也與哉又孰謂禪那者以緣起為柴柵之道也與哉蓋悉檀有內施外施之門故薩埵有自利利他之楷無論聚沙豎草低頭捧足皆是最上發機況復開建精藍從心毘紐不為智用德性耶第以無住心為心則與者受者歸乎三輪之空矣般若當以是勸諸。

### 請藏經引

如來經藏計六千七百二十四卷真苦海舳爐德林獅乳乃爾法界安磐眾生擊壤皆賴斯三寶威神之力況復摟出衣下明珠打破鏡中狂象直令緇素兩諦徬徨乎菩提之樹逍遙乎涅槃之鄉耶故我輩願諸檀越量力致誠顯請庶不負黃面瞿曇一片慈悲心也哉。

### 晏公祠燈田引

夫割土分茅春禱秋嘗蓋為善建善抱者設然則助于世而潤于民獨不禱而嘗之乎稽古晏公平浪候兼任河伯之職調六氣以時行帷幄江公之權澤四面而無盡雖祠之郭外庭燎不每獻蘇燈不常舉乃無繁盛之賦故也矧是境有東嶽協天七聖等諸廟業既雄象魏而麗路寢矣豐簠簋而殷香積矣詎斯晏公維化以均維治以一諸檀越肯以鶴覺臧穀為諭耶惟冀長者居士勿惑缶鐘之惑概施無相之施庶幾庭有燎而廟有燈抑亦禱嘗之不乏也餘慶奚足以報諸。

### 修觀音閣引

蘇長公撰大悲閣記不知大悲之撰長公乎長公之撰大悲乎一句一字皆見八萬四千首臂寶目何多而不煩簡而不略也今某禪人欲勸斯閣于寶聖剎掖余願諸檀越長者法大菩薩施各捨一臂一目共成大悲之全身庶



幾尚東坡居士之萬一乎不然則擲孔方朱提以代之其功德又不減一笠七文矣敢以是為勸。

### 福慧庵燈田引

山野在聚雲方丈每俟坐參後迤邐嶺頭松下半響始歸一日偶赤首僧瞻禮于石榻邊詢之傍人皆曰此僧乃蘇子瞻之異人也鄉老皆信慕善行振鐸之功語未絕彼果啟山野為引福慧庵續燈之案盛矣因思吾宗有無手人行拳無舌人解語彼雖耳根無用或者必有用者也諸檀越以無住相施之福德自有所證。

### 七支庵引

明施論以力修之僧為受施者第恐千里馬常有伯樂不常有也不然但以三衣有儀彷彿高上之客七支無缺依稀行履之真若曰布之種之亦不荒唐矣斯庵之舉在諸檀越自取焉余有偈曰八萬四千隨形好不離八萬四千塵門門覲面無遮障此是金剛無住心。

### 聚峰庵引

九仞不湧泉一簣可完岫此世諦法也古人猶歎之況復寶筏慈航涉人天而達岸者詎肯因循自輟哉聚峰庵有佛像能事佛像者有毘尼僧第鳥影弱溟可羨無靈之畫蟾輝細柳不遑黑月之天倘非玉蟲金粟惡能續慧燄于庭燎耶前此檀越已具案盛之值矣但工荒簣仞恐功德為之虧棄敢募成就庶幾轉歎為贊而福遠慶餘爾諸檀越宜敏以事然。

### 接引殿引

布施到彼岸此固釋氏語若曰務施而不腐餘財者聖人也此又是仲尼氏之語也第渴鹿陽燄操猿飛蠅四者如紅爐何物不在裏許銷鑠就其間穎脫卓越出頭外望者有幾人哉所以第一波羅蜜上古聖人不可不設而又不得不設也否則面牆而立七文生象魏一飯誕瑤池又成虛語矣故我。太祖高皇帝有明施論之說南濱之佛刹曰華嚴庵雲峰大德居焉虧一簣而未成掘九仞而不得者接引殿也山野過之丐一言以告諸檀越倘概為福德中人當以無住相之物體無住相之施如影隨形善慶自有所歸。

### 接引佛像引

佛身充滿于法界普現一切群生前相亦得非相亦得隨緣赴感靡不周而恒處此菩提座信亦如非信亦如第今之巴臺接引功德必須立信立相又不可恁麼去也山野有一偈子執心是佛執心淪妙相還從心上尋會得相時都是性拾金原是窖金人請以是為檀度。

### 頌傳燈居士因緣引

昔毘紐氏未駕日輪時早有箇匆匆圖圖的東西大面看不見小而無邊際忽喇的一聲自那沒來由處輾將下來眇則有三稜掇則無摸索少焉晦昧氏出合湛氏出互為變弄而後有裸蟲毛蟲羽蟲甲蟲而後有成性之斧攻心之鼓燠喉之煙召蹶之機如幻化神咒機發像起千醜百怪無不播種于其間幸毘盧頂[寧\*頁]上有一老古錐湧現千丈堅溼煖動相而諸蟲竟莫能睹次復逢賤即賤現作甘蔗種子混入裸蟲中造一座七寶翠堵波豎一莖烏曇鉢羅華快教大家來鑽不覺招引些龍虎風雲會上的醒匠拋卻了許多尖頂老蒼頭會稽楮先生即墨侯黑松使者扯碎白帽大王封皮不戴玄端不履赤舄齊入毘耶城方丈裏一場打鬪冤遭三五十沒巴鼻的光邈邈造業無端平地起土堆罵的罵打的打拽的拽推的推扭落雙垂瓜捏斷初偃月墮失新卷葉挑破葡萄朵一箇箇使得粧風賣顛驀入光明藏忍氣吞聲去也良久又被那許人是非的忌人長短的哄上五燈圖前猜拳打馬呼盧喚白豈料囊家錢鈔落在吹萬野人手中好與一棒打殺扛在無陰陽地上一齊埋卻姑念眼內有睛皮下有血不免取箇和同鬥些閒花野草留與末後貪愛死貓兒頭的粲然一笑咦。

吹萬禪師語錄卷之十四終

序

楞巖夢釋序

竊聞三界蘧廬一生旦宅牽纏繳于古槐之穴逐幻遺真豎柴柵于華胥之塗將清換濁豈謂迷其珠而非醉烏知魅其首而自狂觀夫脫粘之猿則勞息之絆盡矣旋及奔燄之鹿何貪妄之燥如之故我薄伽之寶筏欣開易攪溟而變酪乃爾族姓之蓬心太蔽難握土以成金象墜兜天後覺引先覺而俱夢鐘鳴祇樹無言借有言以齊瘳弗假幻身焉趨聖域雖編百門九部之內典為五千餘卷之梯航要在八還七處之靈章繞四大六根之命脈所以楞巖末轉鴻福匪翻既遠那爛之藏更新般刺之願顯音輪于慶喜壯華筆于房融獅乳未乾擬獻玻璃之盞牛血不濺合任庖丁之刀欲全備行之頭陀應探發光之海印詎依滿腹之偃鼠而肯飽瑤池寧效馳河之商虬而甘汨性水始徵辯而剖析諸相繼解忘而會歸一源過選擇之圓通且停鋒而反視履持誦之妙用方縱轡以前驅地位進修頃刻超善財彌勒區宇直破須臾滅外道陰魔登高之想極詳湛入之境最細曩叨囑累今獲招提建巴國之雞園就居龍屋續嵩山之熊岫以紹虎溪黃侯再出于浯江正受重逢于蘭若乘禪教並行之職闡宗說同暢之標字字擊響敲空卻聽聲來寒雁送行行擒風捉月遍隨影去落花飛鳴呼了義離詞玄談杜舌紙上若留活計鬼窟仍舊家常。

太極圖說序

道學之所從來也始自國一禪師傳于壽涯禪師涯傳麻衣衣傳陳搏搏傳種放放傳穆修修傳李挺之之傳邵子穆修又以所傳太極圖授之濂溪已而濂溪初叩黃龍南教外別傳之旨南諭之曰只消向你自家屋裏打點孔子謂朝聞道夕死可矣畢竟以何為道夕死可耶顏子不改其樂所樂者何事但于此究竟久久自然有箇契合處次扣佛印元禪師曰畢竟以何為道元曰滿目青山一任看濂擬議元呵呵笑而已濂脫然有省又扣東林總禪師太極圖之所繇總曰壽涯禪師得國一禪師之心傳其來遠矣非言事物而言至理當時見圖之意據吾教中依空立世界以無為萬有為祖以無為因以有為以真為體以假為用故曰無極之真妙合而凝濂溪諭學者曰吾此妙心實得啟迪于南老發明于佛印易道義理廓達之說若不得東林開遮拂拭斷不能表裏洞然該貫宏博矣陳后山曰余觀周程推已教人之所

以反觀孔孟以來實未嘗有此寂然危坐做工夫尋樂處以為斯文之究信乎周程體道之源蓋有所別流矣余以此而觀之自後世之學信儒者謂釋不如儒之正崇釋者謂儒不如釋之尊是皆未能了達木源而互相憎愛也如濂溪太極圖說雖得真傳不敢盡泄其所顯者惟指天地萬物之陰陽動靜而言未嘗說出天地萬物之所以陰陽動靜耳余故特出太極圖說以為向上者知焉。

## 原易說序

恣夏之月羽霄氏過我祇園干我坐塌余欣剖之以自止即馬駒風味拾得關頭亦悉檀而弗吝遂與蹉跎小嶂共踏月暉之霞徙倚疏林齊探三庚之色一日踟躕于清涼之上羽霄前而白椎曰和尚知道安禪師之逃玄耶抑知慧遠大師之訪儒耶余曰若故何以是為異也玄之守一也儒之精一也亦何以異于釋之歸一者乎羽霄則淡然而退且復伸而揭之曰精一守一之說今之人有言之者若道堯舜于戴晉人之前者也不亦映乎是必以一之所未然而衍其兩儀變化之隱括以一之所已然而參其二五錯綜之精神方得謂之儒與玄也和尚莫示以黃葉代金錢耶曰善哉羽霄乎善哉羽霄乎真一之妙若三月聚糧之程非果腹遊莽蒼者造次也余始謁希孟先生于小峨眉先生見余有孚初示之以邵子數余為性命學而不之受又示之以靈[二@金]錄余為精性命學而不暇入先生曰子之志一也可專易矣余聞天隱子有言曰吾生子易而死于易故此面而侍先生三年但得其皮膚耳先生囑累曰子後極于性命則骨髓自生若之揭我兩儀變化二五錯綜者然盡載易乎夫易者變也若蠪[蠪-萬+(田/壘)]之有十二變也故先王借之以為名易有三始自庖羲氏王天下而河馬出圖彼則觀天察地而畫八卦因而重之以六十四卦至烈山氏出則以艮卦敘之首而名之曰連山此一易也至軒轅氏則以坤卦敘之首而名之曰歸藏此二易也連山貯于蘭臺歸藏貯于太卜至大禹氏治洪水而神龜負圖禹則衍文而列之洪範九疇蓋三才之道備矣圖書出不一時而其象自相合符若書之有圖而圖之有書亦庖羲之有大禹而大禹之有庖羲也至文王以周室得名方其時已知天地之交而為泰水火之交而為既濟故畫後天八卦以乾坤為首而名之曰周易此三易也卦體之辭乃文王之所繫而六爻之辭周公之所繫也彖傳象傳六爻之小象繫辭諸傳則孔子贊之焉然諸老之動變參窮亦不外乎未然之一為體已然之一為推也矧余詎昧斯一而肯以黃葉止啼耶因著原易說而效夫螳螂也螳螂之所當者世路轍也余則所當白牛車也。

## 心經序

夫心經何為而說也曰為心而說也心譬之山當其凡聖未分佛生未有時一切根源俱在絕頂上繼而轉為業果矣眾生矣世界矣一箇箇皆從是山之中路而下來若云流浪生死更不回頭轉腦者則是心迷矣有導師者曰回光返照復歸云無何舊路茅塞莫可下足是又不可無智慧刀也刀在手修之一步直行一步修之一丈直行一丈正恁麼時不知有六根六塵六識也不知有四諦十二因緣也亦不知有信住行向四加行也唯知驀直頂上為休耳是故止於麓者凡夫乘也進麓之上而止者聲聞乘也更進而居於中者緣覺乘也復上而處於山之額者菩薩乘也又復至頂之平原望四山而自遠者最上之佛乘也玄奘法師云修習空花萬行晏坐水月道場降伏鏡像天魔證得夢中佛果這裡會得依然只是一個凡聖未分佛生未有底東西故曰揭諦揭諦波羅揭諦(云云)。

### 心經跋

余自著緇脫槐安國但見花飛鳥語牧唱樵歌莫不是心之注腳無何讚唄按豆者終日行而不自覺知良可悲夫海龍行雨舉念則滂霑而澍老母齧指兒則心痛而返童子入定密室化為水池是心也人胡不為之經也古皇先生曰十方薄伽梵一路涅槃門果得斯路矣無量億經皆從此經出。

### 簡易集題辭

憨山道人謂不讀春秋不知涉世不讀老莊不知忘世不讀楞嚴不知出世蓋世有三過去未來現在也既有是世必有是事有是事必有是心矣惡得不用游衍之法乎山野昔居少峨峰一日思履簡履易之道良久不得旨夜夢淨光童子發樂曰簡易之說如子思之素位庖丁之解牛輪扁之斲輪三子進乎技矣以而用之何心不素哉覺而記諸錄今觀中如居士簡易集始而名若弗名則不知其世之所以也故有名世之萃章世既見矣務必懸鑑於腔物我頻炤故有醒世之語焉然醒以警為則也豫若冬涉川猶若畏四鄰即周行而不殆矣故又受之以經世之言夫所謂經者徑也若大路然荆棘茅茨自我脩之貞吉憂虞自我履之縱一言一行一理一事莫不為後世之楷故又受之以涉世之策也世一涉矣即形而鏡即事而心鏡無其鏡桂輪引金璧之波心無其心蜃氣傳煙霞之閣出世之辭迴脫無繫矣居士先得憨老之見先聆童子之云故獵其古人函蓋之句類而編之正所謂借他傀儡敲我機關實趙州渡世津梁也善讀者請勿以遮睛按豆蔽其心始與是集少分相應耳人間世奚足以盡諸。

### 無量金聲序跋

昔人謂至心稱念阿彌陀佛一聲如倚一座須彌山搖撼不動余曰不然稱念既至心矣則全體須彌寶座金焰赫奕何更倚之與有又謂娑婆世界以音聲為佛事者此一說多令人妄生臆度乃云佛事止音聲耳於諸禪宗旨趣又何得殊不知靈荒未形太音範圍於殼外湫盤始結希聲陶冶於域中所謂威音雷音梵音者皆繇是希聲轉變一月千江也況復舌底機輪迦陵頻伽共語唇間清韻潮汐河漢齊吟在在光明處處相好庸詎知世音即出世之音也歟哉庸詎知有念即非有之念也歟哉中如居士自筆華夢曉觀破塵緣欲效春山之釣則羊裘惡足銷雙鼠欲追煙波之游則箬笠焉能避四蛇且稚聞木魚聲而心醉是樂天之知無者也暮棲好音亭而念快是堯夫之安樂者也猶較尼父蔬水中果其樂之否乎一日掀翻多羅了義簡擇諸宗匠諸名公偈撰為小集而自為之金聲引參同頌大都以念佛為捷徑脫生死者纔見余不覺忠城已毘耶中如即維摩矣倩余亦饒舌以刷其傳若問殼外太音域中希聲幸勿輟此彌陀始得。

中如居士不持鉢不落髮乃與抖擻輩常相軼駕人詫之曰雞窗唱語殼中便見豪人路柳彈聲洲上仍窺學士居士胡為而偃蹇驕悍不圖祿粟欣欣然攢眉於香社此其故何居士曰是非爾所知儒之任重者非三錫命也仁也為政者非滅耳滅趾也德也矧這瞿曇老子等萬象為一體變森羅為淨土醉使之醒狂使之清愚使之智濁使之澄復令人隨聲住寶所遇相識真如是則至仁至德矣夫何為而不趣哉抑何憚而不速哉說是語人聞之杜舌余聞之快暢似不可與歌麥取珠者同論故贅其辭以跋是書。

## 廬隱草序

夫詩何以稱也發聖賢之奧竅影君子之規模寫騷客之清狂摹隱逸之雅況所以皎靈二沙門打破鐵瓮之餘挑商刻羽歐蘇兩夫子開了關鑰之後賡韻聯吟即寒山寫谿岫之影相舡子賦釣竿之浮沉要皆不在詩而在遊戲三昧也遊戲三昧之妙得之心而寄之詩也余嘗讀法華歌至我亦當年好吟詠將謂冥搜亂禪定今日親聞誦此經何妨筆硯資真性之句不覺精神舒展手足舞蹈呻之曰是先得我心也得不以山花啼鳥松聲草色而賞吾之般若法身耶有忠南任維摩魯揭云座下無事日靜坐有事時應酬內守一外處和步伍徹顛謳歌讚詠其隱括容儀吾莫知其所以然惟願授之何若余曰公自桂林中來秋月猶存蒲珠玉運風雷雖假託於毘耶城而囂壤塵坩已卓越久矣其風雅賦頌興觀群怨之工亦不思而自得焉余不過以廬隱草之名而為公引鷓鴣號意耳又何必區區青蓮拈之於指上也哉。

## 艾語題辭

中如居士住白飲洞嘗語古人相敷於但闢經籍裡蓋惜跛鱉盲龜而喬詰卓驚於愚法之中者甘勞騷於彘乳之宅也涵寂擔板而秉羽弄九於面牆之下者不究其無言之旨也負薪宵織而家忙內煮外食而欠後居士乃以一片婆心作一灸艾欲墮鷲子之花使天下之人揚其推欲滅波離之光使天下之人活其圓欲揭維摩之日使天下之人周其遍故一偈一頌一論一說皆出大醫王手非若巫咸扁鵲以之為頹靡波流縱之為膏肓豎子走而弗顧也余少讀陰符經有曰天發殺機移星易宿地發殺機龍蛇起陸人發殺機天地反覆若蚤得居士之艾於機上一灸又惡用殺哉又惡用殺哉。

### 敘如藍禪那二草

東旭禪人自楚發足蚕叢地不拈搥不豎拂不拗拄杖子要做個圓陀陀光灼灼底漢問水尋山看是如來藏妙真如性不覺不知帶得尖頂老倉頭來也剛到聚雲被老僧眉毛一喝即見出如藍草禪那草二本雅有些氣息但未審揮灑運用時東旭禪人在否若在放他三十棒得不為神通三昧遊戲耶雖然竹裡金鱗千萬點月中玉兔一輪孤。

### 無量金聲題辭

宣聖謂西方有大聖人不治而不亂不言而自行蓋金聲早已播於華夏矣然曰無量者何梵語阿彌陀此云無量壽彼佛最初成道時發四十八種廣大行願願云稱我名者定生我國若不爾者終不取證菩提況復彼國道侶皆是阿鞞跋致周流行樹仙音唱於迦陵朗映德池佛光同於優鉢晝夜六時轉無量音宣無量法放無量光揖受無量眾生是故號為無量也古尊宿云無禪有淨土萬修萬人去但得見彌陀何愁不開悟此以意念往生也又云行住坐臥之間一句彌陀莫斷須信因深果深但要不念自念此以心念往生也又云若能念念不空管取念成一片當念認得念人彌陀與我同現此以性念往生也如志在無量之國了是金聲之旨亦有年矣乃以尊崇貧賤歲月日時直以一法印之而成偈則何地非金何響非聲正所謂音輪勝會也倘能以一勸百以千勸萬無量導師又當居士稱諸。

### 唐詩響韻聯珠題辭

伶倫取蟹谷之竹為籥音律成而鸞鳳皆舞善知童子唱四十二字厥義串三賢十聖薩埵位曹子建遊魚山聆穴中之音而作梵則東西兩土韻響始相協矣或謂詩者歌詠性情也何拘拘於響韻哉山野繼而示之曰但闢老子大聖人也尚美頡伽未出之卵蓋重其音也夫音借韻以成句續句以成章章之長短即言之長短也是而有風焉有雅焉有三頌焉復又稽之樂經

[糸\*息]之五音也析顯剛柔之聲一之六律也潛通歲時之氣故音變則聲變律變則氣變所以毛詩之後有離騷離騷之後有十九首十九首之後變辭為絕敲樂為律殆捋龍門積石之源湧於唐海金波玉浪大地皆響矣譬之尼俱樹蔭覆五十由旬實有數十萬石究其根種則如芥子許噫世界一希聲也布而為音為律為辭可令人念茲在茲詠茲在茲惺惺成大丈夫相時而擊竹唱易水之歌時而飯牛作南山之韻時而執爨題問影之詩時而躡屣調天衢之句優哉游哉誠眾甫中之真逍遙也中如居士既聆谷之音又聽童子之唱梵唄華音若指諸掌乃取唐人之語編為上下六冊彷彿古樂俾爾識韻歸響矣善觀者不可泥於韻而求義當於韻而求響斯可與言詩並可與語道。

### 本行錄序跋

從來老和尚打破藥罐搗通桶底個個家醜外揚老僧則不然山河大地森羅萬象總在己眉毛上你向那個說去當知凡夫心中佛祖說法是佛祖心中凡夫聽又當知凡夫心中佛祖無法說佛祖心中凡夫無法聽這裡會得我也只是個銅鈴兒也何以故言外百千三昧法因風說與個中人。吹萬和尚為人一生只在擒風弄影不知實落在甚麼處雖註如許經書說如許閑語問曰非我也燈籠與露柱為之也當注說時普賢送紙文殊傳墨猶與三十棒趁出去在。

### 文

#### 錫杖寢蝸文

蒙莊謂觸蠻有攘地之戰伏屍萬里其說果真乎果幻乎吹萬子曰唐虞推讓湯武奪征亦蝸角之墟也何區區蒙莊之真幻哉蘇子瞻題蝸之說云蝸涎不蒲殼聊足以自濡升高不知疲竟作黏壁枯後人又指為知進而不知退者道也遯之月吹萬子揭慈氏昆曇法於東窗之下以消焚暑因倦則掉臂而睨之見一蝸晏寂於錫杖環股之上異哉物也何緣而至此耶且彼蟋蟀床下入之以時也細鳥襲人進之於外也況夫欲路師馬欲水師虻彼何人師而有若是之委蛇也姑以渠之質而揆之凝泥滑壤若之體也浸潤綿柔若之撻也縱裹腹聚糧莫知孰為彼之莽蒼而且步階越限踰闔穿幃不顧艱險拔乎層危之顛是役也何異迷七聖而知大隗之山是寂也何異四時而抱綿上之樹是脫也又何異過慈雲而處金剛之定若是則觸蠻之戰歸之烏有也唐虞之讓付之三杯也湯武之征破之一局也於是乎涎枯矣黏壁矣蘇子之說殆不可執矣。



## 吊灼然辭

天不足兮石可煉地不蒲兮鰲可斷子之歸兮固乘風對月談兮誰與同想余之始姤也隨郴水之無端起瀟湘之宿鴈運斧斤於湖東鼓蘭楫於書院子之冰寒藍深余豈愧大緣之許可子之衲綴囊空余豈愧瞿塘之敷座疇昔哉灩澦江頭共歌芙蓉之曲南賓河下相釣華鱗之絲遂卻四愁於屏岫展六震於玉溪扣我琵琶唯子之手啟我咳唾唯子之口雖更一枝於枳水於我何功於子何咎嗟兮嗟兮無止我心之傷悲兮悲兮悲兮孰比世路之情愛兮乃余之慟也易何東痛余之授也道何南朱恪轉素火鏡無炯禾露泣時天濕淚花顏墮處水痕斑赴茶毘之三昧忘乎螻蟻背夫鴟鵂灼然汝之陀那不可以御夫鹿車彼鹿車兮鼠毒逢雷群使作遮灼然汝之末那不可以陟夫臺山彼臺山兮四住雖除二愚未參灼然汝之幽見不可以趣夫膩吒彼膩吒兮八萬劫後復染塵沙惟我泥洹子可以登惟我淨德子可以臨漏殘天曉崑崙色鐘鳴雞唱海潮聲子有不昧之昭昭先入昊昊之旻旻。

## 贈脩齋會茶文

維摩以舉足下足為大道場淨信以莊嚴聲教為大道場然則聲教與舉足世諦所謂形者也而淨信之至所貴使其形也人天交接[糸\*息]不越這一著吉祥餘慶又豈外這一著哉翠屏氏無以鳴夫樂善之美乃丐余一言而為之辭。

## 避亂問

暮春日余出錫聚雲泛字江訪碧空於白巖寺是時通郡伊蒲皆為秦晉趙代之賊擊破夔關盡涉岸南以避而江干葦葉悉空余得扁舟於石碇而舟子招之甚速蓋恐隸人之刷取也使余匆匆然登之不亦舟子之迫乎有見余而議之者曰釋氏之子得無怖矣何乃亦笑其百步耶余則聞而悅之此深知我者也避亂真矣而以訪友為諱人焉得而度之哉雖然訪友不過一交接人事也避亂竊得為至人君子之事矣聞而悅之所以乃時有輝侍者啟余曰和尚飛錫渡江得得為碧公而來也自耽臨難苟免之夫所謂竊得為至人君子之事者有是哉惜乎愚昧之不知也立吾語女昔瞿曇氏遭亂世而潛隱養馬院食馬麥三月伯陽氏避七雄之亂駕青牛於西域孔子之晉及河聞趙簡子殺竇舜二大夫乃曰吾聞之剖胎殺夭麒麟不至其郊覆巢破卵鳳凰不翔其邑何也君子諱傷其類也故回車而返此至人避亂之跡也曾子遇寇至且曰無寓人於我室毀傷其薪木寇去則曰修我牆屋我將返陳文子避崔子之亂棄馬干駟而違之他邦此君子避亂之跡也況復

萬菴禪師被李成兵拘繫適大雪埋屋倒壁幸而逃之浮山遠公橫羅於蜀先自以智脫之此古人處困窮之權也故曰窮則變變則通通則化然非至人君子何以當之今余過矣冒惠知我者之良譽矣小子記之輝又曰垆聞所說非今有而昔無也乃執古以御今之有也然則避亂者多矣果人人皆得為至人君子之事乎曰非也余方外之流也無官守也無言責也左右逢原心天之江月自普東西任運宗鏡之物我恒新若夫眾人之趨避也抱胡茄之塞聲驚沙場之戰氣負釜荷甌嗟怨譖譖耳尚至人君子云乎哉噫余願得孫叔敖之寢扇市南宜僚之弄丸鄧隱峰之擲錫俾綠林之眾賣刀買牛守劍得布則方內幸甚方外亦幸甚矣又何避。

### 代作賀石柱總戎文

嘗聞善建者不拔善抱者不脫子孫祭祀不輟觀我大總戎之襲裔也繼金壇於建武續玉帳於東漢其源以良工不示朴訓為矍鑠之豪大材當晚成竟作堅壯之本所以割茅土於十有六朝而錫馬蕃庶晝日三接者得不為善建善抱乎抑又觀我大總戎之雄鎮也兩車得夫靈[匚@金]奇師受夫玄圃洗蕩蘭巢之塵煙巴水重新月粲揮滅遠塞之臭穢燕城依舊衢謠故荆山之璧宜圍朱紱之衣宜繡子孫之廕宜榮矣得不為子孫祭祀不輟乎(某)與令子有雉壇交願如芝蘭之室則不異白頭如新領蓋如故也敬聆錫命歸師敢擬日重光之行而晉諸辭其辭曰日重光兮玉馬燦月重輪兮金牛煥奪崑崙兮大樹雄定天山兮幃幄算胡為而愷歌兮獻慶雲之遍彩斂夜行之錦而歸兮受恩榮于鼎鼐歡九如之自麗兮酌以兕觥享五福之頻增兮綿以庚長余安得不佩夫青雲而與之徬徨。

### 壽徹菴耆舊九十文

華封人祝堯曰願祝聖人壽堯曰辭莊生云壽莫壽于殤子而彭祖為天中郎先生奠子曰子生則為吾兒今去異日則為吾兄矣故朝囿之與大椿不同年也斥鷃之與大鵬不同知也此易見也非特見也余嘗試論于海人曰一葉之舟可御風而泛諸海聞者曰是我則曰一葉之舟能載滄溟而泛之天聞者曰否山人曰鷓鴣小鳥鼓兩翼而之蒼蒼之極聞者曰是我則曰鷓鴣小鳥衲蒼蒼之極而入人之腹聞者曰否是今之所謂壽者庸詎妄祝于大德之耆年哉蓋理與跡之不齊也德與形之匪一也惡惡可惡惡可且觀大德之勗據拓提也而粉榆之園翁溪友黃口白眉悉皆蔽蒙之屬蓬心未開疇卻異鵠之慕而鞭策木叉耶奚法伊蒲之饌而曲跪乘門耶然一旦而歸奉三尊止猿狙之躁動回風火之不足皆賴大德之力也經云有四相即非菩薩離四相是名菩薩值茲懸弧之辰而不敢以壽壽者不壽之以跡而壽之以理也不祝之以形而祝之以德也堯之辭彭之天袁之兄與夫山海

之互論得不謂離相之說乎然則大德之壽也必傳矣余因受請而會諸禪人于菊隱菴皆稱大德今年有五百四十甲子矣乃白余成文焉。

### 代作祭馬太公文

嘗謂安時處順而不拘拘者天之則也窮薪傳火而吹累眾甫者天之倪也全是二者聽瑩烏能逮竟哉如我太公之神生也再命三命奚獨儻且俯避在厥真不在土苴也況復分衛我公奪瓊枝于棘圍頌南山于巴國澤及鮮規而威持竺梵使三十二相重新千七百則更唱是何翅傳帶留衣即傳大士來也故我太公雖近也真也而不拘拘也護囑我公天也火傳也而吹累眾甫也吾儕詎敢三號而往弔宜效子桑戶子而歌矣聿為之歌曰天不足兮勞媧皇以煉石兮地不滿兮藉鰲[寧\*頁]以為足兮何如采真以遨遊兮上與日月合明兮傳清白于家國兮美德宿于難兄難弟兮吁嗟吾儕之十幻兮而今猶是苾芻兮。

### 徵心文

傳云今人乍見孺子將入于井皆有怵惕惻隱之心論孺子將入于井見者無不驚徹世所謂惻隱之心者也獨不知未見孺子時此心又在甚麼處若在其視聽言動也則孺子未交孤根何以自照若在其行住坐臥也則忽于尋常誰是乍見之機若在其無舉無措也則頑空無作疇為惻隱之心所以靈雲有桃花之悟燭吾燭也洞山有過水之惺見無見也此二者較之惻隱何若哉故知視聽言動惻隱之由者也行住坐臥由于惻隱也無舉無措由與未由之間也噫天地一惻隱也萬物一孺子也其乍見夫何容心耶。

吹萬禪師語錄卷之十五終

傳

嗣法孫燈來重編

玉皇山傳

忠南漠田之郊余滄足維摩室而之陌楚欲巢秦望之長松以效生公之列石因指莘之牧而詢之曰覲面崔嵬可乘鋏馬而與之蹉跎者若甚岫耶莘之牧答曰彼即墊邑之玉皇山也上有梵刹厥頂森焉吾嘗聞天之朝也岳有光其暮也山有燈非持敬也莫睹非戒慎也莫逢余聞其說遂躬身陟躡過層林踏虎跡攀乎薄刀之巔但見落磊壘門荒寮布徑其為牧之說也漸入矣又見巒面山情絳萼影懸于紫蒂[石\*章]頭野境嬌枝閃出乎青藤腳颺四起穿脅扶掄推推乎拓拓乎不容少怠余則塞其兌垂其簾驀超峰頂旋眸八極何啻登東山而小魯哉徐徐息許禮畢大行願王移于箕斗之隅審其軟峰三四疊上湧天池又過攢峰千餘疊望終南一帶截右翼而之楚衡此土龍之來脈也是疊之中蒼蒼綠綠點綴而不歇者野卉條楓青萊翠石也右之鬼柳之方團巒五列巒下有壑千筇萬樹猱猿啼而不驚禽鳥喧而不鬧者佛地潔也又當胃昂之野其峰若綠毛獅閃閃而下曲尾仰面而上朝者若蛙蛄形山人曰此蝦蟆拜玉皇也旁有翠幹琉葉不滿三兩尺羅織成綿而鋪里許鷓鷯小鳥時語不絕獐子麋兒互為跌跳是山之德招也右則回于危室夾溝泛氣勢若江胥吐蜃河始湧驪山人曰此溝下有黃精莖對葉服之益壽乃為仙藥首也故氣耳遂下石梯百餘步俄老僧磅礴而出敞衲千條傲然雅淡若麋鹿友余曰若固莫非居山主人耶老僧曰山中豈有二主人余再訊而請曰是山何緣而刵也老僧曰山之靈也有矣而其所以靈者莫若此山之高也有矣而其所以高者亦莫若此何哉向也五色祥光從空而靄始于中頂而散于四角縱千萬人觸之其光各映其本面而不相矛盾故山之高有所以也一燈而來九燈而往宛轉縱橫易為千萬團列峰頂以照亭界焚檀俯祝旋空而泯故山應之靈有所以也猶轉有未盡之奇特待久入而自得焉我固不敢贅已蓋余今之所巢者非磅也先日無徑而下我則緣蘿而造之因名之曰弔岳也幸直月之巳日之朔徙倚亭中尚獲其瑞方其瑞之初也天籟先迎颯颯然之颯颯乎颯颯然之颯颯乎扇鴻濛而出氤氳呶呶嚶嚶其勢也若山崩其聲也若轟轆及其瑞之次也雲霧躍硤白練纏階翕翕然之忽忽乎霏霏然之霏霏乎其為氣也若老魚折波瘦蛟舞浪又其瑞之次也西霞漏日金焰陶輝焱焱然之赫赫乎晶晶然之熒熒乎赤蛇蜿蜒五彩相團其光也若劫火其灼也若騰龍繼而薄暮將昏千燈迴出縱橫逆順莫知其可其為色也烘烘然之烜烜乎煥煥然

之爛爛乎八方繚繞因循不已嗚呼是山鎖之靈妙也果誠然耶矧余剃除而逃諸緇衣雖曰須彌不周我則聞而未之見崑崙蓬島我則見而未之遊峨眉五臺九華洛伽我則遊而未之處南衡東岱西華北恒中嵩我則處而未之久今之登斯山也若眾山之附余而徂矣如之呼何其然耶天地吾身也吾身須彌也須彌之與天地錯綜而恍惚者道也然而道之形者宇宙也情者日月也名者萬物也夫如是則無山不靈無地不佛所以佛佛也而光亦佛也光光也而山亦光也山山也而燈亦山也倘非破鉢而培皮袋摩尼與與涅槃依依者孰能于此饒舌也與哉亦孰能于此栖遲也與哉老僧曰若是乎可為傳也否余曰若欲傳即既傳矣唯以慥者當之而已故不作懸疣自累也是為說。

### 如醉頭陀傳

三目山有一長老不參禪不說法嘗拗一竹杖攜一飲瓢挂一蒲團遊戲于清涼石上謳歌自娛其歌曰吾道窮兮貧家兒吾道幽兮谷裡芝入吾道兮寒如雪守吾道兮醉如泥人問道即歌曰道路之迢遙兮非扶筇著屐之可登兮惟持以不徐不疾兮方可托摩尼于掌上示兮朝則遊于綠蘿岳邊把茅為蓋寢于下岳前數十步以枯木十餘段掩以柴扉朝暮有鴉猿為伍其石壁間題曰綠蘿岳畔把心灰月挂松梢樹影來睡起蒲團鴉報曉柴門只有野猿開每歲秋清好遊于疏林之下嘗自謂曰霜葉凋殘秋風蕭洒眾人視之為慘怛我則見之為收藏且也萬物芸芸必歸于根倘不三庚自伏則妖梅不放顛柳不開而春光艷麗烏能再來也有僧于林下詢其義復歌曰瞿曇往兮君安遊今過去兮向何求君兮君兮且悠悠一聲葉落兮為誰秋或時擬華亭船子之曲泛扁舟水上人間之曰和尚何不說法利生反好余且之技何也隨即呵呵曰江上有金鱗素懷禹門之躍吾故來釣之如不遇任其興盡返耳其歌曰青箬綠蓑兮煙波釣叟之不歸明月清風兮羊裘子陵之自微夜靜水寒兮華亭船子之舟晚蘆花淺浪兮如頭陀之所依晚則細雨斜風人稀鶯落便停舟于淺水其徒蓬蓬子扣其法要乃曰吾船中無法汝但看此岸邊微微細雨濕寒松少焉雨停又見淡淡清光籠野色遂即歌曰籠野色之清光兮可以潔子之靈臺濕寒松之細雨兮可以濯子之塵埃臺兮靈兮無一物塵兮埃兮何有哉人以為金華之長老彼則在山而不知有山也人以為江湖之散人彼則在水而不知有水也人以為歌者必以酒彼則無酒而自歌也故自號之曰如醉頭陀。

### 文僧傳

六虛之野有此君塢綠竹萬竿塢中有室葦門環堵一僧棲遲于內問其奚自而此答曰予先素衣時常遊天祿石渠得燃青藜之炬恒映白雪之霏且

有十二龍賓會稽楮先生陶泌毛穎諸君子與余為莫逆交故席上之珠猶有存者然非歌麥取珠之類也見案頭一帙云明月在天霜花滿地金烏出海霞彩盈波此天性自然之女非壘瓦結繩之屬所以機杼成一家之錦光芒灼萬丈之輝良有以也其窮通論曰使余之遇通而適也則扶搖九萬非高也翼摩蒼穹非大也天地只一指耳使余之遇窮而適也則深于山林非幽也巢于一枝非狹也芥子納須彌耳以是觀之得非禪門敵外侮之良將耶問其姓字曰聚雲吹萬子也問所事曰事佛也因觀其壁上題曰石渠昔日喜文場一畝耕來桂未香法苑那能知孔孟倩余林下敵人長遂錄而傳之。

### 詩僧傳

南賓郡北有壇壇後有巒巒之畔奇花異木時禽好鳥遷轉求友于其間蓋香山居士種荔枝作荔枝圖序處也又下石磴十餘步旁有小澗雨久其聲與梵音相雜又有卷石之山者二可呼作小小蓬萊山面有室額題曰詩室頃間一僧秀眉微髯昂昂藏藏自竹徑中來與之踟躕與之憶顧謂是唐之賈闍仙耶闍仙未必有若是之壽者相也謂是宋之端獅子耶獅子之衣帽非壞色也造其前揖而問之不答但袖出一冊題曰遊戲三昧徹讀之句句非溟海尾閭也乃龍門積石也崑崙也何以知之蓋詩家法即禪家法也頓然悟後再不挨門傍戶所謂拈來無不是用處莫生疑也設暗竊古人之句者如盜狐白之裘明取古人之義者似奪和氏之璧令人知而不能行見而不敢效也況詩之法要有四至工有二四者興趣意理也二者煉字錯綜也如冊中友人山居詩曰彩鳳自棲青葙竹瑞麟惟向紫靈芝從來隱士居幽處山色浮光水色奇此興也春雪詩曰春山不見天花樹一夜殊沙到處明此趣也對桃花詩曰不為東風展笑顏機含此日露天班此意也交秋詩曰只有一瓢情不更四時掬水當啣杯此理也又集量虛詩曰梁高茅露骨蘆久壁生芽此煉字也過折系岳詩曰白墮枝頭桐萼放青推岳畔石林橫此錯綜也已而揖別其僧曰余翠屏吹萬頭陀也舉世皆于夢處醒故醒不醒吾心能于醒處夢故夢不夢則于世有所不容而假此以適意耳其志不在乎詩也幸勿流其言足見知己。

### 講僧傳

龍屋之左有巒峰而下者疏松嶺也嶺上有石如龜背八文聚雲主人名之曰洛書石石上有臺雙樹厥枕森森焉臺前左右羅列小石磴磴外桃柳松柏圍繞數匝其境若虎丘山生公說法處也聚雲主人每日當西霞晚落紫綠萬狀常借境拈花于臺上或敷白蓮經或宏佛母陀羅尼或轉佛華解脫門諸弟子濟濟于其前石不迫窄恢恢然有餘地焉有僧請問說法之要主

人曰經可說不可說可聞不可聞可說者文字句義也不可說者性覺未明也可聞者音聲語言也不可聞者妙明未起也如世尊上座文殊白椎諦觀法王法法王法如是世尊便下座傳大士纔按尺誌公曰大士講經竟據此二端是曾有說之者耶亦曾有聞之者耶說與聞皆不可得而知也不可得而知是名真說真聞也諸弟子聆其說各各心花頓開默轉自性大法輪正六祖所謂從劫至劫手不失經從晝至夜無不念時也蓋聚雲主人即吹萬子也特因時而應之耳非世俗所謂講僧也。

## 禪僧傳

孤城之郊有山名三日蓋取妙高摩醯首羅天王所居之義厥頂有榕樹上接覺光下蔭蕃蕪如醉頭陀嘗踞獅子座臨其處虎狼絕跡雲霧斂氛有隨行參堂者列于前頭陀即拈土為香曰此一瓣香生于空劫之先爇于威音之後用去則氣息都無收來則煙充法界今日在人天眾前當陽拈出汝等諸人且道是戒香耶定香耶慧香耶若是戒香戒者犯之源若是定香定者動之機若是慧香慧者愚之始此香當在釋迦文佛指上喚作青蓮花在摩訶迦葉衣鉢中喚作正法眼藏在阿難尊者乞食時喚作七佛儀式及至達磨初祖東傳震旦喚作安心二祖神光喚作懺罪今日在如醉頭陀手中喚作此一瓣香諸昆仲還會麼若也會得碧紗籠燄開金像如或未然清梵銷聲閉竹房卓拄杖一下有僧出曰是土非香是香非土拈土為香作何理會頭陀曰即土即香即香即土拈土為香如是理會僧曰是香且置如何是土頭陀拂袖下座諸大眾齊和聲曰上大人可知禮也詢其頭陀答曰即聚雲主人也主人每談宗通必臨此山故送羽霄氏之詩曰淨名既了參軍醉絕頂凌霄仔細看蓋謂此也因記之以廣其傳。

## 西蜀敘州府朱提山朝陽洞月明池和尚傳

熨道古戎朝陽老人本郡范氏子司馬公之後也幼居林下一日有僧過訪不遇因題聯于壁曰阿彌陀佛閒也念忙也念念得佛也無念也無無也無扭落鼻孔最上乘禪朝亦參暮亦參參到禪亦寂參亦寂寂亦寂劈開面門老人見之忽然厭世便祝髮就之彼僧已他往矣老人遂孤雲白下飢寒暑濕憔悴萬狀單以是聯為提撕話頭久之洛伽山路逢一僧偉儀殊貌迴出眾表老人在前行失腳跌地念阿彌陀佛僧在後云此是敲門瓦子何不拋卻老人遂參禮云拋卻瓦子後如何僧云葉落歸根來時無口老人遂有省發睹洛伽畢復迤邐少林隨行三十餘眾值彼旱蝗枯槁雨如珠玉食如須陀眾造無言宗室暫欲無言為粥飯主人乃排坐階下無言隔窗視之謂典座曰看釜中有粟粥均給餘眾殿後坐者候渠等出然後以我粥與之是時殿後坐者即老人也老人因是得造室中與無言論話終日無言深可之

未幾辭入關中過秦嶺見一頭陀僧身披紅布褲頂笠揮鋤地中老人曰者漢好似一頭軍僧即云看箭老人作躲箭勢僧乃近前攜手行至幽深處一草菴留住三月乃曰我名德遠號鍤牛乃徑山慧祖之裔在此待人數十年矣汝今既來當為我求人中興祖道老人曰以何證據鍤牛乃示源流曰大慧之下西禪需鼓山永淨慈明苦口益筏渡慈一言顯小菴密二仰欽無念有荆山寶荆山即我授受本師也因付老人以偈曰就身能打劫劈筭善奪窩三玄從此出三要為多探竿影草主賓分師子迷蹤奈我何于時十友皆存如慈明遊荆楚之類花子大賢居其二焉老人禮謝畢直入劍門過龜城謁峨眉與得心老宿住持十有餘載得心脫化始歸梓里居朱提山朝陽洞每日危坐二時淡齋城中士庶直知為淡齋僧不知為月明和尚老人見參者來舉言教即以言教導之舉習坐即以觀法導之舉調攝即以攝生導之唯斯一味死貓頭不遇無思算之人定不起口耳是以諸方有枯坐無用之名習觀執著之號邊見不圓之稱嗚呼荆玉在石尚無決剖之君隋珠寓庭猶按驚疑之劍況大事因緣非佛與佛惡能究竟哉山野入室卻又別轉旗鎗抬捺抑揚數載始徹問答語言盡載聚雲錄中付有破衲一領囑令行腳山野遂辭如囑方外老人住世六十有六于崇禎十一年十二月二十四日脫去全身塔于洞口之傍。

## 篇

### 洗耳篇

東白久矣不知搖光之停映乎火鏡之冷然乎清陰雖鼓唯是朝也若晷午則焚矣吾且將納涼于松下耶偕二三子履其處而自益曰路寢春臺孰貴孰尊石榻松林豈不綽綽然有餘裕哉拳而枕之亦不忝曲肱之素王矣有客自周道而來者善知岐此不擅亡羊之流者也穿柏達柳堤竟參于余之止所噫嘻是必知我為卷婁者也詢其奚自曰自白下詰其奚事曰事釋氏余則起而探之曰今天下海宇之內巴蜀吳會相去一帶之長何蔽蒙者就事其下吾見其虛而往實而歸者鮮矣今子之來亦有異聞乎彼則曰有曰何以異之客則屏氣蹶蹶若侃若閭徐徐然殿而伸之曰余鰲靈氏之裔也生于龜城長于浣水稚懷氣塊之為宇庭堂之為濡孰不與與于繁庶之場依依于準繩之訓又孰不汶汶于落虛之府哉是則穀而未啐也灸而未彈也志而已奈之何赤紱雖麗三珠畏于金丸黃鉞雖驕一戎譏夫玉局吾是以髡而陸沉之泛泛然入于拓門之稠隳其志而忘其身矣又嘗聞而退省焉傾河弄鼻析理之流者也泥洹于宗伯之家者幾誰耶登瓶走魅束身之徒者也索珠于夜階之下者不可更再矣吾聞諸雕紗結草之語出于星電之林越毘紐而超大龜獨有若是之黨歟余則雪腰矣斷臂矣直入三擊之坊矣向也聞異聞者余則見而採之有異焉海岸之有天童山也密雲氏居



之湖陂之有玄墓山也漢月氏居之漢月出世自謂得心于高峰得法于覺範祖述臨濟之風三年後始參源流于密雲是則密雲而為之師也其入室授受上堂問答各有語錄載焉獨不知作何行蘊何業師資矛盾于沒齒之地若謂以怒而轉法輪也函丈非操戈之原若謂以逆而倒施之也法座非便佞之所稽古之範者模者楷式者如馬如黃如漚如洞父父子兄弟兄弟炳炳然金針玉線之抽牽錦心繡口之回互易曰鳴鶴在陰其子和之我有好爵吾與爾靡之和之至也豈可以搖唇鼓舌而為法苑之磅礪吹毛求疵而為宗譜之法程哉余雖見而採之幾落為善財之怖勝熱矣寧為科頭箕踞之狂夫孰甘坐頑嚚眊眊之社火哉請一解之何若吹萬子曰泥南七日風雷候許世人謂暴疾于天也尚安知海泓兩峽挾一魚鬣之所致哉是知搶擄之力固不知搏角之鼓朝暮之蜉蝣殆不盡春秋之樹余但以可曉者為子言之日藏之辭佛記後五百歲諍鬥牢固自今觀之乃五五百歲之餘矣諍鬥之中又加諍鬥矣法法塵塵無不浸其染扇其習能于諍鬥中轉大法輪者猶緣木而求魚也第衰替之時必要規其三學正其宗趣使左右絕脾睨之想若夫放太甲于桐宮嗜子肉于中山雖忠則疑矣一人唱之一人和之且不可今也群而唱之群而和之故不容子之丕得其說也亦難矣余竊以子之所疑為子言之子見單傳之妙自佛至祖如以一器水繼于一器然至派立五家宗立五門雖機用權設之不同抬捺抑揚之殊異然猶樸古雅正發藥不舛所謂醇古之風者也而今以德山之棒闡為臨濟之宗似滅臨濟之喝矣致子之所疑者一也子見古之學人嘗以鉢杖隨身臨深履薄亦不減優馬之遺風所謂因戒生定之說也今也長髮科頭左衽斜身鷹首鷄視箚笠芒鞋而謂之學人致子之所疑者二也子見古之得法者先于一言之下定當可否然後鞭策入室轉身直至透徹宗旨方始承嗣而今專務源流苟得為幸忽于言句逗漏宗旨間或寄金求拂媚人傳衣致子之所疑者三也子見前輩別則有儀會則有體寒暑溫暖情禮相通今也出門便謗去後有言同類相讒不相輔佐致子之所疑者四也子見唐宋以來擔荷大意者獨寶此道而已所謂惡衣惡食有所不恥也今則遍用藥酒調身造生產業以為徭役之費引起無告之流禿而廁之行尸走肉甘效犬馬之勞鑠金流言務好誇伐之衛其樂聖亦不減蘇張矣致子之所疑者五也子見古之至人如清素之安命神鼎之孤高汾陽之待時陳蒲鞋之守分不切于切切于所當切切之至也今也則不然銜色求名不務于實持瑟操篳于閥閱之家賂其雞園攘其獅座致子之所疑者六也子見古之宗乘標立曉于一時不畫疆限信手拈來定智具足今則頭尾錯亂眼足相反一蝸之角萬里伏屍于觸蠻一臟之隅二君隔地于肝膽致子之所疑者七也嗚呼缶鍾之惑二已不可矣今也天下惑如之何其鎮靜乎子之所疑正子之所悟也今之所悟昔之所疑也子知七事之既疑于子又安知七事之既悟于子乎子但浮舟于葉不膠于杯于游刃自有餘地矣若夫執于棒喝之不移則咳唾掉臂當不道西來意矣拘拘然杖鉢之場則荆楚之間幾不忽略于慈明乎

不究源流之真則花色之尼易大僧于不知寧不蔽岳下之旨耶治生產業皆與實相不相違背倘會而顛之不妨假立宗乘襲之則不可耳醉和尚酒仙賢二者乃寄酒陽修之流也但不匡徒領眾則已矣所以載諸祖圖南谷北谷二宿之尊也音問識瓢于俯仰見則如陌路矣且不亦絕情之態乎昔者至人垂手常為不請之友況若竹影埽階月穿潭底有若無而實若虛也標立宗乘者拈頭作尾倒用橫施佛界魔界聖莫之測況初機乎譬之東山之高也登而後知其魯泰山之絕頂也履而後識天下設未登之履之詎敢論其小小哉所以七事之隱括有不可知之之處也我故曰子之所疑正子之所悟也今之所悟昔之所疑也宜乎不宜乎然又有一說焉曩子之以天童玄墓為異聞者余昔曾遊于東西兩粵之間已知二老皆法門人傑雖有小疵小言咸出從者之口日居月諸釀成怨府悼此輩之在法門如蟻蝨之在身無益于身者也二老縱出辭氣了稠林不過為一時止客之食何常容心哉余但不面見則已若傾蓋于邂逅請各以刺諸棗梨者碎而燬之風波自息矣不然則令造次者效之尤之又非二老之慈心也此余諾子一解之說之義也客聆其說方將蹙然方將怡然且和南于石榻之膝曰許由洗耳巢父飲牛堯之言未必若是之穢也許之耳未必若是之淨也巢之牛口未必若是之潔也余請是說為洗耳之篇則不枉入君子之林徒坐春風矣吹萬子曰謹聽命。

### 警戒篇

打蠅打蚊父子相癡于瞎棒為臣為賊弟兄豈昧于毒蛇棄下最以造樓欣上懸而剝肉私奔向江邊獨守家野俱亡決意懷口裡雙收飛沉兩失唵米自討其醜效[目\*需]人弄其愚播餅小圖已見傾財罄產瓮醪雖美更成反目傷心買禍不安于太平娶妻何拘于王舍致爾赤身火起城屋戩燒遂至大吼軀分象虎齊散都來蚩蚩種子百喻難明何似寂寂豪人一句道破。

吹萬禪師語錄卷之十六終

說

禪說

禪者禪代不息之義即易云天行健君子以自強不息又曰禪者禪也即堯舜禪也乃四生六道公共之理所以謂之官天下吾佛自金輪王太子踰城出家初于阿藍迦藍處學不用處定知非便捨次至鬱頭藍弗處學非非想定習已問曰還更有向上事否彼曰無也遂入雪山夜睹明星徹悟繼而入廬垂手始轉有文字之法輪所謂教也佛祖所說之法也終轉離文字之法輪所謂禪也佛祖所傳之心也教則有習有學禪則唯參唯悟也故世尊拈花迦葉破顏微笑達磨西來面壁神光禮拜而得髓逮至德山有棒臨濟有喝曹洞有五位君臣洵仰有九十六種圓相乃至種種作用種種公案此又是禪中點眼活句不得已而施設也近來有一種野狐禪僧儀不具定力不持拗一個蒲團穿一領破衲入門來八字腳立住努一雙白眼東看西看若遇堂頭和尚全無告香之禮捏一句沒來由底淡話問上一問善知識從實答他反不管照或頓一下腳或豎起拳或胡喝亂喝一兩聲掉臂而去自道他是徹悟底人明眼衲子空乏諸方若是以此為禪正是業識茫茫無本可據古人道良賈深藏若虛君子盛德容貌若愚豈可以草草匆匆鹵鹵莽莽而謂之超生越死之人耶第生也是此心死也是此心超生越死也是此心教也是此心禪也是此心說教參禪也是此心但不知如何是此心實實下落處莫是行住坐臥而謂之此心耶是心無形也莫是見聞覺知而謂之此心耶是心非妄也莫是一念起處而謂之此心耶是心有念即乖也莫是默然無知而謂之此心耶是心非頑空也佛眼云鳥從空裏飛人向心中住人死心宛然鳥沒空何預人生一過鳥此心實可據但自了其心何勞問來去有生問見吾子曰今人日用中所作所為無不是道靈靈寂寂底東西顯現忽然氣絕時未審這靈靈寂寂底東西當歸何所子曰你今問我底時候這靈靈寂寂底東西住在甚麼處若知今日所住處則知後日所歸處矣若未知生又焉知死哉倘能會得住處便可了得能實了得便可住得落霞孤鶩齊飛秋水長天一色莫把布袋和尚喚作分身彌勒禪乎心乎夫復何說。

淨土說

學人謂念佛易于參禪參禪難于念佛殊不知難而易易而難老僧試問一問汝云淨土畢竟何者是淨何者是土若以西方為土則東南北方四維上

下不可不為之土耶若以金銀行樹寶池為淨則如來所說凡所有相皆是虛妄此又如何說也若以身心為淨土則身是假合心是想塵斷不可為之淨土矣汝云念佛但不知以有念為念耶以無念為念耶若以有念為念則常見之所失也若以無念為念則邪見之所惑也若以現在之心而念則現在不住未來之心而念則未來未至過去之心而念則過去已滅三心既不可得汝復何心而念佛乎蓋佛者覺也一切眾生皆有是覺謂本覺妙明也祇因不覺便為無明今一悟之則無明轉為始覺即以此始覺念夫妙明之本覺故曰始覺合本之謂佛乃所謂之念佛也果能念至此地則天堂地獄無非淨土萬象森羅都是唯心彌陀釋迦在汝等諸人面門出入又何必尋行數墨辯白論黑妄想記憶七顛八倒作甚麼用此特就教家極處而言也若據吾宗正令只消一個參字早將三世諸佛一口吞盡然後奴呼菩薩馬驅羅漢管教山河大地草木叢林通成一位宗匠橫說豎說塵說剎說無畏說說到威音那畔依舊口門只是三寸那有個千丈比丘來老僧面前咬齒蹬足咦。

### 真師說

夫真師者非口傳心授而為之真師也亦非聰明廣記而為之真師也要自有生以來一點真靈不昧具得一副金剛骨頭不曾依人勸化突出一個乾淨念頭志願學佛學祖拔濟先人提挈同類卻把一枚古鏡貼在胸中參照古人經論語錄自然法法精妙投入我鏡方纔行腳黃檗仰山趙州巖頭是也這個鏡子不比尋常法住無礙法去不留如鏡鏡交光光相照到這裡已具得一隻擇法眼睛始可遇人倘遇著真正烹佛煉祖底鉗錘自然撈得著我我也不是頑鐵一語相投全身跳入火聚中踢翻爐鞴師資一場漏逗打破鏡子耳自從胡亂後三十年不少鹽醬鐘樓上念讚床腳下種菜任爾所為風穴參南院雲居參洞山黃龍參慈明兜率參清素是也若是上大人丘乙已填紅模子學來底正如梨園中子弟一般他也帝王諸侯文臣武相一一做得看來總直是個模樣何曾夢見帝王諸侯文臣武相真實受用處反惹得些習氣到于社火場裡論是論非業識茫茫無有了日可憐生馬祖出世開個選佛場收得一百三十九員知識祇有八十三人機緣載傳燈黃檗尚云獨有歸宗猶較些子其餘俱是唱導之師爾等諸人仔細參看咦。

### 示識說

馬駒踏殺天下人供養十方羅漢僧此一識果非虛忘之語傳燈謂馬師下有二宗為仰臨濟也青原下有三宗曹洞雲門法眼也五燈會元則不然雲門法眼出之于天王道悟非天皇道悟也彼時荊州有二寺一天王在荊州之西一天皇在荊州之東主化者名同而寺不同天王出于馬祖故有龍潭

信之脈傳雲法二宗而天皇出于青原紹嗣者乃慧真文賁幽閒三世也若是則馬師下已收四宗矣所以漢月禪師謂四足踏殺于天下也此固屬執文泥象之談然非從鉢外安柄耳余又曰不獨是也所謂踏殺天下者豈祇四宗而然耶若尚留曹洞一宗安能盡天下之幟乎然則曹洞一宗實馬師讓之為青原之後也何以見之如藥山初參石頭不契恁麼不恁麼語至馬師則領會揚眉瞬目之語矣雖嗣石頭而法乳非石頭也次而接雲巖接洞山接道膺又次而接同安丕同安志梁山觀太陽玄到此則幾絕矣復得太陽接之以權乃與浮山遠公曰吾有頂相一軸布襪一件皮履一雙寄公為我求一法嗣以接洞宗彼時玄下非無人也尚有福巖羅浮等七人在焉而獨不令啟其洞宗其宗旨之密可知矣後浮山遠得投子青示以洞上宗旨默而契之遠公曰為吾續洞上之脈勿滯于此故洞宗由是而再興也妙哉遠公乃葉縣之嗣臨濟宗旨遠公生色多矣所以五祖演謂南堂靜曰如老僧共遠錄公如與百丈黃檗南泉趙州輩把手共行以是觀之則洞宗之源與中興之脈皆賴馬師臨濟也何青原之有哉是說也出始見西祖之識不虛而東土之應不昧耳學者不可不知。

### 答問說

含朴禪人讀漢月禪師語錄未契玄要之旨質疑辭一篇請益老僧老僧舌頭久挂壁上只得將兩道眉毛葛藤幾句為渠註破大凡古人垂一辭吐一語萬不得已恰似虛空中突然弔下一個沒奈何底物事令人指手足不辨若是有眼衲僧認得著百嚼碎管教古人性命當下落在學人手裡昔日臨濟得三頓棒後便參大愚就于脅下[祝/土]三拳復回黃檗一掌一喝了明大事乃爾源泉盈科滔滔地說了如許金剛圈栗棘蓬教人鑽教人吞雖然美食不中飽人吃卻也須要嘗過蓋三玄者實玄體玄用玄也皆是一句三頓則有三玄矣拳是一句三[祝/土]亦有三玄矣一棒一拳皆有照用先後同時不同時之機權實賓主料揀之法故一辭一語俱是這般作用抑揚諸方不然仰山已是古佛一轉何乃發願而接臨濟之宗哉迄至汾陽昭禪師頌出可稱中興臨濟真子頌曰三玄三要事難分得意忘言道易親一句明明該萬象重陽九日菊花新老僧亦以無穎之筆畫個葫蘆亂拈一頌貴圖收卻葛藤還我個臨濟未見黃檗時面目吾宗玄要埋雖微擬欲思量道不輝識得個中機揜子關門閉戶掩柴扉。

### 象季說

象季世界不但讀書做官底要命好造化好即修行出世做和尚也要命好造化好若是命好造化好底穿套換套透體絲羅飲食中喫些好藥酒好人參臥帳裡睡些好緞被好緞褥他是好和尚把將古人公案唱幾句山歌和

些油煙搭在白紙上他是好和尚或上堂或小參開示不來問答不來亂抓一句沒來由底語句度將過去只得無眼人速禮三拜他是好和尚那有個高山頂上看山下人趨把戲弄鬼眼底縱有入場底都是些上大人丘乙己底後生見張說好李也說好張說高李也說高大家隨口打喁喁誰能緇素誰能分別總是這個主人公命好造化好也若是八字不好造化不好底他也透頂透底踏過毘盧上行去頌古是頌古法語是法語開示如瓶瀉問答若星馳句調高古品格孤邁但直不合時宜背陰冷坐縱有遇者傳者參者學者將信將疑何翅荆山泣玉乞水波臣哉如是者休願因緣不契說法時不至無乃八字造化拽住耳不見李唐陳子昂文章雅正初入京未遇有賣胡琴者價百萬豪貴傳祝無辯者子昂輦于繡市之眾驚問曰余善此樂來日可集宣揚里眾如期飲畢笑曰蜀人子昂有文百軸碌碌塵土不為人知此樂賤工耳豈足留心舉琴碎之以文軸遍贈會者一日名震京師噫誰如子昂自鬻自賣此萬不可效也但直傳奏老瞿曇凡遇末法時代單令幾個造化好底羅漢降生人間莫管甚麼末後句明與不明五家宗旨得與不得透徹不透徹超脫不超脫唯以一出水瀟灑一生受用一生罷休罷休。

### 病中間說

四之一日將自己轉為地水火風則易將地水火風轉為自己則難各各背逆相違老僧越五日有扛老僧入地者管教筋骨痛不徹有招老僧赴水者致令四文如冰有引老僧入火者一晝夜通身如焚有逐老僧入風者直是動止起居不常五祖演囑圓悟曰你異日一交熱病打來若作不得主那時纔思我話此語看過者多經過者少遂揭案頭黃太史墨跡問之快可心意這個不曾病援筆乃書其說這個不曾病古人云不見一物可當情又安知不見一物可當情者耶正所謂不病者老僧看他有分且道如何是病中作得主底人漫煎百滾空心服勤撥高燈晚照時病魔聆其說合掌擎拳化作護法善神而去。

### 七遮說

教中以犯七遮罪竟入無間獄如云弑父弑母弑和尚阿闍黎破轉法輪僧此五者間或有之固罪之不容己也至于弑十地聖人出佛身血十地己具三種意生身得身自在得心自在便能隱顯莫測應變無方何得而被人弑之耶佛己頓出三界自覺覺他覺行圓滿何得而有血被出耶則二者蓋亦有說焉予竊試論之當自世尊臨涅槃時以一大事因緣付囑四種人一者轉法輪凡夫雖同凡夫行而不墮凡夫塵二者須陀洹斯陀含雖同小果之行而不墮小果之跡三者阿那含雖入三果之流而見超三界之量四者阿羅漢雖如四種之儀而不專四果之相是四種人擔荷如來大法汨于三界

性海中頭出頭沒利益眾生護持大教世間肉眼皆不識焉一闡提遇而害之即若弑十地聖人也佛者覺也昔人云若能靜坐一須臾勝造河沙七寶塔寶塔終久化為塵一念不生成正覺蓋正覺者即此妙心內境不出外境不入而成正覺者也今有人口說佛行而心不淨馳騁唾餘而務販賣陽開練若之門陰履旃陀之行是將自己佛性而變為魔性自性白乳而化為赤血自弑自出自染自污何逆如之所謂出佛身血者此也諸仁若能任性逍遙隨緣放曠但盡凡心莫存聖解則身外七遮自勸而分內七遮自融我為法王于法自在矣惡用戒惡用戒。

## 立志說

宰肉埽塵村舍已曾天子佐履屏指像寺家先就聖人階夏臺壯建極之尊姜里會無方之易平心出乎平地射鹿轉為射人都來識得三師自是揮揚六句有始有卒乃實乃權嗟哉近代狹徒尠聞達觀百里行于九十緇衣改作黃裳炭焚檀開山斷石沐猴羞長卿之舞齊女醜兩袒之歡吾是以白眼松林丹穴城市者矣。

聚雲有以赤肩初禮老僧者及至能獎未驅至道未遺又被北山移文矣故拈數語以勸。

## 二健兒說

困而學之夫子欲寡其過而未能也甚矣蘧伯玉行年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我未見力不足者顏淵曰舜何人也予何人也天行健君子以自強不息莊周聞而悅之不亦君子乎何哉爾所謂達者如切如磋如琢如磨我欲仁斯仁至矣造次必于是天下國家可均也顛沛必于是白刃可蹈也十步一人千里不留行此匹夫之勇敵一人者也吾嘗聞大勇于夫子矣三年學不至于穀不易得也乃若其情則可以為普矣何必曰利亦有仁義而已矣故聞伯夷之風者頑夫廉懦夫有立志不義而富且貴于我如浮雲聞柳下惠之風者鄙夫寬薄夫敦雖袒裼裸裎于我側爾焉能浼我哉知仁勇三者天下之達德也不曰如之何如之何者吾末如之何也已矣。

## 請講楞嚴說

昔黃公勸請正受禪師講解楞伽經正受曰在流通固無辭然衲者必曰子禪者也何為義學之事乎講者必曰子禪者也何預吾義學之事乎人既弗之許縱區區盡管見安能取信于後世哉公曰不然且禪是佛祖所傳之心教是佛祖所說之法非禪無以通教非教無以傳心古之人莫不禪教並行宗說俱唱師寧肯自滯于此也正受聞之遂卒楞伽業撰書閣筆記于雷菴

今受請眾學人勸說楞嚴經蓋經可說不可說可聞不可聞可說者文字言句也不可說者妙明方淡也可聞者音聲唱誦也不可聞者性覺正希也是中不可說而說不可聞而聞者故名真說真聞也所以世尊上座文殊白椎諦觀法王法法王法如是世尊便下座傳大士纔按尺寶誌公曰大士講經竟梵天答須菩提曰尊者無說我本無聞無說無聞是名真說般若諸學人若于這裡會得即字義即了義即有說即無說即倒聞即返聞落霞與孤鶩齊飛秋水共長天一色說者聞者何曾動著一步在。

## 論禪說

佛法不別于世法紹禪豈異于授禪若云凡夫外道二乘如來祖師先輩業已評矣予更以世出世間兼而評之俾學人比類而參不難識其邪正耳如帝堯夏禹周武商湯此天子庶人禪也臨濟是已虞舜漢高明朝太祖此庶人天子禪也曹洞是已夏啟趙胤唐明此天子天子禪也雲門是已許由魯仲連商山四皓此庶人庶人禪也法眼是已梁武漢光唐太宗此天子不礙庶人庶人不礙天子禪也為仰是已桀紂幽厲此獨天子禪也今之專務門庭施設有頭無尾一隅一櫬者是已荊軻聶政高漸離此獨庶人禪也今之枯坐灰心不舉慈悲方便而耽著淨妙光影者是已然法無漸次殊途同歸道無階級百慮一致何更如此推排耶古人道涅槃心易曉差別智難明果能實得心髓一言可為霽[雨/澤]何必拘于位也如或半明半暗一語竟作野狐何必慕其名也山野傷悼至此故以世諦聖諦兩相參究有智者便知禪之所以為禪而不禪之所以為不禪也請熟思之。

## 閱海內奇觀說

太虛山水樊籠也出亦得不出亦得山水萬物根本也美亦善不美亦善若曰人則為太虛樊籠山水根本或不被女商訝必落榮趨辨矣今楊子效宗少文之臥遊圖而為是書欲令宴如者不窺牖見天下雖然不知山水之遊乎人耶人之遊乎山水耶人遊山水切忌翳著眸子山水遊人又當在涎腋臄腩上斟酌一二故非山水之中有人也非人之外有山水也達者觀來盡大地還他一隻眼。

## 勉眾說

釋迦如來夜睹明星悟道後便能轉大法輪接引眾生是誰曾與證盟來縱續迦葉之脈特心宗耳其跡相去數百萬年復何刻舟膠柱哉故以淨光童子而易仲尼抑亦令人真學為主由學以悟本有而已故曰可以與人終日而不倦者其唯學乎其身體不足觀也勇力不足憚也先祖不足稱也族眾



不足道也然而可以聞四方而昭諸侯者其唯學乎今之禪人煩惱自不能除禪關自不能透工夫自不能精進反欲望先德之名以為遮謗得非所謂將謂如來惠我三昧不知身心本不相待平可發一笑。

### 富貴說

人知至貴之位莫如帝而不知所以至貴者非帝也人知至富之具莫如天下而不知所以至富者非天下也如堯之厥中舜之精一可謂至矣尚不能出乎塵垢糠粃之陶鑄所以讓由而巢父洗耳推卷而子州憂幽是知至貴不在天子也道也至富不在天下也德也莊子云道之真以治身其緒餘以治國家其土苴以治天下斯言固是矣然而保道重德者又不在是也南陽眼底視輪王于電光懶殘口邊記宰相以煨芋王荊公云我得湛堂一句語作宰相古尊宿云參禪乃大丈夫事非將相所能為此語非好異之說真入理之談也稍有背道德而尚華識者即桀紂幽厲猶不能竟其身況乎索鹽奉馬之眾哉可是道者要當另具一隻眼始得。

吹萬禪師語錄卷之十七終

說

勉學說

做詩不參禪不是好詩作文不透宗不是好文託詩參禪不唯有好詩兼有好禪以文透宗不唯得真文兼得真宗真宗運夫筆端不須學問而顯了學問也好禪道出口頭不須情境而挺特情境也山前一塊閒田地又手叮嚀問祖翁幾度賣來還自買為憐松竹引清風此白雲端會悟語也何嘗不是詩身名者乃是大患之本也愚人無聞為妄見所侵惜其所不惜而不惜其所應惜不亦哀哉吾蒙佛之遺法不復有爾也此提婆尊者示外道語也何嘗不是文惠崇煙雨蘆雁坐我瀟湘洞庭欲喚扁舟歸去旁人謂是丹青此山谷居士詩也何嘗不是禪言而足終日言而盡道言而不足終日言而盡物道物之極言默不足以載非言非默義有所極此漆園傲吏文也何嘗不是宗吾願諸學人體是四老則浸種插秧飢餐困寢此夏亦不空過。

義說

世諦有三義聖列恩選州縣合會有同年之錄鄉科試舉各省會合有同年之錄會試殿選天下合會有同年之錄三者義也義存則道立道立則德備所以為大賢之輔佐神器之條理代代法程歷歷雅訓清而不滂光而不昧況復今之參禪者同一師範則同一乳哺之孩同一結制則同一入聖之胎又何啻同年錄哉且彼同年之義氣不唯交處于一生而殷厚流傳于數世較之同師同參同制同學同了生死又當何如恐一言不合而別之一事不和而離之是則出世之大義反不若入世之情長也然又有一說焉主忠信毋友不如己此則酌其取捨之法三人行必有我師此則審其從改之理我之大賢與於人何所不容此則徇其寬義之量處友之道必兼是三者而行之間或有援宥援拯之來自暴自棄之去予只作芻狗視之夫復何忌若如演祖見衲子有節義而可立者室中峻拒不假辭色察其偏邪諂佞所為猥屑不可教者愈加愛重此又另具一隻眼。

講寶訓說

儒云弟子入則孝出則弟謹而信汎愛眾而親仁行有餘力則以學文可見吾人日用四威儀中純是學問根本即成文亦在有餘中得力也今之叢林

既有學人若以有學為學則類愚法小乘矣若以無學為學則類斷滅頑空矣要知日用威儀原是自然學問須是著著勿使放過始得以此會其古人心法則知古人所說都是我家語耳宣聖有言誦詩讀書與古人居讀書誦詩與古人期故有亦不捨無亦不拘是以聚雲于未結制之月每遇四節日常誨寶訓一兩則俾學人知從上尊宿為人為己之德也近因臨邛劉長倩居士問道錄亦以是說勸玄墓云接人之法勿論僧俗先要熟讀一本寶訓然後參學未晚此救末法緊要之書也願常舉揚以激後學此語正符山野方便之懷惟冀諸方慎勿謂余牽藤引蔓乃可雖然如是怎奈老僧無舌何。

### 閱藏說

或謂禪宗不立文字今日閱藏何以事此糟粕耶吹萬曰若是不可以語道也昔達磨大師以楞伽四卷為傳佛心印二祖受之每常教席以開學人使學人性相不昧心色交融時稱禪教並行宗說俱唱者也況復馬鳴有起信之論龍樹有智度之談此二老者西竺禪宗之大老也孰謂渠事糟粕之說乎且禪是佛祖所傳之心教是佛祖所說之法皆不離一心上體用以示將來豈得已也故百丈清規有知藏之職謂以佛之所說所行為教律而僧有不遵佛之言行乎又謂祖師之意欲吾徒遍探諸部與外之百氏期以折衝外侮應變無窮所謂不即不離者是已汾陽無業禪師參悟之後猶閱大藏八年方始垂手大慧祖師見圓悟老人之後猶閱華嚴纔得打失布袋今爾以世尊血脈挑開同類鼻孔則與閒讀出師表者又當何若切勿聽邊見之徒累人累己也倘能十藏經中拾得眉睫之寶便可道得禪教不干一句且道如何是禪教不干一句雪壓冰魂香滿地睜眼莫作嶺梅看。

### 叢林說

違宗者喪忘本者失亂舊章者敗此易知易見之理何忽之多也且以叢林之事論之叢林規範自先佛如云支提蘭若鹿苑雞園祇林特山皆是而曰禪堂者又自震旦馬祖百丈始也夫所謂祖與禪者何義一佛出世必有一依報世界一世界中獨以本佛彰名後之得法者皆稱為祖無乃謂祖述之義也禪者佛祖相傳之心也是心念念不住泛若湧泉之波熠熠紛飛動如仰荷之露倘不安禪靜慮總須茫然故禪堂專為修行結制之設此不違宗不忘本之元龜也夫所謂規範者又何義叢林之初先定方丈次而寢堂法堂次而正殿僧寮蓋僧寮即禪室也諸方衲子雲集之處正殿即朔望兩弦朝賀之處也法堂即和尚登座說法之處也寢堂即諸執事朝暮請益之處也方丈則和尚獨居焉至于執事列十局頭都監監院座元維那典座副寺飯頭知客直歲化主之十者要皆銅頭鐵額追楊岐為山之遺風忠心實

腸履睦州京賓之故轍此不亂舊章之典刑也國初已來猶有存者迄至以四家評唱變易宗風則法堂沒矣近代幸有壽昌博山並今之金粟聖恩雖未親詣其跡觀其語錄亦皆不背宗本山野切嘗歎之天下一人之治也世界一家之器也即釋氏之教佛祖共說之一法也釋氏之禪佛祖相傳之一心也何行持之不一向背之有二然則天有至精地有至粹者有已夫天有至幽地有至戾者有已夫曰斯言信之矣觀爾川源以及吳越只一帶耳其地無不同其境也其水無不同其周也其梵宮無不同其廣且眾也彼則宗其宗而本其本不亂舊章此則違其宗而失其本錯亂舊章果幽戾之氣局定與抑亦困而不學甘下與今之欲循舊章以立宗返本者不必求之天時也不必求之地利也獨求之和而已和者何也內則同其心也外則同其事也用則同其利也守則同其道也吾聞諸經籍曰僧有五德僧有六和今日不德不和是則為禿居士矣何僧之有儒云禮之用和為貴先王之道斯為美是合一致也宗本舊章一和以蔽之焉用贅。

### 堂說

古人執事都要皮下有血漢子方許承當至于初機學人安入僧堂俱聽悅眾引領座元陶鑄今此叢林既有大眾當效古規不可尋常怠忽務須努力精進十二時中一切智門行門功用門各隨炷香一頓放參止靜出入分明只待枯木聲響觸體睛動那時任爾七華八裂去也。

### 論眾說

百丈開義田地藏種田博飯為仰高低平得恰好皆以農務為佛事也茲者豆枯水滿秧有節卻是忙底時候大眾除夜分辦道晝則隨喜普請始不負古人勤苦之意。

### 久病不愈說

魚頭棒上三日痛華座身中四折腰看來定業分明在二十年來媿冤袍此瞿曇老子戒賢論師有是身不必脫是苦也我今何人哉身與心與古同也內與外與古類也一病十二旬強脫之是不同矣苟免之是不類矣知其不可奈何而安之若命是余修俟之道也然又安知余之擊魚折腰之有類哉然又安知余之冕袍害生之有同哉是眾與我皆不得而測也請咸勿疑。

### 示學人心病說

參禪人若有我執不除譬如腹藏暗疾忽遇發時為害不淺教乘謂見惑八十八使思惑八十一品及作止任滅證悟了覺皆不離我相此特界內界外細中之細之執也且勿言之姑以日用二六時中麤相略為顯示如清晨報鐘一鳴大眾下單執事此古規也或乃念云正好睡著又被催迫甚麼此我欲睡眠也起身穿衣遇寒即念單布凍我何可得綿遇熱即念綿衣累我何可得葛此我愛溫暖清涼也板響洗面又念同眾則濁各洗則淨此我愛潔淨也煎水未至則論茶頭不矩此我愛厚己責人也上殿禮佛或念當前不前而在後逼我當後不後而在前障我幼小不宜左右而左右擾我此我愛檢點也佛聲或有高低不齊則耳根返為不淨此我愛分別也入僧堂粥又念是粥乾耶是粥稀也是鹹菜耶是淡菜耶此我愛調和也經行後二板茶湯又念是茶陳也是茶新也淡乎醜乎此我愛養情也止靜上連床眼入黑水按葫蘆耳向簾外作應捕鼻孔遭觸忤舌嚙牛齧病意在四大打野裡身根放死不得死放活不得活此是見有坐禪不能人法無我矣開靜後或小食或中飯念頭又在三德六味上鑽研此又成貪戀美食之我矣遇普請出坡消遣興也又念正好自在卻又造作此我不隨順遊戲也善知識或行或坐當宜請益又念欲問語恐不中和尚意欲答語恐不超眾人見不超不中未免耳紅面熱此病陷于困井不能萃而升之也從上諸病皆是老僧一一害過底都原只為有身只為有我論語云毋意毋必毋固毋我老子云吾有大患為吾有身苟如無身吾有何患莊子云吾喪我瞿曇云無我相無人相眾生相壽者相此古人治我之法也我病已害矣然則知子莫如父爾輩有麼有麼若有請以古人數句曉語醒之此又是老僧嘗過之藥耳雞鳴當早起披衣徐下床兩手捧香花供養佛法僧此可消貪睡之我矣窮釋子口稱貧實是身貧道不貧窮則尋常披縷褐道則身藏無價珍此可消貪衣之我矣四大無主復如水遇曲逢直無彼此淨穢兩處不生心壅決何曾有二義此可消執淨之我矣師誦此經經一字字字爛嚼醍醐味醍醐之味珍且美不在唇不在齒只在勞生方寸裡此可當清晨一甌蜜湯矣能禮所禮性空寂感應道交難思議我此道場如帝珠諸佛菩薩影現中人此可無檢點之我矣同行同坐又同臥水石江山穿透過無面無唇無舌頭巴歌雪曲隨他和此可消入眾分別之我矣學道不通理復身還信施長者八十一此樹不生耳悟此則消我愛調和矣清風習習徒爾言趙州言下太無端一口和甌百啞碎方知此話不周全體此可無養情之病矣飲食于人日用長精粗隨分塞飢瘡嚼下三寸成何事不用將心細較量此可消舌根之愛矣處處逢歸路頭頭是故鄉本來現成事何必待思量此得普請遊戲之妙矣當知眾生心內佛為佛心中眾生說法佛心中眾生聽眾生心內佛說法又當知眾生心內佛無法說佛心中眾生無法聽悟此可得問答無礙矣復有三個神效方兒不妨以禦不虞外息諸緣內心無喘心如牆壁可以入道此單治坐禪方子也任性逍遙隨緣放曠但盡凡心莫存聖解此單治十二時中執礙也懸崖撒手自肯承當絕後再甦欺君不得此單治大事不明也若能透過

此葛藤自然頭頭上顯物物上露入水不溺入火不焚奚獨消其前病即見思諸使共我無生矣絕學無為閒道人豈虛稱也哉。

### 念佛即參禪說

古人謂課誦乃智淺之學余謂課誦實最上之學何也課誦者朝暮日課也猶之日用飲食不可乏也如參禪以提話頭為則或參父母未生前或參萬法歸一或參念佛底是誰是必十二時中勤參不歇方纔契悟課中之早參云妙湛總持不動尊首楞嚴王世希有此非話頭耶將此深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此非話頭耶稽首華嚴真性海種種光明遍照尊此非話頭耶逮至晚參之課中云臨終西方境分明在目前何以分明在目前耶見佛了生死如佛度一切是見何佛而了生死耶八萬四千相好光明以何為佛之相好光明耶此政禪宗點眼之句也且始以金剛上師為先皈依而後皈依佛法僧是何義耶發願不求人天聲聞緣覺不求信住行向權小之菩薩單求最上一乘得諸佛同體之大悲余故曰非智淺之學乃最上之學也又看普賢神通以一身遍禮塵刹諸佛而塵刹世界之普賢不少會塵刹諸佛于普賢一身而普賢一身之諸佛不多此是甚麼境界古人只為此事難明故拈教中極則之語令人朝暮向三寶前參究耳彼所謂智淺者學才高者不學何其太過歟是皆昧其日用自覺之現量也趙州以粥飯二時為雜用心但不知不雜用心處所作何事。

### 楞嚴首戒說

毒天下者莫如色毀律儀者莫如姪試觀南巢之放妹喜何追珍衫之焚妲己安在猶可哂者舉火娛褒姒則壓弧箕服之謠豈徒然而歌之耶又觀晉之驪姬磔戮君臣昆弟于五世越之西施懸笑諂媚奸邪于隻眼況復漢高仁豪幾落人雉之手而彼拔山舉鼎者疇不有柰若何之情也乎美哉狄仁傑之服罍易周也陳玄禮之逼貴興唐也抑亦屏其邪侈雖具正因也者求之高岡之吟既鳴之詩千萬世之下胡為而得焉此特為世諦重誨耳若夫真諦之中如楞嚴之登伽女寶蓮香比丘尼此又可為諸有學者戒且白膝之脛一覓而信衣之失傳無辭安望煮沙石以成飯而強圖其禪定之妙也與今之律儀既毀欲得維摩再來與之赫日銷霜雪者難矣故曰毒天下者莫如色毀律儀者莫如姪也若曰怒痴皆是梵行此又是殺佛殺祖說話余不得而知。

### 循本說

自耕稼陶漁而有舜是帝者之不必貴于貴也矧古王師佐弼之卑有磻溪漁父焉莘田耕夫焉板築傭漢焉暨之擊牛角弄刀筆彼彼皆寵望螭頭雄于三旌之位者若必入絳紗討文句形身而閉園聽雞語則不勉列鶴麗譙徒驥鎔壇而域中奚有此四大哉孔子曰為政以德譬如北辰居其所而眾星拱之孟子曰堯舜之道不以仁政不能平治天下由是觀之欲為毘紐者不必託椒房而出右脅然後為毘紐也即屠兒甲女亦可得自覺聖智相蓋德有所自來仁有所自出矣故余所謂帝者不必貴于貴也王師佐弼不必絳紗閉園聽雞也老子云數輿無輿不欲瑤瑤如玉落落如石噫余豈肯以鳧鶴較短長鯢鯢論小大而自惑其缶鍾之惑也夫。

### 示解初說

解初禪人自峨眉來過臨江入吾聚雲道場而任鴻漸之調其質常朴素若與買毛褥求紡絲者大不相肖焉一日告余曰祖佛語言吾不能剖皮肉而探骨髓且宮牆數仞縱目寥寥何日為我歸也與其默痴林下不若禮名山勝水以廓吾目受量器緇衣以束吾身不亦可乎余繹其說而曉之曰若之曰純是山水名勝具焉若之心純是衣鉢身自束焉但能狂心一歇歇則菩提而大事因緣何嘗離汝舉足動步也歟哉亦何嘗落于祖佛語言也歟哉只汝這個不自承當耳儒有云駟不及舌不免隨順為之更聽一偈子規啼處落花愁旅客途忙恨不休莫待山窮水盡後翻然破鏡識狂頭。

### 勸人無諍三昧說

妄智躁言鸞鳩與鳴蜩可恥為盈銜色培蛙共河伯當嘲且執熱以無澆猶及溺而甘載莫識蓬蓬之勝大眼睫孳喧豈知默默之玄精邯鄲效走鏡裡徒紛需役舌邊罔緒于謳朝菌匪長南面之王孰美渴麋奚止中央之帝誰堪休持壘結羨遊心只須頑鄙貴食母。

### 安足說

許由曰庖人雖不治庖尸祝不越樽俎而代之矣審此一代字則見堯之所治者許之所隱者也許之所攝者堯之所用者也故曰禹稷顏回同道稽彼思大禪師宴息林下而寶誌公垂手市廛一日命侍者問思曰和尚何不度眾生枯坐此山何益思大曰三世諸佛是我一口吞盡有甚眾生可度這一轉語不唯杜絕誌公舌根亦可坐斷天下人只令世出世法坦坦如也所以欲立欲達之詞正吾門自性度自性學也諸仁者但歇緣心萬法俱備天上天下都南都北也不過恁麼個。

## 示眾說

數年行腳只為訪個擔土底做得舉業求科第底執得御耳擔土人做得舉業是好眼求科第底執得御是好手如今擔土者只知擔土求科第者只知求科第縱不能開眼垂手還算得一半況復以擔土事狎科第者以科第名壓擔土者全與和尚不相干涉姑待三門裡老皮袋做模打樣竟也不免挂塵抽竿東京西京天上天下與人扶正鼻孔作一場扯淡去。

## 為鬼因緣說

若人欲了知三世一切佛因觀法界性一切惟心造賦相各由心隱顯無欺詐原無造化功群生自造化諸佛子等夫鬼者識也散陰合陽返陽入空名佛名仙散陽合陰返陰入沉為鬼為地獄陽者鬼也陰者魄也只因眾生謗破律儀犯菩薩戒毀佛涅槃便起十習之業轉墮無間獄中魄者七情也情屬水故沉復以業火燒乾情水則地獄因窮果盡宜當生上而為鬼趣所以貪習為因者則附金玉之物成吝為精而為怪鬼姪習為因者則精髓乾枯發燥而為旱魃之鬼詐習為因者則瞞人瞞己而為魅鬼怨習為因者則懷恨于心而為蠱毒鬼瞋習為因者則惡念不止久即神衰而為衰敗瘡癘之鬼慢習為因者則虛驕恃氣空腹高心而為餓鬼誑習為因者則潛心陰昧而為魘鬼見習為因者則精明不絕而為恍惚杳冥之魍魎鬼枉習為因者則高妄之心不絕而為天神役使之鬼訟習為因者則結黨羽以相執互相造事穿鑿是非而為傳訟鬼蓋此十種鬼形不離十習十習之因由于識性所謂一切惟心造也汝等勿謂自足鬼身畫地自限不求出劫之因然菩提圓性天堂不有地獄本空皆由妄想造業從因至果于惡業中漸次相續不斷倘能皈依我釋迦如來正法眼藏即今喧說者是一念徹悟此即發真歸源十方消殞復何鬼趣之有哉諸仁者要知一念還真處只在啾啾號叫中。

## 遼豕說

熱續苦茶世所謂襖與芹也敬在野人設非智者止而嘗之則不罹于烙鹽必落于磔流矣是故智者識也識其所以而以也遼稀之所出白顛者花之謂也遼人寶之且而上之繼而適楚群有之是則德儒之雀雖貴鮮不投乎[歹\*蠶]場田夫之雉雖榮但不親乎御目豕也者然則適楚而知之也我果齊人哉管仲何智晏子何清子皮何塞叔牙何爭米賊孰重谷賊何輕尸雞孰怨醢雞孰親東家之丘猶不足西家之齒左袒之榻何以歡右袒之衾豕乎豕乎吾何以喻之乎。



## 從實說

靜齋劉學士著三教平心論不以生滅之心論不以人我之心論不以是非之心論唯平其心地而論之也吾宗若得此學士再來亦平其心地而定當之則左袒于馬祖者不私意于馬祖右袒于青原者亦不私意于青原矣余嘗見先輩後學中有在馬祖之下為敵侮者樹旗鎗而衛于馬祖有在青原之下為敵侮者亦樹旗鎗而衛于青原噫可哂也大慧禪師云原初直有一個達磨何處更有許多門庭若執而行之是猶八萬四千戶虫在達磨皮袋裡各分疆界互相矛盾乃云肝不如脾腎不如心彼痛異我痛彼思異我思其在達磨分上孰為彼孰為我又孰為所分疆界哉此蓋以一脈傳來之說也若欲分宗列派不可緣其枝葉務要探其根蒂西天般若多羅祖師識云震旦雖廓無別路要假兒孫足下行金雞解啣一粒粟供養十方羅漢僧此記震旦有馬祖也六祖謂懷讓曰西天祖師記爾有馬駒踏殺天下應在汝躬此見天下禪宗之跡皆由馬駒之腳而踏之也若曰百丈下有為山臨濟天王下有雲門法眼石頭下有曹山洞山其傳法如此其門庭如彼某因某而悟誰因誰而證余亦落為達磨之戶虫矣具眼者自看始得。

## 策進說

施主錢糧原為精進三無漏學者設至于看外學廣見聞乃餘力也還要參究自己大事透徹祖師宗旨始可報佛恩檀越恩今後如以文墨公然為事以妨正悟者罰。

吹萬禪師語錄卷之十八終

## 緣起

### 治平寺燈田緣起

冰輪有光而晝不足火鏡有燄而夜不足唯玉蟲金粟者所以繼黑月之不足也故卓吾氏有所取焉若夫華嚴偈曰十方所有世間燈最初成就菩提者之句是又不可同日語矣何以故嘗觀五燈會元首受乾竺之眼藏法燈紹夫飲光次輪華夏之心宗信衣傳于慧可正莊子所謂指窮于為薪火傳也而不以盡也世間燈者亦復如是逮後像季規宏則摩尼與與涅槃依依者若麟角矣在眼藏而莫知所以藏居心宗而莫知所以宗猶之窮兒背父醉客迷珠倘不以法相為相油燈為燈則皈依無進步亦猶正牆面而立之也者故梵剎有相金相有光雖繼冰輪火鏡之不足然亦假玉蟲金粟以曜其光耳茲正一僧之所舉蓋亦續治平夜光之所舉也世間燈出世燈在諸檀越法無相施始得。

### 施茶常住緣起

夏之月炎氣撲人吾曹幸得一念相應草治之故寥寥自冷淡耳時方掬泉飲而曲肱于樹下俄維摩羅執冊啟余曰漠田之郊有橋名木蓮者厥旁茅室一僧廬居焉其橋之左之右乃四方郡邑接連通衢之地所以樵人陟跋到此懷猶餒鹿客子登臨來茲空想談梅是皆欠其非衣主人而為設濟世之津梁也我欲造端以導之者勿使一人執而偏于獨覺惟憶多人結而普染遍知售以常住永設盧仝之館俾來者往者得親其趙州之法味彼怡怡然脫洛乎道路吾之幸也請師代引之余曰檀波羅蜜不患寡而患不實倘如居士之志願竟成福業福德自有所歸審其前說則已引之矣又焉用我饒舌為。

### 說法華經緣起

余觀釋氏之經法有三乘喻以三車惟最上一乘久久神栖恍若乘莽眇之鳥而出乎六極之外非繫瓦結繩竄句遊心于堅白異同之間者此法華經是已故瞿曇以火宅喻肢體藥草較品物蚰蜒比情愛長者譬天心總令人人于這裡掉臂潛形使金石絲竹勿聒耳青黃黼黻勿障睛蘭芷膏火之不煎也為善男子輩不可一日不讀是經而聆是法為僧伽耶輩又不可一日

不入此室而跌此座也所以報恩禪刹近有肇鹿苑招提者三兩眾欲舉是道場而勸諸族姓俾得聆之者若以忠信為甲冑禮義為竿櫓而暴氣自化耳倘不以勞病為怒相馬為喜者亦善。

### 重修五顯祠緣起

或謂斯神者應化之跡也有矣夫余曰有但不可間間然謂之神也而其神有所以也何也嘗聞荊公云三代以前聖賢多生吾儒中三代以後聖賢多生吾佛中據斯神之應化也始稱妙吉祥似列于曇無竭之流繼而序轉輪又曰靈耀太子歸于蒼蒼之極入南天為橫天火犀返吾釋則普諸伽藍若然者之儒之佛之人之天是德符于三元三醜矣荊公之言詎屬誣歟是神也其宜崇廟貌而妥厥靈也當亟亟矣第向昔曾構數椽于西城之隈乃來忌于燧人氏竟灰燼之三今僧復欲募而鼎剏之異日落成則神妥靈而虔可告其所以庇國安民而惠澤臨江并沛福利屏岫爭峻矣諸檀越勿謂募僧為多事概啟朱提捐白粲共成斯美則七文報德更如影響是為贅。

### 造佛座華嚴經萬壽牌緣起

古人建刹豎草出像移瓶轉琅函則遶繩床而晏息若斯志者放意于千岳萬壑之間日飽金粟以遂餘生彼何倦倦乎此固不可與買毛褥求紡絲者同日而語也然今薄伽既徂招提尚盛七軸蓮經白雲生于虛空一聲漁父皓月現于空潭倘不以百尺為竿孰能窺雙鶴清煙于兩林之下哉如斯海上人之舉者剏立已不勞豎草矣且依依法王靈靈貝葉及望朔祝金輪之式縱有移瓶遶繩床者來亦猶張咸池之樂于洞庭之野夫何以快聞是必從權而導庶幾褊袒周匝則有黃面之獅座也頻伽共唱則有善財遍禮之華嚴也稱讚龍飛則有初地應化之萬壽牌也于此三者果其願則千岳萬壑之風可即色而空也惟諸檀越概作無相施之助乃可。

### 淨土菴造彌陀法身緣起

或人謂垂手大師結座西乾而揖受諸族姓者茲則鑄像索訶詎不相錯迦老折伏之門耶余曰不然子未探夫斯妙者也余謂東西之跡有異而東西之理無殊吾以一心觀釋迦則折伏之門斯在也以一心觀彌陀豈攝受之門不我斯在乎有能遊于無何有之鄉以處壙壤之野者則無佛不心無心不佛倘不其然必造像結社規規乎闐靜之道場而夫出頭之舉想此高山淨土菴亦復如是第鼎無種子安能以水火煮空鑿哉此亦必振鐸四方俾俗有淨信善男子等共捐朱提白粲以成功德當來報應何啻以一笠七文惟願與垂手大師瞻瞻于左右為是。

## 石坎廟重修關聖殿緣起

余聞闍黎氏之栖遲也孰肯背摩尼而逐外物也歟哉孰肯昧清眼而執圓影也歟哉今之淨啟僧者謂法願王行其履不析骨然臂也謂法懶公儀其處不煨芋拭涕也胡以鷲嶺之徒而莊嚴漢侯之廟貌不亦適燕南行乎彼則曰非也師獨不見夫三十二應之妙耶關聖之蘊德非淺矣某欲徹稱之是猶道堯舜于戴晉人之前喁而無益然斯聖之在天為使者地為外壇釋為菩薩一月三舟則何異于大士也石坎之所崇者若豚子之愛其母者非愛其形也愛使其形者也某不以懶惰而廢平等慈正不背摩尼而昭昭清眼矣師何慳于引余曰若既不廢平等慈而慨然振鐸于四方想能識斯聖者自有不作住相施者在又焉用我饒舌贅。

## 興龍寺華嚴會緣起

海人謂一葉之舟能泛滄溟之波于紫石聞者曰是余則謂一葉之舟能載滄溟之波而泛之靈荒聞者曰否山人謂鷓鴣小鳥能鼓兩翼而之蒼蒼之極聞者曰是余則謂鷓鴣小鳥能含蒼蒼之極而入營虹之腹聞者曰否蓋華嚴之體相若海之與空而被華嚴之所轉者若舟之與鷓鴣也倘平常踐履處翻得筋斗換得眼睛扭得落鼻孔咬得著舌頭何啻鷓鴣納蒼蒼舟載滄溟即五十三員知識百萬億千樓閣亦吾人方寸中些須耳如或未然且聽天真禪人導諸檀越演誦一過何如。

## 弔巖山接引殿緣起

仲尼謂西方有大聖人然則既聖矣又何稱大哉如庖羲氏祖三皇而觀五帝演河國以判太極繼而堯而舜而文武周公約其一域中四大而為不拔不脫不輟者詰之天地之外乃曰聖人存而弗論其大特跡之云爾至若瞿曇氏覺侵藤之二鼠難瘦卻觚稜而輕象魏揆失阱之四蛇莫化謝培祚而遠黼辰是轉輪王之不為而落落乎雪嶺也彼且易大千為耨池之蓮徙之東遷之西而與人與獸與山林渺莫探其搖蕩之根本者如之何其大也耶此仲尼所以稱之者宜矣余往歲以抖擻行腳而之墊邑鳳凰山有弔岳老僧碧天謂余曰是山之靈固得一矣師善為我引否余曰引必有由然矣碧天曰峻極之巔居普賢覺有情也第闍黎之依依者如女畫吾想索訶可欄楯旅泊可重行而大聖人獨不藉相好臨斯山以垂手乎倘不怯冥搜概為之說果成厥美則伽陀有建白丁和風穴同能布薩乃成南泉與藥山並智機用重逢實拙朽之幸也余繹其言即為之傳灼然法于為之賦返忠南啟余祇園主人侍御田公為之緣起碧天為無鄰年來憚而不行余專務其所義語之曰若寧作曇彥之待時不可望非衣功德主于三世也激之以振鐸

為任或者王旦捨宅一飯之瑤臺奚止蘇軾捐簪七文之幔閣焉需此則欄楯斯猷重行斯續大聖人亦斯耀眉間矣餘慶何足以盡諸。

### 建菊隱菴緣起

夫碧虛湫盤皆自大冶中陶然而百昌眾甫孰豈外是哉第以凡陶聖人陶天此又不可同日而語也山野于這裡稍稍踏著美納涼于桑下焉故藉方袍之梵相以顯翠竹之法身假員頂之儀規而用黃花之般若一瓢一杖洒脫風塵久矣但狂心歇處不可無熊岫牛峰詎獨薄伽陶飲光尼父陶亞聖而近代杳絕其斷臂旁出之流者耶所以適忠郡之南有峭壁高巖上則茂林虎穴中則平基三級而下則洞口號濤之清流橫遶而出若建支提集抖擻菊隱乎間此其處也且禪人居士兩諦同緣于左右必欲山野為菊社長逮非衣功德主人又在振鐸中求之也倘斯舉就緒則烏曇重輝白毫復展七軸談于石上邊戍咸玉馬之調三聲扣于弦中大地普金泥之質而況錢生錦幘笠產彤墀者哉夫如是則凡乃聖人乃天自聖自陶自天自鑄也惟諸檀越喜作無相施共成無漏法俾執事導引者得以是為勸。

### 建十方堂飯僧請藏緣起

一塢白雲三間茅屋固是僧伽耶之棲遲矣設直以草木一易為歲時而弗展兩片皮播揚佛法懶拈赤幟竿單提宗鏡則不被黃檗斷其雙足者或寡爾第敷寶華王座而拘拘以列石為任者非也入廬垂手而不以檀度為先者亦非也夫何以知其檀度為先耶過去菩薩有內施外施無盡施皆效三輪體空而不執相故得波羅蜜然導之者必法平等慈否則類大迦葉與須菩提而有不均之謗矣是知敷座垂手僧伽耶事也雖事也而實非事為事也內施外施宰官居士善男子善女人事也實事事也而非虛妄事也山野自香山普陀還蜀挂錫南賓維摩室乃遇無無大居士田侍御賢喬梓泊通郡縉紳士庶勸建聚雲叢林相留貯錫焉復興黃侯正受故事勸註楞嚴夢釋圓覺點眼石室禪議一貫別傳原易說傳燈居士拈頌數書成而往來就學者益多其叢林也既欠二時之粥飯尚無六攝之繩床縱棲霞坐月松花難飽于法喜衣荷煮雪樹蔭罔庇于帡幪似不可不振鐸四方莊嚴三寶而為諸檀越作無量福田也嘗憶經云若人募導至萬人即是現在阿羅訶山野詎敢覬覦先德陳跡祇作一浪子憐客貪杯識醉已耳倘諸檀越概發無相施則七文有驗彤墀映黼辰之座一飯曾遷青衣閃玉霄之臺況復雲水延集即晏坐有茅屋也貝葉盛函即樓閣有法藏也禪悅盈餐即聚落有香積也波羅蜜當斯已坦蕩矣願以一邑不足募之一郡一郡不足募之一都總不越平等乞三輪空也故標題曰萬福因緣。

## 弔岳山飯僧緣起

息如也居若靜滅如也處若陰斯則跡與影而俱渾矣庸詎鑿機發銳而花其四心也與哉庸詎鼓善唱美而瀆其名實也與哉吹萬野人曰是不然于陵仲子瞎眸而取李可不謂息跡滅影耶孟軻氏猶以丘蚓而加諸辭蓋不可作賢聖階梯也我教有闡提薩埵者即先覺覺後之流也四住獨偷者即欲潔其身之類也但闡老子常部分以為勸故經云彼一闡提非一闡提世間解脫誰轉今某禪人迤邐吳越訊參德宿豎醯羅之日于腔子寂寂厥真執檀度之幢于乘門濟濟厥士且不違行相三昧以飯僧津筏為諸檀越設是非獨倫潔身之謂也然諸檀越亟宜擲貫傾囊共法第一波羅蜜亦可謂施受得人播種得地矣闡提薩埵當以是自取。

## 巴臺接引殿緣起

雲裡半間茅屋松下一井清泉寧不為抖擻栖栖耶第緇衣者流必具六波羅蜜行而六波羅蜜中又以檀度開先焉故經云菩薩有內施外施無盡施倘不有受施輩復何稱三輪體空哉南賓郡西有巴臺古剎剎右廊有接引如來像即宣聖答太宰詔之西方聖人也彼佛鵝皇手墜孤光遍法界樓臺獅子音輪花雨浸有情階砌是以乾竺震旦無不與與醞酬依依甘露正巴臺劫住之初心若是耳令也廊頽像褻莫之獲修幸值德星懸座蘭若逢三十二身恩澤流空支提醒千七百則蓋亦佛事中興重整衰替之時也鄉以雲裡松下為止者今可作普化振鐸矣鄉以廊頽像褻為憂者今可望子明捨宅矣惟冀檀越宰官居士肯法無住施胥成厥美則緇衣之行有進宣聖之讚重光而接引之範益新矣壁題金馬夢送朱衣錫福何足以盡諸尚有究竟到彼岸為彼佛之願云。

## 行腳緣起

但闡阿竭以檀波羅蜜為世間作賓天之緣厥郵自飯僧始然飯僧也者又非不擇例也是中亦有義焉故經云飯常人自不如飯持五戒者一人飯持五戒千人不如飯一須陀洹乃至飯百千三世諸佛不如飯一無心道人所以謂之無心道人者一笑傳心波濤少林之髓三敲續燄火遺窮指之薪斯蓋以叔世無古錐特推之為鼎內鹽梅也況茲禪人某足發蠶叢欲航諸海上篤志慈門自甘為抱珠乞兒藏珍衲子亦詎敢以道人自期耶無乃遊冥之鴻鵠已耳奈之何當斯際也曾參之商頌易歌而阮籍之途哭難泯碧眼之蘆葦雖摘而宗慙之長風莫將總欲炊糜匙豆粟買舟無杖頭之錢也似不可不振鐸于大檀越宰官長者倘肯助朱提白粲或以聚糧或令裹腹俾航海之願重新而無心之德倍進檀波羅蜜不即斯人而疇與之有。

## 刻錄緣起

是道果無言乎言而莫知所以言也厥言既出則有寓有重有卮有緒要其宰無越乎環中之樞機耳山野自律祝染而席珍蚤謝聿徜徉于芻粟松巖久矣詎謂無言無言則滑疑之光不耀詎謂有言有言則天鈞之兆奚至故不有而有不無而無是而寓重卮緒之辭若風之寥寥葉之刁刁而吹矣有應法勤策者曰柱下伯陽居景室而撰玉牒浮提氏之國君獻二神人焉瀉以壺汁瀝以心血而錄諸書始得火傳不息今聚雲以斷臂單傳之髓不作自了見刻傲馬鳴之中論析破覺巢繼步一宿之證歌掀翻靈府曷翅攝生盡性即家國天下亦弗外乎是也吾曹忝入函丈獨無瀉壺瀝血之想耶但只孳孳于振鐸間以布棗梨之永庶幾乎薪之不窮于指也吹萬野人曰善。

## 重修寶聖寺緣起

泌水衡門芰衣松茹此刻意高尚而以草木一易為歲時也者設遇執爨洗器勑豎範容之子殆將面牆立之而已矣故我但闔阿竭提人有秩鞭策有浸若廢執洗勑範之用而存泌衡芰松之寂則水淺而杯膠不能飛之以無翼也若廢泌衡芰松之寂而存執洗勑範之用則國倫未得而匍匐失其舊步也若兩者俱存而廢天真之佛是猶認指為月詎獨忘月亦忘其指矣余受陳村請敷禪那座過南城寶聖會諸禪人晏席間有執事者喟然而啟曰天下福地七十二區而西川有七焉今之馳騁四方乃以愁中函谷夢裡磻溪恒齒頰而不忘者得非抱鏡狂走之流耶孰肯效獼獠葉落而更星海輝潤于粉榆之鷲嶺哉且此剎阜高宇低大觀之瞻匪峻人和地潔軒昂之貌易巍況復推轂每臨錫馬踵過顧雖我檀越主人鼎軸于當代然亦柱礎于瞿曇之時也余據厥攸論遂繹其辭以勸諸宰官紳士長者居士希規無相施概捐朱提白粲庶幾祇桓廣麗壁燄雙獲于禧田薄梵宏彰朱紱接寵千王旬斯則乘門之緒也漸志也舒等而極之即與寂與用與天真綽綽然履簡易而捷登矣吹萬子敢生許癡言。

## 重修清淨菴緣起

三間茅屋一塢白雲已<sub>巳</sub>是苾芻安居處若較古以塚間樹下者又為過矣何更修造云乎哉噫是不然當迦文在世有欲見而不得見者有欲施而不得施者逮涅槃際六天呈供四眾設珍唯能涕泗號嗟而已<sub>巳</sub>況復像季時代聆其法者窺其梵相不假導引而播種福田耶是說緣高城山麓清淨菴僧智先謂菴有梵相梁幾頽矣將恐褻座幾弛矣將恐瀆尚不振鐸于四境檀那抑亦法門退墮之流也惟諸喜心者希效阿難慕紫磨相好為助義。

## 建佛剎緣起

仲尼曰務施而不腐餘財者聖人也又曰有思其窮則務施況復如來第一波羅蜜而為諸檀越作福德津梁哉然施固有能施之者要先擇其受施之人能就信施而轉大法輪者如來也此果其人乎今之如來既逝厥像猶存像之住又在鼎構焉鼎構之成又在務施之士焉有檀越李君已布地矣地之外復有案盛之畚矣第梵宮相好必募不腐餘財者出庶幾成其福德津梁耳超然禪人丐余以是說。

## 南城山造佛像緣起

蒼蒼之極響空者至紛紛之落雨寶者真故求香必于旃檀而索海從于性水也如來藏身身之最尊者光現佛剎微塵數世界攝受調伏厥中茫博矣我太祖高皇帝乃稱西方有大聖人不言而化陰佐王度蓋由仲尼之知也第金像既隱維衛涉于三吳梵影仍輝釋迦傳夫東漢斯立相貽真俾薩埵有情得覲面皈依若窮性水而遺大海拾旃檀而棄餘香極于香而極于空也已南城古剎絕頂峗峨殿已重新燈已重光然于僧願不滿者毘紐三梵相也山野閱諸藏經云釋迦如來先以珍寶冶諸佛容後獲身為三十二相八十種好固是第一非常人可成第一非常事敢募大檀越公侯宰官長者履斯釋迦之塵成斯釋迦之像佇見三命飛揚寵錫璃頭雄拜印五枝挺秀襲延鳳閣喜垂儀檀波羅蜜詎待瑣瑣乎。

## 閱藏飯僧緣起

李長者云若廢文殊存普賢所有行門皆有漏若廢普賢存文殊所有寂定是二乘若廢佛存普賢文殊佛是覺義無覺者故所以佛為大聖人非以一事一理一法一行中得無礙智而成乃以一切事一切理一切法一切行中得無礙智而成也隱禪人幼事芸窗壯歸梵剎獨以性命是究不以文字語言為聰明計勤參聚雲數載執任知藏適聚雲有閱藏千日之期往來衲子挂搭支費甚繁禪人思之曰文殊智也普賢行也由智行以成覺義是所謂之佛也我今何人哉方將以寂定枯心而為之智行耶又寧以尋行數墨而為之智行耶方將以口頭三昧而為之智行耶又寧以威儀束身而為之智行耶意此皆一隅之覘也菩薩心者要以淨信檀度為第一波羅蜜果能勸得無住相之施則三輪體空金象隨生于果位七錢念重厄星消沒于王都即相即真即財即法智行之門有進矣山野聆其說殆不敢阻華嚴經云初發心菩薩功德無齊限余只聽其自取。

## 代作續藏水陸緣起



法從心裡得理向事中求此最簡易之語也故瞿曇氏法以心說荷兩被翡翠踏翻理以事彰竹焰為鷺鷥分破蘇長公所謂睹是法藏者如眾飢人人入干太倉雖未得食已有飽意又如病人遊于藥市聞眾藥香病自衰減更能取米作無礙飯恣食取飽自然不飢又能取藥以療眾病眾病有盡而藥無窮此助吾人一心之法也又謂水陸法幢惟我蜀人頗存古法觀其像設猶有典型虔召請于三時分上下者八位但能起一念于慈悲之上自然撫四海于俛仰之間此指法門一理之事也無邊上人鼎新榆里永興菴白馬馱來已就三車矣唯續藏四十函未備似屬缺典水陸道場科儀雖載而兩途妙像未設亦成虛式今還源者乃無邊上人之嫡子也運斤效輪子之徒欲補琉璃之夜月振鐸執普化之任期展白疊之西容願諸檀越宰官長者居士法無住相之施共成斯舉則簡易之道不離這一著向心法事理上獲得無礙福德性而與法藏道場永證無礙三昧矣長公之言豈欺我哉。

### 聚雲修造叢林緣起

象帝之先即無聲無臭之天故曰先天而天弗違後天而奉天時老氏得之寓禮發乎周代宣聖得之克己以授淵賢所云簡而約所履坦而易猶存釋氏之為盡也道之存曰西方有古皇先生善入泥洹今以返神吾欲遊焉此紫氣出關之語也儒之存曰西方有大聖人不治而不亂不言而自信不化而自行蕩蕩乎民無能名焉此答商太宰之語也我朝。

太祖申而廣之揆而細之重其陰扶世教暗助王綱也第斯先斯天者言詮之擊空無響示跡之觸途成滯方其無耶高堅前後之為誰執其有也意必固我何其病不有而有不無而無即言遣言即跡泯跡是所謂有物先天地無形本寂寥能為萬象主不逐四時凋此存而盡之之機也若能不有而有不無而無可入達磨西來面壁危坐教人參究得悟之妙也若能即言遣言白馬琅[王\*函]自知深密了義教人得免忘蹄之真也若能即跡泯跡必體梵網律儀衣瓶鉢杖教人隨類解脫之矩也三者備始可翺蘭若而興祖道續宗譜以接方來然後花笑鳥啼朝霞映枕流之浪舉措無非天也鳶飛魚躍晚照輝漱石之床寤寐無非先也奉與不違則不在我耳山野于斯擔荷亦有年矣每嘗夏臘結制同類相談莫不以單提半顯為闕限要以戒律精嚴沉魚落雁為晚進之繩縛故初制結之以戒學問乃操修之由講解誠訓誨之法故次制結之以學禪盡超越之談參入無思之境非言非默義有所極故三制結之以禪斯則古佛之遺規諸祖之法範通而行之不亦救世之全提乎所以太宗文皇帝云僧家務要遵依舊制各務祖風謹守清規嚴潔身心正此之謂也奈之何登巢入窟非棟宇不可為長飲水餐松非饗飧安能習久是故重修藏樓以廣學人之處也補修前堂以為安鉢之僧容也後卅十八高賢房以為參悟老衲之止也夫有若是之功德又不可不為諸大檀越之福田也。

高皇帝記靈谷寺云今天人師有殿諸經有閣禪室有龕雲水有寮齋有大廈香積之所周全莊嚴備具以足朕心矣矧乎釋子詎敢不事斯語耶惟諸檀越概法無住相之施不作彼此觀之想他日七文生象魏一飯誕瑤池檀波羅蜜奚啻象先之所矣請以是為意。

吹萬禪師語錄卷之十九終

雜著

除夕日戒語

臘月三十日到來家家敲門打戶個個腦熱頭疼只為春秋兩季未曾辦得所以臨時腳忙手亂大眾一番景色一番新寒梅鬥六出之花暗香浸黃昏之月真個是玉樓銀界霜華映閣下丹墀柳絮鵝毛鏗聲奏籬邊煙樹這裡會得可坐斷天下人舌頭也諸仁可從今向後不可于面皮上臉紅臉白口角內說是論非這裡不是你販紅白論是非底時候何也黃泉路上無老少地獄門前茶店稀試觀方丈調蔬鼎容納精粗若範圍不要煩惱嘆。

自在語

暴氣之賊存乎結積結積所致欲習所使犯之觸之如太山崩吐煙出火析骨分形九牛莫挽四馬奔騰敗道喪德皆由此嗔聖人無違傷之不怒犯之不較觸之生憐所以德厚為君子賢咄哉此物總為有己若能克己何嘗有爾爾我俱忘坦然蕩蕩不欣不厭何憂何喜任其自在號曰了事。

示學人法言

老漢十有五年曾聞得兩句山野之言乃曰人情濃厚道情微道用人情世豈知空有人情無道用人情能有幾多時只如今抖擻于堪忍界中白眼箕踞于松樹之下遍地人情何道之有老漢在這裡挽轉頭來人情道情一時放卻作一個沒巴鼻底懶匠得失無關於心是非不出于口行住坐臥隨緣過日好看那青山綠水翠竹黃花欲取之而不禁任運之而無差果然是富貴留人無如貧賤之肆志也呵呵。

閒筆

蘇子瞻與杭妓琴操論禪子瞻問如何是湖中景操云落霞與孤鶩齊飛秋水共長天一色如何是景中人操云裙拖六幅湘江水髻綰巫山一段雲如何是人中意操云隨他楊學士撇殺包將軍琴操反問子瞻曰若此究竟時如何瞻云門前冷落車馬稀老大嫁作商人婦操被激發次日即祝髮為尼老僧閱至此意覺不全何也若是當時琴操照前所問料想子瞻亦如是而

答煞尾筭他一句子瞻得不為比丘僧乎不免代答一上操問子瞻如何是湖中景瞻云朝霞搖動千絲柳夜月明開萬頃波如何是景中人彩毫筆底雲煙滿琥珀杯中字韻長如何是人中意不然絕粒升天衢不然鳴珂遊帝都瞻反問琴操若此究竟時如何操云相逢盡道休官去林下何曾見一人嘆今之誤將口耳之談妄為禪宗機用者只恐人一琴操進來不能把驗明白他日漏逗則上眉容易下眉難耳怎怪得老僧。

### 警語

孔子曰身體髮膚受之父母不敢毀傷孝之始也立身行道揚名于後世以顯父母孝之終也今吾輩剃其髮落其鬚別父母拋妻子有若不歸之客則跡已類乎不孝矣倘不入如來之室親法空之座著忍辱之衣果將為天下之窮民而無告全賴此法門以聊生者耶若是則何有補于世哉他日必將為地下之罪人矣。

### 永嘉集是非解

是非之說為釋其性中法執也若謂此理是有是無則著于是是即性中法執也若謂此理非有非無則著于非非亦性中法執也故云此非乃是是非之非不是無是無非之真是也蓋是有即愚法小乘之見解而是無即大乘始教之見解也非有非無乃大乘終教之見解而無是無非乃大乘頓教之見解也雖以非有非無之雙非破其是有是無之兩是然是雖破矣而非字尚存故云不著是便著非也若再深一層而以非非有非非無之雙非破其非有非無之兩非然非雖破矣而非非之字猶在既不是非即便是是此謂不脫對治門也故此非非有非非無即無是無非之真是然未到一乘圓教之不是而是非而非也故曰未是不非不不非不是不不是蓋不非不不非不是不不是者即不有而有不空而空也。

### 莊子外篇補

風謂目曰子居眉間睫底晶晶然未嘗出限也然而垂簾一捲則山河大地不縮而到之何哉目曰子獨不聞乎日天子月天子耶其出扶桑其入細柳冷然煥然江淮河漢溟海瀋潦詎唯攝且耀也而復各得其一焉矧彼黃者燦者升而不危降而不墜直令萬物盡絡乎光中而彼亦不往此此亦不往彼旭旭然天性乃爾古皇先生命之曰正法眼藏者取是義也夫子復何疑目謂心曰子之晝遊頂[寧\*頁]而夜伏坤源六窗之彌仰爾而潤澤者也何一毛一髮一筋一絡一理一事各踰各知齊挺齊覺又且剎那之頃過我門牆無拘明晦而黼黻文句幻術書方出不可勝數人不能備舉若轆轤然

旋我之側而我猶未知焉是播迦氏授子之靈而致之者與是子緣習乎陀那之技而得之者與心曰播智為識括識為智者若之主我之質也其體若太虛然太空冥冥無知也雲騰雨施雷風相鼓水火相擊而無不知也知則無所變變則無所實以八萬四千門易為一門則大德敦化也以一身化為千萬億身則小德川流也一不為加損多不為加益影而遊響而棲而莫之獲虛如也瞿曇氏用七法徵我而且不可得子又能輕詰我哉請子規若白而正若青而返子之宗俾與之偕同。

(莊子外篇有夔憐蛇蛇憐風風憐目目憐心之車而問答者唯在風止耳則不見風又問其目目又問其心也予遂生鄰女效顰之想而成魚目以雜珠諒莊老必不以文字驕人也並記之)。

## 諭眾

百丈清規謂祖師之意欲吾徒遍探諸部及外之百氏斯以折衝外侮應變無窮所謂不即不離者今夏老僧以殘喘之軀為病所累只自調捫未暇結制堂中考選知儒者知詩者知百家諸子者出為學人道破關節一則廣聖賢之見聞一則酬祖師之遺訓始不空過此夏。

## 示立僧洞然

西蜀古戎城舊屬楚國地即今之敘州郡也老僧寄色質于桑梓二十餘歲始得抽簪方外後自白下回卓錫南濱三次開堂展演臨濟正宗有南浦禪人惺然者居第四座每入室暇詢及鄉里乃籍南溪邑中是亦古戎城之所治也老僧先有誓言今天下之域路若羊腸僧如麻粟知己同流者誰邂逅相逢者幾若是承鷲嶺之記戒座入自支那既載龍輦之儔審祖當露般若況復于參有進于機有投于里有同源者哉且禪人志不徇物心懷忠信行履披落雁之風慈悲噴護鵝之味只大事因緣俟之穎脫耳遂異號曰洞然更諱曰慧明為我聚雲法眷待他日枯木花發鼻孔撩天另有一番說話且截斷葛藤。

## 示隱首座

達磨云外息諸緣內心無喘心如牆壁可以入道後人又以洩訛公案生死關頭為銀山鐵壁必須透過始得山頭鼓浪海底揚塵隱首座已透此關然猶未忘最初一步欲請鍊壁自號老僧詎肯作嗇夫耶慨然贈之。

## 示三巴掌

九百星辰一齊下老僧如象又如馬政看鍬眉恁麼來江頭灑灑實瀟灑三巴掌實老僧趙州萬里外之弟子也老僧病中九日無粒不以為勞彼亦侍我無勞熟視之其眉如鍬故以鍬眉號之。

### 示慧申書記

聚雲有雙竹忽生考之花木紀則曰天親竹也然天親又是西域菩薩之號不知為竹之名何義說云出之海外世所罕有今以號燕居書記不亦異而揚推乎遂有偈巧奪天青趣移向聚雲生誰知虛節裡特地有乾坤。

### 示藏侍者

波瀾生于海島又出波瀾上有笑秦亭曠世何安安此笑秦亭之高雅處也今以號海藏侍者。

### 示燈瀚書記

軒轅氏取嶰谷之竹命伶倫作管籥之樂樂成而吹之陽則有六律陰則有六呂與鸞鳳之音相協音之所至群鳥侍側厥歌厥舞乃文乃德故謂之人籟而成後世之樂章也吹萬子美之曰人籟比竹兮音幽鸞歌鳳舞兮同儔能使其形兮取怒識破咸池兮自由興龍結制懷谷以書記執事索予別號因拈嶰竹而為之說云。

### 示燈瀾

子猷偏愛竹晝夜欲肖之何可一日無中虛而滿持此欲人人肖君子之竹也今以號沖谷侍者。

### 示燈圖

祖燈圖上益友為朋何以相聚唯竹唯松松以之實竹以之虛合友于梅無事不殊冠然物表曠世樞機此燈圖友梅之說也今以號拙度法孫。

### 示性潤

鍊身如似鶴粹入雙株松雪後驚傳節仍新上苑風此雙松樹之操履也今以號潤曾孫。

### 示慧得居士

儒云止定安慮即釋氏戒定慧法行者至于慧其道必得矣所以者何謂慮猶慧也故曰慮而後能得因以之名夫居士之名庶幾六度有毘梨耶之望。

### 示無寬禪人

軒轅氏築特室掩關三月而見廣成子廣成子曰來語汝至道乃以無視無聽抱神以靜為要始知無之功蓋亦大焉是必特室而後得也宗無者故號之以為鞭策可。

### 示慧紀居士

維慧維紀君子至止衣之匡之寧莫我已良哉是心靡不揣爾任運實馳釋尊非彼。

### 示慧直居士

佛法在世間不離世間覺離世覓菩提恰如求兔角在家道者若能了達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之大義即所謂見聞覺知無障礙聲香味觸常三昧矣予過懷素菴適居士覲而異之故書數語以約諸身體諸名。

### 示慧識居士

秋仲月歷融兩道眷勤敷規矩座于菊隱禪菴善人敬而聽之便自皈依其心抑亦皈依其識也轉識為慧何妙如之乃以慧識諱善人名則三身四智又豈外今日之因哉。

### 示燈道善人

夫道若大路然豈難知哉蓋道由心也是心靜而為德受而為仁行而為義用而為智在家善人捨此別悟即非道矣非其道亦失其心矣故卓吾子曰汝與我論道吾與汝論心六祖云若真修道人行正即是道善人體之則有得步光明藏之美。

### 示學人我見未化

心正如來怨心邪忍自顛忍心反不忍意識與回旋我山因有我見起難忘  
見磊磊胸膈開此岸復彼岸願你修學人策起眉毛看。

### 門牒語

諸方來者若會得五家宗旨的當方與老僧相見如或未然只宜虛心求示  
斷不可務一槩之機偏行之門慣擊石火閃電光舉了便會草草匆匆作者  
般狂子假如以僧儀相見不可謂老僧無語好。

### 閱錄有感

睦州老漢薦臨濟為大樹推雲門墮險岩語語驚人法法成範可稱真師子  
吼何以獨無繼嗣之衲子唯接一陳操居士還會麼大匠繩墨不為拙工改  
換千鈞鉅弩豈從鼯鼠發機寧作說吳客不做焚檀僧敢請勿疑。

### 勉學箴

或謂修行者但見性可耳何假于文字語言哉余曰可矣猶未也性可見而  
不可見不可見而能見是真見也于初學人詎能一旦至此耶必循循然善  
誘之故古德有言曰有為雖偽棄之則佛道難成無為雖真執之則慧性不  
朗達磨既云不立文字于楞伽四卷又若何為在衲子分上離文字亦見性  
不離文字亦見性而彼泥相之輩自不了達于事理之間則滯而不通反以  
文字為拘束也且孟子尚云博學而詳說之將以反說約也余欲學人趣大  
成于斯。

### 弟子箴

拒皂之釀不入土瓶金罍將之獅猊之乳不盛觶罈玻璃貯之蓋物有所當  
翁器有所當受亦貴賤清濁之不相紊也矧茲大道玄玄穆穆赫赫明明能  
天能地能人能萬物者豈以睢盱亢悍惰退驕逸之流而擅吾先天之自覺  
聖智也與是必有齷有肅有謙有莊者木叉既履奢摩既止爾焰既見異熟  
既空便可北而紅爐希冀翹足之想且問某弟子能若金罍玻璃也否曰蠶  
則績而蟹有匡范則冠而蟬有綏子皋之政奚為而不甞甞然以似因付之  
偈直伐東山管叔回六御相迎已至哉鷓鴣曲罷冰霜冷何必金藤字字開  
唳只此見如來。

### 佛殿(對聯)



這裡怎的機關但只數顛禪師衣佛印元帶石霜笏簡特標為正令權衡用  
將去亦不減相如奪璧他家甚麼活計猶可推畢吏部甕陶淵明巾劉伶鍬  
鍬真教作閒場今古會得來何須呀彌勒烹豬。

### 觀音殿

果進圓通毘紐相身四八變光垂法印陀羅手臂百千支(又)梵貝鳴鸚鵡  
慈波泛洛伽(又)總持一體雄千執隨類分身妙五觀。

### 善法堂

皇極八閭開金殿霞飛來鳳尾通明三漏響玉爐香裊匝龍墀。

### 玉帝殿

螺髻光中含玉陸帝珠影裡灼金欄。

### 東嶽殿

青螺懸冕障憑水月鏡花何處執洛迦牛耳赤芾映眉毫任鍊圍金鎖就中  
成薄梵雞園(又)陀林樹下飛光印法海波中濬覺花(又)菴羅傳玉簡駐續  
燦金蓮。

### 南浦興龍寺

棒喝門中直取太虛空未開口時消息鉗錘座下那容十法界嘗睜眼處機  
關(又)四十九年葛藤金燄蟾輝驢覷井千七百則公案雪花爐火箭開胸  
(又)七步已成香海浪雙煙更展日輪輝。

### 夔府藏經閣

性水轉法輪莫執三巴呈濬字心花翻貝葉還拈十里帶煙榴。

### 巴臺寺

鳴玉溪頭一派曹源相接濬巴臺月下雙株桂樹並交光(又)屏山月到巴  
臺夜字水風來祇樹新。

## 僧房

開土門前道鶴仙花咸笑語祇園樹下蠢鵝頑石共知音(又)雪山執策空  
人跡溪月無繩泛笛聲(又)種竹味清春埽雪培蘭影秀日生香(又)竹實餐  
餘梧當閣溶溪飲老菊為裳(又)依松隱室歡聲笑採茹還山樂睡歌(又)植  
松敬以浣塵胃卻詔專為踞草堂(又)白鷗為侶礮溪老明月隨船濮水仙  
(又)旋水波中歡魚腹桐江錦上喜羊裘。

## 敘府朝陽洞

海涯神驥標西識天岸祥麟應五宗(又)樓上月來清氣滿座間香裊妙花  
飛。

## 法堂

福慧雙修臨濟要玄棒下得說宗俱唱徑山觸背篋中觀(又)全身葉墮霜  
煙遍廣舌風飄竹徑長。

## 平都地藏寺

他家活計有柴棚人面遷為獸面這裡關頭無纏繳鐵山化作金山(又)吹  
毛空剖疊點雪紹非身(又)祇樹花成蓋嵩山髓作波。

## 山寺

境靜林幽野鳥數聲朝暮山清寺古閒雲幾度春秋(又)溪聲翻貝葉竹響  
頌潮音(又)山澗月來增瑞應林園風到拂塵煙(又)雲破月來虛裡色石穿  
水動寂中聲。

## 景德寺

雪下倚天山法苑階前堪斷臂風來巴字水僧衫布裡解吹毛(又)風來樓  
閣經翻貝月到林園鉢吐花。

## 佛堂

周旋曲折舉動謀為善惡由心造矣若就彼處兩手拽回大地黃金用不盡  
長短方圓隨機應事媿妍任鏡炤之更向此中一腳踏破彌天白萼墜無

窮。

### 送平都戴文學

綠草門前光太極青藜壁下耀甘泉(又)庭植三槐尚見黃金潛翰籍地生  
兩蔗還看碧玉產藍田。

### 送王東川

鉢社香廚更見仙華普散腹潛丹篆還知色鳥齊吞(又)筆下嵩岳看李賀  
橋邊駟馬識相如(又)秋色桂林香八月時芳桃浪影三春。

### 春聯

盛世懷周道清時夢禹公(又)金像光凝紗艷碧玉爐香裊席輝青(又)客到  
豈空談四壁圖書聊當飲年來無別事一簾花雨欲催新(又)衣沾紅杏兩  
袖惹綠楊風(又)一江巫峽月兩岸子規天(又)貢禹彈冠朋友信姜肱大被  
弟兄和(又)盛世從來人自樂豐年猶看雨當時(又)春江一夜遊魚戲翠岫  
三陽野鳥飛。

### 送文學

引紙萬言傾灑瀨撐腸千卷瀉瞿塘(又)御園春色紅綾貺帝座天香白鳳  
飛(又)穀中已入芙蓉報塔上先題楊柳彈。

### 慶佛誕

悟後六年成夢蝶覺來七步等空華。

### 忠南毘盧寺

優曇成世界假說字水巴江究竟何曾離這裡賴耶轉法身故現翠屏紫極  
到頭終不昧當然。

鶯來樹上砑詩興客去嶺頭慕笑聲(白飲洞)。

普眼光中雄甲冑三洲界裡灼金襴(殿)。

彌勒授時飛雪白善財啟處煖爐紅(善財參彌勒)。

華亭岸上機緣熟船子橈頭接應高(船子度夾山)。

一棒能開今古惑三拳始識死生機(黃檗打臨濟)。

趙州頭上開生死普願刀前斬悟迷(南泉斬貓)。

### 送居士

和光固識薰蕕別盡性還看物我同。

又

一飯蕊宮瞻玉席雙珠綠閣染金泥。

又

三槐宅上期元將五柳門前冀子喬。

又

栽松卻可浣塵胃植柳偏能習懶腰。

又

花林覲面香侵閣字水橫江影沒天(龍翔寺)。

又

三年更聽鳴雞語一卷還看吐鳳飛。

又

袖中出石生錢玉壁上題詩引桂蘭。

又

糴米題詩來羽客沉金問記起梅仙。

又

三語更飛金磔驚一經仍鬧玉堂仙。

又

廬清雲作友塌定月為燈。

吹萬禪師語錄卷之二十終

### 吹萬禪師塔銘

賜進士出身

欽命整飭兵巡兼理監軍道

湖廣參知政事浯江弟子田華國熏沐拜撰

州郊北有三目山為郡之項脈山龍小歇蜿結虯盤中創聚雲禪林迺闔郡縉紳士庶所就其謀始而圖成者則本郡侍御高公與家大人實主之(國)亦少與有力焉蓋以居吹萬禪師也禪師諱廣真熨道宜賓人俗姓李父祖三世為婆羅門師生有異徵詳載行錄幼而業儒長而事佛得法於月明聯池老人池嗣鐵牛遠遠嗣荊山寶寶嗣無念有有嗣二仰欽欽嗣小庵密密嗣一言顯顯嗣筏渡慈慈嗣苦口益益嗣淨慈明明嗣鼓山永永嗣西禪需需嗣大慧杲歷溯源流師固大慧十四世孫也大慧下十尊宿遞有機緣語

錄流傳至鐵牛月明但述相見之語付囑之偈大師崛起而中興之匪第光顯徑山鼎新臨濟而且扶宗拯弊身體力行師蓋千古法門之功臣也何以言之當師之時禪風衰晚師則慨然有從先之志套板時腔竊恥而不為是以涉海入吳穿閩過粵一帶煙霞物色盡在目中大都墨浪筆花競浮場社無有可其意者自湖東開法後便爾返棹錦江家君挽留卓錫樹幟雲根年來開堂眾至數千指師之教人每以慈悲真實忍辱為訓不稽之言不出諸口隨俗之事不行諸身凡其作則立規者皆準先正之典型而不以師心自用遐哉其不可及也嗚呼宗門割裂鬥爭成風家創一言人標一解硬節擔板之病中於膏肓師體醫王之慈痛為針灸故有病在一棒一喝以為直捷者師則救之以宗旨有病在習見習聞以為沿流者師則救之以悟明有病在承虛接響以為解會者師則救之以參證至於冒名祖位賣弄虛聲鄙棄律儀肆行誑誕種種疾患師無不看病用方諦觀普說小參總皆對症藥石(國)不肖雖不能窺其一斑挹其餘緒良由北面於師未嘗不從揮塵豎拂間識婆心而奉法旨也師殆不可及者哉師正錄十卷廣錄近百卷已屬水部尚書郎月崖熊公捐俸刊刻月崖諱汝學豫章人鐵公法子師之孫也刊成而師之法雨澍矣沐其澤者靡不沾其潤覺片言隻字皆有師之面目存焉則皆有師之鴻慈寓焉具眼者那肯錯過若夫端嚴相好和氣春風瞻師之容者咸生懽喜接師之範者極其讚嘆則又師之威儀盛德感召乎人者為自然爾嗚呼今之沽源流而付衣鉢者濫矣師獨不輕於授受必勘其行履見地垂範人天者而後許之如鐵壁慧機禪師則本川營山人三目慧芝禪師則吾郡劉氏子鐵眉三巴掌慧麗禪師則北直趙州柏鄉人之三公者皆師入室弟子也其餘得師之法或遠引山林或垂釣湖海者未可盡悉此則克振家聲丕承基業(國)之所目擊而心折者烏容不並述以紀其傳哉師住世五十八年開堂五處偶示疾山神悲號樹木摧折病中嘗歌唱自娛提持學侶如舊三月前謂侍者曰我臨終須大喝而去於崇禎十二年己卯七月三十日索筆書偈云朝打三千暮打八百要會聚雲眉毛出血擲筆危坐不語至午果大喝兩聲脫去茶毘煙至松冪結為五彩遍地荷香襲人起骨得黃金鎖子三莖當門二齒變為紫色五色舍利三百餘顆平都地藏寺迎十二顆建塔餘皆塔於本寺三目山之陽弟子(華國)謹拜首颺言而為之銘曰。

碧眼西來	不立文字	五葉一花
垂蔭奕世	徑山大慧	為臨濟宗
諡稱普覺	法海神龍	遞傳而下
迄師吹萬	中興祖道	光昭雲漢
大哉師模	罕與為儔	高豎三目
卑彼陵丘	自號頭陀	冠曰如醉
振鐸聚雲	提醒聾聵	當師之時
滿地狂禪	譬如獵馬	師痛加鞭

俾蹄嚙者	服厥銜轡	載馳載驅
知進知退	扶衰救弊	師亦孔艱
良藥苦口	為人所難	資學既優
且廣識量	俯視叢林	而踞其上
屏山落落	浯水悠悠	法雲常布
法雨常流	瞻師浮圖	儀型猶在
允矣宗猷	古今攸賴	

## 行狀

蜀東忠州三目山聚雲吹萬師翁諱廣真燮道宜賓人姓李氏父祖三世為婆羅門父無後禱于三世如來而生及誕日偶有優婆塞八人臨其舍一人指語父曰此八寶應真出興于世也母遂厭葷羶從茲食素三年離乳每見家庭左右嬰便大哭終日唯曰看羊去乃止啼至年十五在芸局邊與同學讀書偶見菊蕊芬芳借為嘆曰此花今歲凋零明春發生如舊嘗聞生死事大迅速無常墨花煙藻詎免生死乎竟絕學陟少峨峰參浩山老人問曰生死事大如何了得山曰鷺鷥臥雪參三日復問曰狐狸外躁木雞自安時如何山曰切莫動著翁曰向上更有事否山曰俟汝出家來與汝了卻維時不會此語耽著箇出家字樣復自思曰父母在庭何由脫得仍返里中偶得大慧祖師錄四冊晝夜不釋卷單以生從何處來死向何處去語時時提撕又得正法眼藏一錄苦參力究凡與意路合者便會意路不合如虎之踞于當途無進步處乃于家設棊几軍持立誓于像曰某參究此事志願饒益考妣解脫己身以及人天若不了悟定不出家朝暮頂禮四十八願禮畢仍舊提撕前語後遇一僧見訪問曰如何是佛翁擬開口僧曰不是不是經數期對話復云不是翁被者一筭把父母眷屬田園家業冷如冰炭至午值僧磨刀次急問如何是佛僧云我今日磨剃刀且待明日來翁于言下有省後入朱提參月明老和尚纔禮拜起明問如何是古佛心翁即拱手云請師尊重又問不用音聲與色身將何喚作本來人翁良久明休去復聞祖母病篤乃歸說法以助卓越未幾而逝服中每以佛法進為五鼎服闋二年胞弟二人長成始謀出家先一月有鬻衣道者謂里人曰此處不久當有至人出世翁果于萬曆四十一年癸丑七月初一日踰城入山禮月明和尚受具一日明謂曰汝猶有一句未會翁即問是那一句明曰不用音聲色身默然良久與我現出真空來翁拂袖而出自思曰此事不可草草是中必有玄要遂辭之佛子騫山是山多鬼魅翁至寂然無聞郡人嘗曰佛子山有道獸焉見之者眇翁樹菴于茲而獸恒伏于菴之右翁與說三皈之法乃逃于深林復不見矣一日忽見井路蒙茸交道意欲剪之次期屆井而左右皆刈如此種種異徵未可繁述汲水伐薪自炊自力苦參三載經行危坐脅不至席限滿復入朱提參觀月明和尚一見便問曰畢竟如何現出明引翁手掩其口豁然大悟

乃曰縱然奇特終是尋常明遂出臨濟正宗付之逮娛戲佛華三昧入法界品毗目仙人執善財手一須臾間歷過佛刹微塵數世界參見微塵諸佛法法不昧至事事無礙法界始解圓悟示張無盡用處從此五宗如臨濟玄要主賓料揀曹洞五位王子三滲漏三墮仰山圓相雲門高古法眼簡明句岳頭識句香岳獨腳南泉異類汾陽十智浮山九帶德山末後等句迴出微妙信長風之遊于太虛頓脫無宗若千日之洞于廣漠時本郡翠屏寺迎翁主藏隨機方便接得四人一法師一頭陀一優婆塞一優婆夷唯頭陀隱山三人化去仍返里中為母說法勸發道心竟策杖風塵一衲一瓢孤雲白下涉海入吳過閩踵粵旋楚至瀟湘湖東一帶煙霞無非搖塵析理墨浪筆花偶或見之何異神鼎忽慈明兜率藐清素有湖東主人霜輪者乃愍山首座道聲甚著見翁偉儀越格磊落塵表乃曰禪風久墜我兩人大家出隻手扶起翁但微笑時當萬曆四十六年戊午春也就于是月望日請翁開法堂中學人二百有餘皆詩賦經論之客忽一日上堂因僧問顏子喟然一節翁述以軟鍊硬綿之偈霜輪于座下高聲曰老和尚者話何來奈我蒲團上乏工夫耳學人聞言遂有異志翁恐主道有妨以慈悲喻慰竟托他故辭之獨攜武陵灼然澤公煙棹三峽過夔門太平寺寺主玄密預夢池中忽湧白蓮大花二莖香飛檐宇艷麗可人逮午而翁至矣密默默驚異願為法屬竟溯水忠南逅侍御田公無無居士挽留建刹延翁居焉是時海內學者馳于經論爭傳賢首談及斯事何異張咸池于洞庭翁憫學者難入幽微首著石室禪議以曉之次見士大夫每于三教至理溷而不一偏而未圓眇能貫徹一心洞達無體詆訕互興遂著一貫別傳原易說太極圖皆發揮三氏傍挾諸子古之帝王咸有衛佛之興翁嘆曰國朝之初寧無修教之說歟乃集大明御製勒為三卷進以識意題曰顯佛集至于說樂正論以規學解之偏說九辯以刺時流之舛說內篇以洞玄微之妙說規矩以正僧儀之失說三字經以修童稚之訓說古音王傳以敕煉石之乖復著文字禪那五卷楞嚴夢釋二十卷言語紀一卷恣夏草一卷心經詮註一卷禪林雅訓一卷正觀錄二卷問答錄四卷居士頌一卷本行錄二卷維摩診脈三卷圓覺解一卷楞伽三昧一卷金剛點眼一卷宗門正眼一卷正錄二十卷諸書既出薦紳士夫靡不頷之崇禎初侍御長公素菴居士挺身衛法復啟升堂入室正令全提由是四方學侶輻輳如雲因顏其院曰聚雲挹是義也翁之誨人必以徹證徹悟行解相應者而後可居常語曰諸方來者的的會得五家宗旨方許相見未然祇宜虛心求示斷不可務一槩之機偏行之門石火電光舉了便會草草忽忽作者般去又復性嗜山水瀟灑絕塵龍崖之左疊嶺而下松檜交加即疏松嶺也嶺間之石如龜文每當松風晚落蟾輝瀉影翁嘗揮麈于中名曰洛書傍有小澗雨久則瀑布作聲羅以卷石三座因呼為小小蓬萊恒以古之十二龍賓面山石而閱焉乃著蓬萊雨花二集厥後四輩敦啟有白馬之遊鼓柂金陵墨仙聞翁至特訪于客舍坐閒話及岩頭末後之語談說不倦仍具三衣頂禮乃曰蜀中護法願為半壁當軸首輔錢公太史雪灘陳公聞

之並欲勉瞿金陵發藥師以三巴佛法初弘未克溥濟竟辭所請因著南遊紀一卷船子曲一卷是時鑠金之徒多務馳逐競浮場社故有金陵小參由是返棹錦江薦紳士庶請建千日禪期維時會中得法悟徹者不啻數十人皆聞于時慶忠則翁分席上首第一座也其餘不可稱計臨江參戎尹寵居士捐金白粲延翁住巴臺巴臺在郡之西近城一拘廬舍法席既敞道俗往來如織眾至五千餘指夔之萬州向文學諱近蟾邑之季倫也聞翁法演巴國乃披荆著緇復請住雲來繼而徙興龍復返聚雲參學之士如見所親蓋翁智德高遠感召乎人耳天啟間有古戎陳子青衿在泮雅好紫姑虔禱數年感瓊華仙人徘徊于篆籀中匪獨岷山玉壘即三吳楚越之王侯士夫爭與之遊陳子歸蜀侍御田公邀于蘇莊遣使迎翁翁至瓊仙卷首大書曰山谷前身詢之則曰師乃宋太史黃山谷後身也贈其三絕其一曰山容此日有山靈我來訪客草青青前身黃谷今猶在一座明燈一卷經其二曰竹深雲塢樹茵苔我得登臨山色開一笑過溪親座處囊收天地古今懷其三曰君栖幽地任徐徐滿座深藏萬卷書秘著三車開世路千秋遺業古今圖坐中有嘆其異者翁曰公等不聞寒拾豐干乎是皆不啣溜底老古錐將者些子為藥為病即縛即脫化去應來總令堪忍中族姓子知煩惱曠內有無邊華藏也我何與哉聞者莫不欽服翁壽五十有八僧臘三十相好具足和氣春溫仁慈廓落草木不傷乃至遺屍腐骨咸恤憫焉偶示疾是月山神夜泣樹木摧折病中歌唱自娛提持學倡如舊三月前謂侍僧曰我臨終須大喝而去于崇禎十二年己卯秋七月三十日乃索筆書遺語及辭世偈云朝打三千暮打八百要會聚雲眉毛出血擲筆危坐至午果大喝兩聲脫去闍維煙至松冪結為五彩荷香遍地起骨得黃金鎖子三莖五色舍利三百餘顆當門二齒化為紫色入土者無數豐陵地藏院迎十二顆建塔餘皆塔。

西蜀嗣法孫至善沐手和南謹撰



---

## [CBETA 贊助資訊](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CBETA 成立於 1998 年，於 2023 年 8 月 7 日轉型成為基金會。成立多年來，一部部佛典在嚴謹控管中轉換為數位典藏，不只數量龐大，而且文字校訂精確可信，又加新式標點方便閱讀。「CBETA 電子佛典集成」不僅獲得國際學界的重視及肯定，也成為大眾廣為運用的公共資源，如此成果都是在廣大信眾及有識之士的支持下才得以實現。

對一個從事佛法志業的非營利團隊，能夠長期埋首理想、踏實耕耘是非常不容易的。如今，CBETA 運作經費日漸拮据，但「佛典集成」仍有許多未竟之功。因此，懇請大家慷慨解囊、熱情贊助，讓未來有更多更好的電子佛典。

您的捐款本會皆會開立收據，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

---

## 信用卡線上捐款

本線上捐款與 netiCRM 及 NewbPay 藍新金流合作，資料傳送採用 SSL (Secure Socket Layer) 傳輸加密，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

不管您持有的是國內或國外卡，所有捐款最終將以新台幣結算，所以我們所開立的捐款收據也將以新台幣計。

線上刷卡支持定期定額與單筆捐款。(銀聯卡不支援定期定額)

## [前往捐款](#)

---

### 劃撥捐款

郵政劃撥帳號: 5 0 4 6 8 2 8 5

戶名: 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欲指定特殊用途者, 請特別註明, 我們會專款專用。

---

### 線上信用卡 / PayPal 捐款

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 CBETA 引用其服務, 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

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相關收據開立事宜, 由於付款幣別為美元, 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 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 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

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

### [線上信用卡 / PayPal 贊助](#)

---

## 支票捐款

支票抬頭請填寫「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For donations by check, please write the check to  
"Comprehensive Buddhist Electronic Text Archive  
Foundation".

---